JANE AUSTEN · PRIDE AND PREJUDICE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

전3권 61장 · 1894년 휴 톰슨 삽화

1813년 영어 원문을 옮긴 한국어 번역입니다.
AI가 번역하고 검수했으며 전문 번역가의 교열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전61장 전체 본문 수록.

차례

제1권 5

제1장 6

제2장 12

제3장 18

제4장 28

제5장 34

제6장 41

제7장 55

제8장 67

제9장 80

제10장 90

제11장 104

제12장 114

제13장 118

제14장 127

제15장 134

제16장 143

제17장 162

제18장 169

제19장 195

제20장 206
제21장 216
제22장 227
제23장 236

제2권 245

제24장 246
제25장 257
제26장 266
제27장 278
제28장 286
제29장 295
제30장 308
제31장 315
제32장 324
제33장 333
제34장 344
제35장 356
제36장 370
제37장 381
제38장 389
제39장 396
제40장 405
제41장 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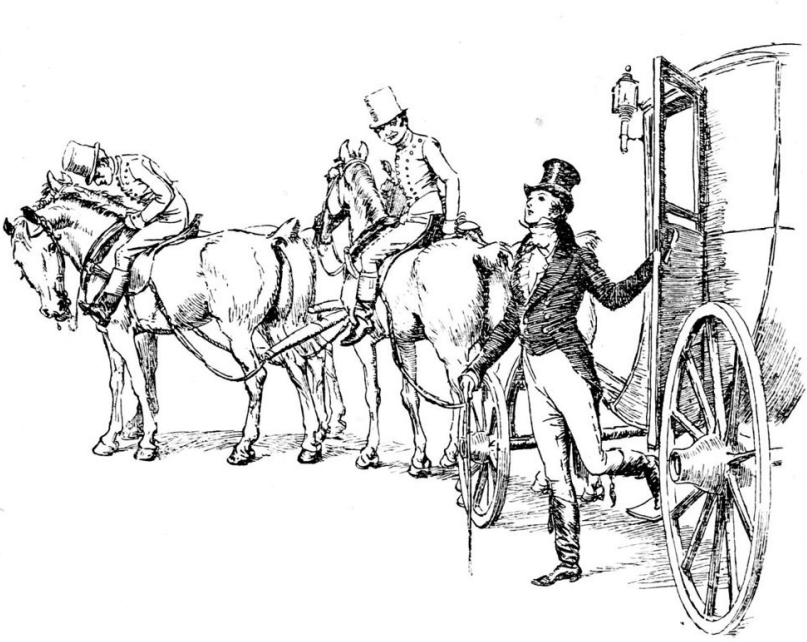
제42장 428

제3권 438

제43장 439
제44장 464
제45장 476
제46장 486
제47장 502
제48장 523
제49장 535
제50장 548
제51장..... 560
제52장 572
제53장 587
제54장 603
제55장 613
제56장 627
제57장 644
제58장 653
제59장 668
제60장 682
제61장.....691

제1권

제1장



휴 톰슨, 「집을 보러 내려왔다」(1894년 판 삽화)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가 있다. 상당한 재산을 가진 독신 남자라면 틀림없이 아내가 필요하리라는 것이다.

그런 남자가 처음 이웃에 들어설 때 그 속마음이나 생각이 아무리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이 진리는 주변 가족들의 머릿속에 너무도 단단히 박혀 있어서, 그는 그 집안들의 딸 가운데 누군가의 당연한 소유물처럼 여겨진다.

“여보,” 어느 날 베넷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네더필드 파크가 드디어 세가 나갔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베넷 씨는 못 들었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니까요,” 그녀가 되받았다. “롱 부인이 방금 여기 다녀갔는데, 그 얘기를 모두 해 줬어요.”

베넷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누가 세를 얻었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아내가 조급하게 소리쳤다.

“당신이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 모양인데, 듣는 건 나도 반대하지 않소.”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권유였다.

“여보, 그러니까 말이에요, 롱 부인 말로는 네더필드를 잉글랜드 북부에서 온 재산이 많은 젊은 남자가 얻었대요. 그 사람이 월요일에 네 필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와서 집을 둘러보았는데,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곧바로 모리스 씨와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성 미카엘 축일 전에 입주할 거고, 하인 몇 명은 다음 주 말까지 집에 들어올 거래요.”

“그 사람 이름이 뭐요?”

“빙리래요.”

“그 사람은 기혼이오, 미혼이오?”

“아, 그럼요, 미혼이죠, 여보! 재산이 많은 독신 남자, 일 년 수입이 사, 오천 파운드쯤 된대요. 우리 딸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오? 그게 딸들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여보,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지겨운 소리를 하세요?” 베넷 부인이 대답했다. “내가 그 사람을 우리 딸 중 하나와 결혼시킬 생각이라는 걸 당신도 알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속셈으로 이곳에 자리를 잡는단 말이오?”

“속셈이라뇨?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딸들 중 하나와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 오자마자 찾아가 인사를 해야 해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소. 당신과 딸들이 가도 되고—아니면 딸들만 따로 보내는 편이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소. 당신도 딸들 못지않게 고우니, 빙리 씨는 그중에서도 당신을 가장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잖소.”

“여보, 과찬이에요. 나도 한때는 남 못지않게 고왔지만, 지금 와서 특별하다고 내세울 생각은 없어요. 다 큰 딸을 다섯이나 둔 여자라면 제 미모 따위는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법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여자한테 생각할 만한 미모가 별로 남아 있지 않은 게 보통이오.”

“하지만 여보, 빙리 씨가 이 근처에 오면 당신은 꼭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해요.”

“분명히 말해 두지만, 그것까지는 약속 못 하오.”

“하지만 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중 한 아이가 그런 집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윌리엄 경과 루카스 부인도 바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꼭 찾아갈 작정이에요. 당신도 알다시피 그 두 사람은 대개 새로 온 사람을 찾아가지 않거든요. 정말이지 당신이 가지 않으면 우리도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없으니, 꼭 가셔야 해요.”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마시오. 빙리 씨도 당신을 만나면 틀림없이 반가워할 거요. 그리고 내가 편지 몇 줄을 써서 당신 편에 보내리다. 그 사람이 딸들 중 누구를 고르든 혼인을 기꺼이 허락한다는 뜻을 전하려고 말이오. 다만 우리 작은 리지를 위해서는 좋은 말 한마디 넣어 두어야겠소.”

“그런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리지는 다른 아이들보다 나을 게 조금도 없어요. 제인의 반만큼도 곱지 않고, 리디아의 반만큼도 싹싹하지 않은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늘 그 애만 편애하잖아요.”

“그 애들은 다들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소,” 그가 대답했다. “다른 계집애들처럼 모두 어리석고 무식하오. 다만 리지는 다른 자매들보다 조금 더 영리하오.”

“여보, 당신은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헐뜯을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걸 즐기시는군요. 가엾은 내 신경은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으시고요.”

“당신이 날 잘못 알았구려, 여보. 나는 당신의 신경을 아주 소중히 여기오. 그것들은 나의 오랜 벗이라오. 적어도 이십 년 동안 당신이 그것들을 애지중지하며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어 왔소.”

“아, 당신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시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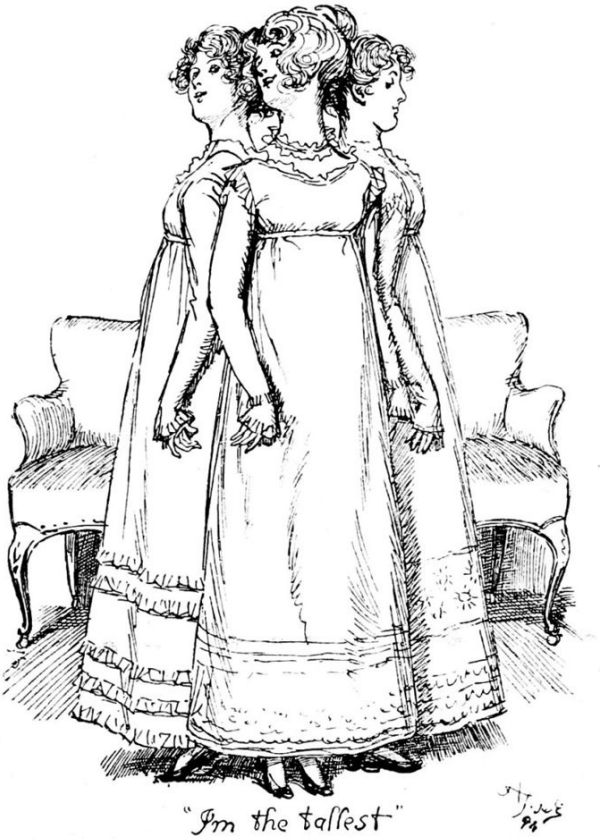
“하지만 당신이 그런 걸 이겨 내고, 일 년에 사천 파운드를 버는 젊은 남자들이 이 근방에 많이 들어오는 걸 볼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소.”

“설령 그런 사람이 스무 명 와도 당신이 찾아가지 않을 거니,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여보, 믿어 두시오. 스무 명이 오면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찾아가리다.”

베넷 씨는 재빠른 머리, 비꼬는 익살, 과묵함, 변덕이 기이하게 뒤섞인 사람이었다. 이십삼 년을 함께 살았어도 그의 아내는 남편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헤아리기가 한결 쉬웠다. 그녀는 이해력이 얕고 아는 것이 적으며 성질이 변덕스러운 여자였다. 불만이 생기면 자기가 신경이 예민하다고 여겼다. 그녀의 평생 과업은 딸들을 시집보내는 것이었고, 삶의 위안은 이웃 방문과 소문이었다.

제2장



휴 톰슨, 「내가 제일 키가 커」(1894년 판 삽화)

베넷 씨는 빙리 씨를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늘 찾아갈 생각이었지만, 아내에게는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장담하곤 했다. 그래서 방문을 마친 날 저녁이 될 때까지 베넷 부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일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드러났다. 베넷 씨는 둘째 딸이 모자를 손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이렇게 말을 걸었다.

"리지, 빙리 씨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우리는 빙리 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어머니가 못마땅한 투로 말했다. "방문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 잊으셨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무도회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텐데요. 롱 부인이 소개해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롱 부인이 그런 일을 할 거라고 믿지 않는다. 그 사람한테는 조카딸이 둘이나 있잖니.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여자라서 나는 그 사람을 좋게 보지 않는다."

"나도 그렇소," 베넷 씨가 말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니 다행이구려."

베넷 부인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참지 못하고 딸 가운데 한 명을 꾸짖기 시작했다.

"제발 그만 좀 기침하렴, 키티! 내 신경 좀 생각해 다오. 아주 찢어 놓을 셈이냐."

"키티는 기침에도 분별이 없구려," 아버지가 말했다. "때를 잘못 맞춘단 말이오."

"저는 제 재미로 기침하는 게 아니에요," 키티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리지 언니, 다음 무도회는 언제야?"

"내일부터 2주 뒤야."

"그래, 맞아," 어머니가 외쳤다. "그런데 롱 부인은 그 전날에야 돌아온다고 했지. 그러니 롱 부인이 빙리 씨를 소개하는 건 불가능하겠구나. 자기도 그 신사를 모를 테니까."

"그렇다면 여보, 당신이 친구보다 한발 앞서서 빙리 씨를 롱 부인에게 소개해 주면 되겠구려."

"불가능해요, 여보, 불가능하다고요. 나 자신도 그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놀릴 수가 있어요?"

"당신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건 존중하오. 두 주 동안의 사귐은 확실히 아주 짧소. 두 주 만에 한 남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소. 그래도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나설 것이고, 결국 롱 부인과 그분의 조카들도 기회를 얻어야 하지 않겠소. 그러니 당신이 그 일을 맡지 않겠다면, 그분은 그것을 친절이라 여길 테니 내가 직접 맡겠소."

딸들은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다. 베넷 부인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하고만 말했다.

"그렇게 힘주어 외친 말이 대체 무슨 뜻이오?" 그가 외쳤다. "소개의 격식과 그것에 두는 중요성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요? 나는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소. 메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알기로 너는 사색이 깊은 젊은 숙녀라, 위대한 책을 읽고 발췌도 해 두니 말이다."

메리는 뭔가 아주 현명한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메리가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그가 말을 이었다. "빙리 씨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나는 빙리 씨라면 지긋지긋해요." 그의 아내가 외쳤다.

"그렇다니 안타깝구려. 그런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오늘 아침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을 거요. 참 안된 일이지만, 이미 방문을 했으니 이제 와서 그 사람과 알고 지내는 것을 피할 수는 없소."

숙녀들이 놀라는 모습은 그가 바라던 바였다. 그중에서도 베넷 부인의 놀람은 아마 다른 누구보다 컸을 것이다. 다만 처음의 격한 기쁨이 가라앉자 그녀는 줄곧 그럴 줄 알고 있었다고 선언하기 시작했다.

"정말 잘하셨어요, 여보! 하지만 결국 당신을 설득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당신이 딸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사귐을 소홀히 하지는 않으리라고 확신했지요. 아이고, 얼마나 기쁜지! 게다가 오늘 아침에 다녀오고서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니, 정말 좋은 농담이에요."

"이제 키티, 기침을 얼마든지 해도 좋다." 베넷 씨는 그렇게 말하고, 아내의 환호에 지친 듯 방을 나갔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시구나." 문이 닫히자 그녀가 말했다. "너희가 아버지의 친절에 무슨 수로 보답할지 모르겠구나. 그 점에선 나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나이에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건 말이다, 정말이지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니란다. 그래도 너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리디아, 우리 귀염둥이. 네가 막내이긴 하지만, 다음 무도회에서 빙리 씨가 틀림없이 너와 춤을 출 거다."

"오, 나는 겁나지 않아요." 리디아가 씩씩하게 말했다. "나는 막내이긴 해도 키는 제일 크잖아요."

저녁의 나머지 시간은 빙리 씨가 언제쯤 베넷 씨에게 답방하러 올지 짐작하고, 언제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할지 정하는 데 쓰였다.

제3장



휴 톰슨, 「일행이 들어섰을 때」(1894년 판 삽화)

그럼에도 베넷 부인은 다섯 딸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물어보았지만, 남편에게서 빙리 씨에 관한 만족스러운 설명은 끝내 끌어내지 못했다. 그들은 노골적인 질문, 교묘한 짐작, 에둘러 하는 추측 등 여러 방법으로 그를 몰아세웠으나, 그는 그 모든 솜씨를 용케 피해 갔다. 결국 그들은 이웃인 루카스 부인이 전해 준 간접적인 정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보고는 매우 호의적이었다. 윌리엄 경이 빙리 씨를 만나 크게 흡족해했다는 것이었다. 빙리 씨는 아주 젊고, 놀랄 만큼 잘생겼으며, 몹시 붙임성이 좋았다. 게다가 가장 좋은 소식은 그가 다음 무도회에 많은 일행을 데리고 참석할 작정이라는 것이었다. 이보다 더 반가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춤을 좋아한다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확실한 첫걸음이었고, 모두들 빙리 씨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아주 큰 희망을 품었다.

"네더필드에 우리 딸 하나가 행복하게 자리 잡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베넷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나머지 아이들도 모두 그렇게 좋은 혼처에 시집보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어요."

며칠 뒤 빙리 씨는 베넷 씨의 방문에 답례하러 와서, 서재에서 그와 십 분쯤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아름답다는 소문을 많이 들은 아가씨들을 만나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본 사람은 아버지뿐이었다. 아가씨들은 그보다 조금 운이 좋았는데, 위층 창문에서 그가 푸른 외투를 입고 검은 말을 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뒤 만찬 초대장이 발송되었고, 베넷 부인은 벌써 자신의 살림 솜씨를 빛낼 요리 순서까지 짜 두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을 미루게 하는 답장이 도착했다. 빙리 씨는 다음 날 런던에 가야 해서, 초대의 영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베넷 부인은 몹시 당황했다. 하트퍼드셔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런던에 볼일이 생긴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이곳저곳으로 늘 떠돌아다니기만 하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도 네더필드에 정착하지 않을까 봐 걱정되기 시작했다. 루카스 부인은 그가

무도회에 데려올 많은 일행을 모으러 런던에 갔을 뿐이라는 생각을 내놓아 그녀의 걱정을 조금 덜어 주었다. 곧 빙리 씨가 무도회에 열두 명의 숙녀와 일곱 명의 신사를 데리고 올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아가씨들은 그렇게 많은 숙녀들이 온다는 소식에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무도회 전날 그가 열두 명이 아니라 런던에서 여섯 명만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위안을 얻었다. 그 여섯 명은 그의 누이 다섯과 사촌 한 명이었다. 그리하여 일행이 무도회장에 들어섰을 때 그 수는 모두 다섯뿐이었다. 빙리 씨, 그의 두 누이, 맏누이의 남편, 그리고 또 다른 젊은 신사였다.

빙리 씨는 잘생기고 신사다웠다. 그는 호감 가는 얼굴에 편안하고 꾸밈없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누이들은 확실히 유행을 따르는 기품을 지닌 멋진 여인들이었다. 매부인 허스트 씨는 신사다워 보일 뿐이었지만, 빙리 씨의 친구 다아시 씨는 키가 크고 훤칠한 용모와 잘생긴 이목구비, 고귀한 풍채로 곧 방 안의 시선을 끌었다. 게다가 그가 입장하고 오 분도 지나지 않아 일 년에 만 파운드의 수입이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신사들은 그를 훌륭한 체격의 사내라고 평했고, 숙녀들은 그가 빙리 씨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단언했다. 그리하여 저녁 시간의 절반쯤 동안 사람들은 그를 크게 찬탄하며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태도가 반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인기의 물결이 돌아섰다. 사람들은 그가 오만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며, 어떤 것에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더비셔에 있는 넓은 영지도 그가 몹시 쌀쌀맞고 불쾌한 인상을 주는 것을 막지 못했고, 그는 그의 친구와 비교할 만한 가치조차 없다고 여겨졌다.

빙리 씨는 곧 방 안의 주요 인사들과 모두 안면을 텄다. 그는 쾌활하고 허물없었으며, 춤이란 춤은 모두 추었고, 무도회가 그렇게 일찍 끝난다고 언짢아했으며, 네더필드에서 직접 무도회를 열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이처럼 사랑스러운 성품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절로 드러나는 법이었다. 그와 그의 친구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다아시 씨는 허스트 부인과 한 번, 빙리 양과 한 번 춤을 추었을 뿐, 다른 어떤 숙녀에게도 소개받기를 거절했고, 나머지 저녁 시간은 방 안을 이리저리 거닐며 가끔 자기 일행 중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데 보냈다. 그에 대한 평판은 그것으로 정해졌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오만하고 가장 불쾌한 사내였고, 모두가 그가 다시는 그곳에 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에게 가장 격렬한 반감을 품은 사람 중에는 베넷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전반적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가 그녀의 딸 하나를 무시한 일로 그 반감이 특별한 원한으로 날카로워졌던 것이다.

엘리자베스 베넷은 남자가 부족한 탓에 두 곡 동안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다. 그 시간 중 일부 동안 다아시 씨는 그녀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서 있었는데, 그는 빙리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빙리 씨는 춤을 추다가 잠시 나와서 친구에게 춤에 함께하자고 권하고 있었다.

"자, 다아시, 자네도 춤을 춰야겠네," 그가 말했다. "그렇게 우두커니 혼자 서 있는 꼴은 못 봐주겠어. 이런 따분한 짓은 그만두고 춤이나 추게. 그게 훨씬 낫지."

"난 절대 안 출 거야. 내가 파트너와 특별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춤추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자네도 알잖나. 이런 자리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 자네 누이들은 이미 춤 상대가 있고, 그 밖에 이 방에 있는 여자라면 누구와 춤을 추든 내게는 벌이야."

"내가 자네처럼 까다롭게 굴 수야 있나. 왕국을 준다 해도 싫다!" 빙리가 외쳤다. "내 명예를 걸고 말하는데, 난 평생 오늘 저녁만큼 유쾌한 아가씨를 많이 만나 본 적이 없어. 보다시피 그중 몇은 정말 예쁘기까지 하고."

"자네는 이 방에서 단 하나뿐인 미인과 춤추고 있잖나," 다아시 씨가 맏이 베넷 양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 내가 여태 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런데 자네 바로 뒤에 앉아 있는 그녀의 여동생 하나도 아주 예쁘고, 분명 아주 상냥할 거야. 내가 파트너에게 자네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 보겠네."

"어느 아가씨 말인가?" 그는 몸을 돌려 잠시 엘리자베스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자기 시선을 거두고 차갑게 말했다. "그저 봐줄 만하군. 하지만 내 마음을 끌 만큼 예쁘지는 않아. 게다가 다른 남자들에게 무시당한 아가씨들에게 관심을 줄 기분이 지금은 아니야. 파트너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미소나 즐기는 게 좋겠네. 나와 이야기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니까."

빙리 씨는 친구의 충고를 따랐다. 다아시 씨는 자리를 떠났고, 엘리자베스는 그에게 별로 좋은 감정을 품지 않은 채 남았다. 그래도 그녀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 이야기를 아주 신나게 들려주었다. 그녀는 명랑하고 장난기 많은 성격이라 우스꽝스러운 것이면 무엇이든 즐거워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은 온 가족에게 전체적으로 즐겁게 지나갔다. 베넷 부인은 맏딸이 네더필드 일행에게 크게 칭찬받는 것을 보았다. 빙리 씨는 제인과 두 번 춤을 추었고, 제인은 빙리 씨의 누이들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제인은 어머니만큼이나 기뻐했지만 그 기쁨을 조용하게 드러냈다. 엘리자베스도 제인의 기쁨을 느꼈다. 메리는 빙리 양에게 이 근방에서 가장 재주 많은 아가씨라고 소개되는 말을 들었다. 캐서린과 리디아는 운 좋게도 늘 춤 상대가 있었는데, 무도회에서 아직 신경 쓸 줄 아는 것이라곤 그것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기분 좋게 자기들이 사는 마을이자 자기들이 주요 주민인 롱본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니 베넷 씨는 아직 깨어 있었다. 그는 책을 읽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고, 이번에는 그토록 대단한 기대를 불러일으킨 저녁이 어떻게 되었는지 몹시 궁금해했다. 그는 아내가 그 낯선 손님에 대해 품은 기대가 모두 어긋나기를 은근히 바랐지만, 곧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 여보 베넷 씨," 그녀가 방에 들어서며 말했다. "우리 정말 기쁜 저녁을 보냈어요. 정말 훌륭한 무도회였답니다.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인이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말도 못 해요. 모두들 그 애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말했고, 빙리 씨는 제인을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두 번이나 같이 춤을 췄어요. 그걸 생각해 봐요, 여보. 정말로 두 번이나 같이 췄다니까요. 방 안에서 그가 두 번 청한 사람은 제인뿐이었어요. 처음에는 루카스 양을 청했는데, 그가 그 애와 춤추러 나서는 걸 보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는 루카스 양을 조금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 애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 제인이 춤추며 내려오는 걸 보고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애가 누구냐고 묻고 소개받고는 다음 두 곡을 같이 추자고 청했지요. 그다음 세

번째 두 곡은 킹 양과, 네 번째 두 곡은 마리아 루카스와, 다섯 번째 두 곡은 다시 제인과, 여섯 번째 두 곡은 리지와 췄고, 그다음은 불랑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를 딱하게 여겼다면," 남편이 참을성 없이 외쳤다. "그 반만큼도 춤을 추지 않았을 거요! 제발 그 사람 파트너 얘기는 그만하오. 아, 첫 곡에서 발목이라도 삐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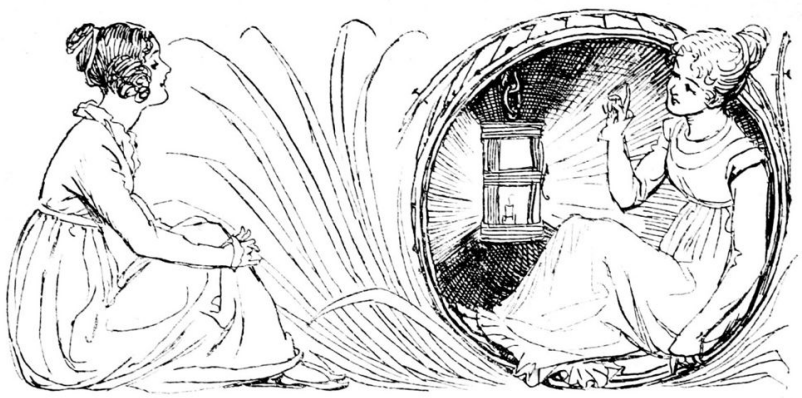
"아이고, 여보," 베넷 부인이 말을 이었다. "나는 그 사람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어쩌면 그리 잘생겼는지! 게다가 누이들도 매력적인 여자들이에요. 평생 그렇게 우아한 옷은 본 적이 없다니까요. 허스트 부인의 가운에 달린 레이스만 해도……"

그녀는 또다시 말이 끊겼다. 베넷 씨는 옷치장 얘기는 더 듣지 않겠다고 항의했다. 그래서 베넷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돌려, 다아시 씨의 끔찍한 무례함을 잔뜩 억울한 어조로, 약간 과장을 섞어 늘어놓았다.

"하지만 장담하는데," 그녀가 덧붙였다. "리지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지 못했다고 해서 잃는 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은 정말 불쾌하고 끔찍한 남자라서, 기쁘게 해 줄 가치가 조금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거만하고 잘난 체를 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도 으스대고 저기서도 으스대면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알더라고요! 같이 춤출 만큼 예쁘지
않다나요! 여보, 당신이 거기 있었더라면 그 사람에게 한마디
톡 쏘아붙여 줬을 텐데. 난 그 남자가 정말 싫어요.”

제4장



휴 톰슨, 제4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제인과 엘리자베스만 남았을 때, 앞서 빙리 씨를 두고 칭찬을 아껴 왔던 제인이 동생에게 그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를 털어놓았다.

"그 사람은 젊은 남자라면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 그대로야." 제인이 말했다. "분별 있고, 기질이 좋고, 활기가 넘쳐. 그렇게 보기 좋은 태도는 처음 봐! 그토록 편안하면서도 더없이 예의 바르다니!"

"그는 잘생기기도 했어."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젊은 남자라면 가능한 한 그래야지. 그러면 인품이 완벽해지거든."

"두 번째로 춤을 청해 줘서 정말 우쭐했어. 그런 호의는 기대하지 않았거든."

"그렇지 않았어? 난 언니 몫까지 기대했는걸. 하지만 그게 우리 둘의 큰 차이지. 칭찬은 언제나 언니를 놀라게 하고, 나는 한 번도 놀란 적이 없어. 그가 언니에게 다시 춤을 청한 게 뭐가 그리 놀라운 일이겠어? 방 안의 다른 어떤 여자보다 언니가 다섯 배는 예쁘다는 걸 그도 알 수밖에 없었잖아. 그건 그의 친절 덕분이 아니야. 그래, 그는 분명 아주 호감 가는 사람이야. 좋아해도 돼. 언니는 그보다 더 멍청한 사람도 많이 좋아했잖아."

"리지야!"

"아, 언니는 누구든 너무 쉽게 좋아하잖아. 누구에게서도 흠을 보지 못하잖아. 언니 눈에는 온 세상이 다 좋고 호감 가는 사람들뿐이지. 살면서 언니가 남을 헐뜯는 말을 하는 건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

"나는 누구를 비난하는 데 서두르고 싶지 않지만, 늘 내 생각을 말해."

"알아, 그래서 더 놀라운 거야. 그렇게 분별이 있는데도 남의 어리석음과 허튼소리를 꾸밈없이 정말로 못 보다니! 너그러운 척하는 건 흔하지. 어디서나 만날 수 있어. 하지만

과시나 속셈 없이 너그러운 건, 누구의 인품에서든 좋은 점만 취해 더 좋게 만들고 나쁜 점은 입에 올리지 않는 건, 오직 언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이 남자의 누이들도 좋아하는 거야? 그들의 태도는 그만 못하던데."

"처음에는 확실히 그만 못했지. 하지만 대화를 나눠 보면 아주 호감 가는 여자들이야. 빙리 양은 오빠와 함께 살면서 그 집안을 맡아 꾸릴 거야. 내가 크게 잘못 짚은 게 아니라면, 그녀는 우리에게 아주 매력적인 이웃이 되어 줄 거야."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들었지만 납득하지는 못했다. 무도회에서 그들의 행동은 전반적으로 호감을 살 만한 것이 못 되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보다 관찰력이 빠르고 성품이 덜 유순했으며, 자기는 아무 관심도 받지 못했으니 판단이 흐려질 일도 없었기에 그들을 좋게 보기가 어려웠다. 사실 그들은 아주 멋을 부린 숙녀들이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붙임성이 없지 않았고, 마음먹으면 호감 가게 굴 줄도 알았다. 그러나 거만하고 자만심이 강했다. 제법 미인이었고, 런던의 이름난 사립 학교 가운데 한 곳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재산이 이만 파운드나 되었다. 분수에 넘치게 돈을 쓰는 버릇이 있었고, 신분 높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다. 그러니 모든 면에서 자기들을 높이 치고 남을 얕볼 자격이 충분했다.

그들은 잉글랜드 북부의 존경받는 가문 출신이었다. 오빠의 재산과 자신들의 재산이 상업으로 모은 것이라는 사실보다, 그 출신 배경을 기억에 더 깊이 새기고 있었다.

빙리 씨는 아버지에게서 거의 십만 파운드에 이르는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영지를 사들이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빙리 씨도 같은 생각을 품고 있어서 때때로 어느 주(州)에 살지 골라 보곤 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는 좋은 저택과 장원의 권리가 생겼으니, 그의 성품이 얼마나 유순한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그가 남은 생을 네더필드에서 보내고, 영지를 사들이는 일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지 않을까 의심했다.

그의 누이들은 그가 자기 영지를 갖기를 몹시 바랐다. 그러나 그는 이제 세든 사람으로 자리 잡았을 뿐인데도, 빙리 양은 그의 식탁을 주재하는 일을 조금도 마다하지 않았다.
재산보다는 사교계의 세련미가 앞서는 남자와 결혼한 허스트 부인 역시, 자기에게 편할 때면 그의 집을 자기 집처럼 여기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빙리 씨는 성년이 된 지 이 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우연한 추천을 계기로 네더필드 저택을 보러 가게 되었다. 그는 반 시간 동안 저택을 살피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위치와 주요 방들이 마음에 들었고, 집주인이 내세우는 장점도 흡족했다. 그는 곧바로 그 집을 빌리기로 했다.

그와 다아시 사이에는 기질이 크게 달랐는데도 아주 든든한 우정이 있었다. 빙리는 느긋하고 솔직하며 남의 말을 잘 따르는 성품 덕분에 다아시의 사랑을 받았다. 다아시 자신과는 더없이 대조적인 기질이었다. 다아시는 제 기질에 불만을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빙리는 다아시가 자기를 아껴 준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고, 그의 판단력을 최고로 여겼다. 지적인 면에서는 다아시가 앞섰다. 빙리도 결코 모자라지 않았지만, 다아시는 영리했다. 그러나 다아시는 동시에 거만하고 속을 드러내지 않으며 까다로웠다. 그의 태도는 교양이 있었으나 사람을 끌어당기지는 못했다. 그 점에서는 친구가 훨씬 나았다. 빙리는 어디에 나타나든 호감을 샀지만, 다아시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두 사람이 메리턴 무도회를 두고 하는 말에도 각자의 성격이 잘 드러났다. 빙리는 평생 그렇게 유쾌한 사람들과 그렇게 예쁜 아가씨들을 만나 본 적이 없었다. 모두가 그에게 더없이 친절하고 살갑게 대해 주었다. 격식도 뻣뻣함도 없었다. 그는 금세 방 안의 사람들과 모두 친해진 기분이었다. 베넷 양으로

말하자면, 그녀보다 아름다운 천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반면 다아시는 아름다움도 거의 없고 세련미도 없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를 보았을 뿐이었다. 그는 그중 누구에게도 조금의 관심도 느끼지 못했고, 누구에게서도 관심이나 즐거움을 받지 못했다. 그는 베넷 양이 예쁘다는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웃는다고 했다.

허스트 부인과 그녀의 동생은 그렇다고 인정했다. 그래도 그들은 베넷 양에게 감탄하며 좋아했고, 사랑스러운 아가씨라고 평했다. 더 가까이 알아 가는 것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게 베넷 양은 사랑스러운 아가씨로 자리 잡았다. 그들의 오빠는 그런 칭찬에 힘입어 그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도 된다고 여겼다.

제5장



휴 톰슨, 「입 한 번 열지 않고」(1894년 판 삽화)

롱본에서 조금 걸으면 베넷 집안과 특히 가깝게 지내는 가족이 살고 있었다. 윌리엄 루카스 경은 예전에 메리턴에서 장사를 했는데, 그 일로 제법 넉넉한 재산을 모았고, 시장으로 재임하던 중 국왕에게 올린 연설 덕분에 기사 작위의 영예까지 얻었다. 아마 그 영예를 너무 크게 느꼈던 모양이다. 그 때문에 장사도, 작은 장터 마을에 사는 것도 싫어졌고, 두 가지 모두를 내던진 뒤 가족을 데리고 메리턴에서 1마일쯤 떨어진 집으로 옮겨 갔다. 이때부터 그 집은 루카스 저택이라 불렸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중요성을 흐뭇하게 되새기며, 사업에 얽매이지 않은 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구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작위에 우쭐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거만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누구에게나 극진하게 신경을 썼다. 천성이 모난 데 없고 다정하며 친절했는데, 세인트 제임스 궁전에서 알현한 뒤로는 한층 공손해졌다.

루카스 부인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베넷 부인의 소중한 이웃이 되지 못할 만큼 영리하지는 않았다. 루카스 부부에게는 자녀가 여럿 있었다. 그중 맏이는 스물일곱 살쯤 된 분별 있고 총명한 아가씨로, 엘리자베스와 가장 친한 친구였다.

루카스 집안의 아가씨들과 베넷 집안의 아가씨들이 만나 무도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무도회가 열린 다음 날 아침, 루카스 집안의 아가씨들이 롱본으로 찾아와 듣고 또 전하게 되었다.

"저녁을 잘 시작했구나, 샬럿." 베넷 부인이 루카스 양에게 예의 바르게, 그러나 스스로를 누르며 말했다. "빙리 씨가 맨 처음 고른 상대였잖니."

"그래요. 하지만 두 번째 상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아, 제인 말이구나. 그 사람이 제인과 두 번이나 춤을 추었으니까. 확실히 제인에게 반한 것처럼 보이긴 했지. 실은 정말 그랬던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었거든. 그런데 무슨 얘기였는지는 잘 모르겠구나. 로빈슨 씨에 관한 얘기였는데."

"아마 제가 빙리 씨와 로빈슨 씨의 얘기를 엿들은 걸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로빈슨 씨가 빙리 씨에게 우리 메리턴 무도회가 어떠냐고 묻고, 방 안에 예쁜 여자가 아주 많지 않으냐고, 그중 누가 제일 예쁜 것 같으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빙리 씨가 마지막 질문에 곧바로 '아, 맏이인 베넷 양이죠. 그건 두말할 나위 없어요. 그 점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어요'라고 대답했어요."

"세상에! 그것참, 아주 단호했던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뭐,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날지도 모르지."

"내가 엿들은 얘기가 네가 엿들은 것보다 더 요긴했어, 엘리자." 샬럿이 말했다. "다아시 씨는 친구만큼 귀 기울일 만한 사람이 아니지, 안 그래? 가엾은 엘리자! 겨우 봐줄 만한 정도라니."

"부탁이니 리지 머릿속에 그 사람의 무례한 대접 때문에 화가 나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 주지 말아 다오. 그 사람은 정말 비위에 거슬리는 남자라서 그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건 그 자체로 큰 불행이란다. 롱 부인이 어젯밤에 말해 주었는데, 그 사람은 반 시간 동안 부인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으면서도 입을 한 번도 열지 않았다더구나."

"정말 확실하세요, 어머니? 혹시 조금 잘못 아신 건 아닐까요?" 제인이 말했다. "저는 분명히 다아시 씨가 롱 부인에게 말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 결국 그 부인이 그 사람에게 네더필드가 마음에 드냐고 물었거든. 그 사람도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지. 그런데 말을 걸었다고 몹시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더구나."

“빙리 양이 그러던데요,” 제인이 말했다. “그 사람은 친한 사람들 사이가 아니면 말을 많이 하지 않는대요.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는 아주 호감 가는 사람이래요.”

“난 그 말을 한마디도 안 믿는다, 얘야. 그렇게 호감 가는 사람이었다면 롱 부인에게 말을 걸었겠지.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는 짐작이 간다. 모두들 그 사람이 오만에 찌들어 있다고 하지. 아마 롱 부인이 마차를 두지 않아서 무도회에 삯마차를 타고 와야 했다는 얘기를 어떻게든 들었던 모양이야.”

“롱 부인에게 말을 걸지 않은 건 저는 상관없어요,” 루카스 양이 말했다. “하지만 엘리자와 춤을 췄으면 좋았을 텐데요.”

“다음에는 말이다, 리지야,”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너라면 그 사람과는 춤추지 않겠다.”

“제가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 그 사람과는 절대 춤추지 않겠어요.”

“그의 오만은,” 루카스 양이 말했다. “흔히 오만이 그러는 것만큼 나를 거슬리게 하지는 않아. 변명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훌륭한 젊은 남자가, 집안도 좋고 재산도 있고 모든 게

유리하니,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걸 이상하다고 할 수는 없지. 그렇게 말해도 된다면, 그에게는 자부심을 가질 권리가 있어."

"그건 정말 맞는 말이야,"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그 사람의 오만쯤은 쉽게 용서할 수 있었을 거야, 그가 내 자존심에 상처만 주지 않았다면."

"오만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깊고 견실하다고 자부하는 메리가 말했다. "아주 흔한 결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읽은 것들에 따르면 정말로 아주 흔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인간의 본성이 특히 그쪽으로 기울기 쉽고, 실재하든 상상이든 어떤 자질에 대해 자기만족의 감정을 품지 않는 사람은 우리 중에 거의 없다고요. 허영과 오만은 같은 뜻으로 쓰일 때가 많지만 다른 것이에요. 사람은 허영심이 없어도 오만할 수 있어요. 오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과 더 관련이 있고, 허영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를 바라는지와 더 관련이 있어요."

"내가 다아시 씨만큼 부자라면," 누나들과 함께 온 어린 루카스가 외쳤다. "난 얼마나 오만한지는 신경 안 쓸 거야. 사냥개를 한 무리 기르고, 날마다 포도주를 한 병씩 마실 거야."

"그럼 너는 마셔도 될 양보다 훨씬 많이 마시겠구나," 베넷 부인이 말했다. "내가 그러는 걸 보기만 해도, 당장 네 술병을 빼앗을 거다."

소년은 베넷 부인이 그러지 못할 거라고 항의했다. 베넷 부인은 그러겠다고 계속 우겼고, 말다툼은 방문이 끝나고서야 그쳤다.

제6장



휴 톰슨, 「여러 사람이 간청하자」(1894년 판 삽화)

롱본의 숙녀들이 곧 네더필드의 숙녀들을 찾아갔다. 방문은 예의에 맞게 답례되었다. 베넷 양의 호감 가는 태도는 허스트 부인과 빙리 양의 호의를 얻었다. 두 사람은 어머니는 참을 수

없는 사람이고 동생들은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고 여겼지만, 두 언니와는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제인은 이 관심을 몹시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두 사람이 누구에게나, 언니에게조차 거의 예외 없이 거만하게 구는 것을 여전히 보았고, 그들이 좋아지지 않았다. 제인에게 베푼 친절이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었던 것은, 아마도 오빠가 제인에게 품은 호감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다. 빙리와 제인이 만날 때마다 그가 제인을 좋아한다는 것은 대체로 분명했다. 엘리자베스에게는 제인이 처음부터 그에게 품기 시작한 호감에 마음이 끌려 점점 깊이 사랑에 빠져 가고 있다는 것도 똑같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녀는 제인이 감정이 깊으면서도 침착한 성품과 한결같이 명랑한 태도를 함께 지녔으니, 무례한 사람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 대부분은 이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친구 루카스 양에게 털어놓았다.

"그런 경우에 세상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면 아마 기분 좋은 일일 거야." 샬럿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조심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때도 있어. 여자가 자기 마음을 상대에게까지 똑같이 능숙하게 감춘다면, 그를 붙잡을 기회를 놓칠지도 몰라. 그리고 세상도 똑같이 모른다고 믿는 것은 그때 가서 보잘것없는 위로밖에 안 되겠지. 거의 모든

애정에는 고마움이나 허영심이 섞여 있어서, 어떤 감정이든 저절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건 안전하지 않아.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어. 약간의 호감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격려받지 않고도 정말로 사랑에 빠질 만큼 마음이 큰 사람은 매우 드물어. 열에 아홉은 여자가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애정을 보여 주는 편이 나아. 빙리는 네 언니를 분명히 좋아해. 하지만 네 언니가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는 절대 나아가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제인은 제 성격이 허락하는 한 그를 돕고 있어. 내가 언니의 호감을 알아챌 수 있다면, 그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어리숙하지는 않을 거야."

"기억해, 일라이자. 그는 제인의 성격을 너만큼 잘 알지 못해."

"하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호감이 있으면서 그것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도 반드시 알아챌 거야."

"아마 그럴 거야, 그가 제인을 충분히 자주 만난다면. 하지만 빙리와 제인은 제법 자주 만나도 몇 시간씩 이어지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 그리고 두 사람은 언제나 여럿이 섞인 큰 모임에서만 만나니까, 매 순간을 둘이서 이야기하는 데

쓰기는 불가능해. 그러니 제인은 그의 관심을 붙잡을 수 있는 반 시간 한 번 한 번을 최대한 살려야 해. 그를 확실히 붙잡고 나면, 그때 가서 원하는 만큼 실컷 사랑에 빠질 시간은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네 계획은 좋은 계획이야."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좋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바람만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말이지. 내가 부자 남편이든 아무 남편이든 얻기로 마음먹었다면, 아마 그 방법을 택했을 거야. 하지만 제인의 감정은 그런 게 아니야. 언니는 계산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야. 아직은 자기 호감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이 합당한지조차 확신하지 못해. 빙리는 언니가 겨우 2주일 알고 지낸 사람이야. 메리턴에서 네 곡을 같이 춤췄고, 한 번은 그의 집에서 아침에 만났고, 그 뒤로는 여럿이 함께한 자리에서 네 번 저녁을 같이 먹었을 뿐이야. 그의 성격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려워."

"네가 말하는 것처럼은 아니야. 그냥 저녁만 같이 먹었다면, 그가 식욕이 좋은지나 알 수 있었을 뿐일 거야. 하지만 네 번의 저녁을 함께 보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해. 네 번의 저녁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그래, 그 네 번의 저녁으로 두 사람은 둘 다 커머스보다 뱅텅을 더 좋아한다는 것은 확인했겠지. 하지만 그 밖에 중요한 성격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글쎄," 샬럿이 말했다. "나는 제인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 제인이 내일이라도 그와 결혼한다면, 일 년 동안 그의 성격을 살펴본 뒤에 결혼하는 것만큼이나 행복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거야. 결혼 생활의 행복은 전적으로 운에 달린 문제야. 두 사람이 서로의 성격을 아무리 잘 알고 있더라도, 혹은 미리 아무리 비슷하더라도, 그것이 행복을 조금도 더해 주지는 않아. 두 사람은 나중에 언제나 충분히 달라져서 그 나름의 속상함을 겪게 되거든. 그러니 평생을 함께 보낼 사람의 결점은 가능한 한 적게 아는 편이 나아."

"너 때문에 웃음이 나, 샬럿. 하지만 그건 옳은 말이 아니야. 너도 옳지 않다는 걸 알잖아. 그리고 너 자신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빙리 씨가 자기 언니에게 보이는 관심을 살피느라 바빴던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그의 친구의 눈에 흥미로운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짐작하지 못했다. 다아시 씨는 처음에 그녀가 예쁘다고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무도회에서는 감탄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다음에 만났을

때도 그저 흠을 잡으려고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에 괜찮은 이목구비가 거의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과 친구들에게 분명히 하자마자,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 담긴 아름다운 표정 때문에 얼굴이 유난히 영리해 보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발견 뒤로 똑같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다른 발견들이 이어졌다. 그는 비평하는 눈으로 그녀의 몸매에서 완벽한 균형이 깨진 곳을 한두 군데 찾아냈지만, 그녀의 몸매가 날씬하고 보기 좋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 그녀의 태도가 유행하는 상류 사회의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으면서도, 그 거리낌 없는 명랑함에 그만 사로잡히고 말았다. 엘리자베스는 이 모든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에게 다아시 씨는 어디서든 붙임성 있게 굴지 않고, 그녀를 함께 춤출 만큼 예쁘다고 여기지도 않았던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기 시작했고, 직접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한 첫걸음으로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그녀가 알아챘다. 그곳은 윌리엄 루카스 경의 집이었고, 많은 손님이 모여 있었다.

“다아시 씨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녀가 샬럿에게 말했다. “내가 포스터 대령과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는 거야?”

"그건 다아시 씨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야."

"하지만 그가 또 그러면, 내가 그의 속셈을 알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 줄 거야. 그는 아주 비꼬는 눈빛을 가졌더라고. 내가 먼저 건방지게 굴기 시작하지 않으면, 곧 그가 무서워질 것 같아."

얼마 뒤 그가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말을 걸려는 기색은 없었지만, 루카스 양은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그에게 꺼내 보라고 도전했다. 그 말에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그렇게 해 보고 싶어져서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다아시 씨, 방금 제가 포스터 대령님께 메리턴에서 무도회를 열어 달라고 졸랐을 때 제가 말을 꽤 잘한 것 같지 않으셨어요?"

"대단히 힘차게요. 하지만 그건 숙녀라면 언제나 힘이 나는 주제죠."

"우리를 심하게 몰아붙이시네요."

"이제 곧 이 친구가 놀림을 당할 차례예요." 루카스 양이 말했다. "일라이자, 내가 악기 뚜껑을 열 테니,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너도 알지."

"너는 친구치고는 참 이상한 애야! 아무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늘 나더러 연주하고 노래하라고 하잖아! 내 허영심이 음악 쪽으로 갔더라면 너는 더없이 고마운 친구였겠지만, 지금은 최고의 연주를 늘 들어 왔을 분들 앞에서 정말이지 악기 앞에 앉고 싶지 않아." 하지만 루카스 양이 끈질기게 졸라 대자, 그녀는 덧붙였다. "좋아,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래야겠지." 그러고는 엄숙한 얼굴로 다아시 씨를 힐끗 보았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들 잘 아는 아주 좋은 옛말이 있죠. '숨은 아껴 두었다가 죽이나 식혀라'라는 말이요. 저는 제 숨을 아껴 두었다가 노래를 한껏 부르는 데 쓸게요."

그녀의 연주는 듣기 좋았지만, 결코 뛰어난 수준은 아니었다. 노래를 한두 곡 부른 뒤, 몇 사람이 다시 노래해 달라고 청했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동생 메리가 얼른 악기 앞자리를 이어받았다. 메리는 집안에서 유일하게 못생긴 딸이었기에 지식과 교양을 쌓으려고 열심히 애써 왔고, 그래서 늘 남들 앞에서 재주를 보여 주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메리는 재능도 취향도 없었다. 노력은 허영심에서 나왔지만, 그 허영심은 그녀에게 현학적인 태도와 자만하는 모습도 함께 주었고, 그것은 그녀가 이른 수준보다 더 높은 경지의

뛰어남까지도 해쳤을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편하고 꾸밈이 없었으며, 연주 솜씨는 메리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연주를 훨씬 더 즐겁게 들었다. 메리는 긴 협주곡을 끝내고, 방의 한쪽 끝에서 루카스 집안 사람들 몇몇과 장교 두세 명과 함께 춤추려고 열심이던 어린 여동생들의 청에 따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가락을 연주하며, 칭찬과 고마움을 사게 된 것을 기뻐했다.

다아시 씨는 그렇게 저녁을 보내는 방식이 못마땅해 말없이 그들 곁에 서 있었다. 모든 대화를 배제한 채 춤만 추는 것이 그에게는 달갑지 않았다. 그는 자기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기에, 윌리엄 경이 바로 옆에 와 있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다 윌리엄 경이 이렇게 말을 꺼냈다.

"이건 젊은이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소일거리로군요, 다아시 씨! 결국 춤만 한 게 없지요. 저는 그것을 세련된 사회가 갖춘 으뜸가는 교양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경.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덜 세련된 사회들 사이에서도 유행한다는 장점이 있지요. 야만인이라면 누구나 춤을 출 수 있으니까요."

윌리엄 경은 그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친구분은 춤을 참 훌륭하게 추시는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빙리가 무리에 합류하는 것을 보고 계속 말을 이었다. “다아시 씨, 당신께서도 춤 솜씨가 뛰어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메리턴에서 제가 춤추는 걸 보셨지요, 경.”

“그럼요, 정말 보았고 그 광경에서 적지 않은 즐거움을 얻었지요. 세인트제임스 궁전에서도 자주 춤추십니까?”

“절대 안 춥니다, 경.”

“그곳에 대한 적절한 찬사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가능하면 어떤 장소에도 바치지 않는 찬사입니다.”

“런던에 집이 있으신 모양이군요?”

다아시 씨가 고개를 숙였다.

“저도 한때 런던에 정착할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고상한 사교계를 좋아하니까요. 그러나 런던의 공기가 루카스 부인의 몸에 맞을지는 아무래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답을 기대하며 잠시 말을 멈췄지만, 상대는 대꾸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바로 그 순간 엘리자베스가 그들 쪽으로 다가오자, 그는 아주 신사다운 일을 해 보자는 생각이 번뜩 들어 그녀를 불렀다.

"친애하는 일라이자 양, 왜 춤을 추지 않는 거요? 다아시 씨, 이 아가씨를 아주 바람직한 파트너로 소개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앞에 있는데 춤을 거절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장담하지요." 그러고는 그녀의 손을 잡아 다아시 씨에게 건네려 했다. 다아시 씨는 몹시 놀랐지만 싫지는 않은 기색으로 손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즉시 손을 뒤로 빼며 다소 당황한 목소리로 윌리엄 경에게 말했다.

"정말입니다, 경. 저는 춤을 출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파트너를 구하려고 이쪽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다아시 씨는 점잖고 엄숙한 태도로 그녀와 춤추는 영광을 허락해 달라고 청했으나 소용없었다.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확고했고, 윌리엄 경이 설득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뜻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일라이자 양, 당신은 춤을 아주 잘 추니까, 당신이 춤추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을 내게서 빼앗는 건 잔인한 일이오. 그리고 이 신사가 일반적으로 그런 오락을 싫어한다 해도, 반 시간만큼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응해 줄 수 있으리라 나는 확신하오."

"다아시 씨는 아주 정중하시네요." 엘리자베스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 그렇소. 하지만 그 유혹을 생각하면, 친애하는 일라이자 양, 그가 이렇게 공손하게 나오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오. 이렇게 훌륭한 파트너를 누가 마다하겠소?"

엘리자베스는 짐짓 장난스럽게 눈빛을 던지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거절이 그 신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고, 그는 그녀를 꽤 흐뭇한 마음으로 떠올리고 있었는데, 그때 빙리 양이 말을 걸어왔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짐작할 수 있어요."

"짐작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은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많이 보내야 한다는 게 얼마나 견디기 힘들지 생각하고 계시죠. 실은 저도 전적으로 당신과 같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짜증 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그 밋밋함, 그런데도 시끄러움. 그 하찮음, 그런데도 자기만 잘난 줄 아는 태도라니! 그들에 대한 당신의 비평을 들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내놓겠어요!”

“장담하건대, 당신의 짐작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제 생각은 훨씬 더 즐거운 데 가 있었지요. 예쁜 여인의 얼굴에 박힌 아름다운 두 눈이 줄 수 있는 그 대단히 큰 즐거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빙리 양은 즉시 그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킨 것이 어느 숙녀인지 말해 달라고 청했다. 다아시 씨는 대단히 대담하게 대답했다.

“엘리자베스 베넷 양입니다.”

“엘리자베스 베넷 양이라고요!” 빙리 양이 되풀이했다. “정말 놀랍군요. 그녀가 언제부터 그렇게 마음에 드셨나요? 그리고 제가 언제쯤 축하 인사를 드리면 되나요?”

“그건 당신이 물어보리라 예상했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숙녀들의 상상력은 아주 빨라서, 찬탄에서 사랑으로, 사랑에서 결혼으로 순식간에 뛰어넘지요. 당신이 제게 축하 인사를 하시리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진지하다면 이 문제는 완전히 결정된 걸로 여기겠어요. 정말 매력적인 장모님이 생기시겠군요. 그리고 당연히 그분은 늘 펨벌리에서 당신과 함께 계시겠지요.”

그는 그녀가 이렇게 즐기는 동안 완전히 무관심한 얼굴로 듣고 있었다. 그가 침착한 모습을 보이자 그녀는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확신했고, 그녀의 재치는 거침없이 흘러나왔다.

제7장



휴 톰슨, 「기분 좋은 예언」(1894년 판 삽화)

베넷 씨의 재산은 거의 전부가 일 년에 이천 파운드를 내는 영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데 딸들에게는 안타깝게도 그 영지는 남자 상속인이 없을 경우 먼 친척에게 넘어가도록 정해져 있었다. 어머니의 재산은 그녀의 신분에 걸맞을 만큼 넉넉했지만, 베넷 씨 재산의 부족분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그녀의 아버지는 메리턴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그녀에게 사천 파운드를 남겨 주었다.

그녀에게는 필립스 씨와 결혼한 언니가 있었는데, 그는 그들의 아버지 밑에서 서기로 일하다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은 사람이었다. 또 런던에는 번듯한 상업 분야에서 자리 잡은 남동생이 있었다.

롱본 마을은 메리턴에서 겨우 일 마일 거리였다. 아가씨들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모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거나, 길 건너편 모자 가게에 들르기에 아주 편리한 거리였다. 가족 중 막내 둘인 캐서린과 리디아는 특히 이런 나들이를 자주 했다. 두 사람은 언니들보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기에, 달리 할 일이 없으면 아침나절의 무료함을 달래고 저녁에 나눌 이야깃거리를 얻으려고 메리턴까지 걸어가야 했다. 시골 전체가 아무리 소식이 없더라도, 두 사람은 언제나 이모에게서 무언가를 알아내는 재주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근처에 민병대 연대가 새로 도착한 덕분에 소식과 즐거움이 넘쳐났다. 연대는 겨울 내내 머물 예정이었고, 메리턴이 그 본부가 되었다.

이제 그들이 필립스 부인을 찾아가면 가장 흥미로운 소식을 얻게 되었다. 날마다 장교들의 이름과 연고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씩 늘어났다. 장교들이 묵는 숙소도 오래지 않아 비밀이 아니었고, 마침내 자매들은 장교들 본인까지 알게 되었다. 필립스 씨가 장교들을 모두 찾아갔고, 이 일은 조카딸들에게 전에는 몰랐던 행복의 원천을 열어 주었다. 그들은 장교 이야기 말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생기를 불어넣던 빙리 씨의 막대한 재산도, 소위의 군복 앞에서는 두 사람의 눈에 아무 가치가 없었다.

어느 날 아침 딸들이 이 주제에 대해 열띤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을 듣고 난 뒤, 베넷 씨가 냉담하게 말했다.

“너희가 이야기하는 투를 보니, 이 나라에서 제일 어리석은 계집애 둘인 게 분명하구나. 전부터 그렇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는 확신이 서는구나.”

캐서린은 당황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리디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카터 대위에게 감탄하는 마음을 계속 드러내며 그날 중으로 그를 만나 볼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런던으로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놀랍네요, 여보." 베넷 부인이 말했다.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쉽게 어리석다고 생각하다니요. 제가 누구의 자식을 깔보고 싶다면, 그건 제 자식만은 아닐 거예요."

"만약 내 자식들이 어리석다면, 나는 언제나 그걸 알아차리고 있기를 바랄 뿐이오."

"그래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얘들은 모두 아주 영리하답니다."

"나는 우리 두 사람이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이 점 하나뿐이라고 자부하오. 우리 생각이 모든 면에서 일치하기를 바랐지만, 막내 둘이 유난히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당신과 달라야겠구려."

"여보, 베넷 씨, 그런 계집애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별을 가졌으리라고 기대하면 안 되지요. 우리 나이가 되면, 저 애들도 우리처럼 장교 생각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거예요. 내가 붉은 웃옷을 아주 좋아하던 때가 있었지요. 사실 지금도

속으로는 그래요. 일 년에 오육천 파운드를 가진 말쑥한 젊은 대령이 우리 딸 중 하나를 원한다면, 나는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요전 날 밤 윌리엄 경 댁에서 포스터 대령이 군복을 입고 아주 근사해 보이던데요."

"어머니," 리디아가 소리쳤다. "이모가 그러는데, 포스터 대령하고 카터 대위가 처음 왔을 때만큼 왓슨 양네 집에 자주 가지 않는대요. 요즘은 클라크 서점 안에서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아주 자주 본다고 하더라고요."

베넷 부인은 하인이 베넷 양에게 줄 쪽지를 들고 들어오는 바람에 대답하지 못했다. 쪽지는 네더필드에서 온 것이었고, 하인은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넷 부인의 눈이 기쁨으로 반짝였고, 딸이 쪽지를 읽는 동안 그녀는 안달이 나서 소리쳤다.

"어머, 제인, 누가 보낸 거니? 무슨 얘기래? 그분이 뭐라고 하시니? 어서, 제인, 빨리 말해 봐라. 서두르렴, 얘야."

"빙리 양이 보낸 거예요." 제인이 말하고는 그것을 소리 내어 읽었다.

"친애하는 벗에게,

"오늘 루이자와 저랑 같이 저녁을 먹어 줄 만큼 동정심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평생 서로를 미워하게 될 위험이 있어요. 두 여자가 하루 종일 단둘이 마주 앉아 있으면 결국 다툼으로 끝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 쪽지를 받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와 주세요. 우리 오빠와 신사들은 장교들과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언제나 당신의,

"캐럴라인 빙리."

"장교들과 함께요!" 리디아가 소리쳤다. "이모가 그 얘기는 안 해 줬는데 참 이상하네요."

"외식이라니," 베넷 부인이 말했다. "참 안됐구나."

"마차를 써도 될까요?" 제인이 말했다.

"아니다, 얘야. 비가 올 것 같으니 말을 타고 가거라. 그러면 그곳에서 밤을 지내고 와야 할 게다."

"그렇게만 된다면 좋은 계획이겠네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집까지 바래다주겠다고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해요."

"아, 하지만 신사분들은 메리턴에 가려고 빙리 씨의 쌍두마차를 쓸 거다. 그리고 허스트 부부는 자기네 마차에 매어 둘 말이 없고."

“마차를 타고 가고 싶어요.”

“하지만 얘야, 네 아버지가 말을 내줄 수는 없을 거다. 여보, 말은 농장에서 써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농장에서 말이 필요할 때는 많은데, 정작 내가 농장에 쓸 수 있는 때는 그보다 훨씬 드물다오.”

“하지만 오늘 아버지가 말을 농장에 쓰실 수 있다면,”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어머니의 뜻은 이루어지는 셈이네요.”

결국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말들이 이미 쓰이기로 되어 있다는 대답을 받아냈다. 그래서 제인은 말을 타고 가야 했고, 어머니는 날이 궂을 거라는 밝은 예언을 여러 번 늘어놓으며 문 앞까지 그녀를 배웅했다. 어머니의 바람은 들어맞았다. 제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가 세차게 쏟아졌다. 동생들은 제인을 걱정했지만, 어머니는 기뻐했다. 비는 저녁 내내 멈추지 않고 내렸다. 제인이 돌아올 수 없는 것은 분명했다.

“정말이지 내 생각이 참 잘 맞아떨어졌구나!” 베넷 부인은 마치 비를 내리게 한 공이 전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계획이 얼마나

훌륭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네더필드에서 온 하인이 엘리자베스에게 줄 다음과 같은 쪽지를 가져왔다.

"내 가장 사랑하는 리지,

"오늘 아침 몸이 아주 좋지 않구나. 어제 비에 흠뻑 젖은 탓인 것 같아. 친절한 친구들이 내가 나아질 때까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는구나. 그들은 또 내가 존스 씨를 만나 보기를 권하고 있으니, 그분이 나를 보러 왔다는 말을 듣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픈 것을 빼면 내게 큰 문제는 없단다.

"안녕히."

"글쎄, 여보," 엘리자베스가 쪽지를 소리 내어 읽고 나자 베넷 씨가 말했다. "당신 딸이 위험할 만큼 심하게 앓아눕는다고 해도, 설령 죽는다고 해도, 그 모든 게 빙리 씨를 쫓아가려고 한 일이었고 당신의 지시대로 된 일이라는 걸 알면 위안은 되겠구려."

"아, 그 애가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사소한 감기로 죽지는 않아요. 잘 돌봐 줄 거예요. 거기 있는 동안은 아무 문제 없어요. 마차만 쓸 수 있다면 나도 가서 보고 올 텐데요."

엘리자베스는 정말로 걱정이 되어, 마차를 쓸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제인에게 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말을 잘 타지 못했으니, 걸어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렇게 진흙투성이인데 그런 생각을 하다니,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니!" 어머니가 소리쳤다. "거기 도착했을 땐 사람 꼴도 아닐 거다."

"제인을 보기에는 아무 지장 없을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이냐, 리지?" 아버지가 말했다. "말을 내달라는 뜻이냐?"

"아니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걷는 게 싫어서가 아니에요. 가는 이유가 있으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겨우 삼 마일이에요. 저녁 식사 전에는 돌아올게요."

"언니의 자비심이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이는지 감탄스럽구나." 메리가 말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의 충동은 이성에 따라 이끌어져야 해. 내 생각에는 노력도 언제나 요구되는 만큼에 맞춰야 하고."

“우리도 메리턴까지 같이 가 줄게.” 캐서린과 리디아가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두 사람과 함께 가기로 했고, 세 아가씨는 함께 길을 나섰다.

“우리가 서두르면,” 걸어가면서 리디아가 말했다. “떠나기 전에 카터 대위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을지도 몰라.”

메리턴에서 세 사람은 헤어졌다. 두 동생은 장교 한 명의 아내가 묵는 숙소로 갔고, 엘리자베스는 혼자 걸음을 이어 갔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들판을 하나하나 건너고, 울타리 계단을 뛰어넘고, 물웅덩이를 훌쩍 건너뛰며 조급하게 움직였다. 마침내 집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발목은 뻐근했고 스타킹은 진흙투성이였으며, 얼굴은 운동으로 달아올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 식사실로 안내되었는데, 제인을 뺀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모두를 적잖이 놀라게 했다. 이른 아침에 그 궂은 날씨에 삼 마일을 혼자 걸어왔다는 사실은 허스트 부인과 빙리 양에게 거의 믿기 어려운 일이었고, 엘리자베스는 그들이 그 일로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확신했다. 그래도 그들은 그녀를 아주 예의 바르게 맞아 주었다. 그들의 오빠 태도에는 예의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는데, 바로 호의와 친절이었다. 다아시 씨는 거의 말이 없었고, 허스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아시 씨는 걸어온 덕분에 그녀의 얼굴에 피어난 눈부신 생기에 감탄하면서도, 그녀가 이토록 멀리 혼자 온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었다. 허스트 씨는 오로지 자신의 아침 식사만 생각하고 있었다.

제인에 대해 물어본 엘리자베스에게 돌아온 대답은 그리 좋지 않았다. 베넷 양은 잠을 잘 자지 못했고, 일어나 있기는 하지만 열이 높아 방에서 나올 기운이 없다고 했다.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제인에게 안내되어 기뻤다. 제인은 놀라게 하거나 폐를 끼칠까 걱정되어 편지에 그렇게 보고 싶다는 마음을 적지 못했는데, 엘리자베스가 들어서자 기뻐했다. 하지만 제인은 긴 이야기를 나눌 기운이 없었다. 빙리 양이 자리를 비우고 둘만 남게 되자, 제인은 그곳에서 받은 각별한 친절에 고마움을 표하는 말밖에 거의 하지 못했다.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곁을 지켰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빙리 자매가 두 사람과 함께했다. 그들이 제인을 얼마나 아끼고 걱정하는지 보고서, 엘리자베스도 그들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약제사가 와서 환자를 살펴본 뒤, 짐작할 수 있듯이 독한 감기에 걸렸으니 그것을 이겨내도록 애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인에게 다시 자리에 누울 것을 권하고 약을 몇 가지 주겠다고 약속했다. 열 증세가 심해지고 머리가 몹시 아팠기 때문에 제인은 그 말을 순순히

따랐다. 엘리자베스는 잠시도 방을 떠나지 않았고, 다른 숙녀들도 자주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신사들은 나가 있었으므로, 사실 숙녀들은 다른 곳에서 할 일이 없었다.

시계가 세 시를 치자, 엘리자베스는 가야겠다고 느꼈고 아주 내키지 않는 기색으로 그렇게 말했다. 빙리 양이 마차를 내주겠다고 했고, 그녀는 조금만 더 권해 주면 받아들일 참이었는데, 제인이 헤어지는 것을 그토록 아쉬워하는 기색을 보이자 빙리 양은 마차를 내주겠다는 제안을 당분간 네더필드에 머물라는 초대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더없이 고맙게 승낙했고, 하인 한 명이 롱본으로 가서 식구들에게 그녀가 머문다는 것을 알리고 옷가지를 더 가져오기로 했다.

제8장



휴 톰슨, 제8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오후 다섯 시에 두 아가씨는 옷을 갈아입으러 물러갔고, 여섯 시 반에 엘리자베스는 저녁 식사에 불려 갔다. 그러자 예의 바른 안부 인사가 쏟아졌는데, 그 가운데 빙리 씨의 훨씬 더 각별한 걱정을 알아볼 수 있어 기뻤지만, 엘리자베스는 그 질문들에 썩 좋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제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자매들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감기에 걸리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자기들도 아픈 것은 얼마나 질색인지를 서너 번씩 되풀이했다. 그러고는 그 일을 더 생각하지 않았다. 제인이 바로 앞에 없을 때 자매들이 보이는 무관심 덕분에, 엘리자베스는 처음부터 품었던 그들에 대한 반감을 다시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그들의 오빠인 빙리 씨는 그 자리의 사람들 가운데 엘리자베스가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제인을 걱정하는 그의 마음은 분명했고, 엘리자베스 자신에게 베푸는 배려도 무척 반가웠다. 덕분에 엘리자베스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불청객으로 여긴다고 믿으면서도, 스스로 그만큼 불청객처럼 느끼지는 않을 수 있었다. 빙리 씨 말고는 누구도 그녀에게 거의 관심을 주지 않았다. 빙리 양은 다아시 씨에게 온 정신을 빼앗겨 있었고, 그녀의 언니 역시 그에 못지않았다. 엘리자베스가 앉은 자리 옆의 허스트 씨는 게으른 사람이었다. 그는 먹고 마시고

카드놀이를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엘리자베스가 소스를 진하게 끼얹은 요리보다 담백한 요리를 더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그녀에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엘리자베스는 곧장 제인에게 돌아갔고, 그녀가 방을 나서자마자 빙리 양이 그녀를 헐뜯기 시작했다. 그녀의 태도는 정말 형편없다고 단정 지었다. 거만함과 건방짐이 뒤섞여 있다고 했다. 대화할 줄도 모르고, 품위도 없고, 취향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다고 했다. 허스트 부인도 같은 생각이었고, 이렇게 덧붙였다.

"요컨대 그녀에게 내세울 것이라고는 먼 길도 잘 걷는다는 것뿐이에요. 오늘 아침 그녀의 모습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 거의 야생 짐승 같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루이자. 얼굴 표정을 감추기가 어려웠어요. 아예 오지 말았어야 할 우스꽝스러운 짓이었죠! 언니가 감기에 걸렸다고 왜 시골길을 이리저리 쏘다녀야 하는 거예요? 머리는 또 어땠는지, 그렇게 헝클어지고 엉망일 수가!"

"그래요, 그리고 페티코트도요. 그 페티코트를 봤기를 바라요. 진흙이 6인치 깊이로 묻어 있었어요, 틀림없이요. 가리려고 내려 입은 드레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묘사는 아주 정확할지도 모르지, 루이자." 빙리가 말했다. "하지만 나한테는 그런 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 오늘 아침 방에 들어왔을 때 엘리자베스 베넷 양은 아주 근사해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더러운 페티코트는 내 눈에 전혀 띄지 않았어."

"당신도 그걸 보셨겠죠, 다아시 씨." 빙리 양이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라면 여동생이 그런 꼴을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아니지요."

"혼자서, 완전히 혼자서, 진흙탕에 발목까지 빠지면서 석 마일이든, 넉 마일이든, 다섯 마일이든 아무튼 그 정도를 걸어왔다니!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역겨울 만큼 우쭐대는 독립심이고, 시골 소도시 사람답게 예의범절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태도 같아요."

"그건 언니에 대한 애정을 보여 주는 거니까 참 흐뭇한 일이지." 빙리가 말했다.

“걱정이에요, 다아시 씨.” 빙리 양이 반쯤 속삭이듯 말했다. “이번 일로 당신이 그녀의 아름다운 눈에 품었던 감탄이 꽤 줄어들었을 것 같아서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가 대답했다. “운동을 해서 오히려 더 반짝였으니까요.” 이 말 뒤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허스트 부인이 다시 말을 꺼냈다.

“나는 제인 베넷을 대단히 아껴요. 정말 착한 아가씨지요. 그녀가 좋은 짝을 만나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바라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에다 그렇게 변변찮은 집안과 인연이 있으니,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 걱정이에요.”

“이 베넷 자매들의 이모부가 메리턴의 변호사라고 언니가 말하는 걸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외삼촌도 한 명 있는데, 칩사이드 근처 어딘가에 살아요.”

“그거 아주 재미있군요.” 그녀의 여동생이 덧붙였고, 두 사람은 시원스럽게 웃었다.

“칩사이드 거리를 다 채울 만큼 외삼촌이 많다 해도,” 빙리가 외쳤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덜 유쾌해지지는 않을 텐데.”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신분 있는 남자와 결혼할 기회를 상당히 줄이는 건 틀림없어.” 다아시가 대답했다.

이 말에 빙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누이들은 진심으로 동의하면서, 사랑하는 친구의 천박한 친척들을 두고 한동안 신나게 웃었다.

그럼에도 식당에서 나오면서 그들은 다시 다정한 마음으로 제인의 방에 들러, 저녁 커피를 마시러 부를 때까지 그녀 곁에 앉아 있었다. 제인은 여전히 몸이 많이 불편했고, 엘리자베스는 밤이 늦을 때까지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제인이 잠든 모습을 보게 되자 엘리자베스는 마음이 놓였고, 그제야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기보다 오히려 옳은 일처럼 느껴졌다. 응접실에 들어서니 일행 모두 루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고, 그녀는 곧바로 함께하자는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그들이 큰 판을 벌이고 있으리라 짐작한 그녀는 사양했다. 그리고 언니를 핑계 삼아, 아래층에 머무를 짧은 시간 동안 책이나 읽으며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허스트 씨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카드놀이보다 독서를 더 좋아하세요?” 그가 말했다. “그건 좀 별나군요.”

"엘리자 베넷 양은," 빙리 양이 말했다. "카드놀이를 업신여기죠. 독서를 아주 좋아해서, 다른 어떤 것에서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나는 그런 칭찬도, 그런 비난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나는 책을 아주 많이 읽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많은 것들에서도 즐거움을 느껴요."

"언니를 간호하는 일이 즐거우시겠어요." 빙리가 말했다. "그리고 언니가 완전히 나은 걸 보면 그 즐거움이 곧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엘리자베스는 진심으로 그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몇 권의 책이 놓여 있는 탁자 쪽으로 걸어갔다. 빙리는 곧바로 자기 서재에 있는 다른 책들도 모두 가져다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신을 위해서도, 제 체면을 위해서도 소장한 책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게으른 사람이라, 책이 많지는 않은데도 제가 들춰 본 것보다는 많아요."

엘리자베스는 방 안에 있는 책으로도 충분히 골라 읽을 수 있다고 그에게 장담했다.

"저는 놀랍군요." 빙리 양이 말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적은 장서를 남기셨다니요. 다아시 씨, 펨벌리에는 정말 멋진 서재가 있지요!"

"좋아야 마땅하죠." 그가 대답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쌓아 온 것이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직접 많이 보태셨잖아요. 늘 책을 사들이시니까요."

"요즘 같은 시절에 가문의 서재를 소홀히 하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설마 소홀히 하실 리가요! 그 훌륭한 곳의 아름다움을 더해 줄 만한 일이라면 당신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찰스, 나중에 집을 지을 때 펨벌리의 절반만큼만이라도 멋지게 지으면 좋겠어."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정말이지, 그 근처에서 집을 사되 펨벌리를 본보기로 삼으라고 권하고 싶어. 잉글랜드 전체를 통틀어도 더비셔보다 좋은 주는 없으니까."

"기꺼이 그러지. 다아시가 팔겠다면 펨벌리를 통째로 사겠어."

"지금은 가능한 일을 말하는 거야, 찰스."

"맹세코 캐럴라인, 펨벌리는 흉내 내서 얻기보다 사서 얻는 편이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엘리자베스는 오가는 말에 정신이 팔려 책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녀는 곧 책을 완전히 내려놓고 카드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빙리 씨와 그의 큰누이 사이에 자리를 잡고 서서 게임을 지켜보았다.

"봄 이후로 다아시 양이 많이 자랐나요?" 빙리 양이 말했다. "저만큼 키가 클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엘리자베스 베넷 양 정도 키이고, 오히려 조금 더 큰 편이에요."

"다시 보고 싶어 얼마나 애타는지! 그 아이만큼 저를 기쁘게 한 사람은 만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얼굴, 그런 태도, 그 나이치고 그렇게 재주가 많다니! 그 아이의 피아노 연주는 훌륭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 놀라워," 빙리가 말했다. "어떻게 아가씨들이 다들 그렇게 재주가 많아지려고 그토록 참을성을 가질 수 있는지 말이야."

“모든 아가씨가 재주가 많다니! 아니, 찰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 전부 다 그렇다고 생각해. 다들 탁자에 그림을 그리고, 병풍을 꾸미고, 돈지갑을 뜨개질하잖아. 이 모든 걸 다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처음 듣는 아가씨 이야기는 늘 재주가 많다는 말부터 듣게 되더라.”

“네가 늘어놓은 흔한 재주 목록은,” 다아시가 말했다. “너무나 사실에 가까워. 그 말은 돈지갑을 뜨개질하거나 병풍을 꾸밀 줄 아는 정도로만 자격이 되는 많은 여성에게 붙여지고 있지. 하지만 여성 전반에 대한 네 평가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틀어도 정말로 재주가 많은 여성을 여섯 명 넘게 안다고는 자랑할 수 없어.”

“저도 그렇다고 확신해요,” 빙리 양이 말했다.

“그렇다면,”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재주 많은 여성이란 개념에는 꽤 많은 것이 들어 있겠군요.”

“그래요. 그 개념에는 꽤 많은 것이 들어 있어요.”

“아, 물론이죠,” 그의 충실한 조력자가 외쳤다. “보통 만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정말 재주가 많다고 존중받을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으려면

여성은 음악, 노래, 그림, 춤, 현대 외국어를 철저히 알아야 해요. 게다가 이 모든 것 말고도 몸가짐과 걸음걸이, 목소리의 울림, 말씨와 표현에서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지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절반만 받을 자격이 있을 뿐이죠."

"그런 여성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다아시가 덧붙였다. "그리고 그 모두에 더해, 폭넓은 독서로 정신을 가꾸어 더 실질적인 무언가도 갖춰야 해요."

"저는 이제 당신이 재주 많은 여성을 여섯 명밖에 모른다는 말에 놀라지 않아요. 오히려 한 명이라도 안다는 게 이상할 정도네요."

"같은 여성에게 그렇게까지 가혹해서, 이 모든 걸 갖춘 여성이 가능하다는 것조차 의심하는 거예요?"

"전 그런 여성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능력과 취향, 노력과 우아함이 한데 갖춰진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허스트 부인과 빙리 양은 둘 다 그녀가 넌지시 드러낸 의심이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람은 그런 설명에 맞는 여성을 많이 안다고 항의하고 있었는데, 허스트 씨가 두

사람에게 진행 중인 카드 게임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며 신랄하게 불평하면서 그들을 제지했다. 그 바람에 모든 대화가 끝나 버렸고, 엘리자베스는 얼마 뒤 방을 떠났다.

"엘리자 베넷은," 문이 닫히자 빙리 양이 말했다. "같은 여성을 깎아내림으로써 이성에게 호감을 얻으려는 젊은 아가씨들 중 하나예요. 제가 짐작하건대 많은 남자에게는 그 방법이 통하겠지만, 제 생각에 그건 시시한 수작이고 아주 비열한 기술이에요."

"분명히 그래요," 이 말의 주된 상대였던 다아시가 대답했다. "여성들이 때로 남을 사로잡기 위해 체면을 굽혀 가며 쓰는 모든 기술에는 비열함이 있어요. 교활함과 조금이라도 닿아 있는 것은 무엇이든 경멸스러워요."

빙리 양은 이 대답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해서 화제를 계속 이어 가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그들 곁으로 왔지만, 언니가 더 나빠져서 곁을 떠날 수 없다는 말만 했다. 빙리는 즉시 존스 씨를 불러오자고 재촉했다. 한편 그의 누이들은 시골 의사의 진찰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저명한 의사 한 명을 급히 런던에서 모셔 오자고 권했다. 엘리자베스는 이 제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빙리의 제안에는 그리 완강히

반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베넷 양의 상태가 확실히 나아지지 않으면 아침 일찍 존스 씨를 부르기로 정해졌다. 빙리는 마음이 몹시 편치 않았고, 그의 누이들은 자기들이 비참하다고 선언했다. 그래도 그들은 밤참을 든 뒤 이중창을 부르며 비참한 심정을 달랬다. 빙리는 자신의 마음을 달랠 더 나은 방법을 찾지 못해, 가정부에게 환자인 베넷 양과 그 동생을 가능한 한 모든 정성으로 돌보라고 지시했다.

제9장



휴 톰슨, 제9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엘리자베스는 밤의 대부분을 언니의 방에서 보냈고,
아침에는 빙리 씨가 아주 이른 시간에 하녀를 통해 보내온
문안과, 얼마 뒤 그의 누이들을 모시는 우아한 두 시녀가

보내온 문안에 그럭저럭 괜찮은 답을 보낼 수 있어서 기뻤다. 그러나 이렇게 병세가 나아졌는데도 엘리자베스는 롱본에 쪽지를 보내, 어머니가 제인을 찾아와 직접 상태를 살펴보고 판단해 주기를 청했다. 쪽지는 곧바로 보내졌고, 부탁은 그만큼 빠르게 이루어졌다. 베넷 부인은 두 막내딸과 함께 식구들이 아침 식사를 마친 직후 네더필드에 도착했다.

제인이 어떤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면 베넷 부인은 매우 괴로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딸을 만나 보고 병세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자, 그녀는 제인이 당장 회복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제인이 건강을 되찾으면 아마 네더필드에서 떠나야 할 테니 말이다. 그래서 그녀는 딸이 집으로 옮겨 달라고 청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같은 무렵 도착한 약제사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겼다. 어머니와 세 딸은 잠시 제인 곁에 앉아 있다가, 빙리 양이 나타나 권하자 모두 그녀를 따라 아침 식사를 하는 응접실로 들어갔다. 빙리는 베넷 부인이 보기에 베넷 양의 상태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기를 바란다며 그들을 맞이했다.

"정말이지 생각보다 나쁘더군요, 빙리 씨." 그녀가 대답했다. "그 애는 움직이기엔 너무 아파요. 존스 씨도 그 애를 옮길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빙리 씨의 호의에 조금 더 신세를 져야 할 것 같아요."

"옮기다니!" 빙리가 외쳤다. "그건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제 누이도 분명 옮기는 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충분히 믿으셔도 됩니다, 부인." 빙리 양이 차갑게 예의를 차려 말했다. "베넷 양이 우리 집에 머무는 동안에는 가능한 모든 배려를 받게 될 겁니다."

베넷 부인은 감사의 말을 아낌없이 늘어놓았다.

"그야 물론이지요," 그녀가 덧붙였다. "이렇게 좋은 분들이 아니었다면 그 애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애는 정말 많이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참을성 있게 견디고 있어요. 그 애는 늘 그렇답니다. 제가 만나 본 사람 중에서 그 애만큼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다른 딸들에게 자주 말해요. 너희는 언니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빙리 씨, 여기 방도 좋고, 자갈길 너머 전망도 참 아름답네요. 시골에서 네더필드만큼 좋은 곳은 알지 못해요. 임대 기간이 짧다고 해도, 설마 서둘러 떠날 생각은 하지 않으시겠지요?"

“제가 하는 일은 늘 서둘러 하게 되지요.” 그가 대답했다. “그러니 네더필드를 떠나기로 마음먹는다면, 아마 오 분 안에 떠나 버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여기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딱 당신다운 말이군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당신이 이제 저를 이해하기 시작한 모양이군요?” 그가 그녀 쪽으로 몸을 돌리며 외쳤다.

“오, 그럼요.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요.”

“저를 이렇게 쉽게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건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아무래도 한심한 일 같군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요. 깊고 복잡한 성격이라고 해서 당신 같은 성격보다 더 훌륭하거나 덜 훌륭하다고 꼭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리지야,” 어머니가 외쳤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고, 집에서 너에게 허락된 것처럼 그렇게 제멋대로 떠들지 마라.”

“몰랐어요,” 빙리가 곧바로 이어 말했다. “당신이 사람의 성격을 연구하는 사람인 줄은. 아주 재미있는 연구겠군요.”

"그래요. 하지만 복잡한 성격이 가장 재미있지요. 적어도 그런 이점은 있으니까요."

"시골에는 대개 그런 연구에 쓸 만한 대상이 별로 없지요," 다아시가 말했다. "시골 이웃들 사이에서는 아주 좁고 변화 없는 사회 속에서 움직이게 되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도 너무 많이 변하니까, 그 속에서는 늘 새롭게 관찰할 것이 있지요."

"그럼요, 정말이지요," 베넷 부인이 시골 이웃을 말하는 그의 태도에 기분이 상해 외쳤다. "제가 장담하건대, 시골에도 도시 못지않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모두가 놀랐다. 다아시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베넷 부인은 자신이 그를 완전히 이겼다고 여겨, 승리에 취해 계속 말을 이었다.

"저는 런던이 상점과 공공장소를 빼고는 시골보다 나은 점이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시골이 훨씬 즐겁지 않아요, 빙리 씨?"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그가 대답했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도시에 있을 때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둘 다 저마다 장점이 있어서, 어느 쪽에 있어도 똑같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빙리 씨 성격이 좋아서 그래요. 하지만 저 신사는," 다아시를 바라보며 그녀가 말했다. "시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잘못 아셨어요," 엘리자베스가 어머니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다아시 씨 말뜻을 완전히 잘못 아신 거예요. 그분은 시골에서는 도시만큼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말을 한 것뿐이에요. 어머니도 그건 맞다고 인정하셔야 해요."

"물론이지, 얘야, 아무도 그렇다고 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이 근방에서 사람을 많이 못 만난다는 말이라면, 내 생각엔 이만큼 큰 동네도 드물어. 우리가 식사를 함께하는 집만 해도 스물네 집이나 된단다."

엘리자베스를 배려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빙리는 웃음을 참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누이는 그만큼 조심스럽지 않아서,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다아시 씨를 쳐다보았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무슨 말이든 해야겠다고 여겨, 자기가 집을 떠나온 뒤로 샬럿 루카스가 롱본에 왔었는지 물었다.

"그럼, 어제 자기 아버지와 함께 들렀단다. 윌리엄 경은 참 기분 좋은 분이에요, 빙리 씨. 안 그래요? 정말 세련된 신사예요! 점잖고 편안하기도 하고요. 누구에게든 늘 할 말이 있죠.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아주 중요한 사람인 줄 알면서 입을 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점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샬럿도 같이 저녁을 먹고 갔어요?"

"아니, 그 애는 집에 간다고 했어. 파이 만드는 일로 찾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저로 말하자면, 빙리 씨, 저는 언제나 자기 일은 스스로 할 줄 아는 하인을 둬요. 우리 딸들은 다르게 키웠답니다. 하지만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루카스 집안 애들은 아주 착하답니다, 제가 장담해요. 예쁘지 않은 게 안타까워요! 샬럿이 그렇게 못생겼다는 건 아니지만, 그 애는 우리의 각별한 친구잖아요."

"그분은 아주 상냥한 아가씨인 것 같아요," 빙리가 말했다.

"아이고, 그럼요. 그래도 그 애가 아주 못생긴 건 인정하셔야지요. 루카스 부인 본인도 그렇게 말하면서, 제인의 미모가 부럽다고 저한테 자주 말했어요. 제 자식 자랑하는 건 좋지 않지만, 제인만큼 잘생긴 애를 자주 보기는 어렵죠. 다들 그렇게 말해요. 제 편애만 믿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애가 겨우 열다섯 살이었을 때, 런던에 사는 제 동생 가드너 집에 어떤 신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인에게 아주 반해 버렸지 뭐예요. 제 올케는 우리가 떠나기 전에 그 사람이 청혼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결국 하지 않았죠. 아마 제인이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도 그 사람이 제인에게 시를 지어 주었는데, 참 예쁜 시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애정은 끝났군요," 엘리자베스가 참을성 없이 말했다. "제 짐작엔 같은 식으로 무너진 사랑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을 몰아내는 데 시가 효과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아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네요!"

"저는 시를 사랑의 양식으로 여겨 왔습니다." 다아시가 말했다.

"튼튼하고 건강한 사랑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미 튼튼한 것에는 무엇이든 자양분이 되니까요. 하지만 가볍고 얇은 호감에 불과하다면, 훌륭한 소네트 한 편이면 그것을 완전히 굶겨 죽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아시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러자 뒤따른 잠깐의 침묵에 엘리자베스는 어머니가 또다시 망신을 당하지나 않을까 몸이 떨렸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떠오르는 말이 없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베넷 부인은 제인을 돌봐 준 데 대한 감사를 빙리 씨에게 다시 늘어놓기 시작했고, 리지까지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빙리 씨는 꾸밈없이 예의 바르게 대답했고, 여동생에게도 예의를 갖추어 이 자리에 맞는 말을 하도록 시켰다. 그녀는 실제로 그 역할을 해내긴 했지만 그다지 상냥한 기색은 없었다. 그래도 베넷 부인은 흡족해하며 곧 마차를 대라고 일렀다. 이 신호가 떨어지자 막내딸이 앞으로 나섰다. 두 딸은 방문하는 내내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 결과 막내가 빙리 씨가 이 고장에 처음 왔을 때 네더필드에서 무도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를 몰아세우기로 한 것이었다.

리디아는 열다섯 살의 통통하고 건강하게 자란 소녀였다. 살결이 고왔고 표정은 쾌활했다. 어머니의 총애를 받았는데, 그 애정 덕분에 일찍부터 사교계에 나섰다. 기운이 넘쳤고 타고난 자부심 같은 것이 있었다. 이모부 집의 푸짐한 식사와 자유분방한 태도 덕분에 그녀는 장교들의 호감을 샀고, 그들의 관심으로 그 자부심은 더욱 자신감으로 자라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무도회 이야기를 꺼내 빙리 씨에게 거침없이 말을 걸 수 있었고,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일 거라고 덧붙이며 약속을 상기시켰다. 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한 그의 대답은 어머니의 귀에 기분 좋게 들렸다.

"물론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언니가 회복되면 무도회 날짜를 원하시는 대로 정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언니가 앓고 있는데 춤을 추고 싶으시지는 않겠지요?"

리디아는 만족한다고 선언했다. "아, 그래요. 제인 언니가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낫겠어요. 그때쯤이면 아마 카터 대위가 다시 메리턴에 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빙리 씨가 무도회를 열고 나면," 그녀가 덧붙였다. "포스터 대령님께도 무도회를 열어 달라고 졸라야겠어요. 열지 않으면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베넷 부인과 딸들은 그렇게 자리를 떴고, 엘리자베스는 곧장 제인에게 돌아갔다. 자신과 가족의 행동은 두 숙녀와 다아시 씨의 입에 오르내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다만 다아시는 빙리 양이 고운 눈에 대해 아무리 재치 있는 농담을 던져도, 엘리자베스를 비난하는 데에는 끝내 동참하지 않았다.

제10장



휴 톰슨, 「아니, 그대로들 계세요」(1894년 판 삽화)

그날은 전날과 거의 비슷하게 지나갔다. 허스트 부인과 빙리 양은 오전 중 몇 시간을 병자와 함께 보냈는데, 그녀는 느리기는 해도 계속 회복되고 있었다. 저녁에는 엘리자베스가 응접실에서 그들 일행에 합류했다. 그러나 루 게임 탁자는 나오지 않았다. 다아시 씨는 편지를 쓰고 있었고, 그 곁에 앉은 빙리 양은 그의 편지가 어디까지 써졌는지 지켜보면서, 그의 여동생에게 전할 말을 핑계로 여러 번 그의 주의를 돌리려 했다. 허스트 씨와 빙리 씨는 피케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고, 허스트 부인은 그들의 승부를 지켜보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바느질감을 집어 들고, 다아시와 그의 곁에 앉은 여자 사이에 오가는 말을 듣는 데 꽤 흥이 났다. 그 여자는 다아시의 필체나 줄 맞춤, 편지의 길이를 두고 끊임없이 칭찬을 늘어놓았는데, 그 칭찬이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은 기묘한 대화를 이루었다. 그것은 엘리자베스가 두 사람 각각에 대해 품은 생각과 꼭 들어맞았다.

“다아시 양이 이런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은 유난히 빨리 쓰시는군요.”

“당신이 잘못 아셨어요. 저는 오히려 느리게 쓰는 편이에요.”

“일 년 동안 쓰셔야 할 편지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것도 사무 편지까지요! 저라면 정말 질색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일은 당신이 아니라 저에게 돌아오니 다행이군요.”

“누이동생에게 제가 몹시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 주세요.”

“전에 당신이 원하셔서 제가 이미 한 번 그렇게 전했어요.”

“펜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네요. 제가 고쳐 드릴게요. 펜 고치는 솜씨가 아주 좋거든요.”

“고맙습니다만, 저는 늘 제 펜은 제가 고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글씨를 고르게 쓸 수 있어요?”

그는 말이 없었다.

“누이동생에게 하프 실력이 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다고 전해 주세요. 그리고 탁자에 놓을 그 예쁜 장식 그림을 보고 제가 무척 감탄했다고도 알려 주세요. 그랜틀리 양의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 황홀감은 제가 다시 편지를 쓸 때까지 미뤄도 될까요? 지금은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자리가 없네요.”

"오, 그건 별일 아니에요. 일월에 그 애를 만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다아시 씨는 누이동생에게 늘 그렇게 길고 매력적인 편지를 쓰세요?"

"보통은 길게 써요. 하지만 늘 매력적인지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편지를 술술 길게 쓸 수 있는 사람은 글을 못 쓸 리 없다는 게 제 원칙이에요."

"그건 다아시에게 칭찬이 되지 못하겠어, 캐럴라인." 그녀의 오빠가 외쳤다. "다아시는 편지를 술술 쓰지 못하거든. 네 음절짜리 낱말을 고르느라 너무 골똘히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아, 다아시?"

"내 글쓰기 방식은 자네와 아주 달라."

"오," 빙리 양이 외쳤다. "찰스는 세상에서 제일 아무렇게나 편지를 써요. 낱말의 절반은 빼먹고, 나머지는 잉크 얼룩으로 뭉개 놓는다니까요."

"내 생각은 너무 빨리 흘러가서 그것을 표현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내 편지는 때때로 받는 사람에게 아무 생각도 전하지 못하기도 해."

"당신의 겸손함은, 빙리 씨,"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어떤 꾸지람도 무력하게 만들겠어요."

"겸손처럼 보이는 것만큼 속임수인 것도 없지요," 다아시가 말했다. "그것은 흔히 의견에 대한 무관심일 뿐이고, 때로는 에둘러 하는 자랑이기도 하지요."

"그럼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내 최근의 작은 겸손이라고 부르는 거야?"

"간접적인 자랑이지. 자네는 글쓰기에서 자기 결점을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니까. 그 결점이 생각이 빨리 흐르는 데서, 그리고 실행을 소홀히 하는 데서 나온다고 여기는 거야. 그것이 존경할 만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거지. 무엇이든 빨리 해내는 능력은 그것을 가진 사람이 늘 대단히 귀하게 여기는 법이고, 종종 그 결과물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개의치 않게 되지. 오늘 아침 베넷 부인에게 네더필드를 떠나기로 마음먹으면 5분 안에 떠나겠다고 말했을 때도, 그건 일종의 찬사, 자신에 대한 칭찬으로 한 말이었겠지. 그런데 꼭 해야 할 일을 끝내지 못하게 만들고, 자네에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없는 성급함에 그렇게 칭찬할 만한 게 무엇이 있지?"

"아니, 그건 너무하잖아," 빙리가 외쳤다. "아침에 한 어리석은 말을 밤까지 죄다 기억하다니. 그래도 내 명예를 걸고 말하지만, 내가 나 자신에 대해 한 말은 진실이라고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어. 그러니 적어도 나는 여자들 앞에서 잘난 척하려고 쓸데없이 성급한 사람인 척한 건 아니야."

"자네가 그렇게 믿었다는 건 의심하지 않아. 하지만 자네가 그렇게 재빨리 떠날 거라고는 전혀 확신할 수 없어. 자네의 행동은 내가 아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우연에 좌우될 거야. 그리고 만약 자네가 말에 오르고 있을 때 어떤 친구가 '빙리, 다음 주까지 머무는 편이 낫겠어'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하겠지. 아마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다른 한마디에는 한 달쯤 머물지도 몰라."

"그걸로 당신은 한 가지만 증명했을 뿐이에요,"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빙리 씨가 자기 성품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 말이에요. 당신은 지금 그를 본인이 직접 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보여 줬어요."

"저는 아주 기쁩니다," 빙리가 말했다. "제 친구가 한 말을 제 성격이 온화하다는 칭찬으로 바꿔 주셔서요. 하지만 그 신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쪽으로 해석하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최대한 빨리 말을 몰아 떠나 버렸다면, 그 친구는 분명 저를 더 높이 평가했을 테니까요."

"그럼 다아시 씨는 당신이 처음 품은 뜻의 성급함이, 그 뜻을 고집스럽게 지킨 것으로 상쇄된다고 여기실까요?"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아시가 직접 말해야겠네요."

"내가 인정한 적도 없는 의견을 내 것이라고 부르면서, 나더러 설명하라고 하시는군요. 그래도 당신 말대로라고 쳐 두죠, 베넷 양. 기억해 둬야 할 게 있어요. 빙리가 집으로 돌아와 계획을 미루기를 바란다고 우리가 가정한 그 친구는 그저 바랐을 뿐이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 하나 내놓지 않고 부탁만 했다는 거예요."

"친구의 설득에 쉽게, 선뜻 넘어가는 것은 당신이 보기에는 장점이 아니지요."

"확신 없이 굴복하는 것은 어느 쪽 판단력에도 칭찬이 되지 못해요."

"당신은 다아시 씨, 우정과 애정이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탁하는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으면, 이유를 들어 설득당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부탁을 쉽게 들어주게 되는 법이에요. 나는 당신이 빙리 씨에 대해 가정한 그런 경우를 특별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진 뒤에, 그때 그의 행동이 얼마나 분별 있었는지는 따져 보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보통의 평범한 경우에, 친구 사이에서 한쪽이 그리 중대하지 않은 결심을 바꿔 달라고 상대에게 부탁했을 때, 설득당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부탁을 들어준 사람을 나쁘게 여기실 건가요?"

"이 문제를 더 진행하기 전에, 이 부탁이 가지는 중요성의 정도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친밀함의 정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정해 두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빙리가 외쳤다. "세부 사항을 전부 들어 봅시다. 둘의 키와 덩치를 비교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베넷 양, 그게 논쟁에서 당신이 짐작하는 것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질 겁니다. 장담하건대 다아시가 저보다 그렇게 키가 크고 덩치 큰 사내가 아니었다면, 그를 지금의 절반만큼도 떠받들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특정한 때와 특정한 장소에서, 특히 자기 집에서, 그리고 할 일이 없는 일요일 저녁의 다아시보다 더 무시무시한 존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아시 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가 꽤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아서, 웃음을 참았다. 빙리 양은 오빠에게 그런 허튼소리를 한다며 나무랐고, 다아시가 당한 모욕을 두고 격하게 분개했다.

"나는 자네 속셈을 알겠어, 빙리." 그의 친구가 말했다. "논쟁이 싫은 거지, 그래서 이 얘기를 막고 싶은 거잖아."

"그럴지도 모르지. 논쟁은 말다툼과 너무 비슷하니까. 자네와 베넷 양이 내가 방을 나갈 때까지 그 얘기를 미뤄 준다면 정말 고맙겠어. 그다음에는 나에 대해 무엇이든 마음대로 말해도 좋아."

"당신이 부탁하는 건,"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내 쪽에서는 아무런 희생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아시 씨는 편지를 마무리하는 편이 훨씬 나을 거예요."

다아시 씨는 그녀의 충고를 따라, 편지를 마저 끝냈다.

그 일이 끝나자, 그는 빙리 양과 엘리자베스에게 음악을 조금 들려 달라고 청했다. 빙리 양은 서둘러 피아노 앞으로 갔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먼저 치라고 정중하게 청했는데, 엘리자베스가 역시 정중하게, 그러나 더 간곡하게 거절하자, 그제야 자리에 앉았다.

허스트 부인은 동생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두 사람이 그렇게 노래하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악기 위에 놓인 악보책 몇 권을 넘기면서, 다아시 씨의 눈길이 얼마나 자주 자신에게 머무는지 알아채지 않을 수 없었다. 그처럼 훌륭한 사람이 자신을 감탄의 대상으로 삼을 리 없다고 여겨졌지만,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쳐다본다는 것은 그보다 더 이상한 일이었다. 결국 그녀가 생각해 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올바름에 대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신에게 그 자리의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못되고 비난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의 눈길을 끈 것이라는 추측뿐이었다. 그 생각이 그녀를 괴롭히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를 좋아하는 마음이 워낙 적어서 그에게 인정받는 일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탈리아 노래 몇 곡을 연주한 뒤, 빙리 양은 발랄한 스코틀랜드 가락으로 분위기를 바꾸었다. 그러고 나서 곧 다아시 씨가 엘리자베스 곁으로 다가와 그녀에게 말했다.

“베넷 양, 이런 기회를 맞아 릴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지 않으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침묵하자 그는 약간 놀라서 질문을 되풀이했다.

“아,” 그녀가 말했다. “방금 하신 말씀은 들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바로 정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내가 ‘네’라고 하기를 바랐죠. 그래야 내 취향을 업신여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런 식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상대가 미리 품어 둔 경멸을 허탕 치게 만드는 걸 늘 즐겨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나는 릴 춤을 전혀 추고 싶지 않다고요. 자, 감히 그럴 수 있다면 나를 얼마든지 업신여겨 보세요.”

“정말 감히 그러지는 못하겠군요.”

엘리자베스는 오히려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리라 예상했기에 그의 정중함에 놀랐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에는 다정함과 장난스러움이 뒤섞여 있어서 누구를 모욕하기가 어려웠다. 다아시는 어떤 여자에게도 이토록 홀린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친척들이 변변치 않다는 점만 아니라면 자신이 자칫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빙리 양은 질투가 날 만큼은 보았거나 짐작했다. 사랑하는 친구 제인의 회복을 바라는 그녀의 간절한 마음은, 엘리자베스를 떼어 놓고 싶은 욕망 덕분에 더욱 힘을 얻었다.

그녀는 종종 자기 손님에 대한 다아시의 반감을 부추기려고,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될 거라는 말을 꺼내고 그런 결합 속에서 그의 행복을 그려 보이곤 했다.

"그 경사스러운 일이 이루어지면," 그녀가 말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이 관목 숲길을 함께 걷고 있을 때였다. "당신이 장모님께 입을 다무시면 얼마나 좋은지 몇 마디 귀띔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린 동생들이 장교들 뒤를 쫓아다니는 버릇도 고쳐 주시고요.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도 된다면, 당신의 부인께 있는 그 조금은 우쭐하고 무례한 구석도 좀 눌러 주셨으면 해요."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 또 제안하실 건 없나요?"

"오, 그럼요. 당신의 필립스 이모부와 이모 초상화도 펨벌리 화랑에 걸어 주세요. 판사를 지내신 당신의 종조부님 옆에 두시면 되겠네요. 아시다시피 같은 직업이니까요, 분야만 다를 뿐이죠. 그리고 당신의 엘리자베스 초상화는 그리게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겠어요. 그 아름다운 눈동자를 제대로 담아낼 화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 눈의 표정을 포착하기는 정말 쉽지 않겠지요. 하지만 색깔과 모양, 그리고 유난히 고운 속눈썹은 그대로 옮겨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그들은 다른 산책로에서 걸어오던 허스트 부인과 엘리자베스 본인과 마주쳤다.

"두 분이 산책하실 줄은 몰랐어요," 빙리 양이 말했다. 혹시 방금 한 말을 들었을까 봐 그녀는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었다.

"당신들이 우리를 몹시 못되게 대했어요," 허스트 부인이 대답했다. "나오신다는 말도 없이 그냥 도망치듯 가 버리셨잖아요."

그러고는 비어 있는 다아시 씨의 팔을 잡아, 엘리자베스를 혼자 걷게 내버려 두었다. 오솔길은 세 사람이 나란히 걷기에 겨우 충분한 폭이었다. 다아시 씨는 그들의 무례함을 알아채고 곧바로 말했다.

"이 길은 우리 일행이 걷기에 넓지 않군요. 차라리 가로수길로 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던 엘리자베스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대로 계세요. 세 분이 보기 좋게 어우러져 계신데, 아주 돋보이시잖아요. 넷이 되면 그림 같은 풍경이 망가질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즐거이 뛰어갔고, 여기저기 거닐며 하루이틀 안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들떴다. 제인은 벌써 많이 회복해서 그날 저녁에는 두어 시간 방을 나와 있을 작정이었다.

제11장



휴 톰슨, 제11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저녁 식사 후 여자들이 자리를 뜨자 엘리자베스는 언니에게 달려갔다. 언니가 추위를 충분히 막고 있는 것을 보고 언니를 데리고 응접실로 들어갔다. 거기서 두 친구가 반가워하는 말을 잔뜩 늘어놓으며 언니를 맞았다. 신사들이 나타나기 전 그 한 시간 동안 두 친구는 엘리자베스가 본 중에 가장

상냥했다. 그들은 대화 솜씨도 뛰어났다. 연회를 정확하게 묘사할 줄 알았고, 일화를 재치 있게 들려줄 줄 알았으며, 지인들을 두고 활기차게 웃을 줄도 알았다.

그러나 신사들이 들어오자 제인은 더 이상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다. 빙리 양의 눈길이 즉시 다아시에게로 향했고, 다아시가 몇 걸음도 떼기 전에 그녀는 그에게 할 말이 있었다. 다아시는 베넷 양에게 곧장 다가가 정중하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허스트 씨도 그녀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참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빙리의 인사는 훨씬 더 길고 따뜻했다. 그는 기쁨과 살뜰한 관심으로 가득했다. 처음 삼십 분은 방이 바뀌어 그녀가 추위를 겪을까 걱정하며 난로에 장작을 쌓아 올리는 데 쓰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부탁으로 문에서 더 멀리 떨어지도록 벽난로 반대편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그녀 곁에 앉아 다른 누구와도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맞은편 구석에서 일감을 들고 있던 엘리자베스는 그 모든 광경을 무척 즐겁게 지켜보았다.

차를 다 마시고 나자 허스트 씨가 처제에게 카드 탁자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빙리 양은 다아시 씨가 카드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래 알아냈고, 허스트 씨는 노골적인 부탁마저 곧 거절당했다. 빙리 양은 아무도 카드를 칠 생각이 없다고 그에게 단언했고, 그 문제에 대해 모두가

입을 다문 것이 그 말을 뒷받침하는 듯했다. 그리하여 허스트 씨는 소파 하나에 몸을 길게 뻗고 잠이나 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다아시는 책을 집어 들었다. 빙리 양도 똑같이 했다. 허스트 부인은 주로 팔찌와 반지를 가지고 노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이따금 오빠가 베넷 양과 나누는 대화에 끼어들었다.

빙리 양의 관심은 자기 책을 읽는 데 못지않게 다아시 씨가 책장을 넘기는 모습을 지켜보는 데에도 쏠려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묻거나 그의 책장을 훔쳐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어떤 대화에도 끌어들이지 못했다. 다아시 씨는 그녀의 질문에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책을 읽을 뿐이었다. 결국 빙리 양은 자기 책으로 즐거움을 얻으려는 노력에 완전히 지쳐 버렸다. 그 책은 다아시 씨가 읽고 있는 책의 제2권이라서 골랐을 뿐이었다. 그녀는 크게 하품을 하고는 말했다. “이렇게 저녁을 보내는 건 얼마나 즐거운지! 정말이지 독서만큼 즐거운 게 또 어디 있겠어요! 무엇이든 책보다는 훨씬 빨리 질리지요. 제 집을 갖게 됐을 때 훌륭한 서재가 없다면 분명 비참할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하품을 하고 책을 밀쳐 놓은 뒤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찾아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때 오빠가 베넷 양에게 무도회 이야기를 꺼내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갑자기 그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그건 그렇고 찰스, 네더필드에서 무도회를 열 생각을 정말로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야? 결정하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게 좋겠어. 내가 크게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우리 중에는 무도회를 즐거움이 아니라 벌처럼 여길 사람도 있을 테니까."

"다아시를 말하는 거라면," 오빠가 외쳤다. "그가 원한다면 시작하기 전에 잠자리에 들어도 돼. 하지만 무도회는 이미 정해진 일이야. 니콜스가 화이트 수프를 충분히 만들어 놓는 대로 초대장을 돌릴 거야."

"무도회를 다른 식으로 치른다면 나도 훨씬 더 좋아할 거야,"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런 모임이 흔히 흘러가는 방식에는 참을 수 없이 지루한 데가 있어. 춤 대신 대화가 중심이 된다면 분명 훨씬 더 이치에 맞을 텐데."

"그야 훨씬 더 이치에 맞겠지, 캐럴라인. 하지만 그건 무도회하고는 그리 비슷하지 않을 거야."

빙리 양은 대답하지 않았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매는 우아했고 걸음걸이도 훌륭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겨냥하고 있는 다아시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책에 빠져 있었다. 절박해진 마음에 그녀는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고 엘리자베스 쪽으로 돌아서서 말했다.

"엘리자베스 베넷 양, 제 본을 따라 방 안을 한 바퀴 돌아보기를 권해도 될까요? 한 자세로 그렇게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 무척 개운하답니다. 정말이에요."

엘리자베스는 놀랐지만 곧바로 응했다. 빙리 양은 자신의 친절을 베푼 진짜 목적도 이루었다. 다아시 씨가 고개를 들었다. 그쪽에서 나온 관심이 새로운 일이라는 것을 그도 엘리자베스만큼이나 분명히 알아차렸고, 무의식중에 책을 덮었다. 그들의 모임에 함께하자는 권유를 곧바로 받았지만, 그는 거절하면서 그들이 함께 방 안을 오가기로 한 이유를 두 가지밖에 짐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느 쪽 이유든 자신이 끼어들면 방해가 될 거라고 했다. 그는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빙리 양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몹시 알고 싶어서 엘리자베스에게 그의 말을 조금이라도 알아듣겠느냐고 물었다.

"전혀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틀림없이 그는 우리를 비꼬려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실망을 안겨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뜻을 묻지 않는 거죠."

그러나 빙리 양은 무슨 일로든 다아시 씨를 실망시킬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말한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끈질기게 설명해 달라고 졸랐다.

"설명해 드리는 데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빙리 양이 말할 틈을 주자마자 그가 말했다. "이렇게 저녁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은 두 분이 서로 속을 터놓는 사이라서 의논할 비밀스러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걸을 때 두 분의 몸매가 가장 돋보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첫 번째 이유라면 제가 완전히 방해가 될 테고, 두 번째 이유라면 난로 곁에 앉아서 두 분을 훨씬 더 잘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끔찍해라!" 빙리 양이 외쳤다. "그렇게 지독한 말은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한 대가로 어떻게 벌을 줄까요?"

"원하기만 하면 아주 쉬워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괴롭히고 벌줄 수 있어요. 그를 놀리고, 그를 비웃으세요. 그와 그렇게 가까우시니, 어떻게 하는지 아실 거예요."

"하지만 명예를 걸고 말하건대, 저는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그와 친하게 지내 봤지만 아직 그런 건 배우지 못했어요. 그의 차분한 기질과 침착한 태도를 놀린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 점에서는 그가 우리를 무시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웃는 일로 말하자면, 괜찮으시다면 웃을 이유도 없이 억지로 웃어서 괜히 우리만 웃음거리가 되지는 말아요. 다아시 씨는 혼자 뿌듯해하라지요."

"다아시 씨는 웃음거리로 삼을 수 없는 분이라고요!"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그건 참 드문 장점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드물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지인이 많아지면 제게는 큰 손해일 테니까요. 저는 웃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빙리 양은," 그가 말했다. "제게 실제보다 과분한 평가를 해 주셨군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도, 아니, 그들이 한 가장 현명하고 가장 훌륭한 행동들도, 평생의 첫 목표가 농담인 사람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지요."

"물론이죠,"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해요. 현명하거나 훌륭한 것을 조롱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리석음과 허튼소리, 변덕과 모순은 저를 즐겁게 해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고 웃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야말로 당신에게 없는 것이겠죠."

"아마 누구에게도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강한 이성을 종종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약점들을 피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허영심과 자존심 같은 것들이요."

"그렇습니다, 허영심은 참으로 약점이지요. 하지만 자존심은, 정신이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에게는 언제나 잘 다스려지는 법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미소를 감추려고 고개를 돌렸다.

"다아시 씨에 대한 조사는 끝난 것 같군요," 빙리 양이 말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떤가요?"

"저는 다아시 씨에게 결점이 없다고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도 숨기지 않고 스스로 그렇다고 인정했거든요."

"아닙니다," 다아시가 말했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결점은 충분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해력의 결점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 기질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마 너무 굽힐 줄 모르는 편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편할 만큼 굽히지 않는 것만은 분명하지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악덕, 그리고 제게 저지른 잘못을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빨리 잊지 못합니다. 제 감정은 누가 흔들려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제 기질은 아마 앙심이 깊다는 말을 들을 겁니다. 제 호의는 한번 잃으면 영원히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건 정말 결점이네요!"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풀리지 않는 앙심은 성격에 드리운 그늘이죠. 하지만 결점은 잘 고르셨네요. 그건 정말 웃을 수가 없어요. 제가 비웃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어요."

"세상 모든 기질에는 어떤 특정한 악으로 기우는 경향, 가장 좋은 교육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타고난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결점은 모든 사람을 미워하는 성향이군요."

"그리고 당신의 결점은,"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사람들을 일부러 오해하는 것이고요."

"이제 음악 좀 들어요." 빙리 양이 외쳤다. 자기가 낄 틈이 없는 대화에 싫증이 난 것이었다. "루이자, 허스트 씨를 깨워도 괜찮지?"

그녀의 언니는 조금도 반대하지 않았고, 피아노 뚜껑이 열렸다. 다아시는 잠시 생각해 본 뒤 그것이 싫지 않았다.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제12장



휴 톰슨, 제12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자매가 합의한 대로 엘리자베스는 이튿날 아침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그날 중으로 마차를 보내 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베넷 부인은 딸들이 다음 화요일까지 네더필드에 머물러 제인의 일주일을 꽉 채워 주기를 바라고 있었기에, 그전에 딸들을 반갑게 맞아들일 마음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답장은 좋지 않았다. 적어도 엘리자베스의 바람에는 맞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어서 집에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베넷 부인은 화요일 전에는 도저히 마차를 보내 줄 수 없다고 전해 왔다. 그리고 추신에는, 빙리 씨와 그의 누이가 더 머물라고 붙잡는다면 딸들을 조금 더 붙들어 두어도 괜찮겠다는 말이

덧붙어 있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더 머무는 것은 단호히 거절하기로 마음먹었고, 그런 부탁을 받으리라고도 기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쓸데없이 너무 오래 머무는 손님으로 보일까 봐 걱정되어, 제인에게 당장 빙리 씨의 마차를 빌리자고 졸랐다. 결국 애초에 그날 아침 네더필드를 떠나려던 계획을 밝히고 마차를 청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말에 여러 사람이 걱정하는 기색을 보였고, 적어도 다음 날까지만이라도 머물러 달라고 제인을 붙잡는 말이 충분히 오갔다. 그래서 떠나는 일은 이튿날로 미뤄졌다. 빙리 양은 그제야 자기가 그 연기를 제안한 것을 후회했다. 한 자매에 대한 그녀의 질투와 반감이 다른 자매에 대한 호감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그들이 이렇게 빨리 떠난다는 말을 듣고 진심으로 아쉬워했다. 그는 베넷 양에게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 떠나는 것은 그녀에게 안전하지 않다며 거듭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제인은 자기가 옳다고 느끼는 일에는 단호했다.

다아시 씨에게 그 소식은 반가운 것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네더필드에 머물 만큼 머물렀다. 그녀는 그가 바라던 것보다 더 그의 마음을 끌었고, 빙리 양은 그녀에게 무례하게 굴었으며 그에게는 평소보다 더 성가시게 굴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서 어떤 감탄의 기색도 새어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기로 현명하게 마음먹었다. 그녀의 마음을 부풀려 자기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할 만한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런 생각이 암시되었다면, 마지막 하루 동안 그의 행동이 그 생각을 확인하거나 짓밟는 데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목표를 굳게 지켰고, 토요일 내내 그녀에게 열 마디도 채 하지 않았다. 한 번은 삼십 분쯤 단둘이 남겨졌지만, 그는 아주 성실하게 책에만 매달려 있었고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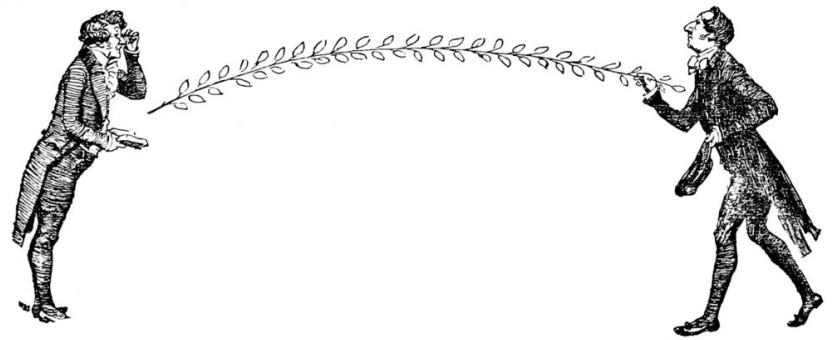
일요일 오전 예배가 끝난 뒤, 거의 모든 사람에게 반가운 이별이 이루어졌다. 빙리 양의 엘리자베스에 대한 예의는 마침내 아주 빠르게 높아졌고, 제인에 대한 호감도 함께 커졌다. 그들이 헤어질 때, 빙리 양은 롱본에서든 네더필드에서든 제인을 만나는 것이 자기에게 늘 기쁜 일이라고 확언하고 제인을 아주 다정하게 껴안았으며, 엘리자베스와도 악수까지 나누었다. 엘리자베스는 모두에게 한껏 명랑한 기분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그다지 반갑게 맞아 주지 않았다. 베넷 부인은 그들이 왜 왔는지 의아해했고, 그렇게 번거로움을 끼치는 것은 아주 잘못이라 여겼으며, 제인이

분명 또 감기에 걸렸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기쁨을 표현하는 말은 매우 간결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보게 되어 반가워했다. 그는 가족의 단란한 자리에서 딸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느끼고 있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의 저녁 대화는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없어서 활기를 많이 잃었고, 거의 알맹이도 없었다.

그들이 집에 가 보니 메리는 여느 때처럼 통주저음과 인간 본성 연구에 깊이 빠져 있었다. 메리는 새로 옮겨 적은 발췌문을 보여 주며 감탄을 청했고, 낡아빠진 도덕에 관한 새로운 의견도 들려주었다. 캐서린과 리디아는 그들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 지난 수요일 이후 연대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말이 오갔다. 장교 몇 명이 최근 이모부 댁에서 식사를 했고, 어떤 병사는 채찍형을 받았으며, 포스터 대령이 결혼할 것이라는 말까지 실제로 흘러나와 있었다.

제13장



휴 톰슨, 제13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여보, 나는 오늘 저녁 식탁에 좋은 음식을 올리도록 당신이 일러 두었기를 바라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베넷 씨가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 식구 모임에 누가 하나 더 낄 것 같아서 그렇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보? 샬럿 루카스가 잠깐 들르면 모를까, 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 그 애한테도 내 식사가 충분히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는 그런 음식을 자주 먹지 못할 테니까요."

"그 사람은 신사이고 낯선 사람이오."

베넷 부인의 두 눈이 반짝였다. “신사이고 낯선 사람이라고요! 틀림없이 빙리 씨겠네요. 어머, 제인, 너는 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구나. 이 엉큼한 것! 그래도 빙리 씨를 만나면 정말 반갑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를 어쩌나, 오늘은 생선을 구할 수가 없는데. 리디아, 우리 딸, 종 좀 울려라. 지금 당장 힐하고 얘기해야겠구나.”

“그 사람은 빙리 씨가 아니오.” 남편이 말했다. “내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오.”

이 말에 모두가 놀랐고, 아내와 다섯 딸이 한꺼번에 캐묻는 바람에 베넷 씨는 신이 났다.

그들의 궁금증을 한동안 즐긴 뒤에야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한 달쯤 전에 이 편지를 받았고, 보름쯤 전에 답장을 보냈소. 조심스레 다룰 일이라 서둘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내 사촌 콜린스 씨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에서 언제든 당신들을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이오.”

“오, 여보,” 베넷 부인이 소리쳤다. “그 얘기는 듣기도 싫어요. 제발 그 밉살스러운 사람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당신 재산을 친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속하게 묶여 있다니, 세상에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당신이었다면 진작 어떻게든 손을 써 봤을 거예요."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에게 상속 제한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보려 했다. 그런 시도는 전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것은 베넷 부인에게 도무지 이치가 통하지 않는 주제였다. 그녀는 아무도 관심 없는 남자에게 다섯 딸이 있는 집안의 재산을 넘겨주도록 정해 놓은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냐며 계속해서 분통을 터뜨렸다.

"확실히 아주 부당한 일이오." 베넷 씨가 말했다. "롱본을 물려받는 죄에서 콜린스 씨를 벗어나게 할 방법은 없소. 하지만 편지를 들어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 덕분에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질지도 모르겠소."

"아니, 그건 확실히 그럴 리 없어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편지를 쓴 것 자체가 아주 무례하고, 위선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거짓 친구가 싫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과 계속 다투고만 있을 것이지, 왜 굳이 편지까지 썼대요?"

"그러게 말이오. 들으면 알겠지만, 그 사람도 그 점에 대해 나름 자식 된 도리로서 망설임이 있었던 모양이오."

“헌스퍼드, 웨스터럼 근처, 켄트, 10월 15일.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선생님과 돌아가신 존경하는 아버님 사이에 이어져 온 불화가 저는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님을 여의고 나서는 그 틈을 메우고 싶었지만, 한동안은 저 자신의 망설임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늘 불화를 이어 가기를 바라셨던 분과 제가 가까이 지낸다면 아버님의 기억에 결례가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했던 것입니다.”—‘거 보시오, 여보.’—“하지만 이제 저는 그 문제에 대해 마음을 정했습니다. 부활절에 서품을 받은 뒤, 저는 과분하게도 루이스 드 버그 경의 미망인이신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의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부인의 은혜와 자비로 저는 이 교구의 귀중한 목사직을 맡게 되었는데, 앞으로 영부인께 감사의 마음으로 정중히 처신하고, 영국 국교회가 정한 의식과 예배를 언제든 집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게다가 성직자로서 제 영향력이 닿는 모든 가정에 평화의 축복을 전하고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지금 제가 내미는 선의의 손길이 매우 칭찬받을 만하다고 자부하며, 제가 롱본 재산의 상속 순위에서 다음 사람이라는 사실도 선생님 쪽에서 너그러이 넘겨 주시어 제가 내미는 올리브 가지를 거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랑스러운 따님들에게 해를 끼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치 않아, 그 일에 대해 사과드리고 따님들에게 가능한 모든 보상을 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혹시 저를 댁에 맞아들이는 데 이의가 없으시다면,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네 시까지 선생님과 가족들을 찾아뵙는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그다음 주 토요일까지 댁의 환대에 폐를 끼치게 될 듯합니다. 이는 아무런 불편 없이 가능한데, 캐서린 영부인께서는 대신 설교해 줄 다른 목사만 있다면 제가 일요일에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을 조금도 꺼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부인과 따님들께 정중한 인사를 전하며, 선생님의 안녕을 비는 벗으로서 이만 줄입니다.

"윌리엄 콜린스."

"그렇다면 네 시쯤 이 화해를 원하는 신사가 올 테니 기대해 봅시다." 베넷 씨는 편지를 접으며 말했다. "정말이지 아주 성실하고 예의 바른 젊은이로 보이오. 그리고 캐서린 영부인께서 그를 우리 집에 다시 보내 주실 만큼 너그러우시다면 더욱더 쓸모 있는 교제가 될 것이라고 의심치 않소."

"그래도 그 사람이 딸들에 관해 한 말에는 일리가 좀 있네요. 그러니 그 사람이 딸들에게 무슨 보상이라도 하고 싶어 한다면, 내가 나서서 말릴 생각은 없어요."

"비록 그가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한다고 여기는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하려는 것인지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제인이 말했다. "그런 마음을 먹은 것 자체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엘리자베스는 무엇보다 그가 캐서린 영부인을 극진히 받드는 모습과, 교구민들에게 필요하면 언제든 세례를 주고 결혼식을 올려 주고 장례를 치러 주겠다는 친절한 뜻에 놀랐다.

"그 사람은 좀 별난 사람인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말투에서 거드름이 잔뜩 느껴져요. 그리고 상속 순위에서 자기가 다음이라며 사과하는 건 무슨 뜻이죠? 할 수 있다 해도 그 사람이 그걸 마다할 리는 없잖아요. 아버지, 그 사람이 분별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다, 얘야. 그렇지는 않을 것 같구나. 편지를 보니 오히려 정반대일 거라는 기대가 크단다. 비굴함과 거드름이 뒤섞인 것이 아주 조짐이 좋구나. 빨리 그 사람을 만나 보고 싶구나."

“문장 구성으로 보면,” 메리가 말했다. “그 사람 편지는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올리브 가지라는 생각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닐지 몰라도,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캐서린과 리디아에게는 편지도, 편지를 쓴 사람도 조금도 흥미롭지 않았다. 사촌이 진홍색 상의를 입고 나타날 리는 없었고, 그 밖의 색깔을 입은 남자와 어울려 즐거움을 느낀 것도 이미 몇 주 전 일이었다. 어머니로 말하자면, 콜린스 씨의 편지가 그녀의 불쾌감을 상당 부분 걷어 갔고, 그녀는 남편과 딸들이 놀랄 만큼 차분한 태도로 그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콜린스 씨는 약속한 시각에 정확히 도착했고, 온 가족이 아주 정중하게 맞이했다. 베넷 씨는 실제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여자들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태세였고, 콜린스 씨도 격려가 필요해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 입을 다물 생각도 없어 보였다. 그는 키가 크고 묵직한 인상을 주는 스물다섯 살의 청년이었다. 태도는 진지하고 위엄 있었으며, 매너는 아주 격식을 차린 것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베넷 부인에게 이렇게 훌륭한 딸들을 두셨다고 칭찬하며, 따님들의 아름다움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이번만큼은 명성이 진실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때가 되면 딸들이 모두 좋은 자리로 시집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추켜세우기는 듣는 사람 중 몇몇에게는 그다지 달갑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칭찬에도 토를 달지 않는 베넷 부인은 아주 흔쾌히 이렇게 대답했다.

"아이고, 참 친절하시기도 하지요. 정말이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딸들이 아주 딱한 처지가 될 테니까요. 일이 어쩌다 이렇게 기묘하게 정해졌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재산의 상속 제한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 그럼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가엾은 딸들에겐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건 인정하셔야 해요. 그렇다고 댁을 탓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 일이란 게 다 운에 달린 거니까요. 상속 제한이 걸리고 나면 재산이 어떻게 넘어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법이잖아요."

"저는 아름다운 사촌 아가씨들이 겪을 곤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인.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제가 너무 나서거나 성급해 보일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아가씨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가씨들을 흠모할 준비를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마도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지면——"

그때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전갈이 와서 그의 말이
끊겼고, 딸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웃었다. 콜린스 씨가 감탄한
대상은 그들뿐만이 아니었다. 현관홀과 식당, 그리고 그 안의
가구들까지 모두 살펴보고 칭찬했다. 무엇이든 칭찬하는
그의 말은 베넷 부인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을 것이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장차 자기 재산으로 여기고 있으리라는
굴욕스러운 생각만 아니었다면. 이번에는 저녁 식사가
극찬을 받았고, 그는 이 훌륭한 요리가 사촌 아가씨들 중
누구의 솜씨인지 알려 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베넷 부인이
그의 말을 바로잡았다. 그녀는 다소 날카로운 목소리로,
자기들은 훌륭한 요리사를 충분히 둘 수 있으며 딸들은
부엌일에는 손도 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콜린스 씨는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한 데 대해 사과했다.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그녀는 전혀 기분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십오 분 가까이 계속해서 사과했다.

제14장



휴 톰슨, 「소설은 읽지 않는다고 항변하며」(1894년 판 삽화)

저녁 식사 동안 베넷 씨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인들이 물러가자 손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콜린스 씨가 빛을 발할 만한 화제를 꺼냈다. 콜린스 씨에게 후원자를 아주 잘 만난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이 그의 바람에 신경 쓰고 그의 편안함을 배려하는 모습이 몹시 인상 깊다는 것이었다. 베넷 씨는 이보다 더 좋은 화제를 고를 수 없었다. 콜린스 씨는 영부인을 칭찬하는 말을 줄줄이 늘어놓았다. 이 화제에 이르자 그는 평소보다 한층 더 엄숙한 태도가 되었고, 아주 중대한 표정으로 자신이 캐서린 영부인에게서 직접 겪은 것만큼 상냥하고 겸손한 태도를 신분 높은 사람에게서 평생 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캐서린 영부인은 그가 이미 영광스럽게도 영부인 앞에서 설교한 두 편을 친히 칭찬해 주셨다고 했다. 또 로징스에서 식사하라고 두 번이나 청하셨고, 바로 지난 토요일에는 저녁에 카드리유 놀이를 할 자리를 채우려고 사람을 보내 그를 부르셨다고 했다. 캐서린 영부인이 거만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영부인에게서 상냥함밖에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영부인은 언제나 그에게 다른 어떤 신사에게 말하듯 말씀하셨다. 이웃의 사교 모임에 끼는 것도 조금도 반대하지 않으셨고, 친척을 찾아가려고 교구를 한두 주씩 비우는 것도 허락하셨다. 심지어 신중하게만 고른다면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하라고 충고까지 몸소 해 주셨다. 한번은 그의 소박한 목사관을 방문하여 그가 해 온 모든 개조를 전적으로 마음에 들어 하셨고, 위층 벽장에 선반을 몇 개 달면 좋겠다고 직접 제안까지 해 주셨다고 했다.

"정말이지 그건 참으로 예의 바르고 점잖은 일이네요." 베넷 부인이 말했다. "그분은 아주 호감 가는 분인 것 같아요. 지체 높은 귀부인들이 대개 그분 같지 않은 게 안타까워요. 그분은 댁 근처에 사시나요, 선생?"

"제 보잘것없는 집이 서 있는 정원은 영부인께서 사시는 로징스 파크와 길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과부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선생? 자녀는 있으신가요?"

"따님이 한 분뿐인데, 로징스와 막대한 재산의 상속녀입니다."

"아아," 베넷 부인이 고개를 저으며 외쳤다. "그럼 그 아가씨는 많은 처녀들보다 형편이 낫네요. 그런데 어떤 아가씨예요? 예쁜가요?"

"그분은 참으로 아주 매력적인 아가씨입니다. 캐서린 영부인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참된 아름다움으로 따지자면 드 버그 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보다도 훨씬 뛰어나다고 하셨습니다. 그 얼굴 생김새에 명문가 출신의 젊은 여인임을 드러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몸이 약한 체질이라, 몸만 튼튼했다면 틀림없이 갖추셨을 여러 교양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셨습니다. 그녀의 교육을 맡았던 분, 지금도 그 집에 함께 살고 계신 분이 제게 그렇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도 아주 상냥하고, 자주 작은 포에톤 마차에 조랑말을 매어 몰고 황송하게도 제 보잘것없는 집 앞을 지나가 주십니다."

"그분은 궁정에서 소개를 받으셨나요? 궁정 귀부인들 명단에서 그분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요."

"그분은 건강이 좋지 않아 안타깝게도 도시에 나가 계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캐서린 영부인께 직접 말씀드렸듯이, 영국 궁정이 가장 빛나는 장식을 빼앗긴 셈입니다. 영부인께서도 그 생각이 마음에 드신 듯했습니다. 그런 섬세한 칭찬은 귀부인들이 언제나 기꺼이 받아들이는 법이라,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작은 찬사를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저는 캐서린 영부인께 그 매력적인 따님이

공작 부인이 되도록 태어난 것 같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지위가 그녀에게 격을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그 지위를 빛내 줄 거라고요. 이런 작은 말들이 영부인의 마음에 드시니, 저는 그런 배려를 특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판단하셨구려." 베넷 씨가 말했다. "그대에게는 섬세하게 아첨하는 재주가 있으니 다행이구려. 그런 기분 좋은 배려가 그때그때 충동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공부한 결과인지 물어봐도 되겠소?"

"대부분은 그때그때 벌어지는 일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은 보통의 경우에 어울릴 만한 작고 우아한 칭찬을 생각해 내고 짜 맞추는 것으로 즐기기도 합니다만, 언제나 그런 말들이 최대한 꾸민 티가 나지 않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베넷 씨의 기대는 충분히 채워졌다. 사촌은 그가 바랐던 만큼이나 우스꽝스러웠고, 베넷 씨는 더없이 즐겁게 그의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도 얼굴만큼은 더없이 침착하게 유지했고, 가끔 엘리자베스를 흘끗 보는 것 말고는 자신의 즐거움을 나눌 상대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차 마실 시간이 되자 그 정도면 충분했고, 베넷 씨는 손님을 다시 응접실로 데려가게 되어 기뻤으며, 차를 다 마신 뒤에는 기꺼이 그에게

숙녀들에게 책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청했다. 콜린스 씨는 흔쾌히 승낙했고, 책이 한 권 나왔다. 그런데 그것을 보자(어느 모로 보나 도서 대여점의 책이 분명했다) 그는 움찔 뒤로 물러났고, 용서를 구하며 자신은 소설은 절대 읽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키티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고, 리디아는 소리를 질렀다. 다른 책들이 나왔고, 한참 생각한 끝에 그는 "포다이스의 설교집"을 골랐다. 그가 책을 펼치자 리디아는 하품을 했다. 그리고 그가 아주 단조롭고 엄숙한 목소리로 세 쪽도 채 읽기 전에 그녀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필립스 이모부가 리처드를 내쫓겠다고 하는 거 알아요? 그렇게 되면 포스터 대령이 그를 고용할 거래요. 토요일에 이모가 직접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메리턴에 걸어가서 이 일을 더 알아보고, 데니 씨가 도시에서 언제 돌아오는지도 물어볼래요."

리디아는 두 언니에게 입 다물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콜린스 씨는 몹시 기분이 상해 책을 내려놓고 말했다.

“저는 진지한 종류의 책들이 오로지 아가씨들을 위해 쓰였는데도 그런 책에 아가씨들이 얼마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지 자주 보아 왔습니다. 솔직히 놀랍습니다. 가르침만큼 아가씨들에게 유익한 것은 분명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제 어린 사촌을 귀찮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콜린스 씨는 베넷 씨에게 몸을 돌려 백개먼 상대가 되어 드리겠다고 나섰다. 베넷 씨는 도전을 받아들이며, 아가씨들을 그들의 하찮은 오락에 맡겨 두는 것이 아주 현명하다고 말했다. 베넷 부인과 딸들은 리디아가 끼어든 것을 아주 정중하게 사과했고, 그가 책을 다시 읽어 준다면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콜린스 씨는 어린 사촌에게 나쁜 감정이 없고, 그녀의 행동을 결코 모욕으로 여겨 화내지 않겠다고 그들을 안심시킨 뒤, 베넷 씨와 함께 다른 탁자에 자리를 잡고 백개먼을 할 준비를 했다.

제15장



휴 톰슨, 제15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콜린스 씨는 분별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타고난 모자람은 교육이나 사교를 통해서도 거의 메워지지 못했다. 그는 생애 대부분을 무식하고 인색한 아버지의 감독 아래에서 보냈다. 그는 대학 가운데 한 곳에 적을 두었지만, 필요한 학기만 채웠을 뿐 그곳에서 쓸모 있는 교우 관계를 맺지는 못했다. 아버지가 그를 키우며 강요한 순종은 원래 그에게 매우 겸손한 태도를 심어 주었다. 그러나 이제 그 겸손은 상당 부분 상쇄되었다. 아둔한 머리로 세상과 떨어져 살면서 생긴 자만심과, 이른 나이에 뜻밖에 얻은 출세에서 비롯한 우쭐한 감정이 그것을 밀어냈기 때문이다. 헌스퍼드의 성직록이 비었을 때 우연히 좋은 기회가 생겨 그는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에게 추천되었다. 그는 영부인의 높은 신분을

존경했고, 자신의 후원자인 영부인을 숭배했다. 여기에 자신에 대한 매우 좋은 평가, 성직자로서의 권위, 교구장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자부심이 뒤섞여, 그는 결국 거만함과 굽실거림, 자기 과시와 겸손이 한데 섞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제 좋은 집과 넉넉한 수입이 생겼으니 그는 결혼할 생각이었다. 롱본 집안과 화해하려는 데에도 아내를 얻으려는 속셈이 있었다. 세간의 소문만큼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면 딸들 가운데 하나를 고를 작정이었다. 이것이 그가 짠 보상책이었다. 그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 데 대한 보상이자 속죄였다. 그는 그것이 훌륭한 계획이라고 여겼다. 적합하고 어울리며, 자기 쪽에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사심이 없는 계획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계획은 그들을 보고도 달라지지 않았다. 베넷 양의 사랑스러운 얼굴은 그의 생각을 굳혔고, 연장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에 대한 그의 가장 엄격한 생각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래서 첫날 저녁에는 그녀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생각이 바뀌었다. 아침 식사 전 베넷 부인과 십오 분 남짓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는 그의 목사관에서 시작해 롱본에 그곳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바람을 털어놓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러자 부인은 아주 상냥한 미소와 전반적인 격려를 보이면서도, 그가 점찍어 둔 바로 그 제인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 “작은딸들에 관해서는 뭐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네요. 다만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큰딸만은 말씀드려야겠네요. 머지않아 약혼하게 될 것 같아서 미리 귀띔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콜린스 씨는 제인에서 엘리자베스로 바꾸기만 하면 되었고, 그것은 곧 끝났다. 베넷 부인이 난로를 쑤시는 동안 끝난 것이다. 태어난 순서로나 아름다움으로나 제인 다음가는 엘리자베스가 자연히 그녀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베넷 부인은 그 귀띔을 마음에 새겨 두었고, 머지않아 딸 둘을 시집보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리고 전날만 해도 입에 올리기도 싫었던 그 남자가 이제는 그녀의 호감을 한껏 얻고 있었다.

리디아가 메리턴까지 걸어가겠다던 계획은 잊히지 않았다. 메리를 빼고 모든 자매가 그녀와 함께 가기로 했다. 베넷 씨의 부탁으로 콜린스 씨도 그들을 따라가게 되었다. 베넷 씨는 콜린스 씨를 어떻게든 떼어 놓고 서재를 자기만의 공간으로 되찾고 싶어 했다. 콜린스 씨는 아침 식사 후 그를 따라 서재까지 들어왔었다. 그는 거기서 장서 가운데 아주 큰 책 한

권을 붙잡고 있는 척했지만, 실은 헌스퍼드에 있는 자기 집과 정원 이야기를 베넷 씨에게 쉴 새 없이 늘어놓고 있었다. 이런 일은 베넷 씨를 몹시 심란하게 했다. 서재에서는 언제나 여유와 평온을 누릴 수 있다고 믿어 왔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에게 말했듯이, 집 안의 다른 방에서는 어리석음과 자만을 마주칠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서재에서만큼은 그런 것에서 벗어나 있는 데 익숙했다. 그래서 그는 더없이 재빠른 친절을 베풀어 콜린스 씨에게 딸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라고 권했다. 콜린스 씨는 사실 독서보다 걷기에 훨씬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으므로, 큰 책을 덮고 기쁘게 나갔다.

허세 가득한 실없는 말들을 콜린스 씨가 늘어놓고, 사촌들이 예의 바르게 맞장구를 치는 사이 시간이 흘러 일행은 메리턴에 들어섰다. 그때부터 어린 동생들의 관심은 그가 더 이상 붙잡아 둘 수 없었다. 그들의 눈은 곧장 거리를 따라 장교들을 찾아 헤맸고, 아주 멋진 보닛이나 가게 진열창에 걸린 정말 새 모슬린 천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시선을 되돌릴 수 없었다.

그러나 모든 아가씨들의 관심은 곧 한 젊은 남자에게 쏠렸다. 그들이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으로, 신사다운 풍채를 지니고 길 건너편에서 장교와 함께 걷고 있었다. 그

장교는 런던에서 돌아왔는지 리디아가 물으러 왔던 바로 그 데니 씨였고, 그들이 지나갈 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모두들 낯선 남자의 풍채에 마음을 빼앗겼고,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키티와 리디아는 가능하면 알아내기로 마음먹고, 맞은편 가게에 볼일이 있는 척하며 길을 건너갔다. 마침 두 신사가 되돌아서 같은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막 보도에 올라서 있었다. 데니 씨가 그들에게 곧장 말을 걸어, 전날 런던에서 함께 돌아온 자기 친구 위컴 씨를 소개해도 되겠느냐고 청했다. 그리고 위컴 씨가 자기네 연대에 임관하기로 했다고 기쁘게 전했다. 그건 정말 그래야 마땅한 일이었다. 이 젊은 남자가 완전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데는 군복 하나만 모자랐기 때문이다. 그는 외모부터 크게 호감을 샀다. 아름다움의 가장 좋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었고, 훌륭한 얼굴과 멋진 체격, 아주 호감 가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소개가 끝나자 그도 기분 좋게 말을 이어 갔다. 말솜씨가 막힘없었으며, 그와 동시에 아주 예의 바르고 겸손했다. 일행 모두가 여전히 서서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말발굽 소리가 그들의 관심을 끌었다. 다아시와 빙리가 말을 타고 거리를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일행 가운데 아가씨들을 알아본 두 신사는 곧장 그들 쪽으로 다가와 으레 하는 인사를 건넸다. 빙리가 주로 말을 했고, 그의 주된 관심은 베넷 양이었다. 그는 바로 그녀의 안부를

묻기 위해 롱본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말했다. 다아시 씨는 고개를 숙여 그 말을 확인해 주었고, 엘리자베스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리라 막 마음먹으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때 낯선 남자를 보고 그의 시선이 붙들렸다. 엘리자베스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볼 때 두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그 만남이 불러일으킨 효과에 크게 놀랐다. 두 사람 모두 안색이 변했다. 한 사람은 창백해졌고 다른 사람은 붉어졌다. 위컴 씨는 잠시 뒤 모자에 손을 댔다. 다아시 씨는 그 인사에 간신히 답례하는 시늉만 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 짐작할 수 없었고, 알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도 없었다.

잠시 뒤 빙리 씨는 방금 오간 일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 작별 인사를 하고 친구와 함께 말을 타고 떠났다.

데니 씨와 위컴 씨는 아가씨들과 함께 필립스 씨 집 문 앞까지 걸어가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리디아 양이 들어오라고 간절히 붙잡았고, 심지어 필립스 부인까지 거실 창문을 활짝 열고 큰 소리로 그 청을 거들었는데도 그들은 굳이 들어가지 않았다.

필립스 부인은 조카딸들을 보면 언제나 반가웠고, 최근에 집을 비웠던 두 큰 조카딸은 특히 환영받았다. 그녀는 그들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온 일에 놀라움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롱본 집 마차가 데리러 간 것이 아니었으니 그런

사정은 모르고 있었을 터였다. 그런데 마침 길에서 존스 씨의 가게 점원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 점원은 베넷 아가씨들이 떠나왔으니 이제 네더필드로 약을 더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때 제인이 콜린스 씨를 소개하면서 필립스 부인은 그에게도 정중하게 대해야 했다. 그녀는 가장 극진한 예의로 그를 맞이했고, 콜린스 씨는 그보다 더 깍듯하게 답례했다. 그는 전혀 안면이 없는 부인을 방문하게 된 것을 사과했다. 다만 그를 부인에게 소개해 준 아가씨들과의 친척 관계로 그 방문이 정당화될 수 있으리라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필립스 부인은 그런 지나친 예의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그러나 한 낯선 신사를 바라보던 그녀의 관심은 다른 낯선 신사에 대한 조카딸들의 감탄과 질문에 곧 끊기고 말았다. 하지만 그녀는 조카딸들이 이미 아는 것 이상은 말해 줄 수 없었다. 데니 씨가 그를 런던에서 데려왔고, 그가 ——셔 연대의 중위 임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지난 한 시간 동안 그를 지켜보았다고 말했다. 그가 거리를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다. 위컴 씨가 나타났더라면 키티와 리디아도 분명 그렇게 계속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운 나쁘게도 지금은 몇몇 장교들을 빼고는 아무도 창가를 지나가지 않았다. 그 장교들은 낯선 신사와 비교하자 "멍청하고 불쾌한 사내들"이 되어 버렸다. 그중 몇 명은 다음 날 필립스 가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롱본 가족이 저녁에 와 준다면 이모는 남편이 위컴 씨를 찾아가 초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제안은 받아들여졌다. 필립스 부인은 그 자리에서 복권 놀이를 하며 시끌벅적하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따뜻한 저녁 요기도 조금 하게 될 거라고 장담했다. 그런 즐거움이 기다린다는 생각에 모두 마음이 밝아졌고, 서로 기분 좋게 작별했다. 콜린스 씨는 방을 나서면서 다시 한 번 사과했고, 필립스 부인은 지칠 줄 모르는 예의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렇게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엘리자베스는 두 신사 사이에 오간 일을 제인에게 이야기했다. 제인은 둘 중 한 사람이든 두 사람 모두든 잘못한 것처럼 보였다면 감쌌겠지만, 그런 행동을 설명하지 못하기는 동생과 마찬가지였다.

콜린스 씨는 돌아와서 필립스 부인의 몸가짐과 예의범절을 칭찬하여 베넷 부인을 몹시 흐뭇하게 했다. 그는 캐서린 영부인과 그 따님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우아한 여성을 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필립스 부인은 그를 지극히 예의 바르게 맞이했을 뿐 아니라, 전에는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도 다음 날 저녁 초대 명단에 그를 일부러 포함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정도는 자기가 베넷 집안과 친척이라는 점 덕분일지도 모른다고 짐작했지만, 그래도 평생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제16장



휴 톰슨, 「○○셔 연대의 장교들」(1894년 판 삽화)

아무도 젊은 사람들이 이모와 약속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콜린스 씨가 방문 중 하룻밤이라도 베넷 씨 부부를 떠나는 데 대해 품은 모든 망설임은 끝까지 완강하게 저지되었다. 그래서 마차는 알맞은 시각에 그와 그의 다섯 사촌을 메리턴으로 실어 갔다. 소녀들은 응접실에 들어서면서 위컴 씨가 이모부의 초대를 받아들여 이미 집 안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이 정보가 전해지고 모두 자리에 앉자, 콜린스 씨는 여유롭게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그는 방의 크기와 가구에 깊이 감명받아, 하마터면 로징스의 작은 여름 조찬실에 와 있다고 착각할 뻔했다고 선언했다. 그 비교는 처음에는 별로 기분 좋게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필립스 부인이 콜린스 씨에게서 로징스가 어떤 곳인지, 그 주인이 누구인지 듣고, 캐서린 영부인의 응접실 하나에 대한 묘사를 들어 보니 벽난로 장식 하나만도 팔백 파운드가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그 칭찬의 힘을 온전히 느꼈고, 가정부의 방과 비교당했더라도 거의 분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필립스 부인에게 캐서린 영부인과 영부인의 저택이 얼마나 위엄 있는지 설명하면서, 가끔 자신의 초라한 거처와 그곳에 가해지고 있는 개량에 대한 칭찬으로 이야기를 벗어나곤 했다. 신사들이 합류할 때까지 그는 즐겁게

이야기했고, 필립스 부인에게서 아주 주의 깊은 청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들을수록 그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웃들에게 그 이야기를 모두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사촌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악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할 일도 없는 소녀들은 벽난로 선반 위에 놓인, 자기들이 서툴게 흉내 내어 만든 도자기 장식품들을 살펴보며 기다리는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졌다. 그러나 마침내 기다림은 끝났다. 신사들이 다가왔고, 위컴 씨가 방으로 걸어 들어왔을 때 엘리자베스는 전에 그를 보았을 때도, 그 뒤로 그를 생각할 때도 자신의 찬탄이 조금도 지나치지 않았음을 느꼈다. ——셔의 장교들은 대체로 제법 신사다운 무리였고, 그중 가장 나은 이들이 지금 자리에 와 있었다. 그러나 위컴 씨는 용모, 얼굴 생김새, 풍채, 걸음걸이에서 그들 모두를 훨씬 능가했다. 그 차이는 그들을 따라 방에 들어온, 얼굴이 넓적하고 답답하며 포트와인 냄새를 풍기는 필립스 이모부보다 그들이 나은 만큼이나 컸다.

위컴 씨는 거의 모든 여성의 시선이 향하는 행복한 남자였고, 마침내 그가 곁에 와 앉은 행복한 여자는 엘리자베스였다. 그가 곧바로 대화를 이어 가는 태도는 기분 좋았는데, 그 주제라야 밤비가 내린다는 것과 장마철이 올 것 같다는 것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가장 흔하고 지루하며 닳고 닳은 화제조차 말하는 사람의 솜씨에 따라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위컴 씨와 장교들처럼 아가씨들의 관심을 끄는 경쟁자들 앞에서 콜린스 씨는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듯했다. 젊은 아가씨들에게 그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필립스 부인만은 이따금 그의 친절한 청자가 되어 주었고, 그녀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그는 커피와 머핀을 넉넉하게 대접받았다.

카드 테이블이 놓였을 때, 그는 휘스트 판에 앉아 답례로 그녀의 청을 들어줄 기회를 얻었다.

"지금은 이 놀이를 잘 모릅니다만," 그가 말했다. "실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제 처지로서는……" 필립스 부인은 그가 응해 준 데 무척 고마워했지만, 그 이유를 끝까지 들어 줄 수는 없었다.

위컴 씨는 휘스트를 하지 않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엘리자베스와 리디아 사이 자리로 반갑게 맞아들여졌다. 처음에는 리디아가 그를 완전히 차지해 버릴 위험이 있어 보였다. 그녀는 한번 말을 시작하면 그칠 줄 모르는 수다쟁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권 표도 몹시 좋아하는

그녀는 곧 놀이에 지나치게 빠져들어, 내기를 걸고 당첨금을 외치는 데 정신이 팔려 누구에게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위컴 씨는 놀이에 으레 필요한 만큼만 신경 쓰면 되었으므로 엘리자베스와 이야기할 여유가 있었고, 그녀는 기꺼이 그의 말을 들었다. 다만 그녀가 가장 듣고 싶은 것, 즉 다아시 씨와의 교제 내력은 말해 주리라고 기대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신사의 이름조차 감히 꺼낼 수 없었다. 그런데 그녀의 궁금증은 뜻밖에도 풀리게 되었다. 위컴 씨가 스스로 그 화제를 꺼냈다. 그는 네더필드가 메리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물었고, 그녀의 대답을 듣고 나서는 망설이는 투로 다아시 씨가 그곳에 얼마나 오래 머물고 있는지 물었다.

"한 달쯤 됐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러고는 화제를 그대로 놓아 버리기 싫어서 덧붙였다. "더비셔에 아주 큰 재산을 가진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위컴이 대답했다. "그곳 영지는 훌륭하죠. 순수입만 일 년에 만 파운드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라면 저만큼 확실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의 집안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 왔으니까요."

엘리자베스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제 저와 그분이 마주쳤을 때 당신이 아마 보셨을 그 아주 차가운 태도를 생각하면, 그런 말을 듣고 놀라시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베넷 양. 다아시 씨와는 꽤 잘 아십니까?"

"이제 더 알고 싶지 않을 만큼은 알아요," 엘리자베스가 열을 내며 외쳤다. "같은 집에서 나흘을 보냈는데, 제 생각에는 아주 불쾌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분이 유쾌한지 아닌지에 대해 의견을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위컴이 말했다. "그런 판단을 내릴 자격이 제게 없어요. 너무 오래, 너무 잘 알아 왔으니 공정한 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저로서는 편견 없이 말하기가 불가능하죠. 하지만 당신이 그분에 대해 가진 생각은 대체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겁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라면 그렇게 강하게 말하지는 않으셨겠죠. 여기는 당신의 가족들 틈이니까요."

"맹세컨대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은 네더필드를 제외하고 이 근방 어느 집에서든 할 수 있는 말 이상은 아니에요. 하트퍼드셔에서 그분은 전혀 호감을 얻지 못해요. 모두가 그의 거만함에 질려 있죠. 누구에게 물어보셔도 그분에 대해 더 좋게 말하는 사람은 찾지 못하실 거예요."

"저는 유감스러운 척할 수는 없군요." 위컴이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어 말했다. "그분이든 다른 누구든 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되지 않는다고 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다아시 씨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은 그분의 재산과 지위에 눈이 멀거나, 그분의 근엄하고 위압적인 태도에 겁을 먹어서, 그분이 보이고 싶은 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잠깐 알고 지낸 사이인데도, 그분이 성격이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되더군요."

위컴은 고개만 저었다.

"그분이 이 지방에 앞으로도 오래 머무를지 궁금하군요." 다음에 말할 기회가 생기자 그가 말했다.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네더필드에 있을 때 그분이 떠난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분이 이 근방에 있다고 해서 ——셔 연대에 들어가려는 당신의 계획이 영향을 받지는 않았으면 해요."

"아뇨, 그렇지는 않아요. 다아시 씨 때문에 제가 쫓겨날 이유는 없어요. 그분이 저를 보지 않으려면 그분이 떠나야 해요. 우리는 친한 사이가 아니라서 그분을 마주치는 게 늘 괴로워요. 하지만 제가 그분을 피해야 할 이유는 세상

누구에게나 떠들 수 있는 것들뿐이에요. 아주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지금 같은 사람이 된 것에 대한 아주 쓰라린 유감이죠. 그분의 아버지, 베넷 양, 돌아가신 다아시 씨는 세상에 숨 쉬었던 사람 중 최고의 분이셨고, 제가 가져 본 가장 진실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다아시 씨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마다 수많은 다정한 추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파요. 저에게 한 그분의 행동은 수치스러웠어요.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분이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버지의 기억을 더럽히는 것만 아니라면 무엇이든, 무엇이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는 이 이야기의 흥미가 더해지는 것을 느끼며 온 마음을 기울여 들었다. 그러나 이야기의 민감한 성격 때문에 더 캐묻기는 삼갔다.

위컴 씨는 메리턴과 이 근방, 그리고 그곳의 사교계로 화제를 넓히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까지 본 것들에 아주 흡족한 듯 보였고, 특히 사교계 이야기를 할 때는 은근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정중한 찬사를 담았다.

"그곳에서 끊임없이 사교 생활을 하고, 그것도 좋은 사교계에 드나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가 ——셔 연대에 들어가기로 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가 덧붙였다. "그 연대가 아주 존경받고 호감 가는 부대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제

친구 데니가 지금 그들이 머무는 곳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메리턴 사람들이 그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해 주고 좋은 사람들을 소개해 줬다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는 사교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 혼자 지내면 기운이 버티질 못해요. 일도 있어야 하고 사람들도 있어야 합니다. 군대 생활은 원래 제가 갈 길이 아니었지만, 사정이 이렇게 되고 보니 이제는 마다할 이유가 없어졌지요. 본래 제 직업은 성직이었어야 했어요. 저는 성직자가 되도록 자랐거든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신사분이 마음만 먹었더라면, 지금쯤 아주 귀한 성직록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인가요!"

"그래요. 돌아가신 다아시 씨가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성직록이 다음번에 비면 제게 주라고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그분은 제 대부였고 저를 몹시 아끼셨죠. 그분의 친절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를 넉넉히 돌봐 주려 하셨고, 그렇게 했다고 믿으셨어요. 그런데 성직록이 비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 버렸어요."

"세상에!"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유언을 무시할 수 있어요? 왜 법적인 구제를 찾지 않았어요?"

"유증 조건의 표현이 너무 막연해서 법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명예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뜻을 의심하지 않았을 텐데, 다아시 씨는 의심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그것을 그저 조건부 추천으로 취급하고, 제가 낭비와 경솔함, 한마디로 무엇이든 혹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 권리를 모두 잃었다고 주장했죠. 분명한 건 이 성직록이 이 년 전에 비었는데, 바로 제가 그 자리를 맡을 나이가 되었을 때였고, 그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잃을 만한 짓을 실제로 했다고 저 자신을 탓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해요. 저는 열정적이고 조심성 없는 성격이라, 어쩌면 때때로 그분에 대해, 또 그분에게 직접 제 생각을 너무 거리낌 없이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보다 더 나쁜 일은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주 다른 종류의 사람이고, 그분이 저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분은 세상에 망신을 당해야 마땅해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요. 하지만 제 손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의 아버님을 잊을 수 있을 때까지는, 저는 결코 그분에게 맞서거나 그분을 폭로할 수 없어요."

엘리자베스는 그런 감정을 가진 그를 존경했고, 그렇게 말하는 그가 전보다 더 잘생겨 보였다.

"그런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녀가 잠시 뜸을 들인 뒤 말했다.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잔인하게 굴도록 만들었을까요?"

"저를 철저하고 단호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 싫어함은 어느 정도 질투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신 다아시 씨가 저를 덜 아꼈다면 그 아드님도 저를 더 잘 참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님이 저를 유난히 아끼시는 걸 그는 아마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못마땅해했을 거예요. 우리가 놓였던 그런 경쟁, 그러니까 저에게 자주 주어졌던 그런 편애를 견딜 만한 성품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전 다아시 씨를 이 정도로 나쁘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를 좋아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가 전반적으로 남들을 얕본다고는 여겼지만, 이런 악의적인 복수나 이런 부당함, 이런 몰인정함에까지 빠질 사람이라고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몇 분 동안 생각에 잠기던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분이 어느 날 네더필드에서 자신의 원한이 얼마나 가차 없는지, 용서하지 않는 성격이라는 걸 자랑하던 기억이 나요. 그분의 성정은 끔찍할 게 틀림없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면 제 감정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위컴이 대답했다. "그분에 대해 공정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엘리자베스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고, 잠시 뒤 소리쳤다. "그렇게 대하다니, 아버님의 대자(代子)이자 벗이며 총애받던 사람을요!" 그녀는 "그것도 당신처럼 젊은 사람을요. 그 얼굴만 봐도 당신이 상냥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라고 덧붙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만 말했다. "게다가 아마 어릴 때부터 그분과 함께 자란 사람일 텐데요. 당신이 말했듯이 아주 가깝게 얽혀 있었다면서요."

"우리는 같은 교구, 같은 영지 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어린 시절의 대부분은 함께 보냈죠. 같은 집에서 지내고, 같은 놀이를 나누고, 같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면서요. 제 아버지는 당신의 이모부인 필립스 씨가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계신 듯한 그 직업으로 삶을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돌아가신 다아시 씨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고, 펨벌리 영지를 돌보는 데 시간을 다 바치셨죠. 다아시 씨는 아버지를 가장 높이 평가했고, 가장 가깝고 믿음직한 친구로 여겼어요. 다아시 씨는 아버지의 적극적인 관리에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자주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아시 씨가 아버지에게 저를 돌봐

주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셨을 때, 저는 그분이 그것을 저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아버지에 대한 은혜의 빚으로 느꼈다고 확신해요."

"정말 이상하네요!"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정말 끔찍해요! 이 다아시 씨의 그 자존심조차 그가 당신에게 공정하게 굴도록 만들지 못했다니 놀라워요. 더 나은 동기가 아니더라도, 자존심 때문에라도 부정직한 짓은 하지 말았어야죠. 그건 부정직이라고 불러야 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위컴이 대답했다. "그의 거의 모든 행동은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자존심은 종종 그의 가장 좋은 벗이 되어 주었어요. 다른 어떤 감정보다도 그를 미덕에 더 가까이 이어 주었죠.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한결같지는 않아요. 그가 저를 대한 태도에는 자존심보다도 더 강한 충동이 있었어요."

"그렇게 끔찍한 자존심이 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적이 있을까요?"

"그럼요. 그 자존심 덕분에 그는 종종 너그럽고 관대해졌죠. 돈을 아낌없이 쓰고,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고, 소작인들을 돕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했어요. 가문에 대한 자존심과 아버지에 대한 자존심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그는 무척 자랑스러워하거든요. 가문의 수치가 되지 않으려는 것, 세상에서 칭송받는 자질에서 멀어지지 않으려는 것, 펨벌리 저택의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는 것, 그것이 강력한 동기가 되는 거죠. 그에게는 형제로서의 자존심도 있어요. 여기에 약간의 형제애가 더해져서, 그는 여동생을 아주 다정하고 세심하게 돌보는 보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가장 헌신적이고 훌륭한 오빠라고 칭찬하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다아시 양은 어떤 아가씨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를 상냥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다아시 가문 사람을 헐뜯는 건 저로서도 괴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오빠를 너무 닮았어요. 아주, 아주 자존심이 세죠. 어렸을 때는 다정하고 사랑스러웠고, 저를 무척 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와 놀아 주느라 몇 시간이고 함께 보냈죠. 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열다섯이나 열여섯쯤 된 아름다운 아가씨이고, 듣기로는 교양도 아주 높다고 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는 런던에서 지내고 있고, 그곳에서 어떤 부인이 같이 살면서 그녀의 교육을 맡고 있어요."

여러 번 말이 끊기고 다른 화제를 시도해 본 끝에,
엘리자베스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처음 화제로 돌아가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저는 그가 빙리 씨와 그렇게 가깝게 지낸다는 게 놀라워요. 빙리 씨는 쾌활함 그 자체처럼 보이고, 제가 정말 믿기로는 진심으로 상냥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죠? 두 사람이 어떻게 잘 어울릴 수 있어요? 빙리 씨를 아세요?"

"아니요, 전혀요."

"그는 성격이 온화하고 상냥하며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다아시 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거예요."

"아마 모르겠죠. 하지만 다아시 씨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에게 재능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말 잘 통하는 상대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와 지위가 엇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형편이 덜 좋은 사람들을 대할 때와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죠. 자존심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아요.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넓고, 공정하고, 진실하고, 이성적이고, 명예를 중히 여기고, 어쩌면 매력적이기까지 해요. 재산과 외모가 좋은 덕을 본 부분도 있겠지만요."

휘스트 놀이가 곧 끝나자 카드를 치던 사람들은 다른 탁자 쪽으로 모여들었고, 콜린스 씨는 사촌 엘리자베스와 필립스 부인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필립스 부인은 늘 하던 대로 그의 성적이 어땠는지 물었다. 그리 좋지는 않았다. 그는 매 판 점수를 모두 잃었다. 그런데 필립스 부인이 그 일을 걱정하기 시작하자, 그는 아주 진지하고 무겁게 그건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고 장담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닌 푼돈으로 여기니 마음 쓰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저는 카드 탁자에 앉으면 이런 일도 감수해야 한다는 걸 잘 압니다, 부인." 그가 말했다. "다행히 저는 오 실링 정도에 신경 쓸 만큼 궁한 형편이 아닙니다. 물론 같은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 덕분에 저는 사소한 일을 따질 필요가 없는 곳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위컴 씨는 귀가 번쩍 뜨였다. 그는 잠시 콜린스 씨를 살펴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엘리자베스에게 그녀의 친척들이 드 버그 가문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지 물었다.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이 얼마 전에 그에게 성직록을 주셨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콜린스 씨가 처음 어떻게 영부인의 눈에 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영부인과 알고 지낸 지는 분명 오래되지 않았어요."

"물론 아시겠지만,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과 앤 다아시 영부인은 자매였어요. 그러니 영부인은 지금의 다아시 씨의 이모님이 되시는 셈이죠."

"아니요, 정말이지 몰랐어요. 캐서린 영부인의 집안 사정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 분이 있다는 것도 그저께서야 처음 들었어요."

"영부인의 딸인 드 버그 양은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 딸과 사촌인 다아시 씨가 두 영지를 하나로 합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정보를 듣자 엘리자베스는 가엾은 빙리 양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만일 다아시 씨가 이미 다른 사람과 맺어지기로 정해져 있다면, 빙리 양의 모든 친절도, 그녀가 다아시 씨의 누이에게 보인 애정도, 다아시 씨를 칭찬하던 말도 참으로 헛되고 쓸모없는 일일 터였다.

"콜린스 씨는 캐서린 영부인과 그 따님을 아주 높이 평가하지만," 그녀가 말했다. "그분이 영부인에 대해 들려준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그를 잘못 이끄는 것 같아요. 영부인이 그의 후원자이긴 해도, 아주 거만하고 자기 잘난 줄 아는 여자인 것 같아요."

"나는 그녀가 상당 부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위컴이 대답했다. "몇 년 동안 본 적은 없지만, 나는 그녀가 싫었던 기억이 분명히 나요. 그녀의 태도는 명령조였고 무례했어요. 그녀는 대단히 현명하고 영리하다는 평판을 얻고 있지만, 내 생각에는 그녀의 능력 중 일부는 신분과 재산에서 나오고, 일부는 위압적인 태도에서 나오며, 나머지는 그녀의 조카가 가진 자부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조카는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최상급의 지성을 갖추기를 바라거든요."

엘리자베스는 그가 아주 합리적인 설명을 해 주었다고 인정했다. 두 사람은 카드 놀이가 끝나 저녁 식사가 시작될 때까지 서로 만족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뒤로는 다른 숙녀들도 위컴 씨의 관심을 나누어 받았다. 필립스 부인의 저녁 모임은 떠드는 소리가 너무 커서 대화를 나눌 수 없었지만, 위컴 씨의 태도는 누구에게나 좋은 인상을 주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말솜씨가 훌륭했고, 무슨 행동을 하든 우아했다. 엘리자베스는 머릿속이 온통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찬 채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가는 길 내내 그녀는 위컴 씨와 그가 들려준 이야기만 생각했다. 그러나 가는 동안 그의 이름조차 꺼낼 틈이 없었다. 리디아도 콜린스 씨도 한순간도 입을 다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디아는 쉬지 않고 복권 놀이와 잃은 칩, 딴 칩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콜린스 씨는 필립스 씨 부부가 얼마나 친절했는지 설명하면서,

휘스트에서 잃은 돈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리고 저녁 식탁에 올랐던 요리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자기 때문에 사촌들이 비좁지 않은지 자꾸 걱정했다. 그렇게 그는 마차가 롱본 저택 앞에 멈출 때까지 다 하지 못할 만큼 할 말이 많았다.

제17장



휴 톰슨, 제17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다음 날 엘리자베스는 위컴 씨와 자신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제인에게 이야기했다. 제인은 놀라고 걱정하며 들었다. 다아시 씨가 빙리 씨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위컴처럼 그토록 상냥해 보이는 청년의 말을 의심하는 것은 제인의 성격에 맞지 않았다. 그가 실제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제인의 다정한 마음은 움직였다. 그래서 두 사람을 모두 좋게 생각하고, 각자의 행동을 변호하며,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일은 우연이나 착오 탓으로 돌리는 것만이 남은 일이었다.

"둘 다," 제인이 말했다. "틀림없이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속았을 거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서로를 잘못 전했을지도 모르고. 요컨대 어느 쪽에도 실제로 잘못이 없는데도 두 사람을 멀어지게 했을 원인이나 사정을 우리로서는 짐작할 수 없는 거야."

"정말 그래, 언니. 그럼 이제 이 일에 아마 관련이 있었을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을 위해서는 언니가 무슨 말을 해 줄 거야? 그 사람들도 변호해 줘. 그러지 않으면 누군가는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웃고 싶은 만큼 웃어. 하지만 웃는다고 내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거야. 사랑하는 리지, 다아시 씨가 아버지가 총애하던 사람, 아버지가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생각해 봐. 그럴 수는 없어. 평범한 인간미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품위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런 짓을 할 수 없어.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그를 그렇게까지 심하게 잘못 알고 있을 리가 없잖아. 오, 그럴 리 없어."

"빙리 씨가 속아 넘어갔을 가능성이 위컴 씨가 어젯밤 나에게 들려준 그런 이야기를 지어냈을 가능성보다 훨씬 쉽게 믿겨. 이름과 사실과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늘어놓았잖아.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다아시 씨가 반박해 보라지. 게다가 그의 표정에도 진실함이 있었어."

"정말 어려운 일이야. 마음이 아파. 도무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하지만,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는 분명히 알 수 있어."

하지만 제인이 확신할 수 있는 점은 단 하나뿐이었다. 빙리 씨가 속아 넘어간 것이라면, 이 일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그가 큰 괴로움을 겪게 되리라는 사실이었다.

두 아가씨가 이 대화를 나누고 있던 관목 숲에서 불려 나온 것은,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찾아왔기 때문이었다. 빙리 씨와 그의 누이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네더필드 무도회에 직접 초대하러 온 것이다. 무도회는 다음 주 화요일로 정해져 있었다. 두 숙녀는 소중한 친구를 다시 만나 기뻐하며, 헤어진 지 한참이 되었다고 말하고, 헤어진 뒤로

무엇을 하며 지냈느냐고 거듭 물었다. 가족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베넷 부인을 가능한 한 피했고, 엘리자베스에게는 별말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곧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날쌔던지 오빠조차 놀랄 정도였다. 베넷 부인의 인사치레에서 달아나려는 듯 서둘러 자리를 떴다.

네더필드 무도회에 대한 기대는 집안의 모든 여자에게 대단히 즐거운 것이었다. 베넷 부인은 그것을 맏딸에게 베푸는 배려로 여기기로 했고, 격식을 차린 초대장 대신 빙리 씨에게서 직접 초대받은 일에 특히 우쭐해했다. 제인은 두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저녁과 그들의 오빠가 보내 줄 관심을 떠올렸다. 엘리자베스는 위컴 씨와 춤을 많이 추게 될 것을 생각하며 즐거워했고, 다아시 씨의 표정과 행동에서 모든 것이 확인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기대했다. 캐서린과 리디아가 기대하는 행복은 어떤 한 가지 사건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그리 달려 있지 않았다. 두 사람도 엘리자베스처럼 저녁의 절반을 위컴 씨와 춤추려고 했지만, 그들을 만족시켜 줄 상대가 위컴 씨 한 사람뿐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어쨌든 무도회는 무도회였다. 메리조차 가족에게, 자기도 그 자리가 싫지 않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다.

"아침 시간만 저만의 시간으로 쓸 수 있다면," 메리가 말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가끔 저녁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기분 전환과 오락의 틈이 누구에게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스스로 말하겠어요."

엘리자베스는 이날 기분이 너무 들떠 있어서, 평소 콜린스 씨에게 불필요한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빙리 씨의 초대에 응할 생각인지, 응한다면 저녁 오락에 어울리는 것이 예의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말이다. 그런데 콜린스 씨가 그 점에 대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춤을 추는 일로 대주교에게서든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에게서든 꾸지람을 들을까 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엘리자베스는 조금 놀랐다.

"저는 결코 그런 생각이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가 말했다. "인격 있는 젊은 신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초대해 여는 이런 무도회에 어떤 나쁜 영향이 있을 리 없습니다. 저 자신도 춤추는 일에 반대하기는커녕, 저녁 동안 사랑스러운 사촌들 모두와 손을 맞잡는 영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 특히 처음 두 곡을

엘리자베스 양과 함께 추기를 청합니다. 이런 선택을 사촌 제인이 올바른 까닭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해 주고, 자신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여겨 주리라 믿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꼼짝없이 걸려들었다고 느꼈다. 바로 그 춤들을 위컴 씨와 추기로 이미 마음먹고 있었는데, 대신 콜린스 씨와 추게 되다니! 그녀의 쾌활함이 이보다 나쁜 때에 나온 적은 없었다. 그렇다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위컴 씨와 그녀 자신의 즐거움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미뤄져야 했고, 콜린스 씨의 청은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예의 바른 태도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의 친절이 무언가 더 큰 것을 암시하는 듯해서, 그녀는 그 호의가 조금도 반갑지 않았다. 그때 처음으로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자매들 가운데 그녀가 헌스퍼드 목사관의 안주인이 되기에 합당하다고 골라졌으며, 더 나은 손님들이 없을 때 로징스에서 카드리유 테이블을 채우는 일을 돕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 생각은 곧 확신으로 굳어졌다. 그가 그녀에게 점점 더 친절하게 굴고, 그녀의 재치와 활기를 칭찬하려고 자주 애쓰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매력이 낳은 이 결과에 그녀는 기쁘기보다 놀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두 사람의 결혼 가능성을 몹시 반기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넌지시 알려 주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 암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어떤

대답을 하든 심각한 말다툼이 뒤따를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콜린스 씨가 청혼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가 하기 전까지는 그를 두고 다투는 것도 쓸모없는 일이었다.

네더필드 무도회를 준비하고 이야기할 거리가 없었다면, 이 무렵 어린 베넷 자매들은 딱한 처지에 놓였을 것이다. 초대받은 날부터 무도회 날까지 비가 줄곧 내려서, 메리턴까지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다. 이모도, 장교들도, 새로운 소식도 찾아 나설 수 없었다. 네더필드에 신을 구두에 달 장식 리본마저 대리인을 통해 구해야 했다. 엘리자베스조차 위컴 씨와 친분을 쌓는 일이 완전히 멈춰 버린 이 날씨에는 인내심을 시험받았을지도 모른다. 화요일의 무도회가 아니었다면 키티와 리디아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을 도저히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제18장



휴 톰슨, 「이렇게 훌륭한 춤은 보기 드물지요」(1894년 판 삽화)

네더필드의 응접실에 들어서서 그곳에 모인 붉은 제복의 무리 속에서 위컴 씨를 헛되이 찾아보기 전까지, 엘리자베스는 그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를 만나리라는 확신은, 그녀를 충분히 불안하게 할 만한 기억들 가운데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차려입었고, 그의 마음속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부분을 모두 얻겠다는 기대에 한껏 들떠 있었다. 남은 그 부분쯤이야 오늘 저녁 동안 충분히 얻어 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순식간에 끔찍한 의심이 떠올랐다. 빙리 집안이 장교들을 초대하면서 다아시 씨의 뜻에 따라 그를 일부러 뺐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었다.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리디아가 열심히 물어본 그의 친구 데니 씨가 그렇게 알려 주었다. 위컴은 전날 볼일이 있어 런던에 가야 했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데니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여기 있는 어떤 신사를 피하고 싶지 않았다면, 그 친구가 하필 지금 볼일 때문에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데니 씨의 말 가운데 이 대목은 리디아는 듣지 못했지만 엘리자베스는 놓치지 않았다. 그 말은 위컴이 자리에 없는 것에 다아시 씨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처음의 짐작이 맞았을

때와 다름없이 분명하게 알려 주었다. 그래서 다아시 씨에 대한 불쾌감은 방금 겪은 실망 때문에 한층 날카로워졌고, 그가 곧이어 다가와 건넨 정중한 안부 인사에도 그녀는 겨우 예의 바르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였다. 다아시 씨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참아 주고, 인내하는 것은 곧 위컴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었다. 엘리자베스는 그와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었고, 그를 등지고 돌아섰다. 빙리 씨에게 말을 걸 때에도 그녀는 완전히 가시지 않는 언짢은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빙리 씨의 눈먼 편애가 그녀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언짢은 기분에 오래 빠져 있을 성격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에 걸었던 기대가 모두 무너졌어도, 그 실망이 그녀의 기분을 오래 짓누를 수는 없었다. 일주일 동안 보지 못했던 샬럿 루카스에게 자신의 모든 속상함을 털어놓고 나자, 그녀는 곧 사촌의 괴상한 행동으로 화제를 자연스럽게 옮겨 샬럿의 각별한 관심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처음 두 번의 춤은 다시 괴로움을 가져왔다. 굴욕적인 춤이었기 때문이다. 콜린스 씨는 어색하고 엄숙하게, 춤에 집중하지 않고 사과만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주 틀린 동작을 했다. 그래서 두 곡 동안 그런 불쾌한 상대와 춤을 추는 데서 올 수 있는 모든 수치와 비참함을 그녀에게 안겨 주었다. 그에게서 풀려나는 순간은 황홀할 만큼 기뻤다.

그다음에는 한 장교와 춤을 추었는데, 위컴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모두에게 사랑받는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 춤이 끝나자 그녀는 샬럿 루카스에게 돌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아시 씨가 말을 걸어왔다. 그는 그녀에게 춤을 청하여 그녀를 너무 놀라게 했고,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의 청을 받아들였다. 다아시 씨는 곧바로 다시 자리를 떠났고, 그녀는 자신이 침착함을 잃은 것에 속이 상해 혼자 애를 태웠다. 샬럿이 그녀를 위로하려고 애썼다.

"아마 너도 그 사람이 아주 유쾌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하늘이 그런 일을 막아 주시기를! 그건 무엇보다 큰 불행일 거야! 미워하기로 굳게 마음먹은 사람이 유쾌하게 느껴진다니! 나한테 그런 몹쓸 일을 바라지 마."

그러나 다시 춤이 시작되어 다아시 씨가 약속한 춤을 청하러 다가오자, 샬럿은 속삭이며 바보같이 굴지 말라고, 위컴에 대한 호감 때문에 그보다 열 배는 지위가 높은 남자의 눈에 불쾌한 여자로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를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대답하지 않고 대열에 섰다. 다아시 씨와 마주 설 수 있을 만큼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에 놀랐고, 주위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같은 놀람을 읽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녀는 이 침묵이 두 곡 내내 이어질 것만 같아서, 처음에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문득 상대에게 말을 하도록 강요하는 쪽이 그에게 더 큰 벌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 춤에 대해 가벼운 말을 한마디 건넸다. 그는 대답했고, 다시 침묵했다. 몇 분쯤 지나 그녀는 두 번째로 말을 걸었다.

"이번엔 당신이 무슨 말을 할 차례예요, 다아시 씨. 제가 춤 이야기를 했으니, 당신은 방의 넓이나 짝의 수에 대해 무슨 말이든 해야 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하겠다고 장담했다.

"좋아요. 지금은 그 대답으로 충분해요. 아마 조금 있다가 개인 무도회가 공개 무도회보다 훨씬 즐겁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없이 있어도 되겠지요."

"그럼 춤을 추는 동안에는 규칙에 따라 말하시는 건가요?"

"가끔은요. 조금은 말을 해야 하니까요. 삼십 분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상해 보일 테니까요. 그래도 어떤 분들을 위해서는, 말하는 수고를 되도록 덜 수 있게 대화를 짜 드려야겠지요."

“지금 이 경우에 당신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 기분을 맞춰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둘 다요.” 엘리자베스가 짓궂게 대답했다. “저는 늘 우리 두 사람의 성향에 큰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우리는 둘 다 사교적이지 않고 말수가 적은 기질이라서, 방 안 사람 모두를 놀라게 하고 속담처럼 후세에 전해질 만한 말을 하게 되지 않으면 말을 하려 들지 않지요.”

“이건 당신 자신의 성격과 그리 닮은 구석이 없는 것 같군요.” 그가 말했다. “제 성격과는 얼마나 가까운지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겠지요. 당신은 틀림없이 이 그림이 충실한 초상화라고 여기고 있을 테지만요.”

“제가 그린 그림을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대열 끝까지 춤추며 내려갈 때까지 다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그가 그녀와 그녀의 자매들이 메리턴까지 자주 걸어가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덧붙였다. “지난번에 거기서 저희를 만나셨을 때, 저희는 마침 새로운 분과 막 인사를 나눈 참이었어요.”

그 말의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그의 얼굴에 더 짙은 거만함이 번졌지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약점을 탓하면서도 말을 이어 갈 수가 없었다. 마침내 다아시가 입을 열었는데, 어색하게 억누른 목소리였다.

"위컴 씨는 친구를 쉽게 사귀게 해 줄 만큼 붙임성 있는 태도를 타고났지요. 그 친구들을 계속 붙잡아 둘 수 있을지는 그만큼 확실하지 않아요."

"그는 당신의 우정을 잃는 불운을 겪었지요." 엘리자베스가 힘주어 대답했다. "그것도 그가 평생 그 일 때문에 고통을 겪을 만한 방식으로요."

다아시는 대답하지 않고 화제를 바꾸고 싶은 눈치였다. 바로 그때 윌리엄 루카스 경이 두 사람 가까이에 나타났다. 방 반대편으로 대열을 가로질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다아시 씨를 알아보고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그의 춤 솜씨와 춤 상대에 대해 칭찬을 건넸다.

"정말이지 더없이 즐거웠습니다, 선생. 이토록 뛰어난 춤은 좀처럼 보기 힘드니까요. 선생께서 최상류층에 속하신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도 한 말씀 드리자면, 선생의 아름다운 상대도 선생께 조금도 손색이 없군요. 그리고 바라건대 이 즐거움이 자주 되풀이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어떤 바람직한

일이 이루어질 때 말입니다, 우리 일라이자 양(그녀의 언니와 빙리를 흘끗 보며). 그때는 축하 인사가 얼마나 쏟아지겠습니까! 다아시 씨께 여쭙겠습니다만, 아니, 말씀을 끊지는 않겠습니다, 선생. 저 아가씨와의 매혹적인 대화를 방해하며 선생을 붙잡아 두었으니 제게 고마워하실 리는 없겠지요. 그 아가씨의 반짝이는 눈도 저를 나무라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아시는 윌리엄 경의 말 뒷부분을 거의 듣지 못했다. 하지만 경이 그의 친구를 넌지시 언급하자 그 말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찌른 듯했다. 그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함께 춤추고 있는 빙리와 제인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러나 곧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의 춤 상대에게 몸을 돌려 말했다.

"윌리엄 경이 끼어드는 바람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렸군요."

"우리는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윌리엄 경이 이 방 안에서 아무리 골라 끼어드셨대도 우리 둘보다 할 말이 없는 두 사람은 찾지 못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두세 가지 화제를 꺼내 봤지만 다 실패했고,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저로서는 짐작도 안 가요."

“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책이요? 아,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책을 읽은 적은 없을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읽은 적도 없을 테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유감이군요. 하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이야깃거리가 모자랄 일은 없겠지요. 우리의 서로 다른 의견을 비교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니요, 무도회장에서는 책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 머릿속은 늘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니까요.”

“이런 자리에서는 늘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시나 보군요, 그렇지요?” 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럼요, 늘 그래요.” 그녀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대답했다. 생각이 이미 화제에서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얼마 뒤 그녀가 갑자기 소리친 말로 드러났다. “다아시 씨, 당신이 언젠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당신은 좀처럼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한번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감정은 풀릴 수 없다고요. 원망을 품게 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편견 때문에 눈이 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러길 바랍니다."

"한번 가진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바르게 판단하는지 특히 확실히 해 두어야 하겠지요."

"이런 질문들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건지 물어도 될까요?"

"단지 당신 성격을 파악하려는 것뿐이에요." 그녀는 진지한 기분을 떨쳐 내려고 애쓰며 말했다. "지금 알아내 보려는 중이에요."

"그래서 성과는 어떤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진전이 없어요. 당신에 대해 듣는 이야기가 너무 서로 달라서 몹시 헷갈려요."

"저도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저에 대한 평판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는 걸요. 베넷 양, 지금 당장은 제 성격을 그려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결과가 어느 쪽에도 좋을 것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신 초상을 그려 보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당신의 어떤 즐거움도 결코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나머지 춤을 마저 추고 말없이 헤어졌다. 두 사람 모두 불만스러웠지만 그 정도는 같지 않았다. 다아시의 가슴속에는 그녀를 향한 꽤 강한 감정이 있었고, 그 감정은 곧 그녀를 용서하게 만들었으며 그의 모든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로 돌렸다.

그들이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빙리 양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러고는 짐짓 예의를 차린 경멸의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걸었다.

"그러니까, 일라이자 양, 조지 위컴한테 아주 흠뻑 빠졌다면서요? 당신 언니가 그 사람 얘기를 나한테 하면서 질문을 천 개나 던지더군요. 그런데 그 젊은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한테 말하는 걸 잊었나 봐요. 자기가 고인이 된 다아시 씨의 집사였던 늙은 위컴의 아들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하지만 친구로서 충고하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전부 곧이곧대로 믿지는 마세요. 다아시 씨가 그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다아시 씨는 언제나 그에게 각별히 친절했어요. 조지 위컴이 다아시 씨를 가장 파렴치한 방식으로 대했는데도 말이죠.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다아시 씨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건

똑똑히 알아요. 다아시 씨는 조지 위컴의 이름을 듣는 것조차 견디지 못해요. 우리 오빠는 장교들을 초대하면서 그 사람을 빼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알아서 자리를 피해 준 걸 알고는 몹시 기뻐했어요. 애초에 이 지방에 발을 들여놓은 것 자체가 정말 뻔뻔한 일이에요.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사람의 죄가 드러났으니 안타깝네요, 일라이자 양. 하지만 사실 그의 출신을 생각하면 기대할 게 별로 없었겠죠."

"그의 죄와 출신이 당신 말로는 같은 것처럼 들리네요." 엘리자베스가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이 그를 비난하는 말을 들었는데, 다아시 씨의 집사 아들이라는 것 말고는 더 나쁜 건 없었어요. 그것도 그 사람이 직접 나한테 말해 준 거예요. 장담할 수 있어요."

"실례했어요." 빙리 양이 비웃듯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참견해서 미안해요. 좋은 뜻에서 한 말이었어요."

"건방진 계집애 같으니!"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하찮은 공격으로 나를 흔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크게 잘못 짚은 거야. 나는 이 말에서 당신의 고집스러운 무지와 다아시 씨의 악의밖에 보이지 않아." 그러고 나서 그녀는 같은 문제를 빙리에게 알아보기로 했던 큰언니를 찾았다. 제인은 더없이 흐뭇해하는 미소를 띠고, 행복에 겨운

표정으로 환하게 그녀를 맞았다. 그 표정은 오늘 저녁의 일들에 제인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드러내 주었다.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언니의 마음을 알아차렸다. 그 순간 위컴을 향한 걱정도, 그의 적들에 대한 분노도, 그 밖의 모든 것도 제인이 행복을 얻을 가장 좋은 길에 들어섰다는 희망 앞에서 힘을 잃고 물러났다.

"알고 싶어." 그녀가 언니 못지않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위컴 씨에 대해 무엇을 알아냈는지. 하지만 혹시 너무 즐거운 일에 빠져 있느라 제3자 생각은 못 했다면, 그럴 땐 내가 용서해 줄게."

"아니, 잊지 않았어." 제인이 대답했다. "하지만 너한테 만족스럽게 전할 만한 얘기는 없어. 빙리 씨는 위컴 씨의 이력을 전부 알지는 못하고, 다아시 씨를 주로 화나게 한 사정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셔. 하지만 친구의 품행과 정직함, 명예에 대해서는 보증할 수 있다고 하셨어. 위컴 씨가 다아시 씨에게 받은 관심보다 훨씬 적은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완전히 확신하고 계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빙리 씨 말씀으로도, 빙리 양 말로도 위컴 씨는 결코 존경받을 만한 젊은이가 아니래. 그 사람은 무척 경솔했던 것 같고, 다아시 씨의 호의를 잃을 만했던 것 같아."

"빙리 씨는 위컴 씨 본인은 모르는구나."

"응. 빙리 씨는 며칠 전 아침에 메리턴에서 그 사람을 처음 보셨어."

"그러니까 이건 빙리 씨가 다아시 씨에게서 들은 얘기구나. 그럼 됐어, 알 만해. 그런데 빙리 씨는 그 성직록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셔?"

"빙리 씨는 그 사정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셔. 다아시 씨에게서 여러 번 들으셨다는데도 말이야. 다만 그 성직록은 조건부로만 위컴 씨에게 남겨진 것이라고 믿고 계셔."

"빙리 씨의 진심을 의심하지는 않아." 엘리자베스가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그냥 보증하는 말만으로는 내가 설득되지 않는 것도 이해해 줘야 해. 빙리 씨가 친구를 변호한 말은 아마 아주 조리 있었겠지. 그렇지만 그분은 이야기의 여러 부분을 모르고, 나머지도 그 친구 본인에게서 들은 거니까, 나는 두 신사를 전에 생각하던 그대로 계속 생각할래."

그러고 나서 그녀는 대화를 두 사람 모두에게 더 기쁜 주제로 돌렸는데, 그쪽에서는 의견이 엇갈릴 여지가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제인이 빙리의 호의에 대해 품고 있는 행복하지만 겸손한 희망을 즐거운 마음으로 들었고, 그 믿음을 더 키워 주려고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다. 그때 빙리 씨 본인이 합류하자 엘리자베스는 루카스 양 곁으로 물러났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춤춘 상대가 어땠느냐는 루카스 양의 물음에 겨우 대답하자마자 콜린스 씨가 두 사람에게 다가와서, 방금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는 행운을 얻었다며 대단히 득의양양하게 말했다.

"제가 우연히 알아냈습니다." 콜린스 씨가 말했다. "지금 이 방 안에 제 후원자 되시는 분의 가까운 친척이 와 계십니다. 마침 그 신사분이 이 집의 안주인 노릇을 하는 젊은 아가씨에게 자기 사촌인 드 버그 양과 그 어머니인 캐서린 영부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제가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어찌 이토록 기묘하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 무도회에서 혹시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의 조카 되시는 분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발견을 제가 그분께 인사드릴 수 있을 만큼 제때 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지금 바로 인사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이전에 인사드리지 못한 것은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연고를 전혀 몰랐던 것이 제 변명이 되어 줄 겁니다."

"다아시 씨께 직접 인사하시려는 건 아니겠지요?"

"정말 그럴 생각입니다. 이전에 인사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청할 겁니다. 그분은 캐서린 영부인의 조카이신 줄로 압니다. 영부인께서 여드레 전에 아주 건강하셨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계획을 단념시키려고 온 힘을 다했다. 다아시 씨는 소개도 없이 말을 거는 것을 그의 이모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무례한 허물없음으로 여길 것이라고, 어느 쪽도 인사를 나눌 필요는 전혀 없으며, 굳이 해야 한다면 신분이 더 높은 다아시 씨 쪽이 먼저 교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그에게 확실히 말했다. 콜린스 씨는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단호한 태도로 그녀의 말을 들었고, 그녀가 말을 마치자 이렇게 대답했다.

"친애하는 엘리자베스 양, 이해의 범위 안에 드는 모든 일에서 양의 훌륭한 판단력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평신도 사이의 확립된 의례 형식과 성직자를 규율하는 의례 형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성직이 존엄에 있어서는 왕국의 가장 높은 신분과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에 걸맞은 겸손한 처신을 함께 지킨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이번 일에서는 제가 의무라고 여기는 바를 행하도록 이끄는 제 양심의 명령을 따르도록 허락해 주셔야겠습니다. 다른 모든 문제에서는 늘 저의 길잡이가 되어 줄 양의 충고를 따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지금 이 경우만큼은 제가 받은 교육과 평소의 공부로 보아, 양 같은 젊은 아가씨보다는 제가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낮게 절을 하고 그녀를

떠나 다아시 씨를 공략하러 갔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접근에 다아시 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애타게 지켜보았고, 그렇게 말을 걸어온 것에 다아시 씨가 놀란 기색은 분명했다. 그녀의 사촌은 엄숙하게 절을 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는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지만 전부 들은 것처럼 느꼈고, 그의 입술 움직임에서 "사과", "헌스퍼드",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이라는 말을 알아보았다. 그가 그런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우스꽝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보니 화가 났다. 다아시 씨는 억누르지 못한 놀라움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콜린스 씨가 말할 틈을 주자 다아시 씨는 거리를 둔 정중함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콜린스 씨는 그것에 기죽지 않고 다시 말을 이었고, 두 번째 연설이 길어질수록 다아시 씨의 경멸은 눈에 띄게 커지는 듯했다. 연설이 끝나자 다아시 씨는 가볍게 고개만 숙이고 다른 쪽으로 걸어가 버렸다. 콜린스 씨는 그제야 엘리자베스에게 돌아왔다.

"저는 정말이지 아무 불만도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분의 응대는 아주 흡족했습니다. 다아시 씨도 제 인사를 몹시 반가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분은 더없이 정중하게 대답했고, 캐서린 영부인의 안목을 그토록 확실히 믿어서 영부인께서 가치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실 리는 결코

없다고까지 말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그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기 일로는 더 이상 마음 쓸 것이 없었으므로, 엘리자베스는
주의를 거의 전부 언니와 빙리 씨에게 돌렸고, 그렇게
지켜보며 줄줄이 떠오르는 유쾌한 생각들 덕분에 그녀는
어쩌면 제인에 버금갈 만큼 행복했다. 그녀는 머릿속에서
언니가 바로 이 집에 자리 잡고, 진실한 애정의 결혼이 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았고, 그런 형편이라면
빙리의 두 여동생까지도 좋아해 보려고 애쓸 수 있겠다고
느꼈다. 어머니의 생각도 같은 방향으로 쏠려 있는 것이
분명했으므로, 그녀는 너무 많은 말을 듣게 될까 봐 어머니
곁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그녀는 어머니와 자기 사이에 겨우 한 사람만 끼어
앉게 된 것을 더없이 얄궂은 불운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어머니가 바로 그 사람(루카스 부인)에게 거리낌 없이,
숨김없이, 제인이 곧 빙리 씨와 결혼하게 될 거라는 기대
말고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녀는 몹시
짜증이 났다. 그것은 신나는 주제였고, 베넷 부인은 그 결혼의
장점을 열거하면서 조금도 지치지 않는 듯했다. 그가 아주
매력 있는 젊은이이고, 그토록 부자이며, 이곳에서 불과 삼
마일 떨어져 산다는 것이 우선 자랑거리였다. 그다음에는 두

자매가 제인을 얼마나 아끼는지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그리고 그들도 이 혼인을 자기만큼이나 간절히 바랄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게다가 제인이 그렇게 큰 부자와 결혼하면 어린 딸들도 다른 부유한 남자들과 만날 길이 열릴 테니, 그것은 딸들에게도 참으로 유망한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나이에 독신인 딸들을 언니의 보살핌에 맡겨 두고,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교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도 이야기했다. 이런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예의이므로 이 사정을 기쁨의 문제로 삼아야 했지만, 베넷 부인만큼 어느 나이가 되든 집에 들어앉아 있는 데서 위안을 찾을 법하지 않은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루카스 부인도 머지않아 똑같이 행운을 얻기를 바란다는 많은 덕담으로 이야기를 맺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분명하고 의기양양하게 믿고 있는 것이 역력했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말이 빨라지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거나, 행복을 더 작은 소리로 말해 달라고 설득해 보았지만 헛일이었다. 맞은편에 앉은 다아시 씨가 그 이야기를 거의 다 엿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괴로웠다. 베넷 부인은 그저 딸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꾸짖을 뿐이었다.

"다아시 씨가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 사람이 무서워 말을 가려야 한단 말이니? 우리가 그 사람에게 듣기 싫을지도 모를 말을 삼가야 할 만큼 특별한 예의를 빚진 것도 아니잖아."

"제발 좀 목소리를 낮추세요, 어머니. 다아시 씨 비위를 거스르면 어머니께 무슨 득이 있겠어요? 그렇게 하셔서는 그분 친구에게 절대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머니는 같은 또렷한 목소리로 자기 생각을 계속 떠벌렸다. 엘리자베스는 부끄러움과 짜증으로 얼굴이 붉어졌다가 또 붉어졌다. 그녀는 자꾸만 다아시 씨를 힐끗거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던 것이 사실임을 확인할 뿐이었다. 그가 늘 어머니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관심이 한결같이 어머니에게 쏠려 있다고 그녀는 확신했다. 그의 얼굴 표정은 분노에 찬 경멸에서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진지함으로 서서히 바뀌어 갔다.

그러나 마침내 베넷 부인도 더 할 말이 없어졌고, 자기와 나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즐거움을 되풀이하는 말을 오래 듣느라 하품을 하고 있던 루카스 부인은 차가운 햄과 닭고기가 주는 위안에 맡겨졌다. 엘리자베스도 이제야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온한 틈은 오래가지

않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노래 이야기가 나왔고, 그녀는 메리가 별로 권유도 받지 않았는데 손님들을 즐겁게 해 주려고 준비하는 것을 보며 굴욕을 느꼈다. 그녀는 수많은 의미심장한 눈짓과 말 없는 간청으로 그런 호의의 과시를 막아 보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메리는 그 뜻을 알아들으려 하지 않았다. 자신을 드러낼 기회가 그녀에게는 즐거웠고, 그녀는 노래를 시작했다. 엘리자베스는 가장 괴로운 심정으로 메리를 바라보았고, 여러 절을 지나가는 동안 조바심을 내며 지켜보았지만 끝날 때 그 보답은 형편없었다. 메리는 식탁의 감사 인사를 받고 나서, 누군가 그녀가 한 번 더 들려주기를 바란다는 암시를 건네자 반 분쯤 쉰 뒤에 또 다른 노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메리의 재능은 그런 무대에 전혀 맞지 않았다. 목소리는 약했고 태도는 꾸며져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괴로워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제인이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보려고 언니를 바라보았지만, 제인은 아주 차분하게 빙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빙리의 두 여동생을 바라보았고, 그들이 서로에게 그리고 다아시에게 조롱의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았다. 다아시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진지하기만 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메리가 밤새 노래하지 않도록 개입해 달라고 애원했다. 아버지는 그 눈치를 알아채고, 메리가 두 번째 노래를 마쳤을 때 큰 소리로 말했다.

"그걸로 충분하다, 얘야. 우리를 이미 오래 즐겁게 해 주었구나. 이제 다른 아가씨들도 솜씨를 보일 기회를 가지도록 하렴."

메리는 듣지 못한 체했지만 다소 당황한 기색이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메리가 안쓰럽고 아버지의 말도 안타까워서, 자기의 애타는 마음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이제 일행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가 돌아갔다.

"만약 제가," 콜린스 씨가 말했다.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만큼 운이 좋다면, 손님들께 한 곡 들려 드리는 것을 틀림없이 큰 즐거움으로 여겼을 겁니다. 음악은 아주 무해한 오락이고, 성직자라는 직업과도 완전히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악에 너무 많은 시간을 바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돌봐야 할 다른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교구 목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그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서도 후원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십일조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설교문은 직접 써야 하고, 그러고 남는 시간이 교구의 의무와 자기 사택을 돌보고 개선하는 일에 결코 넉넉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택을 가능한 한 편안하게 꾸미는 일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가 누구에게나, 특히 자기를 그 자리에 올려준

사람들에게 세심하고 상냥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그 의무에서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집안과 연고가 있는 누구에게든 존경을 표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을 좋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다아시 씨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연설을 마쳤는데, 그 말은 방의 절반이 들을 만큼 큰 소리였다. 많은 사람이 쳐다보았고, 많은 사람이 웃었다. 그러나 베넷 씨 자신만큼 재미있어하는 사람은 없었다. 반면 그의 아내는 콜린스 씨가 그렇게 분별 있게 말한 것을 진지하게 칭찬하며, 루카스 부인에게 반쯤 속삭이는 소리로 그는 아주 똑똑하고 착한 청년이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에게는, 가족이 저녁 내내 할 수 있는 한 망신을 사기로 미리 짜 놓았다 해도 그들이 이보다 더 신나게, 더 훌륭하게 제 역할을 해낼 수는 없었을 것처럼 보였다. 그래도 그 과시의 일부를 빙리가 눈치채지 못했고, 그가 목격했을 어리석음에 크게 괴로워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 그녀에게는 빙리와 언니를 위해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두 여동생과 다아시 씨가 그녀의 가족을 비웃을 기회를 얻은 것은 그것만으로도 나빴다. 그녀는 신사의 말없는 경멸과 숙녀들의 건방진 미소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견디기 힘든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 밖의 저녁 시간은 그녀에게 거의 즐거움을 주지 못했다. 콜린스 씨는 그녀의 곁을 끈질기게 떠나지 않으며 그녀를 성가시게 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설득해 함께 춤추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다른 사람과 춤추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 춤을 추라고 애원하고, 방 안의 어떤 아가씨에게든 그를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춤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섬세한 배려로 그녀의 호감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므로 저녁 내내 그녀 곁에 바짝 붙어 있겠다고 단언했다. 그런 계획을 두고 논쟁할 여지는 없었다. 그녀가 가장 큰 안도를 얻은 것은 친구 루카스 양 덕분이었다. 루카스 양은 자주 그들 곁에 와 어울리며, 호의를 베풀어 콜린스 씨의 이야기를 자기 쪽으로 돌려놓았다.

그녀는 적어도 다아시 씨의 추가적인 주목을 받는 불쾌함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한가하게 서 있는 일이 자주 있었지만, 말을 걸 만큼 가까이 다가온 적은 없었다. 그녀는 이것이 위컴 씨에 대해 자신이 했던 암시들의 아마도 당연한 결과일 거라고 여겼고, 그 점을 기뻐했다.

롱본 일행은 모든 손님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떠났다. 베넷 부인의 꾀로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도 15분이나 마차를 기다려야 했는데, 그 덕분에 그들은 그 집 식구 가운데 몇몇이 얼마나 진심으로 자기들이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허스트 부인과 그 여동생은 피곤하다고 불평할 때를 빼고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고, 집을 자기들끼리 쓰고 싶어 조바심을 내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베넷 부인이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물리쳤고, 그렇게 하여 일행 전체에 나른한 기운을 드리웠다. 콜린스 씨가 빙리 씨와 그 누이들에게 연회의 우아함과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 드러난 환대와 예의를 칭찬하며 길게 늘어놓은 말도 그 기운을 거의 덜어 주지 못했다. 다아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베넷 씨는 똑같이 말없이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빙리 씨와 제인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 함께 서 있었고, 서로에게만 말을 건넸다. 엘리자베스도 허스트 부인이나 빙리 양 못지않게 꿋꿋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리디아조차 너무 피곤해서 "세상에, 나 정말 피곤해!"라는 소리를 이따금 내뱉고 격하게 하품을 하는 것 말고는 별로 말을 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하려 할 때, 베넷 부인은 머지않아 온 가족이 롱본에 와 주기를 바란다며 아주 정중하고 간곡하게 말했다. 특히 빙리 씨에게 말을 걸어, 격식을 차린 초대 없이 언제든 가족끼리 저녁을 함께 먹어

준다면 얼마나 기쁘겠느냐고 힘주어 말했다. 빙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색이 가득했다. 그는 다음 날 잠시 런던에 다녀와야 했는데, 돌아오는 대로 가장 먼저 찾아뵙겠다고 선뜻 약속했다.

베넷 부인은 더없이 흡족했다. 혼인 계약서와 새 마차와 결혼식 예복 등 필요한 준비를 감안하더라도, 석 달이나 넉 달 안에 딸이 네더필드에 자리 잡는 것을 틀림없이 보게 되리라는 기쁜 확신을 품고 그 집을 나섰다. 다른 딸 하나가 콜린스 씨와 결혼하리라는 것도 그녀는 똑같이 확신했고, 그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기뻐했다. 엘리자베스는 그녀가 자식들 가운데 가장 덜 아끼는 아이였다. 그 남자와 그 혼사가 엘리자베스에게는 그만하면 충분히 좋은 것이었지만, 둘의 가치는 빙리 씨와 네더필드에 가려지고 말았다.

제19장



휴 톰슨, 제19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다음 날 롱본에서는 새로운 장면이 펼쳐졌다. 콜린스 씨는 정식으로 청혼을 했다. 휴가가 돌아오는 토요일까지만 허락되어 있었으므로 지체하지 않고 청혼하기로 마음먹었고, 이 순간에도 자신이 괴로울 만큼 망설이는 마음은 없었기에 그는 일을 매우 질서 있게 진행했다. 그리고 일의 정식 절차라고 여긴 모든 예법을 갖추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베넷 부인과 엘리자베스, 그리고 어린 동생 중 한 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는 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을 꺼냈다.

"부인, 오늘 오전 중에 아름다운 따님 엘리자베스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영광을 청하려 하는데, 부인께서 따님에게 힘을 써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엘리자베스가 놀라 얼굴을 붉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틈도 없이, 베넷 부인이 즉시 대답했다.

"아이고, 그럼요! 물론이죠. 우리 리지는 분명 아주 기뻐할 거예요. 반대할 리가 없어요. 자, 키티, 나랑 위층에 좀 가자." 그러고는 일감을 주섬주섬 모아 서둘러 나가려 했는데, 엘리자베스가 불렀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콜린스 씨가 양해해 주셔야 해요. 그분이 저한테 하실 말씀 중에 다른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될 말은 없을 거예요. 제가 나갈게요."

"아니다,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리지. 거기 그대로 있어라." 엘리자베스가 정말로 짜증 나고 난처한 얼굴로 빠져나가려 하자, 베넷 부인이 덧붙였다. "리지, 너는 여기 남아서 콜린스 씨 말을 들어야 한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다."

엘리자베스는 이런 명령에 맞설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해 보니, 이 일을 가능한 한 빨리 조용히 끝내는 편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괴로움과 우스움 사이를 오가는 감정을 끊임없이 손을 놀려 일하는 것으로 감추려 했다. 베넷 부인과 키티는 자리를 떠났고,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콜린스 씨가 말을 시작했다.

"친애하는 엘리자베스 양, 제 말을 믿어 주십시오. 당신의 그 겸손함은 결코 당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다른 훌륭한 점들을 더 돋보이게 할 뿐입니다. 이런 작은 주저함이 없었다면 당신은 제 눈에 지금만큼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혼이 당신의 존경받는 어머님의 허락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타고난 섬세함 때문에

모르는 척하려 한다 해도, 제 말의 뜻을 의심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관심은 너무도 뚜렷해서 착각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집에 들어선 뒤 거의 곧바로 저는 당신을 제 앞날의 반려자로 점찍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관한 감정에 제가 휩쓸려 버리기 전에, 제가 결혼하려는 이유와, 더 나아가 제가 틀림없이 그랬던 것처럼 아내를 고를 목적으로 하트퍼드셔에 온 이유를 먼저 밝히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콜린스 씨가 그토록 엄숙하게 자제하는 사람인데도 감정에 휩쓸린다는 생각에, 엘리자베스는 웃음이 터질 지경이 되어 그가 허락한 짧은 틈을 이용해 그를 더 막아 볼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는 말을 이어 갔다.

"제가 결혼하려는 이유는 첫째로, 저처럼 형편이 넉넉한 성직자라면 자신의 교구에서 혼인의 본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것이 제 행복을 크게 높여 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아마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을 텐데, 제가 후원자로 모시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고귀한 부인께서 특별히 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황송하게도 두 번이나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쭙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헌스퍼드를 떠나오기 직전 토요일 밤, 드 버그 양이 쓰실 발판을 젠킨슨 부인이 정리하는 동안, 우리가

카드리유를 치던 판과 판 사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콜린스 씨, 자네는 결혼을 해야 해. 자네 같은 성직자는 결혼해야 하고말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자네 자신을 위해서 제대로 골라. 신분 있는 여자를 고르되, 활동적이고 쓸모 있는 사람이어야 해. 너무 귀하게 자라지 않아서 적은 수입으로도 살림을 잘 꾸려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게 내 충고야. 되도록 빨리 그런 여자를 찾아 헌스퍼드로 데려와. 내가 찾아가 보지.'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사랑스러운 사촌 누이, 저는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께서 보여 주실 관심과 친절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점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영부인의 태도는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재치와 활기는, 특히 영부인의 신분 때문에 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침묵과 존중으로 누그러뜨린다면, 영부인께서도 분명 기쁘게 받아들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에 대한 제 일반적인 생각은 이 정도입니다. 이제 제가 제 동네에서 찾지 않고 롱본을 향하게 된 까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장담하건대 제 동네에도 사랑스러운 젊은 여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당신의 존경하는 아버님(그분은 앞으로도 여러 해 더 살아 계실지 모르지만)께서 돌아가신 뒤에 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므로, 그 슬픈 일이 일어날 때 따님들이 입을 손실을 가능한 한 적게 하려면 그분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고르겠다고 결심하는 것 말고는 제 마음이 만족할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일은 몇 년 뒤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 동기였으며, 사랑스러운 사촌 누이, 이 때문에 당신의 존중을 잃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 사랑이 얼마나 격렬한지를 가장 뜨거운 말로 확언하는 일뿐입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당신의 아버님께 그런 종류의 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당신 것이 되는 4퍼센트 공채 일천 파운드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전부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점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 뒤에도 제 입에서 너그럽지 못한 비난이 나오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고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그의 말을 이제 반드시 끊어야 했다.

"아니, 선생님, 너무 성급하시군요." 그녀가 외쳤다. "제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걸 잊으셨어요. 더 시간을 끌지 않고 지금 대답할게요. 저에게 해 주시는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청혼해 주신 영광은 잘 알겠지만, 그 청을 거절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새삼 배울 것도 없이 저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콜린스 씨는 격식을 차려 한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젊은 아가씨들이 처음 청혼을 받았을 때, 속으로는 받아들이려 하면서도 겉으로는 거절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그 거절이 두 번, 심지어 세 번까지 되풀이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방금 하신 말씀에 저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으며, 머지않아 당신을 제단으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세컨대, 선생님,"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그런 희망을 품으시다니 꽤 별나시군요. 저는 장담하건대, 두 번째로 청혼받을 가능성에 자신의 행복을 걸 만큼 대담한 아가씨들(그런 아가씨들이 있다면)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거절하는 말을 전혀 농담으로 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저를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없고, 저는 세상에서 선생님을 행복하게 해 드릴 수 있는 여자와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선생님의 친구인 캐서린 영부인께서 저를 아신다면, 저는 영부인께서 모든 면에서 제가 그 자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로 캐서린 영부인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콜린스 씨가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영부인께서 당신을 조금이라도 못마땅해하실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영부인을 뵐 영광을 얻게 되면, 당신의 겸손함과 검소함, 그 밖의 사랑스러운 자질들에 대해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겠다고 장담합니다."

"정말이지, 콜린스 씨, 저를 칭찬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 일은 제가 스스로 판단하게 해 주셔야 하고, 제가 하는 말을 믿어 주는 예의를 베풀어 주셔야 해요. 저는 선생님이 아주 행복하고 아주 부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청혼을 거절함으로써, 선생님이 그렇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 힘닿는 데까지 하는 셈이에요. 저에게 청혼하시면서 우리 집안에 대한 선생님의 섬세한 마음은 이미 만족시키셨을 테니, 이제 롱본 재산이 상속될 때 아무런 자책 없이 그것을 차지하셔도 돼요. 그러니 이 문제는 이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여기셔도 좋아요."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일어섰고, 방을 나가려 했다. 그때 콜린스 씨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제가 다음에 이 문제로 다시 말씀드릴 영광을 얻는다면, 지금 주신 답보다 더 호의적인 대답을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잔인하다고 비난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남자가

처음 청혼하면 거절하는 것이 여성들의 굳어진 관습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또 아마도 당신은 여성다운 참된 섬세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 구혼을 격려하는 말을 이미 충분히 하셨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콜린스 씨," 엘리자베스가 조금 격앙되어 외쳤다. "선생님은 저를 몹시 당황하게 만드시네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 선생님에게 격려로 들렸다면, 제가 거절한다는 것을 선생님이 믿으실 수 있도록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애하는 사촌 누이, 제 청혼을 거절하시는 말씀이 그저 형식적인 말씀일 뿐이라고 저 스스로 믿도록 허락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믿는 까닭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제 손이 당신이 받아들이기에 부족해 보이지도 않고, 제가 마련해 드릴 수 있는 살림 형편도 더없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 처지, 드 버그 가문과의 관계, 그리고 당신 집안과의 친척 관계는 모두 제게 아주 유리한 사정입니다. 게다가 당신이 아무리 많은 매력을 지녔더라도 다른 청혼이 다시 들어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점도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지참금은 불행히도 너무 적어서, 아마 당신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운 자질들이 주는 효과를 모두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이 저를 거절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고, 우아한 여성들이 흔히 쓰는 방식대로 당신이 기다림으로 제 사랑을 키우고 싶어 한다고 여기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존경할 만한 분을 괴롭히는 그런 식의 우아함을 조금도 흉내 낼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보다는 제 말을 진심으로 믿어 주시는 예의를 갖춰 주셨으면 해요. 청혼해 주신 영광에 대해서는 거듭 감사드리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제 마음이 모든 면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더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하나요? 지금 저를 선생님을 애태우려는 우아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고,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을 말하는 이성적인 사람으로 여겨 주세요."

"당신은 언제 봐도 매력적이십니다!" 그가 어색한 찬사를 던지듯 외쳤다. "그리고 당신의 훌륭한 부모님 두 분의 명확한 허락을 얻는다면, 제 청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리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고집에 엘리자베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말없이 곧장 방을 나갔다. 그녀는 콜린스 씨가 자기의 거듭된 거절을 듣기 좋은 격려로 여전히 받아들인다면, 아버지에게 가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아버지의 거절은 결정적으로 들릴 만큼 단호하게 전해질 것이고, 그 태도만큼은 우아한 여자의 가식이나 교태로 오해받을 수 없을 것이었다.

제20장



휴 톰슨, 「그들이 아침 식사 방에 들어서자」(1894년 판 삽화)

콜린스 씨는 자신의 성공한 사랑을 오래 조용히 곱씹고 있을 수 없었다. 베넷 부인이 회담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현관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엘리자베스가 문을 열고 빠른 걸음으로 자기 곁을 지나 계단 쪽으로 가는 것을 보자마자 아침 식사실로 들어왔다. 그러고는 그와 자신에게 두 집안이 더 가까워질 행복한 전망이 열렸다며 따뜻한 말로 축하를 건넸다. 콜린스 씨도 같은 기쁨으로 그 축하를 받아 답례했고, 이어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자세한 내용을 들려주었다. 그는 사촌이 끝까지 고집한 거절이 그녀의 수줍은 겸손과 타고난 섬세한 성품에서 자연스레 나온 것이니, 그 결과에 만족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말에 베넷 부인은 깜짝 놀랐다. 딸이 청혼을 거절하면서 사실은 그에게 희망을 주려던 것이었다고 여길 수 있었다면 그녀도 똑같이 흡족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믿을 용기가 없었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다.

"하지만 믿으셔도 좋아요, 콜린스 씨." 그녀가 덧붙였다. "리지가 이성을 되찾게 만들겠어요. 내가 직접 바로 이야기할게요. 고집만 세고 철없는 아이라서 자기 이익이 뭔지도 모르지만, 내가 반드시 알아듣게 하겠어요."

"실례지만 부인,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콜린스 씨가 외쳤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 고집이 세고 철이 없다면, 행복을 혼인 생활에서 자연스레 찾으려는 제 처지의 남자에게 과연 썩 바람직한 아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만약 그녀가 정말로 제 청혼을 끝까지 거절하겠다면, 억지로 저를 받아들이게 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성격에 그런 결함이 있다면 제 행복에 그리 보탬이 되지 못할 테니까요."

"콜린스 씨, 내 말을 크게 오해하셨어요." 베넷 부인이 놀라서 말했다. "리지는 이런 문제에서만 고집이 센 거예요. 그 밖의 일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이예요. 내가 바로 베넷 씨에게 가 볼게요. 우리가 그 아이와 이야기하면 분명 곧 정리가 될 거예요."

그녀는 그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곧장 남편에게 달려가 서재에 들어서면서 소리쳤다.

"아이고, 여보, 당신이 지금 당장 와야 해요. 우리 집이 난리 났어요. 당신이 와서 리지를 콜린스 씨와 혼인하게 해 줘야 해요. 그 아이가 절대 그와 혼인하지 않겠다고 우기고 있어요. 서두르지 않으면 콜린스 씨가 마음을 바꿔서 그 아이와 혼인하지 않겠다고 할 거예요."

베넷 씨는 그녀가 들어서자 책에서 눈을 들어 차분하고 무심한 눈길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을 듣고도 그 무심함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당신 말을 알아듣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구려." 그녀가 말을 다 마치자 그가 말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요?"

"콜린스 씨와 리지 이야기예요. 리지가 콜린스 씨와는 절대 혼인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하고, 콜린스 씨는 리지와 혼인하지 않겠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요? 이 일은 가망이 없어 보이는구려."

"리지에게 직접 이야기해요. 그 사람과 꼭 혼인해야 한다고 당신이 못 박아 말해 줘요."

"리지를 불러내구려. 내 생각을 그 아이가 직접 듣게 해야겠소."

베넷 부인은 종을 울렸고, 엘리자베스 양이 서재로 불려 왔다.

"이리 오너라, 얘야."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 아버지가 외쳤다. "중요한 일로 너를 불렀다. 콜린스 씨가 너에게 청혼했다고 들었다. 사실이냐?"

그렇다고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좋다. 그런데 너는 그 청혼을 거절했다는 게냐?"

"네, 그랬어요, 아버지."

"좋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네 어머니가 네가 그 청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고집하신다. 그렇지 않소, 여보?"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그 아이를 다시는 안 볼 거예요."

"불행한 선택지가 네 앞에 놓여 있다, 엘리자베스. 오늘부터 너는 부모 중 한쪽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콜린스 씨와 결혼하지 않으면 네 어머니는 너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고, 결혼한다면 내가 너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이런 시작에 이런 결말이 나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남편이 자기 바람대로 이 일을 받아들인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베넷 부인은 몹시 실망했다.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애가 그 사람과 결혼하도록 강요하겠다고 나한테 약속해 놓고는."

"여보," 남편이 대답했다. "당신한테 작은 부탁이 두 가지 있소. 첫째, 이번 일에서는 내 판단을 내 뜻대로 쓰게 해 주시오. 둘째, 내 방을 쓰게 해 주시오. 가능한 한 빨리 서재를 나 혼자 쓸 수 있으면 좋겠소."

그래도 남편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베넷 부인이 이 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에게 거듭거듭 말을 걸었다.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위협하며 번갈아 몰아붙였다. 제인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제인은 가능한 한 부드럽게 간섭하기를 사양했다. 엘리자베스는 어떤 때는 진지하게, 어떤 때는 장난스럽고 명랑하게 어머니의 공격에 맞섰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태도는 그때그때 달라도 그 결심만은 결코 바뀌지 않았다.

한편 콜린스 씨는 방금 있었던 일을 홀로 곰곰이 되새기고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했기에, 사촌이 무슨 이유로 자기를 거절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그 밖에는 아무런 고통도 겪지 않았다. 그가 그녀에게 품었던 호감은 애초에 상상에 불과했고, 그녀가 어머니의 꾸중을 들어 마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에게 어떤 유감도 느끼지 못하게 했다.

베넷가가 이 소동에 휩싸여 있을 때, 샬럿 루카스가 하루를 보내려고 찾아왔다. 현관에서 그녀를 맞은 사람은 리디아였다. 리디아는 그녀에게 달려가 반쯤 속삭이는 목소리로 외쳤다. “잘 왔어, 여기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있는지 몰라!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콜린스 씨가 리지한테 청혼했는데, 리지가 거절했어.”

샬럿은 대답할 틈도 거의 없었는데, 곧 같은 소식을 전하러 온 키티가 합류했다. 세 사람이 베넷 부인이 혼자 있던 아침 식사실에 들어서자마자, 부인 역시 바로 그 이야기를 꺼내며 루카스 양의 동정을 구했고, 친구 리지를 설득해 가족의 뜻에 따르도록 해 달라고 간청했다. “제발 부탁이에요, 루카스 양,” 그녀는 우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내 편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편들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나는 이토록 모진 대우를 받고 있는데, 내 불쌍한 신경을 헤아려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들어온 덕분에 샬럿은 대답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래요, 저기 오네요,” 베넷 부인이 말을 이었다. “세상 무심한 얼굴로 말이에요. 제 마음대로만 할 수 있다면, 우리야 요크에 가 있는 사람들인 양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니까요. 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리지 양. 네가 이런 식으로 청혼을

전부 거절할 생각이라면 결국 남편은 영영 못 얻고 말 거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누가 너를 부양할지도 난 모르겠구나. 나는 널 먹여 살릴 수 없어. 그러니 미리 경고해 두는 거다. 오늘부터 난 너랑 연을 끊겠다. 서재에서도 말했지, 다시는 너하고 말하지 않겠다고. 내가 한 말은 지킨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불효막심한 자식과 얘기하는 건 조금도 즐겁지 않다. 사실 누구와 얘기하는 것도 즐겁지는 않아. 나처럼 신경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말할 기운도 별로 없어. 아무도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 수 없지! 하지만 늘 이렇단다.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동정해 주지 않아."

딸들은 이 장황한 하소연을 말없이 듣고 있었다. 어머니를 설득하려 하거나 달래려 해 봐야 짜증만 더할 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넷 부인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계속 떠들어 댔다. 그러다 콜린스 씨가 평소보다 더 위엄 있는 기색으로 들어왔고, 그를 본 부인은 딸들에게 말했다.

"자, 내가 분명히 말하겠다. 너희 모두 입 다물고 있어라. 콜린스 씨와 내가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라."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방을 나섰고, 제인과 키티가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리디아는 자리를 지키며 들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듣겠다고 마음먹었다. 샬럿은 처음에는 콜린스 씨의 예의 바른 인사에 붙잡혔다. 그는 샬럿과 그녀의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주 꼼꼼하게 묻고 있었다. 그다음에는 약간의 호기심 때문에 자리를 뜨지 못한 샬럿은 창가로 걸어가 듣지 않는 척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베넷 부인은 우울한 목소리로 예정된 대화를 이렇게 시작했다.

"오, 콜린스 씨!"

"부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원히 입을 다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제가 따님의 행동을 원망하다니, 당치도 않습니다," 그는 곧 불쾌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피할 수 없는 불행에 체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특히 저처럼 일찍부터 출세하는 행운을 누린 젊은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체념했다고 믿습니다. 제 아름다운 사촌이 저를 남편으로 받아 주었다 해도 제가 틀림없이 행복했을지 의문이 드니, 그만큼 더 체념하기 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얻지 못한 축복이 우리 눈에 얼마간 가치를 잃기 시작할 때만큼 체념이 완벽해지는 때는 없다는 것을 저는 자주 보았으니까요. 제가 따님의 호의에 기대던 마음을 거두면서, 부인과 베넷 씨께 제 편에서 권위를 행사해 달라고 부탁하는 예의조차 차리지 않았다고 해서, 부인, 그것이 귀댁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라고는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인의 입이 아니라 따님의 입에서 나온 거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제

행동의 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목적은 귀댁 식구 모두에게 돌아갈 이익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위해 다정한 동반자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 태도에 조금이라도 비난받을 만한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제21장



휴 톰슨, 「그들과 함께 걸어 돌아왔다」(1894년 판 삽화)

콜린스 씨의 청혼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거의 끝나 가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그 일에 따르기 마련인 불편한 마음을 견디기만 하면 되었고, 간간이 어머니의 짜증 섞인 말도 들어야 했다. 콜린스 씨 자신은 당황하거나 낙담한 기색을 보이지도, 그녀를 피하려 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의 감정은 뻣뻣한 태도와 분한 듯한 침묵으로 드러났다.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다. 그가 스스로도 알아차렸던 그 정성 어린 관심은 그날 남은 시간 동안 루카스 양에게 옮겨 갔다. 루카스 양이 그의 말을 들어 주는 예의 바른 태도는 모두에게, 특히 그녀의 친구인 엘리자베스에게 때맞춘 안도감을 주었다.

다음 날에도 베넷 부인의 언짢은 기분과 몸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콜린스 씨 역시 분하고 자존심 상한 상태 그대로였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노여움 때문에 방문이 짧아지기를 바랐지만, 그의 계획은 그 일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는 원래 토요일에 떠나기로 되어 있었고, 아직도 토요일까지 머물 생각이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딸들은 위컴 씨가 돌아왔는지 알아보고 네더필드 무도회에 그가 없었던 일을 한탄하려고 메리턴으로 걸어갔다. 그들이 마을에 들어설 때 위컴이 합류해 이모 집까지 함께 갔는데, 거기서 그의 유감과 짜증, 그리고 모두의 걱정이 한참 화제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엘리자베스에게만은 자기가 자리를 비운 것이 스스로 택한 일이었다고 먼저 털어놓았다.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그가 말했다. "다아시 씨와 마주치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방에서, 같은 모임에서 몇 시간이고 함께 있어야 한다면 견디기 힘들 수도 있고, 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쾌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제한 것을 크게 칭찬했다. 두 사람은 그 일을 충분히 이야기할 여유가 있었고, 서로에게 예의 바르게 건네는 칭찬도 실컷 주고받았다. 위컴과 다른 장교 한 명이 그들과 함께 롱본까지 걸어 돌아왔는데, 걷는 동안 위컴은 특히 그녀에게 정성을 쏟았다. 그가 함께 와 준 것은 두 가지로 이로웠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에게 보내는 호의를 고스란히 느꼈고, 또 그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소개할 기회가 되어 무척 반가웠다.

그들이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베넷 양에게 편지 한 통이 전해졌다. 네더필드에서 온 편지였고, 그녀는 곧바로 봉투를 뜯었다. 봉투 안에는 고급스럽고 자그마한 열 압착 종이가 한 장 들어 있었는데, 한 숙녀의 곱고 흐르는 필체로 가득 차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의 얼굴이 편지를 읽으며 변하는 것을 보았고, 언니가 몇몇 대목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는 것도 보았다. 제인은 곧 정신을 가다듬고 편지를 치운 뒤,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여럿이 나누는 이야기에 끼어 보려 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 일이 마음에 걸려 위컴에게 쏠려 있던 관심마저 거두어들이고 말았다. 위컴과 그의 동행이 작별 인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제인이 눈짓으로 위층까지 따라오라고 청했다. 둘이 자기들 방에 들어서자, 제인은 편지를 꺼내며 말했다. "캐럴라인 빙리한테서 온 편지야. 거기 적힌 내용에 나는 꽤 놀랐어. 지금쯤 일행은 모두 네더필드를 떠나 런던으로 가는 길이래. 게다가 다시 돌아올 생각도 없다는구나. 직접 들어 봐."

그녀는 먼저 첫 문장을 소리 내어 읽었다. 그 문장에는 그들이 방금 오빠를 따라 곧장 런던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것과, 그날 허스트 씨가 집을 가지고 있는 그로스베너 가에서 저녁을 먹을 작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음 문장은 이러했다. "'내 가장 소중한 친구, 당신과 함께한 시간을 빼면 하트퍼드셔에 두고 떠나는 것 중에 아쉽다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앞으로 언젠가 우리가 함께 나누던 그 즐거운 교제를 여러 번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동안은 아주 자주,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헤어짐의 아픔을 덜어 보아요. 그 일은 당신만 믿을게요.'" 엘리자베스는 이 과장된 말들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아무 감흥 없이 들었다. 그들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는 것은 놀라웠지만, 정말 애석해할 만한 일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네더필드를 떠난다고 해서 빙리 씨가 그곳에 오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었다. 그들과의 교제가 끊기는 것에 대해서는, 제인이 곧 빙리 씨와 함께 있는 즐거움에 빠져 그것을 더 이상 아쉬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안타깝네,"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다. "그들이 이 지방을 떠나기 전에 언니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다니. 하지만 빙리 양이 기다리는 그 행복한 시기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찍 찾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친구로서 나누던 즐거운 교제가 자매가 되어 더 큰 만족과 함께 다시 이어질지도 모르잖아. 빙리 씨는 그들 때문에 런던에 붙들려 있지는 않을 거야."

"캐럴라인이 분명히 말하길, 이번 겨울에는 일행 중 누구도 하트퍼드셔로 돌아오지 않을 거래. 내가 읽어 줄게.

"'내 오빠는 어제 우리를 떠날 때, 런던에 가게 된 용무가 사흘이나 나흘이면 끝날 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게 분명하고, 찰스도 일단 런던에 가면 다시 떠나려고 서두르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확신해요. 그래서 그가 쓸쓸한 여관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우리도 그곳으로 따라가기로 했어요. 내 지인들 중 많은 사람이 이번 겨울을 벌써 런던에서 보내고 있어요. 내 가장 소중한 친구, 당신도 그 무리에 끼려는 생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이미 포기했어요. 하트퍼드셔에서 맞는 크리스마스가 그 계절이 보통 가져다주는 즐거움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가 빼앗아 가는 세 사람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도록 당신의 구혼자들이 많기를 바라요.'"

"이 편지를 보면 분명해," 제인이 덧붙였다. "그가 이번 겨울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지."

"분명한 건 빙리 양이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니? 분명 그건 그의 뜻일 거야. 그는 자기 일의 주인이니까. 하지만 넌 다 알지 못해. 특히 나를 아프게 하는 대목을 읽어 줄게. 너한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게. '다아시 씨가 여동생을 보고 싶어 안달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그녀를 다시 만나기를 그 못지않게 고대하고 있어요. 나는 조지애나 다아시만큼 아름답고 우아하고 재주 많은 아가씨가 또 있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녀가 루이자와 나에게 불러일으키는 애정은, 우리가 감히 품고 있는 바람, 즉 그녀가 앞으로 우리의 올케가 될지도 모른다는 바람 때문에 더욱 흥미로운 것이 되었어요. 이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을 전에 당신에게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털어놓지 않고는 이 지방을 떠날 수 없어요. 당신이 그 생각을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오빠는 벌써 그녀를 크게 좋아하고 있어요. 이제 그녀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자주 볼 기회가 생기겠지요. 그녀의 친척들도 모두 우리 집안 못지않게 이 혼인을 바라고 있어요. 찰스가 어떤 여자의 마음이든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말해도, 누이로서 편애하는 마음에 잘못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정을 북돋울 이런 모든 사정이 다 갖춰져 있고, 그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가장 소중한 제인, 그 많은 사람의 행복을 확실히 해 줄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잘못일까요?' 이 문장을 어떻게 생각하니, 나의 리지?"
제인이 문장을 다 읽고 물었다. "충분히 분명하지 않니? 캐럴라인이 내가 자기 올케가 되기를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고, 자기 오빠가 나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고 있다고, 그리고 만약 내가 그에게 품은 감정을 눈치챘다면 (아주 친절하게도!) 나를 조심시키려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니? 이 일에 대해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을까?"

"있고말고.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르거든. 들어 볼래?"

"기꺼이 듣고 싶어."

"몇 마디로 말해 줄게. 빙리 양은 자기 오빠가 언니를 사랑하는 걸 알아채고, 그가 다아시 양과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어. 그가 런던에 머물도록 붙잡아 두려고 따라가는 거고, 언니한테는 그가 언니에게 아무 관심도 없다고 믿게 하려는 거야."

제인이 고개를 저었다.

"정말이지, 제인 언니, 내 말을 믿어야 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그의 애정을 의심할 수 없어. 빙리 양도 의심할 리 없어.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으니까. 다아시 씨에게서 자기를 향한 사랑을 그 절반만큼이라도 봤다면 벌써 결혼 예복을 주문했을 거야. 하지만 사정은 이래. 우리는 그들에게 충분히 부자도 아니고 충분히 지체가 높지도 않아. 그래서 빙리 양은 다아시 양을 자기 오빠의 짝으로 붙잡으려고 더 안달하고 있어. 두 집안 사이에 한 번 혼인이 이루어지면 두 번째는 덜 힘들 거라는 생각에서지. 거기에는 분명 어떤 영리함이 있고, 드 버그 양만 없다면 아마 성공할 거라고 나는 생각해. 하지만 가장 소중한 제인 언니, 빙리 양이 자기 오빠가 다아시 양을 몹시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가 화요일에 언니와 작별할 때보다 언니의 장점을 조금이라도 덜 알아본다고 정말로

생각하지는 않겠지? 또 빙리 양이 그를 설득해서 그가 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친구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믿게 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겠지?"

"만약 우리가 빙리 양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면," 제인이 대답했다. "네 말을 듣고 마음을 아주 편히 놓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판단의 바탕이 부당하다는 걸 나는 알아. 캐럴라인은 일부러 누군가를 속일 사람이 아니야. 이 경우에 내가 바랄 수 있는 건 그녀 자신이 속고 있는 것뿐이야."

"그래. 그럼 잘됐어. 언니가 내 생각으로는 위로받지 않으려 하니, 아주 좋은 생각을 하나 꺼낸 셈이야. 얼마든지 그녀가 속고 있다고 믿어. 이제 그녀에게 할 도리는 다 했으니, 더는 속 태우지 마."

"하지만 사랑하는 동생아, 그의 누이들과 친구들이 모두 그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는 남자를 받아들인다면, 일이 가장 잘 풀린다 해도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언니가 직접 결정해야 해,"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충분히 생각한 끝에 그의 두 누이를 실망시키는 괴로움이 그의 아내가 되는 행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면, 꼭 그 사람을 거절하라고 권하고 싶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제인이 힘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도 알잖아, 그들이 반대한다면 내가 몹시 괴롭겠지만 망설이지는 않을 거라는 걸."

"그럴 줄 알았어. 그렇다면 언니 처지를 크게 안쓰럽게 여길 수는 없겠네."

"하지만 그가 이번 겨울에 다시 오지 않는다면, 내가 선택할 일도 없겠지. 여섯 달 사이에 천 가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엘리자베스는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더없이 가소롭게 여기며 일축했다. 그 생각은 그저 캐럴라인의 이해관계에서 나온 바람처럼 보였고, 그녀는 그런 바람을 아무리 노골적으로 또는 교묘하게 드러낸다 해도 누구에게도 전혀 얽매이지 않는 젊은 남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는 한순간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언니에게 가능한 한 힘주어 말했고, 곧 그 말이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을 보는 기쁨을 누렸다. 제인은 원래 쉽게 낙담하지 않는 성격이었고, 사랑하는 마음의 소심함이 때때로 희망을 짓누르기도 했지만, 빙리가 네더필드로 돌아와 그녀의 마음속 모든 바람에 답해 주리라는 희망을 점차 품게 되었다.

그들은 베넷 부인에게는 네더필드 일행이 떠났다는 사실만 알리고, 신사의 행실에 대해서는 놀라게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처럼 일부만 알렸는데도 그녀는 적잖이 걱정했다. 그녀는 모두가 막 친해지려던 참에 하필 숙녀들이 떠나 버린 것이 몹시 안타깝다며 한탄했다. 그래도 한동안 그렇게 탄식한 뒤에는, 빙리 씨가 곧 다시 내려와 롱본에서 식사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얻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그를 가족끼리 하는 식사에 초대했을 뿐이지만 두 코스를 제대로 갖춰 차리도록 신경 쓰겠다는 흐뭇한 선언으로 끝을 맺었다.

제22장



휴 톰슨, 「그토록 넘치는 사랑과 열변」(1894년 판 삽화)

베넷 가족은 루카스 집안과 저녁을 함께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낮의 대부분을 또다시 루카스 양이 콜린스 씨의 말을 친절하게 들어 주며 보냈다. 엘리자베스는 그 기회를 빌려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 덕분에 그분 기분이 좋아지니까 말이야,” 그녀가 말했다.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너에게 고마워.”

샬럿은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얼마 안 되는 시간을 희생한 것쯤은 그것으로 충분히 보상받는다고 장담했다. 참으로 상냥한 말이었다. 그러나 샬럿의 친절은 엘리자베스가 짐작하던 것보다 훨씬 멀리 나아가 있었다. 그 목적은 콜린스 씨의 구애가 다시 엘리자베스에게 향하지 않도록, 그 구애를 자기 쪽으로 돌려놓는 데 있었다. 그것이 루카스 양의 계획이었고, 상황도 그녀에게 아주 유리해 보였다. 그날 밤 헤어질 때, 그가 하트퍼드셔를 그렇게 곧 떠날 예정만 아니었다면 그녀는 거의 성공을 확신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기질이 가진 열정과 독립심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 기질 덕분에 그는 다음 날 아침 감탄할 만큼 교묘하게 롱본 저택을 빠져나와 루카스 저택으로 서둘러 가서 그녀의 발치에 엎드렸다. 그는 사촌들의 눈에 띄지 않기를 원했다. 그들이 그가 떠나는 것을 보면 그의 의도를 짐작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확신했고, 성공 여부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시도 자체를 알리고 싶지

않았다. 샬럿이 꽤 호의적으로 대해 주었으니 그가 거의 성공을 확신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만, 수요일의 일 이후로는 비교적 자신감을 잃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받은 환대는 더없이 흐뭇한 것이었다. 루카스 양은 그가 집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위층 창문에서 보았고, 곧장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그를 맞으러 나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렇게 많은 사랑과 말솜씨가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그녀도 감히 바라지 못했다.

콜린스 씨의 긴 연설이 허락하는 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일이 양쪽 모두 만족스럽게 정해졌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그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 줄 날짜를 알려 달라고 간절히 청했다. 그런 청은 당장은 미뤄야 했지만, 숙녀는 그의 행복을 장난거리로 삼을 마음이 없었다. 자연이 그에게 듬뿍 베풀어 준 어리석음 때문에 그의 구애에는 여자가 그것이 계속되기를 바라게 만들 만한 매력이 조금도 없었다. 그리고 오직 안정된 가정을 얻고 싶다는 순수하고 사심 없는 바람으로 그를 받아들인 루카스 양은, 그 가정을 얼마나 빨리 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았다.

윌리엄 경과 루카스 부인에게 곧바로 승낙을 청했고, 두 사람은 몹시 기쁜 기색으로 흔쾌히 허락했다. 콜린스 씨는 현재 형편만 보아도 재산을 많이 물려줄 수 없는 딸에게 아주 괜찮은 짝이었고, 앞으로 그가 부자가 될 전망도 아주 밝았다. 루카스 부인은 곧장, 그 문제에 전에 없이 큰 관심을 쏟으며

베넷 씨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지 셈하기 시작했다. 윌리엄 경은 콜린스 씨가 롱본 땅을 물려받게 되면 그와 그의 아내가 세인트 제임스 궁정에 얼굴을 비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확고한 의견을 내놓았다. 요컨대 온 집안이 이 일에 걸맞게 기뻐했다. 어린 딸들은 원래보다 일 년이나 이 년쯤 먼저 사교계에 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었고, 사내아이들은 샬럿이 노처녀로 늙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서 벗어났다. 샬럿 자신은 꽤 침착했다. 그녀는 목표를 이루었고,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할 시간도 있었다. 그녀의 생각은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물론 콜린스 씨는 똑똑하지도 유쾌하지도 않았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은 괴로웠고, 그가 그녀에게 품은 애정도 아마 상상일 터였다. 그래도 그는 그녀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다. 샬럿은 남자에 대해서도 결혼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지 않았지만, 결혼은 늘 그녀의 목표였다. 재산이 적은 교양 있는 젊은 여자들에게 결혼은 유일하게 명예로운 대비책이었고, 행복을 줄지는 불확실해도 가난으로부터 그들을 지켜 줄 가장 반가운 보호막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 보호막을 얻었고, 스물일곱 살이 되도록 한 번도 예뻤던 적이 없었기에 그 행운을 온전히 느꼈다. 이 일에서 가장 달갑지 않은 것은 엘리자베스 베넷이 받을 충격이었다. 샬럿은 다른 누구보다도 엘리자베스와의 우정을 소중히 여겼다. 엘리자베스는 놀라워하며 아마 그녀를 탓할 것이다. 샬럿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런 못마땅한 반응에 마음이 상할 것은 분명했다. 그녀는 직접 소식을 전하기로 마음먹고, 저녁 식사를 위해 롱본으로 돌아가는 콜린스 씨에게 집안 사람 누구에게도 있었던 일을 내비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다. 그는 물론 아주 공손하게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다. 그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탓에 생긴 호기심이 돌아온 그에게 너무 직설적인 질문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것을 피하려면 꽤 머리를 써야 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행복한 사랑을 공표하고 싶어 애가 타는 와중에 큰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가족 누구도 만나지 못할 만큼 일찍 길을 떠나야 했기에, 작별 인사는 숙녀들이 잠자리에 들려고 자리를 뜰 때 치러졌다. 베넷 부인은 아주 공손하고 다정하게, 그의 다른 약속이 허락하는 때에 언제든 롱본에 다시 찾아와 주면 얼마나 기쁠지 말했다.

"친애하는 부인," 그가 대답했다. "그 초대는 제가 받기를 바라던 것이라 각별히 반갑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그 초대에 응하겠다는 것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그가 그렇게 빨리 돌아오기를 조금도 바라지 않았던 베넷 씨가 곧바로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캐서린 영부인께서 못마땅해하실 위험은 없겠소, 이보게? 후원자의 비위를 거스르느니 친척들은 소홀히 하는 편이 나을 것이오."

"친애하는 선생님," 콜린스 씨가 대답했다. "이 친절한 충고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대한 걸음은 영부인의 동의 없이는 내딛지 않겠다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런 일에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소. 그 어른의 불쾌함을 살 바에야 무엇이든 감수하시오. 우리에게 다시 오는 일이 그분의 노여움을 살 것 같다면, 나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오만, 조용히 집에 머물러 있으시오. 우리는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을 테니 그리 알고 있으면 되오."

"친애하는 선생님, 믿어 주십시오. 이토록 다정한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마음이 우러납니다. 이번 일은 물론 하트퍼드셔에 머무는 동안 선생님께서 보여 주신 호의 하나하나에 대해 곧 감사 편지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사촌 자매들에 대해서는, 제가 떠나 있는 기간이 그런 일을 굳이 할 만큼 길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촌 엘리자베스까지 포함해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그렇게 예의를 갖춰 인사를 나눈 뒤 숙녀들이 자리를 떴다. 모두가 그가 이렇게 서둘러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똑같이 놀랐다. 베넷 부인은 그 말을 그가 어린 딸들 중 하나에게 구혼할 생각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었고, 실제로 메리라면 설득 끝에 그를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메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콜린스 씨의 능력을 훨씬 높이 평가했다. 그의 생각에는 든든한 무게가 있어 그녀의 마음을 자주 사로잡았고, 그가 자기만큼 영리하지는 않아도, 자기 같은 본보기를 보고 책을 읽으며 스스로를 가꾸도록 격려받는다면 매우 유쾌한 동반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런 기대는 모두 무너졌다. 루카스 양이 아침 식사 직후 찾아와 엘리자베스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며 전날 일어난 일을 전했다.

콜린스 씨가 샬럿을 사랑한다고 혼자 착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엘리자베스의 머릿속에 하루 이틀 전에 떠오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샬럿이 그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은

엘리자베스 자신이 그를 부추길 수 있는 것만큼이나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처음에는 예의도 잊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외치고 말았다.

"설마 콜린스 씨와 약혼했다니! 샬럿, 그럴 리가 없어!"

루카스 양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설적인 힐난을 받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런 반응은 예상하고 있던 것이었기에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왜 그렇게 놀라니, 일라이자? 콜린스 씨가 다른 여자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 일이니? 너한테서는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말이야."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이제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힘껏 애써서, 꽤 단호한 목소리로 친구에게 이제 서로 인척이 된다는 전망이 몹시 반갑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해 줄 수 있었다.

"나도 네가 어떤 마음인지 알아," 샬럿이 대답했다. "너는 놀랐겠지, 아주 많이 놀랐을 거야. 콜린스 씨가 불과 얼마 전까지 너와 결혼하고 싶어 했으니 말이야. 하지만 너도 이 일을 충분히 생각해 볼 시간이 있으면, 내가 한 선택에 만족해 주기를 바라. 너도 알다시피 나는 낭만적인 사람이 아니야.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 나는 편안한 가정만 바랄 뿐이고, 콜린스 씨의 성격과 인맥, 그리고 사회적 처지를 생각하면, 그와 함께 행복해질 나의 가능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내세울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확신해."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물론이지"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두 사람은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샬럿은 그리 오래 머무르지 않았고, 엘리자베스는 혼자 남아 방금 들은 이야기를 곱씹었다. 그녀는 그토록 어울리지 않는 결합을 받아들이는 데 한참이 걸렸다. 콜린스 씨가 사흘 사이에 두 번이나 청혼했다는 사실의 기이함은, 이제 그 청혼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샬럿의 결혼관이 자기와 꼭 같지는 않다는 것을 늘 느껴 왔다. 그러나 막상 현실이 닥쳤을 때 샬럿이 더 나은 모든 감정을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 희생하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콜린스 씨의 아내가 된 샬럿이라니, 얼마나 굴욕적인 그림인가! 친구가 스스로를 욕되게 하여 엘리자베스의 존경을 잃었다는 아픔에, 친구가 스스로 고른 운명 속에서 제대로 행복해질 수 없으리라는 괴로운 확신까지 더해졌다.

제23장



휴 톰슨, 「그녀가 목소리를 낮출 때마다」(1894년 판 삽화)

엘리자베스는 어머니, 자매들과 함께 앉아 방금 들은 이야기를 곱씹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입에 올려도 되는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때 윌리엄 루카스 경이

직접 나타났다. 딸 샬럿이 약혼 소식을 가족에게 알려 달라고 보낸 것이었다. 그는 집안 식구들에게 온갖 칭찬을 늘어놓고, 두 집안이 인연을 맺게 된 것을 스스로 대견해하며 일의 내막을 풀어놓았다. 듣는 사람들은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믿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베넷 부인은 예의보다 고집이 앞서서, 그가 틀림없이 잘못 알고 있다고 우겼다. 늘 조심성이 없고 종종 무례하기까지 한 리디아는 시끄럽게 소리쳤다.

"세상에! 윌리엄 경,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콜린스 씨가 리지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걸 모르시나요?"

궁정 신하나 지닐 법한 너그러운 공손함이 아니고서는 그런 대우를 받고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윌리엄 경은 타고난 예의범절 덕분에 그 모든 것을 무사히 넘겼다. 그는 자신이 들은 소식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단언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청하면서도, 그들의 무례한 말을 더없이 참을성 있는 공손함으로 끝까지 들어 주었다.

엘리자베스는 이 불편한 상황에서 그를 구해 주는 것이 자신의 도리라고 느꼈다. 그래서 나서서 그의 말을 확인해 주었다. 샬럿에게서 이미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다고 밝힌 것이다. 또 윌리엄 경에게 진심을 담아 축하 인사를 건넸다. 제인도 곧바로 그 말에 힘을 보탰다. 엘리자베스는 이 결혼에서 기대할 만한 행복, 콜린스 씨의 훌륭한 인품,

런던에서 헌스퍼드까지의 편리한 거리에 대해 여러 말을 늘어놓아, 어머니와 동생들의 떠들썩한 소리를 가라앉히려 애썼다.

베넷 부인은 사실 윌리엄 경이 있는 동안에는 말을 많이 할 수 없을 만큼 압도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자리를 뜨자마자 그녀의 감정은 거침없이 터져 나왔다. 우선 그녀는 이 일의 전부를 끝까지 믿지 않으려 했다. 둘째, 콜린스 씨가 속아 넘어간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셋째, 두 사람이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넷째, 이 혼담이 깨질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에서 분명히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엘리자베스가 이 모든 소동의 진짜 원인이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그들 모두에게 참혹하게 짓밟혔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남은 하루 동안 주로 이 두 가지 생각에 매달렸다. 무엇으로도 그녀를 위로할 수 없었고, 무엇으로도 그녀를 달랠 수 없었다. 그날이 지나도 그녀의 원망은 가시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를 보면서 야단치지 않게 되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윌리엄 경과 루카스 부인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고 말을 건넬 수 있게 되기까지는 한 달이 지나야 했다. 그리고 그 집 딸 샬럿을 조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몇 달이 더 흘러야 했다.

베넷 씨는 이 일에 훨씬 담담했다. 그가 느낀 감정도 아주 유쾌한 종류라고 그는 말했다. 샬럿 루카스는 그가 제법 분별 있다고 여겨 온 아가씨였는데, 알고 보니 그의 아내만큼이나 어리석고, 그의 딸보다도 더 어리석었으니 그로서는 흐뭇하다는 것이었다!

제인은 이 혼담이 조금 놀랍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녀가 드러낸 놀라움은 두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비하면 작은 편이었다. 엘리자베스가 아무리 설득해도 제인은 두 사람이 행복해지기 어렵다고 여기지 않았다. 키티와 리디아는 루카스 양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았다. 콜린스 씨는 목사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이 소식은 메리턴에 퍼뜨릴 새 소식거리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

루카스 부인은 자신의 딸이 좋은 곳에 시집가게 되었다는 사실로 베넷 부인에게 되받아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승리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서 평소보다 자주 롱본을 찾아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말했다. 베넷 부인의 시큰둥한 표정과 심술궂은 말투만으로도 행복이 달아나 버릴 만했지만 말이다.

엘리자베스와 샬럿 사이에는 그 문제를 두고 서로 입을 다물게 만드는 어색한 거리감이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진정한 신뢰가 다시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느꼈다. 샬럿에게 실망한 그녀는 오히려 언니에게 더 깊은 애정을 쏟았다. 제인의 올곧음과 섬세함은 그 어떤 의심으로도 흔들릴 수 없다고 엘리자베스는 확신했다. 빙리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돌아온다는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았기에, 그녀는 날이 갈수록 언니의 행복을 더욱 걱정했다.

제인은 캐럴라인에게 편지의 답장을 일찍 보냈고, 이제 다시 소식을 들을 수 있으리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때까지 날을 세고 있었다. 콜린스 씨가 약속한 감사 편지는 화요일에 도착했는데, 아버지 앞으로 보낸 것이었다. 마치 이 집에 일 년은 머물다 간 사람처럼 더없이 엄숙하게 감사를 표한 편지였다. 그는 그 점에 대한 양심의 짐을 덜어 낸 뒤, 사랑스러운 이웃인 루카스 양의 애정을 얻게 되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황홀한 표현을 잔뜩 늘어놓으며 알렸다. 그리고 자신이 롱본에 다시 와 달라는 친절한 청을 그토록 기꺼이 받아들인 까닭은 오직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였다고 설명했다. 보름 뒤 월요일에는 롱본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게다가 캐서린 영부인께서 그의 결혼을 진심으로 찬성하셔서, 가능한 한 빨리 식을 올리기를 바라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이

사랑스러운 샬럿에게 결코 반박할 수 없는 논거가 되리라 믿는다고, 그리하여 그녀가 그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 줄 날을 조속히 정해 주리라 믿는다고 적었다.

콜린스 씨가 하트퍼드셔로 돌아온다는 소식은 이제 베넷 부인에게 기쁨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남편 못지않게 그 일을 불평하고 싶어 했다. 콜린스 씨가 루카스 저택이 아닌 롱본으로 온다는 것부터 몹시 이상했고, 불편하고 골치 아픈 일이기도 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때에 집에 손님이 드나드는 것도 싫었고, 연인이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귀찮은 존재였다. 베넷 부인의 불만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나직하게 이어졌고, 빙리 씨가 계속 돌아오지 않는다는 더 큰 괴로움 앞에서만 잠시 물러났다.

제인도 엘리자베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날이 하루하루 지나도 빙리 소식이라고는 메리턴에 곧 퍼진 소문뿐이었다. 빙리가 겨울 내내 네더필드에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소문이었다. 그 소문은 베넷 부인을 몹시 격분하게 했고, 그녀는 그것을 가장 추잡한 거짓말이라며 빠짐없이 반박하곤 했다.

엘리자베스조차 이제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빙리가 제인에게 마음이 없을까 봐서가 아니라, 그의 누이들이 그를 계속 붙들어 두는 데 성공할까 봐서였다. 제인의 행복을 그토록

해치고, 제인의 연인이 지닌 한결같음에도 그토록 불명예스러운 생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감정이라곤 없는 두 누이가 힘을 합치고, 그를 압도하는 친구까지 거기에 가세하여, 다아시 양의 매력과 런던의 유흥까지 더해진다면, 그의 애정이 버텨 내기에는 너무 벅찰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걱정했다.

제인의 경우,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은 물론 엘리자베스의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무엇을 느끼든 그것을 감추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녀와 엘리자베스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한 번도 입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그런 조심성이 없었다. 베넷 부인은 한 시간도 거르지 않고 빙리 이야기를 꺼냈고, 그가 어서 오기를 조바심 내며 기다렸으며, 심지어 제인에게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신이 몹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셈이라고 털어놓으라고 다그치기까지 했다. 이런 공격을 그럭저럭 차분하게 견뎌 내려면 제인이 지닌 흔들림 없는 온화함이 전부 필요했다.

콜린스 씨는 약속대로 보름 뒤 월요일에 어김없이 돌아왔다. 하지만 롱본에서 받은 대접은 처음 인사를 나눴을 때만큼 융숭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너무 행복해서 특별한 대접이

필요하지 않았다. 다행히 다른 식구들에게는, 그가 구애하는 일에 바빠진 덕분에 그를 상대하는 수고가 크게 줄었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루카스 저택에서 보냈고, 가끔은 식구들이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야 롱본으로 돌아와 자리를 비운 일에 대해 사과를 하곤 했다.

베넷 부인은 정말이지 몹시 가엾은 처지였다. 혼사에 관한 말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녀는 견딜 수 없는 짜증에 사로잡혔고, 어디를 가든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 뻔했다. 루카스 양의 모습은 그녀에게 가증스럽기만 했다. 그녀는 루카스 양을 이 집에서 자기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으로 여기며 질투와 증오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샬럿이 찾아올 때마다 베넷 부인은 그녀가 이 집을 차지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단정했다. 샬럿이 콜린스 씨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면, 그들이 롱본 저택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베넷 씨가 죽는 즉시 자기와 딸들을 이 집에서 내쫓기로 결심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남편에게 쓰라리게 호소했다.

"정말이지, 여보," 그녀가 말했다. "샬럿 루카스가 언젠가 이 집의 안주인이 된다니, 내가 그 애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하고 살아서 그 애가 내 자리를 차지하는 꼴을 보아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로워요!"

"여보, 그렇게 침울한 생각에 빠지지 마시오. 더 나은 일을 바라봅시다. 내가 살아남는 쪽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봅시다."

이 말은 베넷 부인에게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대꾸하는 대신 아까 하던 말을 그대로 이어 갔다.

"이 재산을 모두 그 사람들이 갖는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상속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않았어도 나는 신경 쓰지 않을 텐데요."

"무엇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오?"

"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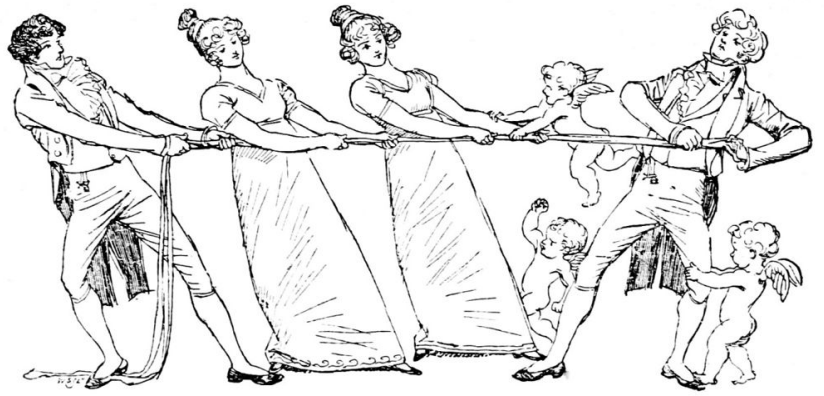
"당신이 그처럼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고마워해야 하오."

"나는 상속에 관한 일이라면 무엇 하나도 고마워할 수 없어요, 여보. 자기 딸들에게서 재산을 빼앗는 상속을 정해 놓을 양심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콜린스 씨를 위해서라니! 그 사람이 다른 누구보다 더 가져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건 당신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맡기겠소," 베넷 씨가 말했다.

제2권

제24장



휴 톰슨, 제24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빙리 양의 편지가 도착해 의심을 끝내 주었다. 첫 문장부터 그들이 모두 겨울을 보내려고 런던에 자리 잡았다는 확신을 전했고, 그 문장은 빙리 씨가 떠나기 전에 하트퍼드셔의 친구들을 찾아가 인사할 시간이 없었던 것을 아쉬워한다는 말로 끝났다.

희망은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제인은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읽을 마음이 생겼을 때, 쓴 이가 드러내 놓은 애정 말고는 위로가 될 만한 내용을 거의 찾지 못했다. 편지의 대부분은 다아시 양에 대한 칭찬이었다. 다아시 양의 여러 매력이 다시 언급되었고, 캐럴라인은 두 사람의 친밀감이 깊어지고

있다고 기쁘게 자랑하며, 전에 보낸 편지에서 드러냈던 바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감히 예언하기도 했다. 또 빙리 씨가 다아시 씨의 집에 머무르게 된 일을 아주 기쁘게 적었고, 다아시 씨가 새 가구를 들여놓을 계획을 세웠다는 말을 황홀해하며 전했다.

엘리자베스는 제인이 이 소식의 대부분을 곧 전해 주었을 때 말없이 분노하며 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언니에 대한 걱정과 다른 모든 이들에 대한 원망으로 나뉘어 있었다. 캐럴라인이 오빠가 다아시 양을 더 아낀다고 주장하는 말은 조금도 믿지 않았다. 빙리 씨가 정말 제인을 좋아했다는 것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를 늘 좋게 여기려 했지만, 이제 그의 그 무른 성격과 마땅한 결단력의 부족이 그를 음모를 꾸미는 친구들의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변덕에 맞춰 자기 행복을 희생하게 만든 것이 그녀에게는 화가 날 일이었고, 거의 경멸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희생된 것이 그의 행복뿐이었다면, 그가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놀든 내버려 둘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언니의 행복도 걸려 있었고, 그것을 그 자신도 분명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요컨대 그것은 오래도록 곱씹게 되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문제였다. 엘리자베스는 달리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빙리의 애정이 정말 식어 버린 것인지, 아니면 친구들의 간섭으로 억눌려 있는 것인지,

그가 제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어느 쪽이든 그 차이에 따라 그에 대한 그녀의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지만, 언니의 처지는 여전히 같았고, 언니의 평온은 똑같이 상처 입은 상태였다.

제인이 엘리자베스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용기를 내기까지는 하루 이틀이 지나야 했다. 그러다 마침내 베넷 부인이 네더필드와 그 주인 이야기에 평소보다 더 오래 짜증을 내다가 두 사람만 남겨 두고 자리를 뜨자, 제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 우리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조금만 더 다스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머니는 그분에 대해 끊임없이 되뇌면서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짐작도 못 하셔.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을래. 그 일도 오래가지는 않을 거야. 그분은 잊히고, 우리도 모두 예전과 같아지겠지."

엘리자베스는 언니를 믿기 어렵다는 듯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를 의심하는구나." 제인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외쳤다. "정말이지 그럴 이유가 없어. 그분은 내가 알게 된 사람 중 가장 호감 가는 남자로 내 기억에 남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부야. 나는 바랄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분을 탓할

것도 없어. 하느님 덕분에 나는 그런 고통은 겪지 않았어. 그러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나는 분명 이겨 내려고 애쓸 거야——”

“그래도 금방 위로가 되는 게 있어.” 제인은 목소리를 조금 더 굳혀 덧붙였다. “내 쪽에서 상상이 조금 지나쳤던 것일 뿐이고, 그로 인해 나 말고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야.”

“사랑하는 제인 언니,”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언니는 너무 착해. 언니의 다정함과 사심 없음은 정말 천사 같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언니를 한 번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고, 언니가 받을 만큼 사랑해 주지도 못한 것 같아.”

베넷 양은 자기에게 특별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열심히 부인하고, 그 칭찬은 동생의 따뜻한 애정 덕분이라고 돌렸다.

“아니야, 그건 공정하지 않아.”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언니는 온 세상 사람을 다 훌륭하다고 여기고 싶어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나쁘게 말하면 속상해하잖아. 나는 그저 언니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뿐인데, 언니는 거기에 맞서고 있어. 내가 지나치게 굴거나 누구에게나 호의를 품는 언니의 특권을 침범할까 봐 걱정하지는 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몇 명 없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적어. 세상을 많이 볼수록 나는 세상이 못마땅해지고, 사람의 성격이란 모순투성이이며 장점이나 분별력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내 생각이 날마다 확인되고 있어. 최근에 두 가지 사례를 겪었는데, 하나는 말하지 않을래. 다른 하나는 샬럿의 결혼이야.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떤 면으로 봐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사랑하는 리지, 그런 감정에 휩쓸리지 마. 그러면 너의 행복이 망가질 거야. 너는 처지와 성격이 다르다는 걸 충분히 헤아리지 않고 있어. 콜린스 씨의 번듯한 신분과 샬럿의 신중하고 차분한 성품을 생각해 봐. 샬럿이 대가족의 한 사람이고, 재산으로 보면 이보다 더 좋은 혼처가 없다는 것도 기억해.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라도, 샬럿이 우리 사촌에게 어느 정도 호감과 존중을 느낄 수도 있다고 믿으려고 해 보렴."

"언니를 생각해서라면 거의 무슨 말이든 믿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이런 믿음으로는 다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샬럿이 그 사람에게 어떤 호감이라도 가졌다고 내가 믿게 된다면, 나는 지금 샬럿의 마음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보다 샬럿의 판단력을 더 나쁘게 여기게 될 거야. 제인 언니, 콜린스 씨는 자만하고 거드름을 피우며 속이 좁고

어리석은 남자야. 언니도 나만큼 알고 있잖아. 그리고 나만큼 언니도 느끼고 있을 거야. 그런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는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샬럿 루카스라도 언니가 그녀를 변호하게 두지 않을 거야. 한 개인을 위해서 원칙과 성실의 뜻을 바꾸거나, 나나 언니 자신을 설득해서 이기심을 신중함이라고, 위험에 둔감한 것을 행복의 보장이라고 믿게 하지도 마."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 제인이 대답했다.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면 너도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라고 믿어. 하지만 이 얘기는 이만하면 됐어. 너는 다른 것도 언급했잖아. 두 가지 사례를 말했는데, 내가 너를 잘못 이해할 리는 없겠지만, 사랑하는 리지, 그 사람을 탓하면서 네가 그를 나쁘게 생각하게 됐다고 말해 나를 아프게 하지는 말아 줘. 누가 일부러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 활기찬 젊은 남자에게 언제나 그렇게 조심하고 신중하기를 기대해서도 안 되고. 우리를 속이는 건 대부분 우리 자신의 허영심일 뿐이야. 여자들은 찬사에 실제보다 더 큰 뜻이 담겼다고 상상하곤 하잖아."

"그리고 남자들은 그렇게 되도록 신경 쓰지."

"만약 일부러 그랬다면 변명할 수 없겠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계획된 일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나는 빙리 씨의 행동 어디에도 계획이 있었다고 보지 않아."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하지만 잘못을 꾸미거나 남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계획하지 않아도 잘못과 고통은 생길 수 있어. 생각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결단력이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그럼 너는 그게 그중 어느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래. 마지막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계속 말하면 언니가 아끼는 사람들에 대해 내 생각을 말하게 되어서 언니를 불편하게 할 거야. 할 수 있을 때 나를 멈춰 줘."

"그럼 너는 그의 누이들이 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계속 고집하는 거야?"

"그래, 그의 친구와 함께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믿을 수 없어. 그들이 왜 그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겠어? 그들은 그저 그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그리고 그가 나를 좋아한다면, 다른 어떤 여자도 그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없어."

"언니의 첫 번째 전제가 틀렸어. 그들은 그의 행복 말고도 여러 가지를 바랄 수 있어. 재산과 지위가 늘어나기를 바랄 수도 있고, 돈과 훌륭한 인맥과 자존심이 있는 아가씨와 그가 결혼하기를 바랄 수도 있어."

"틀림없이 그들은 그가 다아시 양을 고르기를 바라고 있어." 제인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감정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어. 그들은 나보다 다아시 양을 훨씬 오래 알아 왔잖아. 그러니 그녀를 더 아끼는 게 이상할 것도 없고.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바라든, 그들이 빙리 씨의 뜻을 막으려 했을 것 같지는 않아. 아주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어느 누이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겠어? 그가 나를 좋아한다고 그들이 믿었다면 우리를 떼어 놓으려 하지 않았을 거야. 그가 정말 나를 좋아했다면 그들도 성공할 수 없었을 테고. 그런 애정이 있다고 가정하면, 모두가 부자연스럽고 잘못되게 행동한 셈이 되고, 나는 몹시 불행해지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나를 괴롭히지 마. 내가 잘못 짐작했던 것이 부끄럽지는 않아. 아니면 적어도 그 부끄러움은 아주 사소해. 그에 대해서나 그의 누이들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가장 좋은 쪽으로, 이해될 수 있는 쪽으로 받아들이게 해 줘."

엘리자베스는 그런 바람을 막을 수 없었다. 그 뒤로 둘 사이에서 빙리 씨의 이름이 거의 입에 오르지 않았다.

베넷 부인은 여전히 그가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탄했다. 엘리자베스는 날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었지만, 어머니가 그 일을 덜 혼란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가망은 거의 없어 보였다. 딸은 자신도 믿지 않으면서, 제인에 대한 빙리 씨의 관심이 흔하고 일시적인 호감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가 제인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자 그 호감도 사라졌을 뿐이라고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다. 어머니는 그때는 그 말이 그럴듯하다고 인정했지만, 엘리자베스는 날마다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해야 했다. 베넷 부인에게 가장 큰 위안은 여름이면 빙리 씨가 틀림없이 다시 내려온다는 것이었다.

베넷 씨는 이 일을 다르게 받아들였다. “그래, 리지,” 하고 어느 날 그가 말했다. “네 언니가 사랑에서 실패했다더구나. 축하해 주마. 여자애들은 결혼 다음으로 가끔 사랑에서 실패하는 것도 좋아하거든. 그건 생각할 거리가 되고, 친구들 사이에서 일종의 특별한 위치를 주지. 네 차례는 언제쯤 올까? 제인에게 오래 뒤처지지는 못 견딜 텐데. 지금이

기회야. 메리턴에는 이 고장 아가씨들을 전부 실망시킬 만큼 장교들이 많으니까. 위컴을 네 상대로 삼아라. 유쾌한 사내니까, 너를 버리더라도 체면은 지키면서 버릴 거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덜 호감 가는 남자라도 저는 만족할 거예요. 우리가 모두 제인처럼 좋은 운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베넷 씨가 말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더라도, 그 일을 늘 한껏 떠들썩하게 만들어 줄 다정한 어머니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위안이 되는구나."

위컴 씨와 어울리는 일은 최근의 얄궂은 일들이 롱본 가족 여럿에게 드리웠던 우울을 걷어 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그를 자주 만났고, 그의 다른 장점에 이제는 허물없는 태도까지 더해졌다. 엘리자베스가 이미 들었던 이야기, 즉 다아시 씨에게 그가 가진 권리와 다아시 씨 때문에 겪은 모든 고통이 이제는 공공연히 인정되고 여럿이 함께 이야기하는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사정을 알기도 전부터 다아시 씨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떠올리며 흐뭇해했다.

베넷 양은 하트퍼드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이 일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온화하고 한결같은 너그러움은 언제나

사정을 헤아려 주자고 호소하며 잘못 짚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에게 다아시 씨는 최악의 남자로 단죄되었다.

제25장



휴 톰슨, 「젊은 아가씨 두셋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1894년 판 삽화)

일주일 동안 사랑을 고백하고 행복한 미래를 계획하며 보낸 뒤, 콜린스 씨는 토요일이 되자 사랑스러운 샬럿을 떠나야 했다. 그래도 그는 다음에 하트퍼드셔에 돌아오면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 줄 날짜가 곧 정해질 것이라 기대했기에,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며 이별의 아픔을 달랠 수 있었다. 그는 롱본의 친척들과 작별할 때도 전과 다름없이 엄숙했다. 아름다운 사촌 자매들에게 다시 건강과 행복을 빌었고, 그들의 아버지에게는 감사의 편지를 한 통 더 쓰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월요일, 베넷 부인은 남동생 내외를 맞이하는 기쁨을 누렸다.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크리스마스를 롱본에서 보내려고 찾아왔다. 가드너 씨는 분별 있고 신사다운 사람으로, 타고난 성품과 교육 모두에서 누이보다 훨씬 나았다. 네더필드의 숙녀들은 장사로 먹고사는 사람이, 그것도 자기 창고가 내다보이는 곳에서 사는 사람이 그토록 교양 있고 호감 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쉽게 믿지 못했을 것이다. 베넷 부인과 필립스 부인보다 몇 살 아래인 가드너 부인은 상냥하고 영리하며 품위 있는 여인이었고, 롱본의 조카딸들이 아주 좋아했다. 특히 큰 조카딸 둘과 그녀 사이에는 각별한 정이 있었다. 두 조카딸은 런던에 있는 그녀의 집에 자주 머물렀다.

가드너 부인이 도착해서 처음 한 일은 선물을 나눠 주고 최신 유행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다. 그 일이 끝나자 그녀의 역할은 덜 나서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듣는 차례였다. 베넷 부인에게는 털어놓을 억울한 일이 많았고, 불평할 거리도 산더미 같았다. 지난번 동생을 만난 뒤로 식구들은 모두 몹시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 딸 둘은 결혼이 성사되기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제인을 탓하지는 않겠어." 베넷 부인이 말을 이었다. "제인은 할 수만 있었다면 빙리 씨를 잡았을 테니까. 하지만 리지는! 아이고, 동생아! 그 애가 제 고집만 부리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콜린스 씨의 아내가 되어 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 그 사람이 바로 이 방에서 청혼을 했는데, 리지가 거절해 버렸지 뭐야. 그 결과 루카스 부인은 나보다 먼저 딸을 시집보내게 됐고, 롱본 땅은 여전히 상속 제한이 걸려 있어. 루카스 집안 사람들은 정말 교활해, 동생. 저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야. 이런 말을 하기는 싫지만 사실이 그래. 우리 집안 일이 이렇게 꼬이고, 남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이웃까지 있으니 나는 신경이 곤두서고 몸도 아파. 그래도 네가 바로 이때 와 줘서 정말 다행이고, 소매를 길게 입는 게 유행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참 반갑구나."

가드너 부인은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편지로 이 소식의 대부분을 이미 알려 준 터라, 시누이에게 짧게 대꾸하고 조카들을 생각해 화제를 돌렸다.

나중에 엘리자베스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가드너 부인은 이 주제를 더 꺼냈다. "제인에게는 괜찮은 혼처였던 것 같구나." 그녀가 말했다. "그게 틀어져서 안타깝다. 그런데 이런 일은 자주 생기지! 네가 말한 빙리 씨 같은 젊은 남자는 예쁜 아가씨한테 몇 주 동안 쉽게 반했다가, 우연한 일로 떨어져 있게 되면 금세 잊어버리곤 해. 그러니 이런 변덕은 아주 흔하단다."

"그건 나름대로 훌륭한 위로지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맞지 않아요. 우리는 우연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거든요. 독립된 재산이 있는 젊은 남자가 불과 며칠 전까지 미친 듯이 사랑했던 아가씨를 친구들이 말렸다고 해서 깨끗이 잊는 일은 흔치 않아요."

"하지만 '미친 듯이 사랑했다'는 말은 너무 흔하고, 애매하고, 막연해서 뚜렷한 뜻이 잘 와닿지 않는구나. 그 말은 진짜로 깊고 강한 애착만큼이나, 겨우 삼십 분쯤 알고 지낸 데서 생긴 감정에도 자주 쓰잖니. 그래, 빙리 씨의 사랑은 얼마나 대단했니?"

"저는 그보다 더 기대할 만한 호감을 본 적이 없어요. 그는 다른 사람에게는 점점 무관심해지고, 완전히 제인에게만 마음을 빼앗겼어요. 만날 때마다 더 분명해지고 눈에 띄었지요. 자기 무도회에서도 두세 명의 아가씨에게 춤을 청하지 않아 기분을 상하게 했고, 제가 직접 그에게 두 번이나 말을 걸었는데도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징후가 있을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든 예의를 잃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본질이 아니던가요?"

"아, 그럼! 그 사람이 느꼈으리라 짐작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지. 가엾은 제인! 마음이 아프구나. 제 성격에 금세 털고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르거든. 차라리 그런 일이 너한테 일어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리지. 너라면 웃어넘기고 진작 잊었을 테니까. 그런데 제인을 설득해서 우리와 함께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 같니? 장소를 바꾸면 도움이 될 거야. 집을 떠나 있는 것도 무엇 못지않게 도움이 될 테고."

엘리자베스는 이 제안이 몹시 반가웠고, 제인이 흔쾌히 응하리라고 확신했다.

"이 젊은 남자 일을 의식해서 제인이 오기를 망설이지 않으면 좋겠구나." 가드너 부인이 덧붙였다. "우리는 런던의 아주 다른 동네에 살고, 교제하는 사람들도 전혀 다르잖니. 너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외출도 거의 안 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제인을 찾아오지 않는 한 둘이 마주칠 일은 거의 없을 거야."

"그건 전혀 불가능해요. 그 사람은 지금 친구의 감독 아래 있으니까요. 다아시 씨가 그 사람이 런던의 그런 동네에 제인을 찾아가도록 놔둘 리가 없어요! 외숙모,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다아시 씨는 아마 그레이스처치 스트리트라는 곳이 있다는 건 들어 봤을지도 모르지만, 한 번이라도 그 거리에 들어서면 그 더러움을 씻어 내려면 한 달 동안 목욕을 해도 모자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장담하는데, 빙리 씨는 다아시 씨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더 잘됐구나. 둘이 전혀 마주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인이 그 사람 누이와 편지를 주고받지 않니? 그러면 그 아가씨가 제인을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그 아가씨는 제인과의 교제를 아예 끊어 버릴 거예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이 점은 물론, 빙리가 제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혀 있다는 훨씬 더 흥미로운 점까지 짐짓 확신하는 체했어도, 실은 이 문제로 마음을 졸였다. 곰곰이 따져 보니 그녀는 그 일이 전혀 희망이 없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빙리의 애정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었고, 그의 친구들의 영향력은 제인의 매력이 주는 더 자연스러운 힘에 밀려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럴 가능성은 있었고, 때로는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베넷 양은 외숙모의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 무렵 그녀가 빙리 집안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람 때문이었다. 캐럴라인이 오빠와 한 집에 살지 않으니, 빙리와 마주칠 염려 없이 가끔 아침나절을 캐럴라인과 함께 보낼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가드너 부부는 롱본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다. 필립스 집안과 루카스 집안, 그리고 장교들 때문에 약속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 베넷 부인이 남동생 부부를 즐겁게 해 주려고 무척 세심하게 준비한 덕분에,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함께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집에서 모이는 자리에는 늘 장교 몇 명이 함께했는데, 위컴 씨는 그중에서도 빠지는 법이 없었다. 이런 자리에서 가드너 부인은 엘리자베스가 위컴 씨를 극찬하는 것을 듣고 의심이 생겨, 두 사람을 유심히 살폈다. 그녀가

보기에 두 사람이 아주 진지하게 사랑에 빠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쏠리는 마음은 그녀를 조금 불안하게 할 만큼 분명했다. 그래서 하트퍼드셔를 떠나기 전에 엘리자베스와 이 문제를 이야기해서, 그런 애정을 부추기는 것이 얼마나 경솔한 일인지 일러 주기로 마음먹었다.

위컴에게는 그의 전반적인 재능과는 상관없이 가드너 부인을 기쁘게 해 줄 수단이 한 가지 있었다. 십 년에서 십이 년쯤 전, 결혼하기 전에 그녀는 바로 위컴이 속한 더비셔의 그 지역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공통으로 아는 사람이 많았고, 다섯 해 전 다아시 씨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 위컴이 그곳에 거의 가지 않았다 해도, 그녀가 옛 친구들의 소식을 구하고 다니며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새로운 소식을 그가 전해 줄 수 있었다.

가드너 부인은 펨벌리를 본 적이 있었고, 고인이 된 다아시 씨도 평판으로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이야깃거리는 끝이 없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펨벌리와 위컴이 자세히 묘사하는 펨벌리를 견주어 보고, 그 주인이었던 고인을 칭찬하는 말을 보태면서, 그녀는 위컴과 자기 자신을 함께 즐겁게 했다. 현재의 다아시 씨가 위컴을 어떻게 대했는지 듣게 되자, 그녀는 그 신사가 아주 어렸을 때 세간에 알려졌던 성품 가운데 그 태도와 맞을 만한 것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려

했다. 마침내 그녀는 피츠윌리엄 다아시 씨가 예전에 아주 오만하고 심술궂은 소년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제26장



휴 톰슨, 제26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가드너 부인은 엘리자베스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첫 기회에 맞춰, 정확히 제때에, 그리고 다정하게 주의를 주었다.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말한 뒤 그녀는 이렇게 이어 갔다.

"너는 충분히 분별 있는 아이니까, 리지, 그저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사랑에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도 터놓고 말하는 게 두렵지 않구나. 진지하게 말하마. 너는 경계해야 한다. 재산이 없으니 몹시 경솔한 일이 될 그런 애정에 너 자신을 끌어들이지도, 그를 끌어들이려 애쓰지도 마라. 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할 것은 없다. 아주 매력적인 젊은이야. 그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너에게 이보다 더 좋은 상대는 없다고 나도 생각했을 거다. 하지만 지금 형편으로는, 공상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너에게는 분별이 있고, 우리 모두 네가 그것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네 아버지는 너의 결심과 올바른 행실을 믿으실 거야. 아버지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

"외숙모, 이건 정말 진지한 얘기네요."

"그래, 그리고 너도 똑같이 진지해졌으면 좋겠구나."

"그럼 걱정하실 것 없어요. 저 자신은 제가 알아서 조심할게요. 위컴 씨도 단속하고요. 제가 막을 수 있다면 그분이 저를 사랑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엘리자베스, 너 지금 진지하지 않구나."

"죄송해요. 다시 해 볼게요. 지금 저는 위컴 씨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확실히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은 제가 본 사람 중에서 단연코 가장 호감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저에게 마음을 주게 된다면, 차라리 그러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그게 경솔한 일이라는 건 알아요. 아, 그 지긋지긋한 다아시 씨! 아버지가 저를 그토록 믿어 주시는 건 더없는 영광이니, 그 믿음을 잃는다면 저는 비참할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위컴 씨를 마음에 들어 하세요. 요컨대, 외숙모, 제가 여러분 중 누구라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면 정말 유감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날마다 보듯이, 서로 애정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당장 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약혼하는 일을 좀처럼 망설이지 않잖아요. 제가 유혹을 받는다면, 그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더 현명하겠다고 어떻게 약속할 수 있겠어요?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게 더 현명한 일이라는 것조차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뿐이에요. 제가 그분의 첫 번째 관심 대상이라고 서둘러 믿지는 않을게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도 바라지 않을게요. 요컨대, 최선을 다할게요."

"아마 그가 여기에 이토록 자주 오는 걸 말리는 편이 좋을 거다. 적어도 네 어머니께 그를 초대하라고 일깨워 드리지는 말아야 해."

"지난번에 그랬듯이 말이죠." 엘리자베스가 찔리는 듯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그런 짓은 삼가는 게 현명하겠네요. 하지만 그분이 늘 이렇게 자주 여기 오신다고 생각하진 마세요. 이번 주에 그분을 이렇게 자주 초대한 건 외숙모 때문이었어요. 손님에게는 늘 어울릴 상대가 있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생각은 외숙모도 잘 아시잖아요. 하지만 정말로,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도록 애써 볼게요. 이제 외숙모도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외숙모는 그렇다고 장담했다. 엘리자베스는 충고를 베풀어 준 친절에 감사를 표했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이런 문제에 관해 충고를 해 주었는데도 상대가 언짢아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었다.

콜린스 씨는 가드너 부부와 제인이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하트퍼드셔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루카스 집안에 묵었으므로, 그의 도착은 베넷 부인에게 큰 불편이 되지 않았다. 그의 결혼이 이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 베넷 부인은 마침내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여, 심술궂은 말투로 "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말하기까지 했다. 목요일이 결혼식 날이었고, 수요일에 루카스 양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 할 때,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무례하고 마지못한 축복의 말이 부끄러웠고 자신도 진심으로 가슴이 뭉클해져, 그녀를 방 밖까지 배웅했다. 둘이 함께 계단을 내려가면서 샬럿이 말했다.

"난 네 편지를 아주 자주 받을 거라고 기대할게, 일라이자."

"꼭 그럴게."

"그리고 부탁이 하나 더 있어. 나를 보러 와 줄래?"

"하트퍼드셔에서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나는 한동안 켄트를 떠날 것 같지 않아. 그러니 헌스퍼드에 와 주겠다고 약속해 줘."

엘리자베스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 방문에서 별로 즐거울 것 같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우리 아버지와 마리아가 삼월에 나한테 오기로 했어." 샬럿이 덧붙였다. "너도 같이 와 주면 좋겠어. 정말이야, 일라이자, 너도 두 사람 못지않게 환영이야."

결혼식이 치러졌다. 신랑 신부는 교회 문에서 곧장 켄트로 떠났고, 사람들은 이 일에 관해 늘 그랬듯 말하고 듣고 싶은 것이 많았다. 엘리자베스는 곧 친구에게서 소식을 받았고, 두 사람의 편지 왕래는 예전만큼 규칙적이고 잦았다. 그러나 편지가 예전처럼 거리낌 없을 수는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샬럿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친밀함이 주던 위안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편지를 계속 쓰기로 마음먹었지만, 그것은 지금의 관계보다는 지난날의 관계를 위해서였다. 샬럿의 첫 편지는 상당히 열띤 기대 속에서 받아 보았다. 샬럿이 새집을 어떻게 묘사할지, 캐서린 영부인을 어떻게 여길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감히 말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편지를 읽어 보니, 엘리자베스가 짐작했던 그대로 샬럿이 모든 점을 표현하고 있었다. 샬럿은 명랑하게 썼고, 편안함에 둘러싸여 있는 듯했으며, 칭찬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집도, 가구도, 주변 환경도, 길도 모두 그녀의 마음에 들었고,

캐서린 영부인의 태도는 더없이 친절하고 호의적이었다. 그것은 콜린스 씨가 말해 준 헌스퍼드와 로징스의 모습을 이성적으로 누그러뜨린 그림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나머지를 알려면 직접 그곳을 방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인은 이미 런던에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리려고 동생에게 몇 줄을 써 보냈다. 그리고 다음 편지에서는 빙리 집안에 관해 무언가 전할 수 있기를 엘리자베스는 바랐다.

이 두 번째 편지를 기다리던 그녀의 조바심은 대개의 조바심이 받는 꼭 그만큼의 보상을 받았다. 제인은 런던에 와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캐럴라인을 만나지도, 소식을 듣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제인은 롱본에서 친구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어쩌다 분실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며 그 일을 설명했다.

"외숙모가 내일 그쪽 동네에 가실 거야." 제인이 말을 이었다. "그러니 그 기회에 그로스버너 거리에 들러 볼게."

그녀는 방문을 마친 뒤 다시 편지를 썼는데, 빙리 양을 만났다고 했다. "캐럴라인은 기운이 없어 보였어. 그래도 나를 보고 무척 반가워하면서, 내가 런던에 온다는 걸 미리 알려 주지 않았다고 나무랐어. 그러니까 내 짐작이 맞았던

거야. 내가 보낸 마지막 편지는 그 애에게 닿지 않았던 거지. 물론 오빠 소식도 물었어. 잘 지내고 있지만, 다아시 씨와 함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자기들도 오빠 얼굴을 거의 못 본다고 하더라. 다아시 양도 저녁 식사에 올 예정이라고 들었어. 그 애를 만나 보고 싶어. 캐럴라인과 허스트 부인이 외출할 예정이라 방문은 길지 않았어. 곧 그 애들이 여기로 찾아올 것 같아."

엘리자베스는 이 편지를 읽고 고개를 저었다. 이 편지로 보아 언니가 런던에 와 있다는 사실을 빙리 씨가 알게 되는 길은 우연밖에 없을 것이 분명했다.

네 주가 지났지만 제인은 그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녀는 아쉽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으나, 빙리 양의 무관심은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 없었다. 두 주 동안 아침마다 집에서 기다리고, 저녁마다 빙리 양이 오지 않는 새로운 핑계를 찾아낸 끝에 마침내 방문객이 나타났다. 그러나 머문 시간이 짧았고, 무엇보다 태도가 달라져 있어서 제인은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이때 그녀가 동생에게 쓴 편지가 그녀의 심정을 말해 준다.

"빙리 양이 나를 아낀다고 믿은 게 완전히 착각이었다고 내가 고백하더라도, 내 가장 사랑하는 리지는 자기 판단이 더 옳았다며 나를 두고 우쭐거리지는 않을 거라 믿어. 하지만 내

소중한 동생, 결과가 네가 옳았다는 걸 보여 준다 해도, 그 애의 행동을 생각하면 내 믿음도 네 의심만큼이나 자연스러웠다고 여전히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고집이 세다고 생각하지는 말아 줘. 그 애가 나와 가까워지고 싶어 한 이유를 나는 도통 모르겠어. 하지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나는 또 속고 말 거야. 캐럴라인은 어제서야 답방을 왔어. 그동안 쪽지 한 장, 한 줄도 받지 못했거든. 그 애가 왔을 때는 기쁜 기색이 전혀 없었어. 전에 찾아오지 못한 것을 짧고 격식 차린 말로 사과했지만,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모든 면에서 너무 달라져 있어서, 그 애가 돌아간 뒤로 나는 이 관계를 더 이어 가지 않기로 단단히 결심했어. 그 애를 탓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가엾기도 해. 그 애가 나를 그렇게 골라서 대한 건 잘못이었고, 가까워지려는 모든 시도는 그 애 쪽에서 시작되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 그래도 나는 그 애가 가엾어. 그 애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낄 테니까. 그리고 그 행동의 원인이 오빠를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나는 굳게 확신하니까.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우리는 그 걱정이 전혀 쓸데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애가 그렇게 느낀다면 나를 대하는 태도도 쉽게 설명이 돼. 그 애가 오빠를 그토록 아끼는 만큼, 오빠를 위해 어떤 걱정을 하든 그건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운 일이야. 그래도 지금 그 애가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게 이상하기만 해.

만약 오빠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벌써 만났을 테니까. 내가 런던에 와 있다는 건 오빠도 알고 있는 게 분명해. 그 애가 한 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 그런데 그 애의 말투를 보면, 오빠가 정말로 다아시 양에게 마음이 기운 걸로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싶은 것 같아.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가혹하게 판단할까 봐 두렵지만 않다면, 이 모든 일에 속임수가 뚜렷하게 보인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야. 괴로운 생각은 모두 떨쳐 버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것만 생각하려고 해. 너의 애정과 사랑하는 외삼촌과 외숙모의 변함없는 친절 말이야. 될 수 있으면 빨리 편지 줘. 빙리 양이 오빠가 다시는 네더필드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거나, 그 집을 포기할 거라는 말을 했어. 확실하게 한 말은 아니지만. 그 얘기는 꺼내지 않는 게 좋겠어. 헌스퍼드에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서 그렇게 즐거운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뻐. 꼭 윌리엄 경이랑 마리아와 함께 그들을 찾아가 봐. 거기서 분명 편하게 지내게 될 거야.

"늘 너의 언니가, 등등."

이 편지는 엘리자베스에게 얼마간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적어도 빙리 양에게는 제인이 더 이상 속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그녀의 기운이 되살아났다. 빙리 씨에게 거는 기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녀는 그의 관심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되새겨 볼수록 그의 인격은 점점 더 실망스러웠다. 그에 대한 벌이자 제인에게도 무언가 이로울 수 있는 일로서, 그녀는 그가 머지않아 정말로 다아시 씨의 누이와 결혼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위컴의 말을 들어 보면, 그 여자는 그가 내던져 버린 것을 두고두고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가드너 부인은 이 무렵 그 신사에 관해 한 약속을 엘리자베스에게 상기시키며 소식을 요구했다. 엘리자베스가 보낼 수 있는 소식은 자기보다 외숙모를 더 기쁘게 해 줄 만한 것이었다. 그의 뚜렷하던 호감은 가라앉았고, 관심도 끝났으며, 그는 다른 누군가의 구애자가 되어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이 모든 것을 알아볼 만큼 주의 깊었지만, 그것을 보고 적어 보내면서도 큰 고통은 느끼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살짝 흔들렸을 뿐이었고, 재산 형편이 허락했다면 자신이 그의 유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그녀의 자존심은 만족되었다. 그가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젊은 아가씨의 가장 두드러진 매력은 갑자기 생긴 만파운드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샬럿의 경우보다 통찰력이 덜했을지도 모르는 엘리자베스는 그가 독립하려는 바람을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은 없었다. 그가 그녀를 포기하는 데 얼마간 애를 써야 했으리라

짐작하면서도, 그녀는 그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현명하고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진심으로 그가 행복하기를 바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가드너 부인에게 털어놓았고, 사정을 이야기한 뒤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이어 갔다. "외숙모, 이제 확신해요. 저는 한 번도 깊이 사랑에 빠져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토록 순수하고 고결한 감정을 느꼈다면, 지금쯤 그 사람의 이름조차 싫어하면서 그에게 온갖 나쁜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 감정은 그에게 다정할 뿐 아니라, 킹 양에게조차 공정해요. 제가 그 애를 미워하는 구석은 찾아볼 수 없고, 그 애가 꽤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하기 싫은 마음도 조금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사랑이 있을 리 없지요. 제가 주의한 덕분에 마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제가 그에게 미칠 듯이 빠져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 눈에는 훨씬 흥미로운 대상이 되었겠지만, 지금처럼 별로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남은 것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남의 관심을 받는 것도 때로는 너무 비싼 값을 치러야 하거든요. 키티와 리디아는 그가 마음을 돌린 일을 저보다 훨씬 더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 애들은 세상 물정에 아직 어두워서, 잘생긴 젊은 남자도 평범한 남자와 마찬가지로 먹고살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씁쓸하지만 분명한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제27장



휴 톰슨, 제27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롱본 가족에게는 이보다 큰 사건이 없었다. 메리턴까지 걸어 다니는 것 말고는 별다른 일이 없었고, 그 산책도 어떤 때는 길이 진창이었고 어떤 때는 날씨가 추웠다. 그렇게 일월과 이월이 지나갔다. 삼월이 되면 엘리자베스가 헌스퍼드에 갈 차례였다. 처음에는 그곳에 가는 일을 그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샬럿이 그 계획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고, 차츰 그녀 자신도 그 일을 더 큰 즐거움과 더 확실한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떨어져 있는 동안 샬럿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커졌고, 콜린스 씨에 대한 혐오감은 옅어져 있었다. 이 계획에는 새로움이 있었다. 그런 어머니와 말동무도 안 되는 동생들이 있는 집이 완벽할 수는 없었으므로, 그저 바뀐 환경 자체가 싫지 않았다. 게다가 이 여행으로 제인도 잠깐 볼 수 있을 터였다. 요컨대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조금이라도 늦어졌다면 몹시 아쉬워했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결국 샬럿이 처음 짠 대로 확정되었다. 엘리자베스는 윌리엄 경과 그의 둘째 딸을 따라가기로 했다. 여행 도중 런던에서 하룻밤 묵는다는 일정도 나중에 덧붙여졌고, 계획은 계획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모습이 되었다.

유일한 아쉬움은 아버지와 헤어지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틀림없이 그녀를 그리워할 터였다. 막상 떠날 때가 되자 아버지는 그녀가 가는 것을 어찌나 싫어했는지 그녀에게 편지를 쓰라고 말했고, 답장을 하겠다고 거의 약속하기까지 했다.

엘리자베스와 위컴 사이의 작별은 더없이 다정했다. 위컴 쪽은 더 그러했다. 지금 그가 쫓고 있는 상대가 있다고 해서 엘리자베스가 처음으로 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럴 만한 가치를 지녔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는 없었다. 처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동정해 준 사람이었고, 처음으로 그가 감탄한 사람이었다. 그가 그녀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태도에는, 그녀에게 모든 즐거움이 함께하기를 빌고,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일깨우며, 영부인에 대한 두 사람의 평가가, 아니 모든 사람에 대한 두 사람의 평가가 언제나 일치하리라 믿는다고 말하는 가운데 배려와 관심이 담겨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그것이 그녀를 언제나 그에게 가장 진실한 호의로 묶어 둘 것이라고 느꼈다. 그렇게 그와 헤어지면서 그녀는 그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언제나 자신에게 상냥하고 매력 있는 사람의 본보기로 남으리라고 확신했다.

다음 날 동행한 사람들은 그녀가 위컴을 덜 호감 가는 사람으로 여길 만한 부류가 아니었다. 윌리엄 루카스 경과, 성격은 좋지만 아버지만큼이나 생각이 텅 빈 아가씨인 그의 딸 마리아는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못했고, 그들의 말은 마차가 덜컹대는 소리를 듣는 것만큼이나 즐거웠다. 엘리자베스는 엉뚱한 것을 좋아했지만, 윌리엄 경의 엉뚱함은 너무 오래 겪어 온 터였다. 그는 알현하고 기사 작위를 받았을 때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새로 해 줄 이야기가 없었고, 그의 친절한 태도도 그가 가진 정보와 마찬가지로 바닥나 있었다.

여정은 겨우 이십사 마일이었고, 그들은 아주 일찍 출발해서 정오 무렵에는 그레이스처치 스트리트에 도착했다. 마차가 가드너 씨의 집 앞으로 다가갈 때 제인이 응접실 창가에서 그들이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현관으로 들어서자 제인이 나와 그들을 맞았고, 엘리자베스는 언니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 얼굴이 여전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기뻐했다. 계단에는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이 떼 지어 서 있었다. 사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급해서 응접실에서 기다리지 못했고, 일 년 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줍어서 아래층으로

내려오지도 못했다. 모든 것이 기쁨과 친절로 가득했다.
그날은 무척 즐겁게 지나갔다. 오전에는 분주하게 가게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샀고, 저녁에는 극장 가운데 한 곳에 갔다.

엘리자베스는 그러고 나서 외숙모 옆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이 처음 꺼낸 이야기는 언니의 일이었다. 엘리자베스가
세세히 묻자, 제인은 늘 기운을 내려고 애쓰지만 가끔
우울해하는 때도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엘리자베스는
놀라기보다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그런 시기가 오래가지는
않으리라고 기대할 만했다. 가드너 부인은 빙리 양이
그레이스처치 스트리트를 찾아왔던 일의 자세한 내용도
들려주었다. 그리고 제인과 자신이 여러 차례 나눈 대화를
그대로 옮겨 들려주었는데, 그 대화를 보면 제인이 진심으로
그 교제를 포기했다는 것이 분명했다.

가드너 부인은 이어서 위컴이 떠나 버린 일을 두고 조카를
놀리면서, 그녀가 그 일을 그토록 잘 견뎌 내는 것을
칭찬했다.

"그런데 얘야 엘리자베스," 그녀가 덧붙였다. "킹 양은 어떤
아가씨니? 우리 친구가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구나."

"제발 부탁이에요, 외숙모. 돈을 노리는 동기와 신중한 동기가 결혼 문제에서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신중함은 어디서 끝나고 탐욕은 어디서 시작하나요?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외숙모는 그가 저와 결혼할까 봐 걱정하셨잖아요. 신중하지 못한 일이라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재산이 겨우 만 파운드인 아가씨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가 돈을 노리는 사람이라고 알아내고 싶으신 거예요?"

"킹 양이 어떤 아가씨인지만 말해 주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겠구나."

"그녀는 아주 좋은 아가씨인 것 같아요. 그 아가씨에 대해 나쁜 얘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녀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녀가 이 재산의 주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가 그녀에게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지?"

"네, 두지 않았어요. 왜 그래야 하죠? 제가 돈이 없어서 제 마음을 얻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마음에도 없고 똑같이 가난한 아가씨에게 구애할 까닭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그가 그녀에게 관심을 쏟는 건 경우에 맞지 않아 보이는구나."

"곤궁한 처지에 있는 남자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지키는 그 모든 우아한 예법을 따를 여유가 없어요. 그녀가 개의치 않는다면, 우리가 왜 개의해야 하나요?"

"그녀가 개의치 않는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정당해지는 건 아니란다. 그건 그녀 자신에게 무언가가, 분별이나 감정이 모자라다는 것만 보여 줄 뿐이지."

"그래요,"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외숙모 뜻대로 하세요. 그는 돈을 노리는 사람이고, 그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아니, 리지, 그건 내 뜻이 아니란다. 알잖니, 더비셔에서 그렇게 오래 산 젊은이를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구나."

"아, 그게 전부라면, 더비셔에 사는 젊은 남자들은 제가 보기에 아주 형편없어요. 하트퍼드셔에 사는 그들의 절친한 친구들도 별반 낫지 않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라면 지긋지긋해요. 다행히 내일은 장점이라곤 하나도 없고 추천할 만한 예의도 분별도 없는 남자를 만나러 가요. 결국 알고 지낼 가치가 있는 사람은 멍청한 남자들뿐이라니까요."

"조심해라, 리지. 그 말에는 실망의 기색이 짙게 배어 있구나."

극이 끝나 헤어지기 전에, 그녀는 여름에 외삼촌 부부가 계획한 유람 여행에 동행하자는 초대를 뜻밖에도 받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는 그 여행이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갈지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어," 가드너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아마 호수 지방까지 가게 될 것 같구나."

이보다 더 엘리자베스의 마음에 드는 계획은 없었고, 그녀는 초대를 아주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외숙모, 사랑하는 외숙모," 그녀는 황홀하게 외쳤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외숙모 덕분에 새 생기와 힘이 나요. 실망이나 울적함은 이제 안녕이에요. 남자들이 바위와 산에 견줄 게 뭐가 있겠어요? 아, 우리가 얼마나 황홀한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다른 여행자들처럼 무엇 하나 정확히 설명하지도 못한 채로 돌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갔는지 알 테고, 본 것을 기억할 거예요. 호수와 산과 강이 우리 상상 속에서 뒤죽박죽 섞이지도 않을 거고, 어떤 풍경을 묘사하려 할 때 그 상대적인 위치를 두고 다투기 시작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의 첫 감탄만큼은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쏟아 내는 것보다 덜 견디기 힘든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제28장



휴 톰슨, 「숙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1894년 판 삽화)

다음 날의 여정에서 보이는 모든 것이 엘리자베스에게는 새롭고 흥미로웠다. 그녀의 기분도 즐거움에 들떠 있었다. 언니가 아주 건강해 보여서 건강을 걱정할 필요는 완전히 사라졌고, 북쪽 지방 여행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도 끊임없는 기쁨의 원천이었다.

그들이 큰길을 벗어나 헌스퍼드로 가는 샛길로 들어서자, 모두가 눈으로 목사관을 찾았고 길모퉁이를 돌 때마다 목사관이 보이기를 기대했다. 로징스 공원의 울타리가 한쪽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그곳 사람들에 관해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마침내 목사관이 눈에 들어왔다. 길 쪽으로 비스듬히 내려가는 정원과 그 안에 서 있는 집, 초록빛 울타리와 월계수 생울타리, 그 모든 것이 그들이 도착했음을 알려 주었다. 콜린스 씨와 샬럿이 문가에 나타났고, 마차는 작은 문 앞에 멈췄다. 그 문에서 짧은 자갈길이 집까지 이어졌다. 일행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다. 금세 그들 모두 마차에서 내려 서로를 보고 기뻐했다. 콜린스 부인은 가장 반가운 기색으로 친구를 맞이했고,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다정한 환영을 받자 온 것이 점점 더 흐뭇했다. 그녀는 사촌의 태도가 결혼한 뒤에도 변하지 않았음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의 격식 차린 예의는 전과 다를 바 없었다. 콜린스 씨는

그녀를 대문 앞에서 몇 분 붙잡아 두고, 가족 모두의 안부를 묻고 그 대답을 들었다. 그다음 그는 입구가 얼마나 말끔한지 가리키는 것 말고는 지체하지 않고 일행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에 들어서자 그는 자기의 누추한 집에 온 일행을 다시 한번 과장된 격식을 차려 환영했고, 아내가 권하는 다과도 빠짐없이 되풀이해 권했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자기 세계에서 우쭐대는 모습을 볼 각오를 하고 있었다. 방의 좋은 비율과 방향, 가구를 보여 주며 그가 유독 자신을 향해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마치 청혼을 거절해서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하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말끔하고 편안해 보였어도 그녀는 그를 기쁘게 해 줄 뉘우침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남편과 살면서 그렇게 밝은 얼굴을 할 수 있는 친구를 놀랍다는 듯 바라보았다. 콜린스 씨가 아내가 부끄러워할 만한 말을 할 때면, 그리고 그런 일은 드물지 않았는데,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샬럿에게 눈길을 돌렸다. 한두 번은 샬럿의 얼굴에 옅은 홍조가 번지는 것이 보였지만, 대개 샬럿은 현명하게도 못 들은 체했다. 일행이 찬장에서 난로 가리개까지 방 안의 가구를 하나하나 감탄하고, 여행과 런던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할 만큼 충분히 앉아 있자, 콜린스 씨는 일행에게 정원을 산책하자고 청했다. 정원은 넓고 잘 꾸며져 있었으며, 그 가꾸기는 그가 직접 맡고

있었다. 정원에서 일하는 것은 그에게 가장 떳떳한 즐거움 중 하나였다. 샬럿이 그 운동이 건강에 아주 좋다며 될 수 있는 한 권하고 있다고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말하자, 엘리자베스는 그 태연함에 감탄했다. 콜린스 씨는 모든 오솔길과 가로지르는 길을 앞장서 안내했고, 그가 바라는 칭찬을 늘어놓을 틈도 거의 주지 않았다. 모든 풍경을 하나하나 가리켰는데, 그 세세함이 정작 아름다움은 뒤로 밀어내 버릴 정도였다. 그는 사방의 밭이 몇 개인지 셀 수 있었고, 가장 먼 숲에 나무가 몇 그루 있는지도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정원이나 그 지방, 나아가 온 나라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경치 가운데 로징스의 전망에 견줄 만한 것은 없었다. 그것은 집 정면에서 거의 마주 보이는 공원 경계의 나무 사이로 트인 곳에서 보였다. 로징스는 솟은 땅 위에 잘 자리 잡은, 아름다운 현대식 건물이었다.

콜린스 씨는 정원에 이어 두 목초지까지 일행을 데리고 둘러보려 했다. 그러나 숙녀들은 하얀 서리가 아직 남아 있는 땅을 걸을 신발이 없었으므로 발길을 돌렸다. 윌리엄 경이 그와 동행하는 동안, 샬럿은 여동생과 친구를 데리고 집 안을 구경시켜 주었다. 남편의 도움 없이 집을 보여 줄 기회가 생긴 것을 샬럿은 아마 아주 흐뭇하게 여겼을 것이다. 집은 다소 작았지만 튼튼하게 지어졌고 살기에 편리했다. 모든 것이 말끔하고 일관되게 꾸며져 있었는데, 엘리자베스는 그 공을

전부 샬럿에게 돌렸다. 콜린스 씨를 잊을 수만 있다면 집 안 곳곳에 정말로 편안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샬럿이 그것을 분명히 즐기는 모습을 보며, 엘리자베스는 샬럿이 그를 자주 잊고 지내는 게 틀림없다고 짐작했다.

그녀는 이미 캐서린 영부인이 아직 시골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다시 나왔다. 그때 콜린스 씨가 끼어들어 말했다.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 양, 이번 주일 교회에서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을 뵙는 영광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양께서 그분을 뵙고 무척 기뻐하시리라는 것은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더없이 상냥하시고 아랫사람도 너그러이 대해 주십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분께서 양께도 얼마간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영광이 있으리라고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양께서 여기 머무시는 동안 그분께서 저희에게 베푸시는 초대마다 양과 제 처제 마리아도 함께 불러 주시리라고, 저는 거의 망설임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샬럿을 대하시는 태도도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두 번 로징스에서 식사를 하는데, 집으로 걸어서 돌아오는 것은 한 번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영부인의 마차가 어김없이

저희를 위해 준비됩니다. 아니, 영부인의 마차 가운데 한 대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마차를 여러 대 가지고 계시니 말입니다."

"캐서린 영부인은 참으로 존경받을 만하고 분별 있는 분이에요," 샬럿이 덧붙였다. "그리고 아주 세심한 이웃이기도 하고요."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여보. 제가 늘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리 공경해도 지나치지 않을 분이십니다."

저녁 시간은 주로 하트퍼드셔 소식을 주고받고, 이미 편지로 전한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데 쓰였다. 자리가 파하자 엘리자베스는 홀로 자기 방에서, 샬럿이 얼마나 만족하며 지내는지 헤아리고, 남편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참아 내는지 이해하며, 그 모든 것을 아주 잘 해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방문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미리 그려 보았다. 평소 하는 일들의 조용한 흐름과, 콜린스 씨의 짜증스러운 방해, 그리고 로징스와 교제하며 누리게 될 즐거움을 생각해 보았다. 생생한 상상력은 이 모든 것을 곧 정리해 주었다.

다음 날 한낮 무렵, 엘리자베스가 산책 채비를 하며 자기 방에 있을 때였다. 아래층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나서 온 집안이 소란에 휩싸인 듯했다. 그녀가 잠시 귀를 기울이자, 누군가 몹시 다급히 계단을 뛰어 올라오며 큰 소리로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문을 열자 층계참에서 마리아와 마주쳤다. 마리아는 흥분으로 숨이 턱에 닿아 소리쳤다.

"아, 엘리자! 제발 서둘러서 식당으로 내려와 봐. 굉장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어! 뭔지는 말하지 않을게. 서둘러 지금 당장 내려와."

엘리자베스가 아무리 물어도 마리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해 주지 않았다. 둘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러 길에 면한 식당으로 달려 내려갔다. 알고 보니 두 숙녀가 정원 문 앞에 낮은 무개 경마차를 세우고 있었다.

"이게 다야?"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적어도 돼지들이 정원에 들어왔겠거니 했는데, 여기엔 캐서린 영부인과 따님뿐이라니!"

"어머나, 엘리자," 마리아가 엘리자베스의 착각에 깜짝 놀라 말했다. "캐서린 영부인이 아니야. 저 노부인은 같이 사는 젠킨슨 부인이야. 다른 분이 드 버그 양이고. 저것 좀 봐. 정말 작은 사람이잖아. 저렇게 마르고 작을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샬럿을 밖에 세워 두다니 참으로 무례하구나. 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지?"

"아, 샬럿 말로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대. 드 버그 양이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아주 큰 은혜를 베푸는 거래."

"나는 저 사람 모습이 마음에 들어." 엘리자베스는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말했다. "병약하고 까다로워 보여. 그래, 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아주 잘 어울릴 거야. 그 사람에게 아주 어울리는 아내가 되겠어."

콜린스 씨와 샬럿은 둘 다 문 앞에 서서 두 숙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윌리엄 경은 문간에 자리를 잡고, 눈앞에 펼쳐진 존귀한 광경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드 버그 양이 그쪽을 볼 때마다 그는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했는데, 그 모습이 엘리자베스에게는 더없이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마침내 더 할 말이 없어졌다. 두 숙녀는 마차를 몰고 떠났고, 나머지 사람들은 집 안으로 돌아왔다. 콜린스 씨는 두 아가씨를 보자마자 행운을 축하하기 시작했고, 샬럿은 그 행운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다. 일행 모두가 다음 날 로징스에서 저녁을 먹자는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제29장



휴 톰슨, 제29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이번 초대로 콜린스 씨의 득의만만함은 극에 달했다. 놀란 방문객들에게 후원자의 위엄을 드러내 보이고, 그들이 영부인이 자신과 아내에게 베푸는 친절을 직접 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바라던 바 그대로였다. 게다가 그 기회가 이토록 빨리 주어졌다는 사실은, 그가 아무리 감탄해도 다 감탄할 수 없을 만큼 캐서린 영부인이 몸을 낮추었다는 증거였다.

"고백하건대," 그가 말했다. "영부인께서 일요일에 저희를 로징스로 불러 차를 마시며 저녁을 보내자고 하셨다면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부인의 상냥함을 아는 터라, 오히려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려를 누가 미리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도착하시자마자 이토록 곧바로 그곳 만찬에 초대받으리라고, 그것도 일행 전부를 청하시는 초대를 말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이번 일이 그다지 놀랍지 않습니다," 윌리엄 경이 대답했다. "제 신분 덕분에 귀족들의 예법이 실제로 어떤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궁정에서는 이런 세련된 배려가 드물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다음 날 아침까지도 그들이 로징스를 방문하는 이야기 말고는 거의 아무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 콜린스 씨는 그런 방들과 그렇게 많은 하인들, 그토록 화려한 저녁 식사를 보고 그들이 기가 눌리지 않도록, 앞으로 무엇을 보게 될지 꼼꼼히 일러 주었다.

아가씨들이 치장하러 흩어질 때, 그가 엘리자베스에게 말했다.

"친애하는 사촌 아가씨, 옷차림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캐서린 영부인께서는 우리에게 영부인과 따님에게 어울리는 그런 세련된 차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가진 옷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입으시면 충분하고, 그 이상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박하게 차려입었다고 해서 영부인께서 아가씨를 낮게 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부인께서는 신분의 구별이 지켜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옷을 갈아입는 동안 그는 캐서린 영부인이 저녁 식사를 기다리게 되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며, 서둘러 달라고 두세 차례 아가씨들의 방 앞으로 찾아왔다. 영부인과 그녀의 생활 방식에 대한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에 마리아 루카스는 완전히 겁을 먹었다. 사교 자리에 나가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그녀는, 아버지가 세인트제임스 궁정에 알현하러 갈 때만큼이나 불안한 마음으로 로징스에서 소개받을 순간을 기다렸다.

날씨가 맑았으므로 그들은 공원을 가로질러 반 마일쯤 되는 즐거운 산책을 했다. 어느 공원에나 그 나름의 아름다움과 전망이 있었고, 엘리자베스는 기뻐할 만한 것을 많이 보았다. 다만 콜린스 씨가 그 풍경이 불러일으킬 것이라 기대한 만큼

황홀해하지는 못했고, 그가 집 앞의 창문 수를 세며 그 유리창을 다 끼우는 데 원래 루이스 드 버그 경이 얼마를 치렀는지 늘어놓는 말에도 별로 감동하지 않았다.

그들이 계단을 올라 홀로 들어설 때, 마리아의 불안은 순간순간 커졌고, 윌리엄 경마저 완전히 침착해 보이지 않았다. 엘리자베스의 용기는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캐서린 영부인이 무슨 뛰어난 재능이나 기적 같은 덕 때문에 외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고, 돈과 신분이 주는 단순한 위엄 정도는 떨지 않고 바라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훌륭한 비례과 정교한 장식을 황홀한 얼굴로 가리키며 콜린스 씨가 안내하는 현관홀에서, 그들은 하인들을 따라 앞방을 지나 캐서린 영부인과 그녀의 딸, 그리고 젠킨슨 부인이 앉아 있는 방으로 갔다. 영부인은 아주 너그럽게 몸을 낮추어 일어나 그들을 맞았다. 소개하는 일은 샬럿이 맡기로 콜린스 씨와 미리 정해 두었던 터라, 그였다면 꼭 필요하다고 여겼을 사과와 감사의 말 없이 적절한 방식으로 소개가 이루어졌다.

세인트제임스 궁정에 다녀왔었으나, 윌리엄 경은 주위를 둘러싼 장엄함에 완전히 압도되어, 아주 깊이 머리를 숙이고 한마디 말도 없이 자리에 앉을 용기밖에 내지 못했다. 그의

딸은 거의 정신이 나갈 만큼 겁에 질려 의자 가장자리에 걸터앉은 채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다. 엘리자베스는 이 장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느꼈고, 눈앞의 세 부인을 차분히 관찰할 수 있었다. 캐서린 영부인은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여자였으며, 이목구비가 뚜렷해 한때는 아름다웠을 것이었다. 그녀의 태도는 사람을 편하게 하지 못했고, 손님들을 맞는 방식도 방문객들이 자신들의 낮은 신분을 잊게 만들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침묵으로 위압감을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하는 말은 모두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는 마음이 드러나는 권위적인 어조로 나왔고, 그 때문에 엘리자베스의 머릿속에는 곧바로 위컴 씨가 떠올랐다. 그날 있었던 일을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엘리자베스는 캐서린 영부인이 위컴 씨가 묘사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 어머니의 얼굴과 몸가짐에서 곧 다아시 씨와 닮은 구석을 찾아낸 뒤, 그녀는 시선을 딸에게 돌렸다. 딸이 그토록 야위고 작은 것을 보고는 엘리자베스도 마리아처럼 놀랄 뻔했다. 두 부인 사이에는 몸매에서도 얼굴에서도 닮은 데가 전혀 없었다. 드 버그 양은 창백하고 병약해 보였다. 이목구비가 밉지는 않았지만 두드러지지도 않았으며,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젠킨슨 부인에게 아주 조금 말했을 뿐이었다.

젠킨슨 부인의 모습에는 눈에 띄는 것이 없었고, 그녀는 오로지 드 버그 양의 말을 듣고, 그녀의 눈앞에 가리개를 알맞은 방향으로 놓아 주는 일에만 온 정신을 쏟고 있었다.

몇 분쯤 앉아 있다가, 그들은 모두 경치를 감상하라며 창가로 보내졌다. 콜린스 씨는 그들을 따라가 풍경의 아름다운 곳들을 가리켜 주었고, 캐서린 영부인은 친절하게도 여름에 보면 훨씬 더 볼 만하다고 알려 주었다.

저녁 식사는 무척 훌륭했고, 하인들도 모두 나왔으며, 콜린스 씨가 약속했던 은제 식기도 전부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가 미리 말했던 대로, 그는 영부인의 뜻에 따라 식탁 맨 아래 자리에 앉았는데, 마치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인생이 줄 수 없다고 느끼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기쁨에 찬 민첩함으로 고기를 썰고 먹고 칭찬했다. 요리마다 먼저 그가 칭찬했고, 그다음에는 윌리엄 경이 칭찬했다. 윌리엄 경은 이제 사위의 말을 무엇이든 따라 할 만큼 기운을 차린 상태였는데, 엘리자베스는 캐서린 영부인이 그것을 어떻게 참고 있는지 의아했다. 그러나 캐서린 영부인은 그들의 지나친 찬탄에 흡족해하는 듯했고, 특히 식탁의 어떤 요리가 그들에게 처음 보는 것일 때 아주 너그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식사 자리에서는 대화가 별로 이어지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말할 틈만 나면 기꺼이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샬럿과 드 버그 양 사이에 앉아 있었다. 샬럿은 캐서린 영부인의 말을 듣느라 여념이 없었고, 드 버그 양은 식사 시간 내내 그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젠킨슨 부인은 주로 드 버그 양이 얼마나 조금 먹는지 지켜보며, 다른 요리도 좀 들어 보라고 권하고 그녀가 몸이 좋지 않은 게 아닐까 걱정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마리아는 말을 꺼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신사들은 먹고 감탄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부인들이 객실로 돌아오자, 커피가 나올 때까지 캐서린 영부인의 말을 듣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거의 없었다. 영부인은 쉬지 않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자기 의견을 너무도 단호하게 밝혀서, 자신의 판단이 반박당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임이 분명했다. 그녀는 샬럿의 집안일을 허물없이 아주 자세하게 캐물었고, 그 모든 살림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많은 충고를 해 주었다. 샬럿네처럼 작은 살림에서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일러 주었고, 젖소와 가금을 돌보는 법까지 가르쳤다. 엘리자베스는 남에게 지시할 기회가 될 만한 것이라면 이 대단한 부인에게는 아무리 하찮은 일도 관심 밖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부인은 콜린스 부인과 이야기하는 틈틈이 마리아와 엘리자베스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다. 특히 엘리자베스에게 많이 물었는데, 그녀의 집안 내력을 가장

모르기 때문이었고, 영부인은 콜린스 부인에게 그녀가 아주 점잖고 예쁜 아가씨라고 말했다. 영부인은 때때로 그녀에게 자매가 몇 명인지, 그들이 그녀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그중 누군가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지, 얼굴은 예쁜지,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지, 아버지는 어떤 마차를 두고 있는지, 어머니의 처녀 적 성은 무엇인지 물었다. 엘리자베스는 그 질문들의 무례함을 모두 느꼈지만,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캐서린 영부인이 말했다.

"아버지의 재산은 콜린스 씨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자네를 위해서 다행이군." 그녀는 샬럿을 돌아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재산을 여자 쪽으로는 물려주지 못하게 묶어 둘 까닭이 없다고 보네. 루이스 드 버그 경의 집안에서도 그럴 필요는 없다고 여겼지. 베넷 양, 피아노를 치고 노래도 하나?"

"조금요."

"아, 그럼 언젠가 한번 들려주면 좋겠군. 우리 집 악기는 최고급이라, 아마 ……보다도 나을 걸세. 언젠가 한번 쳐 보게. 자네 자매들은 피아노를 치고 노래도 하나?"

"한 명은 그래요."

"왜 다들 배우지 않았나? 다들 배웠어야지. 웹 집안 아가씨들은 모두 연주를 하고, 그들의 아버지는 자네 아버지만큼 수입이 많지도 않아. 자네는 그림을 그리나?"

"아니요, 전혀요."

"정말로, 자매 중 아무도?"

"한 명도 없어요."

"이상한 일이군. 하지만 배울 기회가 없었겠지. 자네 어머니는 선생들에게 배우도록 해마다 봄이면 자네들을 런던으로 데려갔어야 했네."

"우리 어머니는 반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런던을 싫어하세요."

"가정교사는 떠났나?"

"우리는 가정교사를 둔 적이 없어요."

"가정교사가 없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다섯 딸을 가정교사 없이 집에서 키웠다니! 그런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군. 자네 어머니는 자네들 교육에 틀림없이 노예처럼 매달렸겠군."

엘리자베스는 영부인에게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웃음을 참기 어려웠다.

"그럼 누가 가르쳤나? 누가 자네들을 돌봐 주었나?
가정교사도 없었으니 자네들은 분명 방치되었겠군."

"몇몇 집안에 비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배울 방법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늘
책 읽기를 권장받았고, 필요한 선생들은 다 있었어요.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사람은 물론 그럴 수 있었겠지요."

"그래, 물론 그랬겠지.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정교사가 막아
주는 일이네. 내가 자네 어머니를 알았더라면, 가정교사를 한
명 들이라고 아주 강력히 권했을 걸세. 나는 늘 말하네,
꾸준하고 규칙적인 가르침 없이는 교육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정교사뿐이라고. 내가
그런 식으로 가정교사를 구해 준 집안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울 정도라네. 나는 젊은 사람이 좋은 자리에 잘 들어가는
것을 보면 늘 기쁘지. 젠킨슨 부인의 조카 네 명도 내 덕분에
아주 좋은 자리를 얻었지.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도 그저
우연히 내 귀에 들어왔을 뿐인 또 다른 젊은 사람을
추천했는데, 그 집안에서 아주 마음에 들어 한다네. 콜린스
부인, 어제 메트칼프 부인이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다는 얘기를 했던가? 포프 양을 보물로 여긴다더군.
‘캐서린 영부인, 영부인께서 제게 보물을 주셨어요.’ 하고
말하더군. 베넷 양, 동생들 중에 사교계에 나간 아이가 있나?”

“네, 영부인, 전부 나갔어요.”

“다섯이 다 나갔다고! 뭐라, 다섯이 한꺼번에 사교계에
나갔단 말인가? 참으로 이상하군! 게다가 자네는 겨우
둘째인데. 언니들이 시집도 가기 전에 동생들이 먼저
나갔다고? 자네 여동생들은 아주 어리겠지?”

“네, 막내는 열여섯도 안 됐어요. 사교 모임에 자주
나가기에는 아직 많이 어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정말로
영부인, 언니들이 일찍 결혼할 형편이나 마음이 없다는
이유로 여동생들이 사교와 즐거움을 누릴 몫을 빼앗긴다면
그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막내로 태어난 사람도
맏이와 똑같이 젊음의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런
이유로 발목을 잡힌다면! 그런 일은 자매간의 정이나 섬세한
마음씨를 키워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세상에,” 영부인이 말했다. “그렇게 어린 사람치고 자기
의견을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군. 그래, 나이가 몇인가?”

"세 여동생이 다 자랐는데," 엘리자베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영부인께서는 제가 나이를 밝히리라고 기대하시긴 어렵겠지요."

캐서린 영부인은 직접적인 대답을 듣지 못하자 꽤 놀란 기색이었고, 엘리자베스는 그토록 위엄 있는 무례함을 감히 가볍게 받아넘긴 사람은 자기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했다.

"자네는 틀림없이 스무 살도 넘지 않았을 테니, 나이를 숨길 필요는 없네."

"저는 아직 스물하나가 안 됐어요."

신사들이 합류하고 차 마시는 시간이 끝나자 카드 테이블이 놓였다. 캐서린 영부인, 윌리엄 경, 콜린스 부부는 카드리유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다. 드 버그 양이 카시노를 하겠다고 하자, 두 아가씨는 영광스럽게도 젠킨슨 부인을 도와 드 버그 양의 게임 상대가 되었다. 그들의 테이블은 더없이 지루했다. 젠킨슨 부인이 드 버그 양이 너무 덥거나 춥지는 않은지, 빛이 너무 많거나 적지는 않은지 걱정을 늘어놓는 때를 빼면, 게임과 무관한 말은 거의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훨씬 많은 말이 오갔다. 캐서린 영부인은 대개 말하는 쪽이었다. 나머지 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자신에 관한 일화를 늘어놓았다. 콜린스

씨는 영부인이 하는 말에는 무엇이든 동의하고, 칩을 하나 딸 때마다 영부인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너무 많이 딴 것 같으면 사과하느라 바빴다. 윌리엄 경은 별로 말이 없었다. 그는 일화와 고귀한 이름들을 기억 속에 쌓아 두고 있었다.

캐서린 영부인과 그녀의 딸이 원하는 만큼 카드를 치고 나자, 테이블은 치워졌다. 콜린스 부인에게 마차가 권해졌고, 그녀는 고맙게 받아들였으며, 곧바로 마차가 준비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 일행은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 캐서린 영부인이 정해 주는 말을 듣기 위해 난롯가에 모여 앉았다. 그 지시가 끝나기도 전에 마차가 도착했다는 전갈이 와서 그들은 자리를 떴다. 콜린스 씨는 감사의 말을 길게 늘어놓았고, 윌리엄 경도 그만큼 많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마차가 문 앞을 떠나자마자 사촌 오빠는 엘리자베스에게 로징스에서 본 모든 것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고 청했다. 엘리자베스는 샬럿을 생각해서 실제보다 좋게 평했다. 하지만 그녀가 애써 칭찬했는데도 콜린스 씨는 조금도 만족하지 못했고, 그는 곧 캐서린 영부인을 칭찬하는 일을 직접 떠맡을 수밖에 없었다.

제30장



휴 톰슨, 「그는 빠짐없이 알려 주었다」(1894년 판 삽화)

윌리엄 경은 헌스퍼드에 일주일밖에 머물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방문은 딸이 아주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 그리고 흔히 만나기 힘든 남편과 이웃을 얻었다는 것을 그에게 확신시키기에 충분히 길었다. 윌리엄 경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콜린스 씨는 아침마다 그를 마차에 태우고 근처를 돌며 시골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러나 윌리엄 경이 떠나자 온 가족은 평소의 일과로 돌아갔고, 엘리자베스는 일과가 바뀌었어도 사촌과 더 자주 마주치게 되지는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여겼다. 아침 식사에서 저녁 식사 사이의 시간 대부분을 이제 콜린스 씨는 정원에서 일하거나, 길가로 난 자기 서재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창밖을 내다보며 보냈기 때문이다. 여자들이 앉아 있는 방은 뒤쪽에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처음에 샬럿이 평소 쓰기에 식당을 택하지 않는 것이 조금 의아했다. 식당이 더 넓고 전망도 더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곧 친구에게 그렇게 한 훌륭한 이유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만약 그들이 그만큼 활기찬 방에 앉아 있었다면, 콜린스 씨는 자기 방에 있는 시간이 틀림없이 훨씬 줄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그 배치를 샬럿의 지혜로 여겼다.

응접실에서는 길에 지나가는 것을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고, 어떤 마차가 지나갔는지, 특히 드 버그 양이 자기 포에톤을 타고 몇 번이나 지나갔는지는 콜린스 씨 덕분에 알 수 있었다. 거의 날마다 있는 일인데도 그는 그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러 오는 일을 빠뜨리지 않았다. 드 버그 양은 드물지 않게 목사관에 들러 샬럿과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마차에서 내리도록 설득받는 일은 거의 없었다.

콜린스 씨가 로징스에 걸어가지 않은 날은 거의 없었고,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은 날은 많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처분할 다른 교구 목사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희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가끔 캐서린 영부인이 방문하여 그들을 빛내 주었는데, 그런 방문 동안 방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영부인은 그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고, 그들의 바느질을 들여다보며 다르게 하라고 충고했다. 가구 배치를 탓하거나 하녀가 게으름을 피운 것을 찾아내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가 무엇이든 다과를 받아들일 때에도, 그것은 오직 콜린스 부인이 내놓는 고기 덩어리가 그 집 식구에게는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였다.

엘리자베스는 곧 알아차렸다. 이 위대한 귀부인은 주의 치안판사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았지만, 자기 교구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치안판사였다. 교구의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콜린스 씨가 그녀에게 가져갔다. 그리고 마을의 오두막 주민들 가운데 누군가 다투기를 좋아하거나, 불평을 늘어놓거나, 너무 가난할 때면 그녀는 마을로 나가서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불평을 잠재우고, 꾸짖어서 화목과 풍족함을 되찾아 주었다.

로징스에서 저녁을 먹는 즐거움은 일주일에 두 번쯤 되풀이되었다. 윌리엄 경이 없고 저녁에 카드 테이블이 하나뿐이라는 점을 빼면 그런 모임은 매번 처음의 모임과 판박이였다. 그 밖의 약속은 거의 없었는데, 이 근방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콜린스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엘리자베스에게 나쁜 일이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그녀는 꽤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다. 샬럿과 나누는 반 시간쯤의 즐거운 대화가 있었고, 계절에 비해 날씨가 무척 좋아서 그녀는 밖에서 자주 즐거움을 누렸다. 다른 사람들이 캐서린 영부인을 방문하는 동안 그녀가 즐겨 걷던 산책로, 그리고 자주 가던 곳은 공원의 그쪽 가장자리를 따라 난 탁 트인 숲길이었다. 그곳에는 아늑하게 가려진 좋은 오솔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그녀 말고는 아무도 아끼지 않는 듯했고, 그곳에 있으면 그녀는 캐서린 영부인의 호기심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고 느꼈다.

이렇게 조용하게 그녀의 방문 첫 두 주가 금세 지나갔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전 주에는 로징스 집안에 식구가 늘어날 예정이었다. 이렇게 작은 모임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도착한 직후 다아시 씨가 몇 주 안에 그곳에 올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녀가 그보다 덜 좋아하는 지인은 거의 없었지만, 그가 오면 로징스의 모임에서 비교적 새로운 얼굴을 보게 될 것이었다. 또 그녀는

다아시에 대한 빙리 양의 계획이 얼마나 가망 없는지를 그가 사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지켜보며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촌은 분명 캐서린 영부인이 그와 짝지을 생각을 품고 있는 상대였다. 영부인은 그가 온다는 말을 가장 큰 만족감으로 이야기했고, 그를 더없이 높이 칭찬했으며, 루카스 양과 엘리자베스가 그를 이미 여러 번 보았다는 것을 알고는 거의 화가 난 듯했다.

그의 도착은 곧 목사관에 알려졌는데, 콜린스 씨가 아침 내내 헌스퍼드 레인으로 통하는 문지기 집들이 보이는 곳을 거닐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아시 씨의 도착을 누구보다 먼저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마차가 공원 안으로 방향을 틀자 그는 인사를 하고 나서, 그 대단한 소식을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인사를 올리려고 서둘러 로징스로 갔다. 인사를 받을 사람은 캐서린 영부인의 조카 둘이었다. 다아시 씨가 자기 외삼촌인 ——경의 둘째 아들 피츠윌리엄 대령을 데리고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두가 몹시 놀랍게도, 콜린스 씨가 돌아왔을 때 두 신사가 그와 함께 왔다. 샬럿은 남편의 방에서 길을 건너오는 그들을 보았고, 곧바로 다른 방으로 뛰어 들어가 처녀들에게 무슨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리며 말했다.—

"엘리자, 이렇게 예를 차려 찾아온 건 다 네 덕분이야. 다아시 씨가 나를 찾아오려고 이렇게 빨리 오지는 않았을 테니까."

엘리자베스는 그 칭찬이 자기 몫이 아니라고 부인할 겨를도 거의 없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려 그들이 왔음을 알렸고, 얼마 뒤 세 신사가 방으로 들어왔다. 앞장선 피츠윌리엄 대령은 서른 살쯤 되었고,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풍채와 태도가 참으로 신사다웠다. 다아시 씨는 하트퍼드셔에 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고, 늘 그렇듯 과묵하게 콜린스 부인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그가 엘리자베스에게 무슨 감정을 품고 있든,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더없이 침착해 보였다. 엘리자베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다.

피츠윌리엄 대령은 곧바로 대화를 시작했는데, 교양 있는 신사다운 재빠르고 자연스러운 태도였고 이야기도 무척 유쾌하게 했다. 그러나 그의 사촌은 집과 정원에 대해 콜린스 부인에게 가벼운 말을 건넨 뒤에는, 한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그의 예의도 엘리자베스에게 가족의 안부를 물을 만큼은 깨어났다. 그녀는 늘 하던 대로 대답했고, 잠시 말을 멈춘 뒤 덧붙였다.—

“언니는 석 달째 런던에 가 있어요. 거기서 언니를 한 번도 못 보셨나요?”

그녀는 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빙리 집안과 제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기색을 드러내는지 보고 싶었다. 그가 베넷 양을 만날 행운이 한 번도 없었다고 대답할 때 조금 당황한 듯 보였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 화제는 더 이어지지 않았고, 신사들은 곧 자리를 떠났다.

제31장



휴 톰슨, 제31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피츠윌리엄 대령의 태도는 목사관에서 크게 칭찬받았고, 숙녀들은 모두 그가 로징스에서의 모임을 한층 즐겁게 해 줄 것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으로부터 초대를

받기까지는 며칠이 걸렸다. 집에 손님이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필요할 리 없었기 때문이다. 신사들이 도착한 지 거의 일주일이 지난 부활절 날에 이르러서야 그런 배려를 받았고, 그때도 교회에서 나올 때 저녁에 그리로 오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들은 캐서린 영부인이나 그 딸과는 거의 마주치지 못했다. 피츠윌리엄 대령은 그 사이 목사관에 여러 번 들렀지만, 다아시 씨는 교회에서만 볼 수 있었다.

물론 초대는 받아들여졌고, 정해진 시간에 그들은 캐서린 영부인의 응접실에 있는 일행에 합류했다. 영부인은 예의 바르게 그들을 맞았지만, 달리 상대할 사람이 없을 때만큼 그들의 방문을 반기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실제로 영부인은 조카들에게 거의 온통 마음을 빼앗겨 있었고, 방에 있는 다른 누구보다도 그들, 특히 다아시에게 훨씬 더 많이 말을 걸었다.

피츠윌리엄 대령은 그들을 만나 정말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다. 로징스에서는 무엇이든 그에게 반가운 기분 전환이었고, 게다가 콜린스 부인의 예쁜 친구가 그의 마음을 꽤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는 이제 그녀 곁에 자리를 잡고 켄트와 하트퍼드셔, 여행과 집에 머무는 일, 새 책과 음악에 대해 어찌나 유쾌하게 이야기하는지, 엘리자베스는 그 방에서 그토록 즐거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은 어찌나

생기 있고 막힘없이 대화를 나누었던지 캐서린 영부인의 주의뿐 아니라 다아시 씨의 주의까지 끌어당겼다. 그의 눈은 곧 여러 번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들 쪽을 향했고, 잠시 후 영부인도 같은 마음이 되었다는 사실은 더 공공연히 드러났다. 영부인은 거리낌 없이 큰 소리로 이렇게 불렀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게냐, 피츠윌리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베넷 양에게 무얼 말하고 있는 건지 나도 들어보자."

"우리는 음악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모님." 그는 더 이상 대답을 피할 수 없게 되자 그렇게 말했다.

"음악 이야기라고! 그러면 제발 큰 소리로 말하거라. 음악은 내가 무엇보다 좋아하는 화제다. 음악 이야기라면 나도 대화에 끼어야겠다. 잉글랜드 안에 나만큼 음악을 참되게 즐기고 타고난 취향이 좋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게다. 내가 배운 적이 있었다면 대단한 솜씨를 갖추었을 텐데. 앤도 건강이 허락했다면 그랬겠지. 그 애도 틀림없이 훌륭하게 연주했을 거다. 다아시, 조지애나는 실력이 좀 늘었느냐?"

다아시 씨는 여동생의 솜씨에 대해 다정한 칭찬을 담아 말했다.

"그 애에 대해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기쁘구나." 캐서린 영부인이 말했다. "그리고 부탁이니 내 말을 그 애에게 전해 다오.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뛰어나게 되기를 바랄 수 없다고."

"제가 장담하건대, 이모님," 그가 대답했다. "그 애에게는 그런 충고가 필요 없습니다. 아주 꾸준히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거야 더 잘됐구나. 연습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아. 다음에 그 애에게 편지를 쓰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당부해야겠다. 나는 젊은 아가씨들에게 늘 말하지. 음악에서 훌륭한 솜씨는 꾸준한 연습 없이는 얻을 수 없다고. 베넷 양에게도 여러 번 말했다. 연습을 더 하지 않으면 정말로 잘 치게 될 리 없다고. 그리고 콜린스 부인 댁에는 악기가 없지만, 베넷 양은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매일 로징스에 와서 젠킨슨 부인의 방에 있는 피아노포르테를 쳐도 좋다. 알다시피 집 안 그쪽에서는 아무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을 게다."

다아시 씨는 이모의 무례한 말투를 조금 부끄러워하는 기색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자 피츠윌리엄 대령이 엘리자베스에게 연주를 해 주기로 한 약속을 상기시켰고, 그녀는 곧바로 악기 앞에 앉았다. 그는 그녀 가까이에 의자를 끌어다 놓았다. 캐서린 영부인은 노래 반 곡을 듣다가 전과 같이 다른 조카와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다아시가 영부인에게서 떨어져 나와 특유의 신중한 걸음으로 피아노포르테 쪽으로 다가가더니, 연주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 훤히 보이는 자리에 섰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차렸고, 적당히 쉬는 틈이 나자 그를 돌아보며 짓궂게 웃으면서 말했다.—

"이렇게 위엄을 갖추고 제 연주를 들으러 오셔서 저를 겁주시려는 거죠, 다아시 씨. 하지만 당신의 여동생이 그렇게 훌륭하게 연주한다 해도 저는 놀라지 않을 거예요. 제게는 남의 뜻에 따라 겁을 먹는 것을 결코 참지 못하는 고집이 있거든요. 저를 위협하려는 시도가 있을수록 제 용기는 언제나 더 솟아나요."

"저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당신을 겁주려는 어떤 의도를 제가 품었다고 정말로 믿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당신과 알고 지낸 지 오래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때때로 실제로는 자기 생각이 아닌 의견을 짐짓 내세우는 것을 무척 즐긴다는 것을요."

엘리자베스는 자신에 대한 이 묘사에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 피츠윌리엄 대령에게 말했다. "사촌 동생분이 저에 대해 아주 그럴듯한 인상을 심어 주시겠네요. 그리고 당신에게 제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믿지 말라고 가르치실 거고요. 제가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울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이 지방에서, 제 진짜 성격을 낱낱이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운이 없군요. 실은요, 다아시 씨, 당신이 하트퍼드셔에서 알게 된 저의 흠을 여기서 하나도 빠짐없이 들추어내신 건 아주 아량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아주 현명하지도 못한 일이었고요. 제가 그런 일에 앙갚음하고 싶어지게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당신의 친척들이 듣고 깜짝 놀랄 만한 일도 드러날지 모르잖아요."

"저는 당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제발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들려주세요."
피츠윌리엄 대령이 외쳤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들어 보세요. 다만 무척 끔찍한 얘기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제가 하트퍼드셔에서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무도회에서였어요. 그 무도회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겨우 네 곡만 추었답니다! 마음 아프게 해 드려

죄송하지만 사실이 그랬어요. 남자가 귀한 자리였는데도 네 곡만 추었어요. 그리고 제가 확실히 아는 바로는, 파트너가 없어 자리에 앉아 있던 아가씨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다아시 씨, 이 사실은 부인하실 수 없겠지요."

"저는 그때 제 일행 말고는 무도회장에 있던 어떤 숙녀와도 인사를 나눌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무도회장에서는 아무도 소개받을 수가 없죠. 그럼, 피츠윌리엄 대령님, 다음엔 무엇을 연주할까요? 제 손가락이 분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제가 소개를 청했더라면 더 현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아시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낯선 사람들에게 저 자신을 내세우는 데 서툴러서요."

"우리가 이유를 사촌 동생분께 여쭤볼까요?" 엘리자베스가 여전히 피츠윌리엄 대령을 향해 말했다. "분별 있고 교양 있으며 세상을 살아 본 사람이 낯선 이들에게 자신을 내세우는 데 서툰 이유를 물어볼까요?"

"제가 그 질문에 그 사람에게 묻지 않고도 답할 수 있어요." 피츠윌리엄이 말했다. "그 사람이 굳이 그런 수고를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어떤 사람들이 지닌, 처음 보는 사람과 쉽게 대화를 나누는 재주를 분명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아시가 말했다. "그들의 대화 분위기를 따라잡지 못하고, 그들의 일에 관심 있는 척하지도 못합니다. 흔히 남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기는 하지만요."

"제 손가락은,"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제가 보기에 많은 여자들의 손가락이 이 악기 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능숙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힘도 빠르기도 같지 않고, 같은 표현을 만들어 내지도 못하죠. 하지만 그건 늘 제 탓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연습하는 수고를 기꺼이 들이지 않았으니까요. 제 손가락이 다른 어떤 여자의 손가락만큼 뛰어난 연주를 해낼 능력이 없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다아시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 말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훨씬 더 잘 썼군요. 당신의 연주를 들을 특권을 얻은 사람이라면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리 없을 겁니다. 우리는 둘 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연주하지 않지요."

여기서 캐서린 영부인이 끼어들었다. 그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큰 소리로 물었다.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캐서린 영부인은 가까이 다가와 몇 분 동안 듣고 있다가 다아시에게 말했다.—

"베넷 양은 더 많이 연습하고 런던의 선생에게 배울 수 있다면 제법 괜찮게 연주할 게다. 운지법에 대한 감각은 꽤 좋지만, 취향은 앤만큼 따라오지 못하지. 앤은 건강이 허락해서 배울 수 있었다면 훌륭한 연주자가 되었을 게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를 바라보며, 그가 사촌 동생에 대한 칭찬에 얼마나 진심으로 동의하는지 살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 어느 때에도 그녀는 그에게서 사랑의 기미를 조금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리고 다아시가 드 버그 양을 대하는 태도 전체에서 그녀는 빙리 양에게 위안이 될 만한 결론을 끌어냈다. 빙리 양이 그의 친척이었다면 그가 그녀와 결혼할 가능성은 드 버그 양과 다를 바 없었으리라는 것이었다.

캐서린 영부인은 엘리자베스의 연주에 대한 평을 계속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연주법과 취향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시를 섞었다. 엘리자베스는 예의 바른 인내심을 다해 그 말을 들었다. 신사들이 청하자 그녀는 영부인의 마차가 모두를 집으로 데려갈 준비가 될 때까지 악기 앞에 그대로 머물렀다.

제32장



휴 톰슨, 「이모와 함께」(1894년 판 삽화)

다음 날 아침 엘리자베스는 혼자 앉아 제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 콜린스 부인과 마리아는 볼일을 보러 마을에 나가고 없었다. 그때 손님이 왔다는 확실한 신호인 초인종 소리가 울려 엘리자베스는 깜짝 놀랐다. 마차 소리는 듣지 못했으니 캐서린 영부인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그런 걱정에서 온갖 무례한 질문을 피하려고 반쯤 쓴 편지를 치우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며 아주 뜻밖에도 다아시 씨가, 다아시 씨 한 사람만 방으로 들어왔다.

그도 그녀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듯했으며, 모든 숙녀가 안에 있는 줄 알았다고 전하며 불쑥 찾아온 것을 사과했다.

그들은 그 뒤 자리에 앉았고, 엘리자베스가 로징스 안부를 묻고 나자 대화가 완전히 끊길 위기에 놓인 듯했다. 그래서 그녀는 무어라도 말을 꺼내야 했다. 그러다 그를 마지막으로 하트퍼드셔에서 만났던 때가 떠올랐고, 그들이 그렇게 서둘러 떠난 일에 대해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져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11월에 당신들이 모두 그렇게 갑자기 네더필드를 떠나셨군요, 다아시 씨! 빙리 씨는 당신들이 그렇게 빨리 뒤따라 오신 것을 보고 분명 아주 반가운 놀라움을

느꼈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떠난 게 겨우 하루 전이었으니까요. 런던을 떠나실 때 그분과 누이들은 잘 지내고 계셨나요?"

"잘 지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다른 대답은 들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고, 잠시 말이 끊긴 뒤 덧붙였다.

"빙리 씨는 다시는 네더필드로 돌아올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들은 듯합니다만?"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분이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아주 적을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는 친구가 많고, 지금은 친구와 약속이 계속 늘어나는 나이니까요."

"네더필드에 별로 있지 않을 생각이라면, 그가 그곳을 아주 내놓는 편이 이웃을 위해서도 낫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눌러살 가족이 들어올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마 빙리 씨는 이웃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편의를 위해 그 집을 얻었을 테니, 그도 같은 원칙에 따라 그 집을 지키거나 떠나리라고 봐야겠지요."

"저는 그가 사들일 만한 괜찮은 땅이 나오는 대로 그곳을 내놓는다 해도 놀라지 않겠습니다." 다아시가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친구 이야기를 더 이어 가는 것이 두려웠고, 달리 할 말도 없었으므로 이제 화제를 찾는 수고는 그에게 넘겨 버리기로 했다.

그는 그 눈치를 알아채고 곧 이렇게 말을 꺼냈다. "이 집은 아주 편안해 보이는군요. 콜린스 씨가 처음 헌스퍼드에 왔을 때 캐서린 영부인이 이 집에 손을 많이 보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부인의 친절이 그보다 더 고마워할 사람에게 베풀어진 적은 없었을 겁니다."

"콜린스 씨는 아내를 고르는 데 참으로 운이 좋아 보이는군요."

"그래요, 정말로요. 그를 받아들여 주었을, 또 받아들였다면 그를 행복하게 해 주었을 몇 안 되는 분별 있는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났으니, 그의 친구들은 기뻐할 만하지요. 제 친구는 훌륭한 지성을 갖고 있어요. 다만 그녀가 콜린스 씨와 결혼한 것이 그녀가 한 일 가운데 가장 현명한 일이었는지는

저로서는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래도 그녀는 더없이 행복해 보이고, 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녀에게 분명 아주 좋은 짝이에요."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자리를 잡았으니, 그녀에게는 아주 흐뭇한 일이겠군요."

"거리가 가깝다고 하시는 겁니까? 거의 오십 마일이나 되는데요."

"좋은 길로 오십 마일이 대수겠습니까? 반나절 남짓한 여정일 뿐이죠. 그래요, 저는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 거리를 이 결혼의 장점 가운데 하나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콜린스 부인이 친정 가족 가까이에 자리 잡았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당신이 하트퍼드셔를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 주는 증거예요. 롱본의 바로 이웃 동네를 벗어나는 곳은 모두 멀게 느껴지겠지요."

그가 이렇게 말하면서 일종의 미소를 지었는데, 엘리자베스는 그 뜻을 알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제인과 네더필드를 생각하고 있다고 짐작했을 것이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여자가 친정 가족과 너무 가까이 살게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멀고 가까움은 상대적인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여행 경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재산이 있다면, 거리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정이 그렇지 않아요. 콜린스 씨 부부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만, 자주 여행을 다닐 만큼 넉넉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확신하건대, 제 친구는 지금 거리의 절반도 안 되는 곳이 아니라면 자기가 친정 가족 가까이에 산다고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다아시 씨는 의자를 그녀 쪽으로 조금 끌어당기며 말했다. "고향에 그렇게 강한 애착을 가질 권리가 당신에게 있을 리 없습니다. 당신이 늘 롱본에만 있었을 리는 없으니까요."

엘리자베스는 놀란 얼굴을 했다. 신사는 감정에 어떤 변화를 겪은 듯했다. 그는 의자를 뒤로 물리고, 탁자에서 신문을 집어 들어 훑어보더니,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켄트는 마음에 드십니까?"

켄트 지방을 두고 짧은 대화가 이어졌고, 양쪽 모두 차분하고 간결했다. 곧 샬럿과 그녀의 동생이 산책에서 막 돌아와 들어오면서 그 대화는 끝이 났다. 두 사람이 단둘이 있는

모습에 그들은 놀랐다. 다아시 씨는 착오로 베넷 양 혼자 있는데 불쑥 찾아오게 된 사정을 설명했고, 몇 분을 더 앉아 있다가 누구에게도 별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가 가고 나자마자 샬럿이 말했다. "얘, 일라이자,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허물없이 우리를 찾아왔을 리가 없잖아."

그러나 엘리자베스가 다아시 씨의 침묵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러기를 바라는 샬럿조차 그럴 법한 일이라고 여기기 어려웠다. 여러 가지 추측 끝에 그들은 결국 그의 방문이 할 일을 찾기 어려운 데서 비롯되었다고만 짐작할 수 있었는데, 계절을 생각하면 그쪽이 더 그럴듯했다. 사냥철은 모두 끝나 있었다. 집 안에는 캐서린 영부인과 책, 당구대가 있었지만, 신사가 언제나 집 안에만 머물 수는 없는 법이었다. 목사관이 가깝고, 그곳까지 걷는 길이 즐거우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즐거운 상대이다 보니, 두 사촌은 이 무렵 거의 날마다 그리로 걸어가는 데 마음이 끌렸다. 그들은 아침 여러 시각에 찾아왔는데, 때로는 따로, 때로는 함께, 가끔은 이모와 같이 왔다. 피츠윌리엄 대령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해서 온다는 것은 모두에게 분명했고, 그 믿음은 당연히 그를 더욱 좋게 보이게 했다. 엘리자베스는 그와 함께 있으면서 스스로 느끼는 즐거움과 그가 드러내는 분명한 호감 때문에,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 조지 위컴을 떠올렸다. 둘을 견주어 보면 피츠윌리엄 대령의 태도에는 위컴처럼 사람을 사로잡는 부드러움이 덜했지만, 학식은 아마 대령이 더 풍부할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다아시 씨가 목사관에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 까닭은 더 이해하기 어려웠다. 사교를 위해서라면 설명이 되지 않았다. 그는 입을 열지 않고 십 분씩 앉아 있는 일이 잦았고, 말을 할 때도 그것은 선택이라기보다 필요에 따른 듯했으며, 예의를 차리기 위한 희생이지 그 자신의 즐거움은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생기 있어 보이는 일이 드물었다. 콜린스 부인은 그를 어떻게 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피츠윌리엄 대령이 가끔 그가 멍하니 있는 것을 보고 웃는 것을 보면 평소의 그는 이렇지 않은 게 분명했는데, 그 점은 콜린스 부인 자신이 아는 그의 모습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런 변화가 사랑의 결과이고, 그 사랑의 대상이 자기 친구 일라이자라고 믿고 싶었기에, 진지하게 그 사실을 알아내려고 애썼다. 로징스에 있을 때나 그가 헌스퍼드에 올 때마다 그녀는 그를 지켜보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그는 분명 그녀의 친구를 아주 많이 바라보았으나, 그 눈빛의 뜻은 단정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진지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이었지만, 그 안에 감탄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그녀는 자주 의심스러웠고, 때로는 그저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한두 번 엘리자베스에게 그가 그녀에게 호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엘리자베스는 늘 그 생각을 웃어넘겼다. 콜린스 부인은 기대가 높아졌다가 결국 실망으로 끝날 위험이 있다고 보아, 이 문제를 더 밀어붙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생각으로는, 친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여길 수만 있다면 그에 대한 친구의 반감은 모두 사라질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를 위한 호의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때로는 그녀가 피츠윌리엄 대령과 결혼하는 상상을 했다. 그는 단연 가장 유쾌한 남자였다. 그가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확실했고, 그의 사회적 지위도 무척 좋았다. 그러나 이런 장점들을 상쇄하는 것이 있었으니, 다아시 씨가 교회에 상당한 성직 추천권을 갖고 있는 반면, 그의 사촌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다.

제33장



휴 톰슨, 제33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엘리자베스는 공원 안을 거닐다가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뜻밖에 다아시 씨와 마주쳤다. 아무도 데려오지 않는 곳으로 그를 데려오는 짓궂은 우연이 그녀는 몹시 못마땅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에는 그곳이 자기가 즐겨 찾는 산책길이라고 그에게 미리 알려 두었다.
그러니 두 번째로 마주친 것부터가 참으로 이상했다. 그런데 그 일은 두 번째에 그치지 않고 세 번째에도 일어났다. 고의로 심술을 부리는 것 같기도 했고, 스스로 벌을 자청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런 때면 그는 몇 마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어색하게 말을 멈춘 뒤 그냥 가 버리지 않았다. 아예 발길을 돌려 그녀와 함께 걸어야 한다고 여기는 듯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그녀도 굳이 말하거나 귀 기울일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마주쳤을 때, 그녀는 그가 이상하게 앞뒤가 맞지 않는 질문들을 던진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헌스퍼드에 머무는 것이 즐거운지, 혼자 걷는 것을 좋아하는지, 콜린스 씨 부부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같은 질문이었다. 게다가 로징스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가 그 집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자, 그는 그녀가 다시 켄트에 올 때면 그녀 역시 그곳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했다.
그의 말투가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혹시 그가 피츠윌리엄 대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일까? 만약 무엇인가 뜻하는 바가 있다면, 그쪽에서 생길지도 모를 일을 암시하는

것이리라고 그녀는 짐작했다. 그 생각에 그녀는 조금 마음이 불편했고, 목책 문에 이르러 사제관 맞은편에 서게 되자 마음이 놓였다.

어느 날 그녀가 걸으면서 제인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고, 제인이 기운 없이 썼음을 드러내는 몇 대목을 곱씹고 있었다. 그때 고개를 들어 보니, 이번에는 다아시 씨가 아니라 피츠윌리엄 대령이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얼른 편지를 접어 치우고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저는 당신이 이쪽으로 걸으시는 줄 전혀 몰랐어요."

"저는 해마다 그러듯이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있었어요." 그가 대답했다. "사제관에 들러서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당신은 더 멀리 가시나요?"

"아니요, 저는 곧 돌아서려던 참이었어요."

그리하여 그녀는 실제로 몸을 돌렸고, 두 사람은 함께 사제관을 향해 걸어갔다.

"토요일에 정말 켄트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네, 다아시가 또 미루지만 않는다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뜻에 따를 뿐이에요. 일은 그가 생각하는 대로 정하니까요."

"만약 그가 일정을 자기 뜻대로 정하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고를 수 있는 권한만으로도 그는 크게 즐거워하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다아시 씨만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즐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는 자기 뜻대로 하는 걸 아주 좋아하죠." 피츠윌리엄 대령이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다만 그는 다른 많은 사람보다 그렇게 할 수단이 더 많을 뿐이에요. 부자니까요. 다른 많은 사람은 가난하고요. 제 경험에서 우러나서 하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차남은 극기와 의존에 길들여져야 하니까요."

"제 생각에, 백작의 차남은 둘 중 어느 쪽이든 거의 알지 못할 거예요. 자, 진지하게 말해 보세요. 당신이 극기나 의존에 대해 무엇을 알았단 말이에요? 언제 돈이 없어서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거나,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한 적이 있었나요?"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그런 종류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일에서는 돈이 없어서 고생할 수도 있겠지요. 차남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으니까요."

"원하는 상대가 재산 있는 여자라면 얘기가 다르겠지요. 제 생각엔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하던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돈 쓰는 버릇 때문에 지나치게 남에게 기대게 되고, 제 신분에서 돈을 조금도 따져 보지 않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게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엘리자베스는 생각했고, 그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고 명랑한 말투로 말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백작의 차남은 보통 얼마에 팔리나요? 형님이 아주 병약하지 않은 한, 오만 파운드 넘게는 부르지 않겠죠."

그도 같은 투로 대답했고, 화제는 그렇게 끝났다. 방금 오간 이야기 때문에 그녀가 마음이 흔들린 줄 그가 여기지 않도록, 그녀는 잠시 뒤 침묵을 깨려고 말했다.

"저는 당신의 사촌이 주로 자기 뜻대로 부릴 사람이 필요해서 당신을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 편리함을 오래 누리려면 결혼하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여동생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죠. 여동생은 오로지 그 혼자 돌보고 있으니,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피츠윌리엄 대령이 말했다. "그건 그가 저와 나눠 가져야 할 이점이에요. 저도 그와 함께 다아시 양의 후견인이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럼 후견인으로서 어떤 사람인가요? 맡으신 분이 많이 골치를 썩이나요? 그 나이의 아가씨들은 다루기가 조금 까다로울 때가 있지요. 만약 아가씨가 진짜 다아시 집안의 기질을 물려받았다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그가 진지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알아챘다. 그가 곧바로 어째서 다아시 양이 그들을 곤란하게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태도를 보니, 자기가 어찌어찌 진실에 꽤 가까이 다가갔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바로 대답했다.

"겁내실 필요 없어요. 그 아가씨에 대해 나쁜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말을 잘 듣는 사람 중 하나일 거예요. 제가 아는 몇몇 숙녀들, 허스트 부인과 빙리 양이 그 아가씨를 아주 좋아하죠. 당신이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도 그분들을 조금 알아요. 그들의 오빠는 유쾌하고 신사다운 사람이에요. 다아시와 아주 가까운 친구죠."

"오, 그렇죠." 엘리자베스가 건조하게 말했다. "다아시 씨는 빙리 씨에게 유난히 친절하고, 그를 대단히 세심하게 돌보죠."

"그를 돌본다고요! 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다아시는 빙리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서 실제로 그를 돌보고 있어요. 이리 오는 길에 그가 저한테 한 말로 미루어 보면, 빙리가 그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겠네요. 다아시가 말한 사람이 빙리였다고 단정할 권리는 저에게 없으니까요. 모두 짐작일 뿐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건 다아시가 당연히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을 사정이에요. 그 얘기가 그 숙녀의 집안에 전해지면 좋지 않은 일이 될 테니까요."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을 테니 믿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게 빙리였다고 짐작할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가 제게 한 말은 단지 이것뿐이었어요. 최근에 어떤 친구를 아주 경솔한 결혼의 불편에서 구해 주었다는 것을 자축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름이나 다른 어떤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저는 빙리가 그런

곤경에 빠질 만한 젊은이라고 생각했고, 지난여름 내내
그들이 함께 지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빙리라고 의심했을 뿐이에요."

"다아시 씨가 이 간섭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셨나요?"

"저는 그 숙녀에게 아주 강한 반대 사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는 둘을 떼어 놓으려고 무슨 수를 썼나요?"

"그는 자기가 쓴 수단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피츠윌리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제가 지금
당신에게 말한 것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엘리자베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슴 가득 분노가
끓어오른 채 계속 걸었다. 그녀를 잠시 지켜보던
피츠윌리엄이 왜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느냐고 물었다.

"방금 해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 사촌의 행동은 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그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나요?"

"그의 간섭이 주제넘었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저는 다아시 씨가 친구의 마음이 옳은지 판단할 어떤 권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왜 자기 판단만으로 그 친구가 어떻게 행복해야 할지 결정하고 지시해야 했는지도요. 하지만," 그녀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계속했다. "우리는 세부 사항을 아무것도 모르니 그를 비난하는 건 공정하지 않아요. 그 일에 애정이 그리 깊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건 부자연스러운 추측은 아니지요." 피츠윌리엄이 말했다. "하지만 그러면 제 사촌의 승리에 돌아가는 명예를 몹시 깎아내리는 셈이 되지요."

이 말은 농담조로 한 것이었지만, 엘리자베스에게는 다아시 씨를 너무도 정확히 그려 내는 듯 들려서 그녀는 대답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 사소한 이야기를 하며 사제관에 닿을 때까지 걸었다. 방문객이 떠나자마자 자기 방에 틀어박힌 그녀는 들은 이야기를 방해받지 않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 말이 가리키는 사람은 자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말고는 있을 수 없었다. 다아시 씨가 그토록 한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남자가 세상에 둘이나 있을 리 없었다. 그가 빙리 씨와 제인을 떼어 놓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여했다는 것은 그녀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다만 그 계획과 준비의 주된 설계자는 늘 빙리 양이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그가 허영심 때문에 착각한

것이 아니라면, 제인이 겪었고 지금도 계속 겪고 있는 모든 일의 원인은 그 자신이었다. 그의 오만과 변덕이 원인이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품은 행복에 대한 모든 희망을 한동안 무너뜨렸고, 그가 얼마나 오래갈 해악을 끼쳤을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그 숙녀에게는 아주 강한 반대 사유가 있었지요."
피츠윌리엄 대령의 말이었다. 그리고 그 강한 반대 사유란 아마도, 그녀에게 시골 변호사인 이모부와 런던에서 장사를 하는 외삼촌이 있다는 것이었을 것이다.

"제인 본인에게는," 그녀가 소리쳤다. "반대할 여지가 전혀 없어. 제인은 그토록 사랑스럽고 착하기만 한걸! 이해력은 뛰어나고, 교양도 갖췄고, 태도는 사람을 매혹하지. 아버지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 수 없어. 아버지는 약간 특이한 데가 있긴 해도 능력이 있어서 다아시 씨 자신도 얕잡아볼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자격도 있는데, 다아시 씨는 아마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할 거고." 그러나 어머니를 떠올리자 그녀의 자신감은 조금 흔들렸다. 그래도 그녀는 어머니 쪽의 흠이 다아시 씨에게 그리 큰 문제가 되었다고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자부심이라면 친구의 처가가 될 집안이 분별없다는 점보다 지체가 낮다는 점에 더 깊이

상처받았으리라고 확신했다. 결국 그녀는 그가 이 가장 나쁜 종류의 자부심에 일부 휘둘렸고, 일부는 누이를 위해 빙리 씨를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에 움직였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그 문제에서 비롯된 동요와 눈물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두통이 났고, 저녁이 되자 통증은 훨씬 더 심해졌다. 다아시 씨를 만나기 싫은 마음까지 겹치자, 그녀는 사촌들을 따라 차를 마시러 로징스에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콜린스 부인은 그녀가 정말 몸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억지로 가라고 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한 남편이 그녀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나 콜린스 씨는 엘리자베스가 집에 남아 있으면 캐서린 영부인이 꽤 언짢아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제34장



휴 톰슨, 제34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그들이 떠나자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씨에 대한 분노를 최대한 키우기라도 하려는 듯, 켄트에 와 있는 동안 제인이 보낸 편지들을 모두 다시 읽는 일을 택했다. 편지에는 실제로

불평하는 말이 없었고, 지난 일을 다시 꺼내거나 지금의 고통을 털어놓은 대목도 없었다. 그러나 편지 전체에, 그리고 거의 모든 줄에 제인 특유의 명랑함이 빠져 있었다. 그 명랑함은 스스로 편안하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의 평온에서 흘러나와, 지금까지 거의 흐려진 적이 없던 것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불안을 전하는 문장을 하나하나 살폈는데, 처음 읽을 때는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대목들이었다. 다아시 씨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겨 줄 수 있었는지 뻔뻔스럽게 자랑했던 일은 언니가 겪은 고통을 더 날카롭게 느끼게 했다. 그나마 위안이 된 것은 다아시 씨의 로징스 방문이 모레 끝난다는 사실이었고, 그보다 더 큰 위안은 이 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자신도 제인 곁에 있게 되어,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 언니의 기운을 되찾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아시가 켄트를 떠난다고 생각하면 그와 함께 그의 사촌도 떠난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하지만 피츠윌리엄 대령은 그녀에게 청혼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아무리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 해도 그 일로 마음 쓰고 싶지는 않았다.

이 점을 정하는 사이, 현관 종소리에 그녀는 문득 정신이 들었다. 전에도 저녁 늦게 한 번 찾아왔던 피츠윌리엄 대령이 이번에는 그녀의 안부를 특별히 물으러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술렁였다. 그러나 그 생각은 곧 사라졌고, 뜻밖에도 다아시 씨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마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흔들렸다. 그는 서둘러 그녀의 건강을 묻기 시작했고, 자기가 찾아온 이유는 그녀가 조금 나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차갑고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그는 잠시 앉아 있다가 일어나 방 안을 걸어 다녔다. 엘리자베스는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분 동안 침묵이 이어진 뒤, 그는 몹시 흥분한 얼굴로 그녀 쪽으로 다가와 이렇게 말을 꺼냈다.—

"애써 참아 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 감정은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뜨겁게 당신을 흠모하고 사랑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엘리자베스는 놀라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그녀는 빤히 바라보았고, 얼굴을 붉혔고, 의심했고,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것을 충분한 격려로 여겼고, 곧바로 그녀에 대해 지금껏 느껴 온 모든 감정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말솜씨는 훌륭했다. 그러나 그가 설명해야 할 감정은 가슴에서 우러난 것만이 아니었고, 그는 다정함을 말할 때 못지않게 자존심을

말할 때도 능란했다. 그녀가 자기보다 못하다는 생각, 그것이 자신을 낮추는 일이라는 생각, 이성이 늘 마음의 끌림을 가로막아 온 집안의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그는 열띤 어조로 길게 늘어놓았다. 그 열띤 어조는 그가 스스로 상처 입히고 있는 자신의 체면 때문인 듯 보였지만, 청혼을 받아들이게 하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토록 뿌리 깊은 반감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는 그런 남자의 애정이 주는 찬사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뜻은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그가 받게 될 상처가 안쓰러웠다. 그러나 이어지는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자 그녀는 모든 연민을 잃고 화만 남았다. 그래도 그가 말을 마치면 참을성 있게 대답하려고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애정이 얼마나 강한지, 온갖 노력을 기울였어도 이겨 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말을 맺었다. 그리고 그 애정이 이제 그녀가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답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그를 보며 그녀는 그가 호의적인 대답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는 걱정과 불안을 입에 올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진짜 자신감이 드러나 있었다. 이런 태도는 그녀의 화를 더 돋울 뿐이었다. 그가 말을 멈추자 그녀의 뺨에 붉은 기운이 올랐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고백하신 감정이 아무리 같은 크기로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감사하는 뜻을 전하는 것이 관례겠지요. 은혜를 입었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제가 감사할 수 있다면 지금 당신께 고마움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좋은 평가를 바란 적이 없고, 당신도 분명 아주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그것을 주셨을 테니까요. 누구에게든 고통을 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의도한 일이 아니었고, 그 고통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동안 애정을 드러내지 못하게 막아 왔던 감정은 이 설명을 들은 뒤라면 극복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아시 씨는 벽난로 선반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시선은 그녀의 얼굴에 고정된 채였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듣고 놀라움만큼이나 분노를 드러냈다. 얼굴은 화가 나서 창백해졌고, 마음의 동요는 얼굴의 모든 곳에 드러났다. 그는 평정을 가장하려고 애썼고, 그것을 되찾았다고 여길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침묵은 엘리자베스에게 끔찍했다. 마침내 그는 억지로 가라앉힌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기대해도 되는 영광스러운 대답의 전부란 말입니까! 어쩌면 그토록 예의 차리려는 노력도 없이 이렇게 거절당하는 까닭을 알고 싶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도 여쭤볼 수 있겠군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렇게 분명히 저를 모욕하고 무시하려고 작정하셨으면서, 왜 굳이 본인 뜻에도, 이성에도, 심지어 본인의 품위에도 어긋나게 저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지요? 제가 무례했다면, 이것이 그 무례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당신도 알고 계시지요. 제 감정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다고 해 보세요. 그 감정이 무관심했거나 심지어 호의적이었다 해도, 가장 사랑하는 언니의 행복을, 어쩌면 영원히, 망가뜨린 장본인을 받아들이도록 무엇이 저를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다아시 씨의 얼굴빛이 변했다. 그러나 그 동요는 잠깐이었고, 그는 그녀가 말을 이어 가는 동안 가로막으려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다.—

"세상에서 당신을 나쁘게 생각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어요. 당신이 거기서 한 부당하고 아량 없는 행동은 어떤 동기로도 변명할 수 없어요. 당신은 감히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을 서로 갈라놓은 유일한 것은

아니더라도 주된 원인이 바로 당신이었다는 것을요. 한 사람은 변덕과 줏대 없음이라는 세상의 비난에 내몰렸고, 다른 한 사람은 실망한 희망 때문에 세상의 조롱을 받게 되었으며, 당신이 두 사람 모두를 더없이 쓰라린 불행 속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말을 멈췄고, 그가 어떤 뉘우침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태도로 듣고 있는 모습을 보자 적지 않은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심지어 꾸민 듯한 불신의 미소를 띠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부정할 수 있나요?" 그녀가 되풀이해 물었다.

짐짓 침착한 태도로 그가 대답했다. "제가 친구를 당신 언니에게서 떼어 놓으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일이 성공해서 기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저 자신에게보다 더 친절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예의 바른 말투의 의미를 알아챈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했지만, 그 뜻을 놓치지는 않았고,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리도 없었다.

"하지만 이 일만이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이 일이 벌어지기 한참 전에 이미 당신에 대한 제 생각은 굳어져 있었어요. 당신의 성격은 몇 달 전 위컴 씨에게서 들은 이야기 속에서 드러났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 당신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 자리에서 어떤 상상 속 우정의 행위를 내세워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어떤 왜곡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겠어요?"

"그 신사의 일에 퍽 관심이 많으시군요." 다아시가 덜 침착한 어조로, 얼굴빛을 붉히며 말했다.

"누가 그의 불운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면서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의 불운이라고요!" 다아시가 경멸하듯 되풀이했다. "그래요, 그의 불운은 정말 대단했죠."

"그것도 당신이 안겨 준 불운이지요!" 엘리자베스가 힘주어 외쳤다. "당신은 그를 지금의 처지, 말하자면 상대적인 가난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를 위해 마련된 것임을 당신도 분명 알았을 혜택들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가 마땅히 누릴 권리이자 누릴 자격도 있던 독립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 동안 빼앗았어요. 당신이 이 모든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의 불운을 언급하는 것을 경멸과 조롱으로 대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이것이," 다아시가 방 안을 빠른 걸음으로 가로지르며 외쳤다. "당신이 저를 보는 생각이란 말이군요! 당신이 저를 평가하는 방식이 이것이군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 계산에 따르면 제 잘못은 정말 무겁겠군요! 그러나 아마도,"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 쪽으로 돌아서며 덧붙였다. "제가 오래도록 진지한 생각을 품지 못하게 막았던 망설임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 당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만 않았다면, 이런 잘못들은 눈감아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더 능숙한 책략으로 제 갈등을 감추고, 제가 아무 조건도 섞임도 없는 순수한 애정에, 이성에, 숙고에, 모든 것에 이끌려 움직이고 있다고 당신이 믿도록 아첨했다면, 이 쓰라린 비난도 억눌릴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저는 어떤 형태의 위장이든 질색이에요. 제가 말한 감정들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것들은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이었어요. 당신 집안 사람들이 격이 낮다는 걸 제가 기뻐하기를 바랄 수 있었겠어요? 제 신분보다 확연히 아래에 있는 친척들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에 스스로 축하라도 해야 했단 말이에요?"

엘리자베스는 점점 더 화가 치미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그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쓰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틀렸어요, 다아시 씨. 당신이 고백한 방식이 저를 어떤 식으로든 움직였다고 생각한다면요. 그 방식은 당신이 더 신사답게 행동했더라면 제가 당신을 거절하면서 느꼈을지도 모를 마음의 가책을 덜어 주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그가 이 말에 움찔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제게 어떤 방식으로 청혼을 하더라도, 제가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싶어지게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다시 그의 놀람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굴욕감이 뒤섞인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처음부터, 당신을 안 첫 순간부터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거예요. 당신의 태도가 저로 하여금 당신이 오만하고 자만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은 이기적으로 무시한다고 확신하게 했고, 그것이 반감의 토대가 되어 그 뒤의 사건들이 그 위에 그토록 흔들림 없는 혐오를 쌓아 올렸어요. 당신을 안 지 한 달도 되기 전에, 누가 아무리 설득해도 세상에서 제가 결혼할 리 없는 남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느꼈어요."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당신의 감정을 완벽히 이해했으니, 이제는 제 감정이 어땠는지가 부끄러울 뿐이에요. 당신의 시간을 이토록 많이 빼앗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빌겠어요."

그리고 이 말을 남기고 그는 서둘러 방을 나갔다. 엘리자베스는 다음 순간 그가 현관문을 열고 집을 떠나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견디기 힘들 만큼 어지러웠다. 그녀는 어떻게 몸을 가누어야 할지 몰랐고, 실제로 기운이 빠져 주저앉은 채 삼십 분 동안 울었다. 방금 일어난 일을 되짚어 볼수록 놀라움은 더 커졌다. 다아시 씨에게 청혼을 받다니! 그가 여러 달 동안 자신을 사랑해 왔다니! 그것도 친구가 그녀의 언니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막게 했던 온갖 반대 이유, 그 자신의 경우에도 적어도 똑같은 무게를 지녔을 그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을 만큼 깊이 사랑했다니, 거의 믿기지 않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토록 강한 애정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자존심, 그 끔찍한 자존심, 제인에 대해 자기가 한 일을 뻔뻔하게 털어놓는 태도, 정당화하지도 못하면서 그 일을 시인할 때 보인 용서할 수 없는 뻔뻔함, 그리고 위컴 씨를 언급할 때의 냉정한 말투, 그

사람에게 가한 잔인함을 그가 부인하려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애정을 생각하며 잠시 일었던 연민을 곧 압도해 버렸다.

그녀는 캐서린 영부인의 마차 소리가 들릴 때까지도 몹시 흥분한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 소리에 그녀는 샬럿의 눈치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제35장



휴 톰슨, 제35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엘리자베스는 다음 날 아침, 결국 눈을 감게 만들었던 바로 그 생각과 상념을 안고 잠에서 깼다. 어제 일어난 일의 놀라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고, 무엇을 할 마음도 전혀 나지 않아서 아침을 먹은 뒤 바깥 공기를 쐬고 몸을 움직이기로 했다. 그녀는 곧장 가장 좋아하는 산책로로 향했다. 그러다 다아시 씨가 가끔

그곳에 온다는 생각이 나서 걸음을 멈췄고, 공원으로 들어가는 대신 유료 도로에서 더 멀어지는 샛길로 방향을 틀었다. 한쪽으로는 여전히 공원의 울타리가 경계를 이루고 있었고, 그녀는 곧 공원 안으로 통하는 문 하나를 지나쳤다.

그 길을 두세 번 오간 뒤, 그날 아침의 상쾌함에 끌려 엘리자베스는 문 앞에 멈춰 서서 공원 안을 들여다보고 싶어졌다. 그녀가 켄트에서 보낸 다섯 주는 시골 풍경을 크게 바꾸어 놓았고, 날마다 이른 봄나무의 초록이 짙어지고 있었다. 막 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공원 가장자리를 두른 숲 같은 나무 사이로 신사 한 명이 보였다. 그 사람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혹시 다아시 씨일까 싶어 그녀는 서둘러 물러나려 했다. 그러나 다가오던 사람은 이미 그녀를 알아볼 만큼 가까웠고, 다급히 앞으로 나서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몸을 돌렸다가, 다아시 씨임이 분명한 목소리였는데도 이름이 불리자 다시 문 쪽으로 돌아섰다. 그도 그 무렵 문에 닿았다. 그는 편지 한 통을 내밀었고, 그녀는 저도 모르게 그것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그는 거만하리만치 침착한 얼굴로 말했다. “한동안 숲 속을 걸으며 당신을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러고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더니 다시 나무 사이로 몸을 돌렸고,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즐거운 내용이리라는 기대는 전혀 없었지만 엘리자베스는 더없이 궁금해하며 편지를 열었다. 그러자 점점 커지는 놀라움 속에서, 봉투 안에는 아주 촘촘한 글씨로 양면이 가득 찬 편지지 두 장이 들어 있는 것을 알아보았다. 봉투 자체도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샛길을 걸어가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편지는 로징스에서 아침 여덟 시에 쓰인 것이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편지를 받고 지난밤 당신에게 그토록 역겨웠던 그 감정이나 그 청혼이 되풀이되어 있을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괴롭히거나 나 자신을 낮추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루라도 빨리 잊어야 할 바람을 곱씹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편지를 쓰고 읽는 데 드는 노력은, 내 명예를 위해 이 편지를 쓰고 당신이 읽어야 할 필요가 없었다면 덜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는 이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마지못해 그것을 내주겠지만, 나는 당신의 공정함에 기대어 그것을 요구합니다.

"두 가지 죄목을 당신은 어젯밤 내게 씌웠습니다. 성질이 아주 다르고 무게도 결코 같지 않은 것들입니다. 먼저 언급하신 것은, 두 사람의 감정은 아랑곳없이 내가 빙리 씨를

당신의 언니에게서 떼어 놓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권리 주장들을 무시하고, 명예와 인간애를 거스르며, 위컴 씨의 당장의 번영을 무너뜨리고 그의 앞날을 망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내 젊은 시절의 벗이자 아버지께서 공인하신 총애를 받던 청년을, 그것도 우리의 후원 말고는 거의 기댈 데가 없고 그 후원이 베풀어지리라 기대하도록 자라 온 사람을, 고의로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내던졌다면 그것은 타락이라 할 만할 것입니다. 그것은 불과 몇 주 사이에 생겨난 애정을 가진 두 젊은이를 떼어 놓은 일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아낌없이 쏟아 낸 그 비난의 가혹함이 누그러지기를 나는 바랍니다. 내가 한 행동과 그 동기를 밝히는 다음 이야기를 읽고 난 뒤라면, 그 비난들이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힘을 잃으리라 기대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해명해야 하는 가운데, 당신의 감정을 거스를지도 모르는 감정을 말해야 한다면, 나는 그저 유감이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필요에는 따라야 하며, 더 사과하는 것은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나는 하트퍼드셔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빙리가 이 고장의 어떤 젊은 아가씨보다도 당신의 큰언니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지한 애정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내가 걱정하게 된 것은 네더필드에서 열린 무도회의 저녁이 되어서였습니다. 전에도 그가 사랑에 빠진

모습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무도회에서 내가
영광스럽게도 당신과 춤을 추고 있을 때, 윌리엄 루카스 경의
우연한 말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빙리가 당신의 언니에게
보이는 관심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하리라는 일반적인
기대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경은 그것을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확실한 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친구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폈고, 그가 베넷 양에게
품은 호의가 내가 그에게서 지금까지 본 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언니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태도는 여전히 솔직하고
명랑하며 사람을 끌어당겼지만, 특별한 호의의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의 관찰로 나는 그녀가 그의 관심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도, 감정으로 응답해 그것을
불러들이지는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당신이
잘못 안 것이 아니라면, 내가 틀린 것이었겠지요. 언니를 훨씬
더 잘 아는 당신이니,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리고 내가 그런 착오에 빠져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당신이 분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 언니의 얼굴과 태도가 침착했기에, 아무리
날카로운 관찰자라도 그녀의 성품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마음이 쉽사리 움직일 것 같지 않다고 확신했으리라고
단언하겠습니다. 내가 그녀가 무관심하다고 믿고 싶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 조사와 판단이 대개 희망이나 두려움에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나는 그러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녀가 무관심하다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랐던 것만큼이나 진심으로, 공정한 확신에 따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나의 반대는 어젯밤 내가 인정했던 이유들, 즉 내 경우에는 그것을 물리치는 데 열정의 온 힘이 필요했던 그런 이유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줄이 부족하다는 것은 내 친구에게 나에게만큼 큰 해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혐오의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두 경우 모두 똑같은 정도로 존재하는 이유들인데, 당장 눈앞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나 자신이 잊으려고 애썼던 것들입니다. 이 이유들은 짧게나마 말해야 하겠습니다. 당신 어머니 쪽 가족의 처지도 탐탁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당신의 어머니 자신과 세 여동생, 그리고 때로는 당신의 아버지까지도 자주, 거의 한결같이 드러내 보이는 그 철저하게 체통 없는 처신이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당신을 불쾌하게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의 결점을 걱정하고 이런 묘사에 언짢아하는 가운데서도, 당신과 큰언니가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처신했다는 것이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누구에게서나 받는 칭찬이며, 그 칭찬은 두 사람의 분별과

성품 모두에게 명예입니다. 다만 덧붙이자면, 그날 저녁 있었던 일로 모든 관계자에 대한 내 의견은 굳어졌고,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여긴 그 관계에서 내 친구를 지키도록 이끌었을 모든 동기가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다음 날 네더필드를 떠나 런던으로 갔습니다. 당신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는 곧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한 행동을 설명하겠습니다. 그의 누이들의 불안은 나의 불안과 똑같이 자극되었고, 우리의 감정이 같다는 것은 곧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를 떼어 놓으려면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똑같이 느껴, 곧 그를 런던에서 바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갔고, 나는 그 선택이 가져올 확실한 해악을 내 친구에게 지적하는 일을 기꺼이 맡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간곡히 설명하고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이 충고가 그의 결심을 흔들거나 늦추었을지언정, 내가 주저 없이 전한 당신 언니의 무관심에 대한 확신이 더해지지 않았다면, 결국 그 결혼을 막았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전까지 그녀가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진심으로 그에 대한 호의를 되돌려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빙리는 천성적으로 겸손한 데다, 자기 판단보다 내 판단에 더 많이 기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자기가 착각했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확신을 준 뒤에

다시 하트퍼드셔로 돌아가지 말라고 설득하는 일은 거의 한순간에 끝난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만큼 한 것을 두고 나 자신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일 전체에서 내가 흐뭇하게 돌아보지 못하는 행동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내가 교묘한 수단을 쓰는 데까지 몸을 낮춰, 당신의 언니가 런던에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숨긴 일입니다. 나도 알았고 빙리 양도 알았지만, 그녀의 오빠는 지금도 여전히 모릅니다. 그들이 만나도 나쁜 결과 없이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애정이 그녀를 보고도 어떤 위험도 없을 만큼 꺼졌다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숨김과 가장은 내 품위에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끝난 일이고, 최선이라 여겨 한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할 말도, 드릴 다른 사과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 언니의 감정에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은 모르고 한 일이며, 나를 움직인 동기들이 당신에게는 불충분해 보이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나는 아직 그것을 비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더 무거운 혐의, 즉 위컴 씨에게 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가 우리 집안과 맺은 관계 전체를 펼쳐 보임으로써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특별히 무엇으로 고발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이야기할 사실의 진실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증인을 한 명 이상 댈 수 있습니다. 위컴 씨는 매우 존경받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 해

동안 펨벌리의 모든 영지를 관리했고, 그가 맡은 직무를 훌륭히 수행한 덕분에 내 아버지는 자연히 그를 돕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의 대자인 조지 위컴에게 아낌없이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학교에 보내고, 나중에는 케임브리지에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도움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내의 낭비 때문에 늘 가난해서, 아들에게 신사다운 교육을 시킬 형편이 못 되었을 테니까요. 아버지는 태도가 언제나 사람을 끄는 이 젊은이와 어울리기를 좋아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매우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목사를 직업으로 삼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의 생계를 마련해 줄 생각이셨습니다. 나로 말하자면, 그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까마득히 오래전 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그가 조심해 감춘 악덕과 원칙의 결여는, 거의 같은 나이의 젊은이로서 그가 방심한 순간을 볼 기회가 있었던 나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나는 당신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상처인지는 당신만이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위컴 씨가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든, 그 감정이 어떤 것일지 짐작이 간다고 해서 내가 그의 실제 성격을 밝히기를 그만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훌륭한 나의

아버지는 약 오 년 전에 돌아가셨고, 위컴 씨에 대한 그분의 애착은 마지막까지 변함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에서 그분은 그의 직업이 허락하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의 출세를 도와주라고 나에게 특별히 당부하셨고, 그가 성직에 들어선다면 비게 되는 대로 집안이 임명권을 가진 수입 좋은 교구를 그에게 주라고 바라셨습니다. 천 파운드의 유산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오래 살지 못하셨고, 그 일이 있은 지 반년도 안 되어 위컴 씨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끝내 성직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러니 자기에게 소용없는 출세 대신 당장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을 내가 부당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는 덧붙여, 법률을 공부할 생각이 있는데 그러려면 천 파운드의 이자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가 진심이라고 믿기보다 믿고 싶었지만, 어쨌든 그의 제안에 기꺼이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위컴 씨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곧 정리되었습니다. 그는 혹시 언젠가 그럴 처지가 된다 해도 교회에서 받을 지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고, 그 대신 삼천 파운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는 이제 끊어진 듯했습니다. 나는 그를 너무 나쁘게 생각해서 펨벌리에 초대하지도, 런던에서 그와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로 런던에서 살았던 것 같지만, 법률 공부는 순전히 핑계였습니다. 이제 모든 구속에서 풀려난 그의 생활은 게으름과 방탕의 생활이었습니다. 약 삼 년 동안 나는 그에 대해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 마련해 둔 교구의 전임 목사가 죽자, 그는 편지로 다시 나에게 그 자리를 달라고 청해 왔습니다. 그의 형편이 아주 나쁘다고 그는 나에게 확언했고, 나는 그것을 믿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법률이 매우 수지가 맞지 않는 공부임을 알았고, 이제 내가 그 교구를 맡겨 준다면 반드시 성직에 나아가겠다고 완전히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가 그 자리를 주리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믿었습니다. 내게는 따로 챙겨 줄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내가 존경하는 아버지의 뜻을 잊었을 리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가 이 간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나, 그 되풀이된 요구를 모두 거절한 것을 나무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의 원망은 그의 곤궁에 비례했고, 그는 분명 나에 대한 험담을 남들에게 하는 데서도 나를 향해 원망을 쏟아 낼 때만큼이나 격렬했을 것입니다. 이 시기 이후로 교제의 모든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여름, 그는 다시 아주 고통스럽게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나는 잊고 싶은 일을 말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면 어떤 의무로도 나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비밀로 해 주리라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열 살 넘게 어린 내 여동생은 어머니의 조카인 피츠윌리엄 대령과 나의 후견 아래 있었습니다. 약 일 년 전, 그녀는 학교에서 나왔고, 런던에 그녀가 지낼 집이 따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여름 그녀는 그 집을 맡은 부인과 함께 램즈게이트로 갔습니다. 그곳에 위컴 씨도 틀림없이 일부러 따라갔습니다. 그와 영 부인이 이전부터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우리는 영 부인의 성품에 대해 참으로 불행하게도 속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묵인하고 도운 덕분에 그는 조지애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지애나의 다정한 마음에는 어릴 적 그가 자기에게 베풀었던 친절이 강하게 남아 있었고, 그녀는 자기가 사랑에 빠졌다고 믿으며 함께 달아나는 데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겨우 열다섯이었고, 그것이 그녀의 변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경솔함을 말한 뒤에 덧붙이자면, 다행히도 나는 그 사실을 그녀 자신에게서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정된 도주 하루 이틀 전 뜻밖에 그들이 있는 곳에 합류했습니다. 그러자 조지애나는, 자기가 거의 아버지처럼 우러르던 오빠를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한다는 생각을 견디지 못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어떤 심정이었고 어떻게 행동했을지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동생의 명예와 감정을 생각해 나는 공개적인 폭로만은 막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위컴 씨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는 즉시 그곳을 떠났습니다. 영 부인은 당연히 맡은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위컴 씨의 주된 목적이 내 여동생의 재산, 즉 삼만 파운드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복수하려는 희망도 그를 강하게 끌어당겼으리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복수는 참으로 완벽했을 것입니다. 부인, 이것은 우리가 함께 관련되었던 모든 사건의 정직한 기록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완전히 거짓이라고 물리치지 않는다면, 위컴 씨에게 잔인하게 굴었다는 혐의에서 나를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떤 거짓말의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당신을 속였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전에는 우리 두 사람 어느 쪽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던 것을 생각하면 그가 성공한 것도 아마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낼 힘은 없었을 테고, 의심할 마음은 확실히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이 모든 것을 어젯밤에 말하지 않았느냐고 의아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무엇을 드러낼 수 있고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지 판단할 만큼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의 진실을 나는 특히 피츠윌리엄 대령의 증언에 기대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령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 관계와 끊임없는 교제 때문에,

그리고 더욱이 내 아버지의 유언 집행인 중 한 사람이기에 이 모든 사건의 세부 사항을 피할 수 없이 알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당신의 혐오 때문에 내 주장이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인다 해도, 같은 이유로 당신이 내 사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와 상의할 가능성이 있도록, 오늘 오전 중에 이 편지를 당신 손에 전할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부디 신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피츠윌리엄 다아시."

제36장



휴 톰슨, 「런던에서 우연히 마주쳐」(1894년 판 삽화)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씨가 편지를 건넸을 때 그 안에 청혼을 되풀이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고,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그러나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든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읽어 내려갔고 얼마나 상반된 감정이 일었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읽는 동안 그녀의 감정은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그가 조금이라도 변명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것을 처음 알고 놀랐다. 그리고 그가 마땅히 수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감출 수밖에 없는 해명 말고는 내놓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그녀는 굳게 믿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강한 편견을 품은 채로, 그녀는 네더필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그의 설명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해하는 힘이 거의 남지 않을 만큼 급하게 읽었고, 다음 문장에 무엇이 나올지 알고 싶은 조바심에 눈앞의 문장 뜻에는 주의를 기울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언니의 무관심을 믿었다는 대목을 곧바로 거짓이라고 단정했고, 그가 밝힌 이 혼담에 대한 실제 가장 큰 반대 이유, 곧 최악의 이유는 그녀를 너무 화나게 해서 그에게 공정해질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그녀를 만족시킬 만한 유감을 전혀 표하지 않았다. 그의 말투는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만했다. 전부 자존심과 무례함뿐이었다.

그러나 이 주제 다음에 위컴 씨에 대한 그의 설명이 이어졌을 때는, 그녀는 조금 더 또렷한 주의를 기울여 읽었다. 그것은 사실이라면 위컴의 됨됨이에 대해 소중히 품어 온 모든 생각을 뒤엎을 사건들이었고, 위컴이 스스로 들려준 자기 이야기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녀의 감정은 더욱 날카롭게 아팠고, 한마디로 규정하기도 더 어려웠다. 놀라움과 불안, 그리고 심지어 공포까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려 했고, “이건 거짓이야! 그럴 리 없어! 이건 새빨간 거짓말일 거야!” 하고 거듭 외쳤다. 편지를 끝까지 읽었을 때, 마지막 한두 장은 거의 알아보지도 못한 채였지만, 그녀는 그것을 서둘러 치우며 그 편지를 무시하겠다고, 다시는 들여다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어수선한 심정으로, 아무것에도 기대어 쉴 수 없는 생각들을 품은 채 그녀는 걸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되지 않았다. 반 분도 못 되어 편지는 다시 펼쳐졌다. 그녀는 가능한 한 마음을 가다듬고, 위컴과 관련된 모든 대목을 다시 굴욕적인 심정으로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의 뜻을 살필 만큼 스스로를 다잡았다. 펨벌리 집안과 위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그가 직접 들려준 이야기와 정확히 같았다. 고인이 된 다아시 씨의 호의는 그 크기를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 역시 위컴 자신의 말과 똑같이 맞아떨어졌다. 여기까지는 두 이야기가 서로를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유언장에 이르자 차이가 컸다. 교구 목사직에 대해 위컴이 한 말은 그녀의 기억에 생생했고, 그의 말을 그대로 떠올리자 어느 한쪽에 심한 거짓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의 바람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기쁘게 속이기도 했다. 하지만 목사직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위컴이 삼천 파운드라는 상당한

돈을 받았다는, 바로 뒤따르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장 주의 깊게 읽고 또 읽자, 그녀는 다시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편지를 내려놓고, 공정하려고 애쓰며 모든 정황을 저울질했다. 각 진술이 얼마나 그럴듯한지도 따져 보았지만 거의 성과가 없었다. 양쪽 모두 주장일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읽어 내려갔다. 그러나 줄을 거듭할수록 분명해진 것은, 어떤 방식으로 꾸며도 다아시 씨의 행위를 악랄하지 않게 보이도록 만들 수 없다고 그녀가 믿었던 그 사건이, 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떳떳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가 서슴없이 위컴 씨의 허물로 지적한 방탕과 낭비는 그녀를 몹시 충격에 빠뜨렸다. 그 비난이 부당하다는 증거를 댈 수 없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녀는 그가 ——셔 민병대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다. 그는 런던에서 우연히 마주친 젊은이의 권유로 그 민병대에 입대했는데, 그 젊은이와는 그곳에서 예전의 가벼운 친분을 되살린 사이였다. 그의 과거 생활에 대해서는 하트퍼드셔에서 그가 직접 말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의 실제 인품에 대해서는, 알아볼 방법이 있었다 해도 그녀는 알아보려는 마음이 들어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얼굴과 목소리와 태도는 그가 온갖 미덕을 갖추었다고 한눈에 믿게

했다. 그녀는 다아시 씨의 공격으로부터 그를 구해 줄 만한 어떤 선행이나, 성실함이나 자비로움이 두드러졌던 어떤 일이라도 떠올려 보려 했다. 적어도 미덕이 우세하다면 다아시 씨가 여러 해 이어진 게으름과 악행이라고 묘사한 것을 우연한 잘못들로 치부해 상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를 도와줄 만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모든 매력적인 풍채와 태도를 눈앞에 바로 그릴 수 있었지만, 이웃 사람들의 일반적인 호감과, 연대 장교 식당에서 그가 사교적 재능으로 얻은 호의 말고는 더 실질적인 장점을 기억해 낼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대목에서 한참 멈춘 뒤 다시 읽어 나갔다. 그러나 아아, 그 다음에 이어진 다아시 양에 대한 그의 계략 이야기는, 전날 아침 피츠윌리엄 대령과 그녀 사이에 오간 말로 어느 정도 확인되는 듯했다. 결국 모든 세부 사항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피츠윌리엄 대령 본인에게 확인해 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사촌의 모든 일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정보를 그녀에게 이미 전해 주었고, 그녀에게는 그의 인품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한동안 그녀는 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거의 마음먹었으나, 그렇게 묻는 일의 어색함 때문에 선뜻 실행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녀는, 다아시 씨가 사촌의 확인을 확실히 믿지 않았다면 그런 제안을 결코 감히 하지 않았으리라는 확신에 이르러 그 생각을 완전히 떨쳐 버렸다.

엘리자베스는 필립스 씨 댁에서 처음 보낸 저녁에 위컴과 자기 사이에 오갔던 대화를 전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말 가운데 많은 부분이 아직도 생생했다. 이제 그녀는 낯선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깨닫고 놀랐으며, 왜 전에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의아했다. 그가 그렇게 앞에 나서서 떠들었던 것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어긋났는지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다아시 씨를 만나는 일이 두렵지 않다고 자랑했던 것을 기억했다. 다아시 씨가 이 지방을 떠날 수는 있어도 자기는 버티고 서 있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는 바로 다음 주에 네더필드 무도회를 피했다. 그녀는 또 기억해 냈다. 네더필드 가족이 이 지방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그녀에게만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떠나자 그 이야기는 사방에서 입에 오르내렸다. 그때부터 그는 다아시 씨의 인품을 깎아내리는 데 아무런 거리낌도, 망설임도 없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아들의 잘못은 결코 드러내지 않겠다고 그는 그녀에게 분명히 말했었는데도 말이다.

이제 위컴과 관련된 모든 일이 얼마나 다르게 보였던가! 킹 양에게 보인 그의 관심은 이제 오직 증오스러울 만큼 돈만 노린 속셈의 결과였다. 킹 양의 재산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은 이제 그의 욕심이 절제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무엇이든 움켜쥐려는 그의 조급함을 드러낼 뿐이었다.
그녀를 대한 그의 태도 역시 이제는 그럴듯한 동기가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재산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거나, 그녀가 너무 경솔하게 드러냈다고 믿었던 호감을 부추기며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유리하게 남아 있던 모든 미련은 점점 희미해졌다. 다아시 씨를 더 변호하자면, 그녀는 빙리 씨가 제인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일에서 다아시 씨가 떳떳하다고 오래전에 단언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아시 씨의 태도는 거만하고 불쾌했지만, 그들이 서로 알고 지낸 전 기간 동안, 곧 최근에는 자주 어울리며 그의 방식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만큼 가까워졌던 그 교제 동안에도, 그녀는 그가 원칙 없고 부당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나, 불경하거나 부도덕한 습관을 말해 주는 어떤 것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존중받고 높이 평가받고 있었다. 위컴조차 그가 누이에게 좋은 오빠라는 점은 인정했고, 그녀는 그가 누이 이야기를 몹시 다정하게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기에 그가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고 믿었다. 만약 그의 행동이 위컴이 묘사한 그대로였다면, 옳은 것에 대한 그토록 노골적인 위반을 세상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넘어갔을 리 없다.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빙리 씨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친구 사이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몹시 부끄러워졌다. 다아시를 생각하든 위컴을 생각하든, 자신이 눈이 멀고, 치우쳐 있었으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어리석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비열하게 행동했다니!" 그녀가 외쳤다. "내 판단력을 그렇게 자랑해 왔던 나! 내 재능을 그렇게 내세워 왔던 나! 남을 좋게만 보는 언니의 너그러운 마음을 자주 업신여기고, 쓸데없거나 잘못 없는 불신으로 내 허영심을 채워 왔던 나! 이 발견이 얼마나 굴욕적인가! 그러나 얼마나 마땅한 굴욕인가! 내가 사랑에 빠졌던 것이었다면 이보다 더 비참하게 눈이 멀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나 내 어리석음은 사랑이 아니라 허영이었어. 한 사람의 호의에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무관심에 기분이 상해서, 우리가 처음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선입견과 무지를 불러들이고, 두 사람 중 누구에 관해서든 이성을 내쫓아 버렸지. 이 순간까지 나는 나 자신을 알지 못했어."

자신에게서 제인에게로, 제인에게서 빙리에게로 이어지던 그녀의 생각은 곧 그 대목에서 다아시 씨의 설명이 매우 불충분해 보였던 것을 떠올리게 했고, 그녀는 그것을 다시 읽었다. 두 번째로 읽었을 때의 느낌은 전혀 달랐다. 한 대목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주장을, 다른 대목에서는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언니가 빙리에게 품은 애정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그녀는 샬럿이 늘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제인에 대한 그의 묘사가 옳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제인의 감정이 뜨거운 것은 분명하지만 겉으로는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제인의 태도와 몸가짐에는 늘 어딘가 여유로운 만족감이 배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 모습은 감수성이 깊은 사람에게서는 흔히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녀는 편지에서 자신의 가족을 질책한 대목에 이르렀다. 그 질책은 그녀를 굴욕스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마땅한 것이었다. 그녀는 몹시 부끄러웠다. 그 비난이 옳다는 것이 너무도 뼈저리게 와닿아 부정할 수 없었다. 그가 네더필드 무도회에서 있었던 일로서 처음 품었던 못마땅함을 모두 굳혀 주었다고 특히 언급한 일들은, 그의 마음에 남긴 인상보다 그녀의 마음에 남긴 인상이 결코 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 자신과 언니에 대한 그 칭찬이 고맙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을 달래 주었지만, 나머지 가족이 그렇게 자초한 멸시를 생각하면 위안이 되지는 못했다. 그녀는 제인이 실망하게 된 것이 실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 탓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런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두 자매의 평판이 얼마나 크게 상처 입을지 떠올리자, 그녀는 지금까지 겪어 본 적 없을 만큼 마음이 깊이 가라앉았다.

두 시간 동안 좁은 길을 따라 걸으며, 온갖 생각에 몸을 맡기고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보고 여러 가능성을 가늠하고, 이토록 갑작스럽고 중대한 변화를 가능한 만큼 받아들이려 애쓴 끝에, 피곤하기도 하고 오래 집을 비웠다는 생각도 들어 그녀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을 하겠다는 바람과, 대화에 어울리지 못하게 만들 그런 생각들은 억누르겠다는 결심을 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곧 로징스에서 온 두 신사가 그녀가 없는 동안 각각 찾아왔다는 말을 들었다. 다아시 씨는 작별 인사를 하러 잠깐 들렀을 뿐이었지만, 피츠윌리엄 대령은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적어도 한 시간은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그녀를 찾을 때까지 뒤따라 걸어 나가 보려고 거의 마음먹었다고 했다. 엘리자베스는 그를 놓쳐서 아쉽다는 시늉을 겨우 해

보였을 뿐, 사실은 마음이 놓였다. 피츠윌리엄 대령은 이제 그녀의 관심 밖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편지만 있었다.

제37장



[*Copyright* 1894 *by George Allen.*]

휴 톰슨, 「도슨」(1894년 판 삽화)

다음 날 아침 두 신사는 로징스를 떠났다. 콜린스 씨는 오두막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작별 인사를 올렸는데, 덕분에 두 사람이 아주 건강하고 로징스에서 방금 겪은 침울한 일 뒤치고는 그럭저럭 괜찮은 기분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이어 캐서린 영부인과 그 딸을 위로하러 로징스로 서둘러 갔고, 돌아올 때는 영부인의 전갈을 아주 흡족한 얼굴로 가져왔다. 영부인이 너무 적적해서 모두 자기 집에 와서 저녁을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캐서린 영부인을 볼 때마다, 마음만 먹었다면 지금쯤 자신이 영부인에게 장래의 조카며느리로 소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경우 영부인이 얼마나 분노했을지를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났다. "영부인이 뭐라고 했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 엘리자베스는 이런 물음을 던지며 혼자 즐거워했다.

첫 화제는 로징스 손님들이 줄어든 일이었다. "정말이지 나는 그 일이 몹시 아쉽네." 캐서린 영부인이 말했다. "친구를 잃는 슬픔을 나만큼 크게 느끼는 사람은 없을 거야. 하지만 나는 이 젊은이들을 각별히 아꼈고, 그들도 나를 그만큼 따랐지! 두 사람 다 떠나는 걸 무척 아쉬워했지. 하지만 늘 그렇다니까.

그 사랑스러운 대령은 마지막 순간까지는 그럭저럭 기운을 차리고 있었지만, 다아시는 가장 깊이 아파하는 것 같았어. 작년보다 더 그랬던 것 같아. 로징스를 향한 그의 애착은 분명 점점 깊어지고 있어."

콜린스 씨는 여기서 칭찬과 암시를 한마디씩 덧붙였고, 그것을 두 모녀는 흐뭇하게 웃으며 받아 주었다.

저녁 식사 후 캐서린 영부인은 베넷 양이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이유를 스스로 짐작했다. 베넷 양이 집으로 그렇게 빨리 돌아가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영부인은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머니께 편지를 써서 조금 더 머물게 해 달라고 부탁해야 하네. 콜린스 부인도 분명 자네가 같이 있어 주면 아주 기뻐할 거야."

"영부인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는 런던에 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자네는 여기 겨우 여섯 주 있었던 셈이로군. 나는 두 달은 머물 줄 알았어. 자네가 오기 전에 콜린스 부인에게도 그렇게 말해 두었지. 그렇게 서둘러 떠날 이유가 없어. 베넷 부인도 분명 자네를 두 주쯤은 더 보내 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실 수 없어요. 지난주에 편지를 보내서 빨리 돌아오라고 재촉하셨거든요."

"아, 아버지야 어머니만 괜찮다면 물론 자네를 보내 주시겠지. 아버지에게 딸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리고 자네가 한 달을 꽉 채워 더 머문다면, 내가 자네들 가운데 한 사람을 런던까지 데려다줄 수 있네. 나는 6월 초에 일주일 동안 그곳에 갈 예정이거든. 도슨이 마부석에 앉는 걸 마다하지 않으니, 자네들 중 한 사람이 탈 자리는 넉넉할 거야. 사실 날씨가 선선하다면 둘 다 데려가도 상관없어. 둘 다 몸집이 크지 않으니까."

"정말 친절하시네요, 영부인. 하지만 아무래도 처음 세운 계획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캐서린 영부인은 체념한 듯했다. "콜린스 부인, 두 사람과 함께 하인을 한 명 보내야 하네. 내가 늘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잖나. 젊은 아가씨 둘이 역마차를 타고

둘만 여행하는 건 도저히 못 봐주겠어. 아주 옳지 못한 일이야. 어떻게든 사람을 붙여 보내야 해. 나는 그런 일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네. 젊은 여자는 신분에 맞게 늘 제대로 보호받고 시중을 받아야 하는 법이야. 작년 여름에 우리 조카 조지애나가 램즈게이트에 갔을 때도, 남자 하인 둘을 꼭 딸려 보냈지. 펨벌리의 다아시 씨와 앤 영부인의 따님인 다아시 양이 달리 나섰다면 체면이 서지 않았을 거야. 나는 그런 일이라면 아주 세심하게 챙기는 편이야. 콜린스 부인, 존을 아가씨들과 함께 보내야 해. 이 말을 꺼낸 게 다행이군. 두 사람을 혼자 보내면 정말 자네 체면이 깎일 테니까."

"외삼촌께서 저희를 데리러 하인을 보내기로 하셨어요."

"오! 외삼촌이라고? 그럼 외삼촌 댁에는 남자 하인이 있나 보군? 그런 일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네. 말은 어디서 갈아타나? 아, 브롬리겠지, 물론. 벨 여관에서 내 이름을 대면 극진히 모실 거야."

캐서린 영부인은 두 사람의 여행에 관해 그 밖에도 많은 질문을 던졌다. 그녀가 질문에 모두 스스로 답하지는 않았으므로 엘리자베스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그것이 자신에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머릿속이 온통 딴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터라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잊었을지 모를 일이었다. 생각에

잠기는 일은 홀로 있는 시간을 위해 남겨 두어야 했다. 혼자가 될 때마다 엘리자베스는 그것이 가장 큰 위안이라 여기고 거기에 빠져들었고, 하루도 빠짐없이 홀로 산책을 나가 불쾌한 기억을 되새기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다.

다아시 씨의 편지를 그녀는 머지않아 통째로 외울 판이었다. 그녀는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히 뜯어보았고, 편지를 쓴 사람에 대한 감정은 때때로 크게 엇갈렸다. 편지의 말투를 떠올리면 여전히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러나 자신이 그를 얼마나 부당하게 단죄하고 힐난했는지 생각하면, 분노는 자신을 향했고 실망한 그의 마음은 연민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애정은 고마움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전반적인 인품은 존경을 자아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를 인정할 수 없었다. 거절한 것을 잠시라도 후회하지 않았고, 그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자신이 지난날 보인 행동은 끊임없는 짜증과 후회의 원천이었다. 그리고 가족의 불행한 결점들은 그보다 더 무거운 괴로움의 대상이었다. 그것을 고칠 방법은 없어 보였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며 웃기만 할 뿐, 막내딸들의 거친 경솔함을 누르려고 애쓰지 않았다. 어머니는 자신의 예법부터 바르지 못했으므로 그 해악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엘리자베스는 캐서린과 리디아의 경솔함을 막아 보려고 제인과 힘을 합친 적이 자주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두 사람을 오냐오냐 감싸 주는 한 무슨

개선의 희망이 있겠는가? 기가 약하고 성질이 까다로운 캐서린은 리디아의 인도를 전적으로 따랐기에, 언니들의 충고를 들으면 늘 기분 상해했다. 제멋대로이고 조심성 없는 리디아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두 사람은 무지하고 게으르며 허영심이 강했다. 메리턴에 장교가 있는 한 그들은 그와 시시덕거릴 것이고, 메리턴이 롱본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한 그들은 영원히 그곳에 가려 할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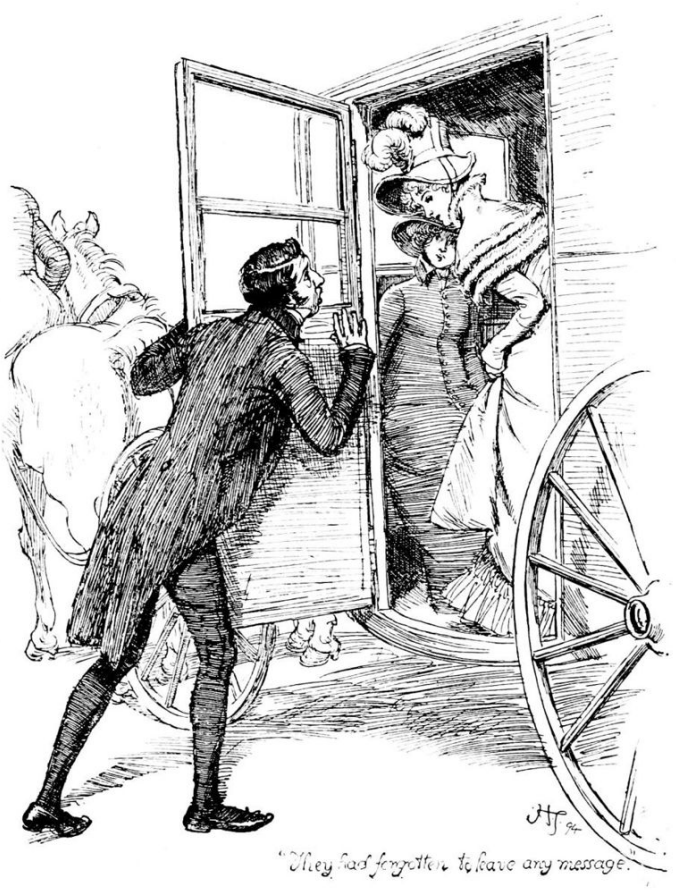
제인을 걱정하는 마음도 여전히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다아시 씨의 해명 덕분에 그녀는 빙리를 다시 예전처럼 좋게 여기게 되었고, 그만큼 제인이 잃은 것이 얼마나 큰지 더 절실하게 느껴졌다. 그의 애정이 진심이었음이 드러났고, 친구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의 행동에는 아무 비난도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고 이점이 가득하며 행복을 약속하던 그 혼처를, 제인이 자기 가족의 어리석음과 점잖지 못함 때문에 잃고 말았다는 생각은 얼마나 괴로운가!

이 회상들에 위컴의 성격이 드러난 일까지 더해지자, 그동안 좀처럼 가라앉지 않던 그녀의 밝은 기운이 이제는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겉으로 그럭저럭 명랑해 보이기조차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만하다.

엘리자베스가 머무는 마지막 주에도 로징스에 초대받는 일은 처음만큼이나 잦았다. 떠나기 전날 저녁도 로징스에서 보냈는데, 영부인은 여행에 관해 다시 자세히 묻고, 짐을 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일러 주었으며, 옷가지는 오직 올바른 방식으로 넣어야 한다고 어찌나 강조하던지, 돌아가서 마리아는 아침에 한 일을 모두 되돌리고 트렁크를 새로 꾸려야 한다고 느꼈다.

헤어질 때 캐서린 영부인은 크게 은혜라도 베풀듯 너그러이 두 사람에게 좋은 여행이 되기를 빌었고, 내년에 다시 헌스퍼드에 오라고 청했다. 드 버그 양도 힘을 내어 두 사람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손을 내밀기까지 했다.

제38장



휴 톰슨, 「전할 말을 남기는 것도 잊었다」(1894년 판 삽화)

토요일 아침에 엘리자베스와 콜린스 씨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기 몇 분 전에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마주쳤다. 콜린스 씨는 이때를 틈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작별 인사를 건넸다.

"엘리자베스 양," 그가 말했다. "콜린스 부인이 양께서 저희 집에 와 주신 데 대한 고마움을 벌써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마움을 받지 않고서 양께서 이 집을 떠나시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양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저희가 아주 고맙게 여겼다고 믿어 주십시오. 저희 초라한 집에 양을 끌어당길 만한 것이 얼마나 없는지 저희도 잘 압니다. 저희의 검소한 살림살이, 작은 방들, 적은 하인들, 그리고 저희가 세상을 조금밖에 보지 못한 것 때문에 헌스퍼드는 양처럼 젊은 아가씨에게 몹시 따분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과분하게 찾아 주신 것을 저희가 고맙게 여긴다는 점을 믿어 주시고, 양이 불쾌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감사의 말과 행복하다는 확언을 열심히 늘어놓았다. 그녀는 여섯 주를 아주 즐겁게 보냈고, 샬럿과 함께 지낸 기쁨과 받은 따뜻한 배려 덕분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쪽은 자신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콜린스 씨는 흡족해하며 더욱 웃음 띤 엄숙한 얼굴로 대답했다.

"저는 양께서 불쾌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셨다는 말을 듣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매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양을 아주 격조 높은 사교계에 소개해 드릴 수 있었고, 로징스와 맺은 인연 덕분에 이 소박한 가정의 풍경이 자주 바뀌었으니, 헌스퍼드 방문이 아주 따분하기만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자부해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캐서린 영부인 가문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실로 몇 사람만이 자랑할 수 있는 특별하고 큰 이점이자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셨지요. 우리가 그곳에 얼마나 자주 불려 가는지도 보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초라한 목사관의 온갖 불편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사는 사람이라도 로징스와 우리가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함께 누리는 한, 동정받을 처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감정이 너무 북받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고, 그는 방 안을 서성여야 했다. 그동안 엘리자베스는 예의와 진실을 짧은 몇 마디 말에 함께 담으려고 애썼다.

"사실 하트퍼드셔에 우리에 대해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친애하는 사촌. 적어도 그러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캐서린 영부인이 콜린스 부인에게 베푸는 각별한 배려는 양께서 날마다 목격해 오셨지요. 전체적으로 보아 양의 친구분이 결코 불운한 제비를 뽑은 것 같지는—아니, 이 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편이 낫겠지요. 다만 친애하는 엘리자베스 양, 저는 진심으로 양께서도 결혼에서 똑같이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샬럿은 마음이 하나고 생각하는 방식도 하나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둘은 성격과 생각이 놀랄 만큼 닮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정말 그렇다면 큰 행복이라고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었고, 똑같이 진심을 담아 그의 가정적 안락을 굳게 믿으며 기뻐한다고 덧붙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그 안락을 가져다준 여인이 들어오는 바람에 끊긴 것은 오히려 다행이었다. 불쌍한 샬럿! 그런 사람들 사이에 그녀를 남겨 두고 떠나야 한다니 쓸쓸한 일이었다. 하지만 샬럿은 모든

것을 알고서 그 삶을 선택했고, 손님들이 떠나는 것을 분명히 아쉬워하면서도 동정을 구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집과 살림, 교구와 가금, 그리고 그에 딸린 모든 일들은 아직 그 매력을 잃지 않고 있었다.

드디어 마차가 도착했고, 짐 가방들이 단단히 묶였으며, 소포들도 안에 실렸다. 준비가 다 되었다고 했다. 두 친구가 다정하게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콜린스 씨가 엘리자베스를 마차까지 배웅했다. 정원을 따라 걸어가면서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가족 모두에게 자기의 정중한 안부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겨울에 롱본에서 받은 친절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고, 아직 만나 본 적 없는 가드너 씨 부부에게도 인사를 전해 달라고 했다. 그는 엘리자베스를 마차에 태웠고, 마리아도 뒤따라 탔다. 문이 막 닫히려는 순간, 그는 갑자기 당황한 얼굴로, 두 사람이 아직 로징스의 숙녀들에게 전할 인사를 남기지 않았다고 일깨웠다.

"하지만," 그가 덧붙였다. "물론 두 분께서는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 베풀어 주신 친절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공손한 인사를 그분들께 전해 드리기를 바라시겠지요."

엘리자베스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제야 문을 닫아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고, 마차는 떠났다.

"세상에!" 마리아가 몇 분 동안 말없이 있다가 소리쳤다. "우리가 처음 왔던 게 겨우 하루나 이틀 전 같은데! 그동안 일어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았지," 엘리자베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는 로징스에서 아홉 번이나 저녁을 먹었고, 차도 두 번이나 마셨어요! 이야기할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내가 숨겨야 할 이야기는 얼마나 많을까!" 엘리자베스가 속으로 덧붙였다.

그들의 여행은 별다른 대화도 없이, 큰 소동도 없이 진행되었다. 헌스퍼드를 떠난 지 네 시간 만에 그들은 가드너 씨의 집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 예정이었다.

제인은 건강해 보였고, 외숙모가 마련해 둔 여러 약속들 사이에서 엘리자베스는 언니의 기분을 살펴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제인은 엘리자베스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고, 롱본에 가면 관찰할 시간은 충분할 것이었다.

한편 다아시 씨의 청혼 이야기를 언니에게 털어놓는 일을 롱본에 갈 때까지만이라도 참는 데는 적잖이 애를 써야 했다. 제인을 그토록 놀라게 할 소식을 자신이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아직 이성으로 다 떨쳐 버리지 못한 자신의

허영심을 그토록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이겨 내지 못했을 만큼 털어놓고 싶은 유혹이었다. 그 유혹을 이겨 낸 것은 오직, 무엇을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정하지 못한 망설임과, 일단 그 이야기를 꺼내면 빙리에 관한 이야기까지 얼떨결에 옮기게 되어 언니를 더 슬프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뿐이었다.

제39장



휴 톰슨, 제39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5월 둘째 주였다. 세 아가씨는 그레이스처치 스트리트에서 함께 출발해 하트퍼드셔의 ——마을을 향했다. 베넷 씨의 마차가 마중 나오기로 한 여관에 가까워지자, 마부가 시간을 정확히 지켰다는 표시로, 위층 식당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

키티와 리디아가 곧 눈에 들어왔다. 두 소녀는 그곳에 한 시간도 넘게 있었다. 맞은편 모자 가게를 구경하고, 보초 서 있는 병사를 지켜보고, 샐러드와 오이를 준비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자매들을 맞이한 뒤, 두 사람은 여관 저장고에서 내놓을 법한 찬 고기가 차려진 식탁을 의기양양하게 보여 주며 외쳤다. "이거 좋지 않아? 기분 좋은 깜짝 선물 아니야?"

"우리가 모두한테 한턱낼 거야," 리디아가 덧붙였다. "하지만 돈은 언니들이 빌려 줘야 해. 우리는 방금 저기 가게에서 가진 돈을 다 써 버렸거든." 그러고는 산 물건을 내보이며 말했다. "이것 좀 봐. 이 보닛을 샀어. 그렇게 예쁜 것 같진 않은데, 안 사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었어. 집에 가면 당장 뜯어서 더 잘 만들 수 있는지 봐야겠어."

그러자 언니들이 그 보닛을 못생겼다고 흉보았지만, 리디아는 전혀 개의치 않고 덧붙였다. "아, 그래도 가게에 더 못생긴 게 두세 개나 있었어. 그리고 더 예쁜 색 공단을 사서 새로 장식하면 꽤 봐줄 만할 거야. 게다가 ——셔 연대가 두 주 뒤면 메리턴을 떠나는데, 이번 여름에 무슨 옷을 입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정말 떠난대?" 엘리자베스가 더없이 흡족한 얼굴로 외쳤다.

"그들은 브라이턴 근처에 야영하게 된대.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여름에 우리 모두를 거기 데려가 줬으면 정말 좋겠어! 정말 근사한 계획일 거야. 돈도 거의 안 들 것 같아. 어머니도 무엇보다 가고 싶어 하실걸!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여름을 보내게 될지 생각해 봐!"

"그래," 엘리자베스가 생각했다. "정말 멋진 계획이겠지, 그리고 우리를 한꺼번에 완전히 망쳐 놓을 거야. 세상에! 브라이턴이라니, 병사들로 꽉 찬 야영지라니! 겨우 민병대 한 연대와 메리턴에서 매달 열리는 무도회에도 이미 정신을 못 차리는 우리에게는 말이야!"

"이제 언니들한테 해 줄 소식이 있어," 리디아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뭔지 알겠어? 아주 좋은 소식이야, 최고의 소식이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 관한 거야."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서로를 쳐다보았고, 시중들던 웨이터에게는 더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리디아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렇게 격식 차리고 조심하는 게 꼭 언니들답네. 언니들 생각엔 웨이터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지, 마치 그 사람이 신경이나 쓴다는 듯이! 그 사람은 내가 말하려는 것보다 더 심한 얘기도 자주 들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이 참 못생겼어! 가서 다행이야. 평생 그렇게 턱이 긴 사람은 처음 봤어. 자, 그럼 이제 내 소식을 말할게. 사랑하는 위컴 얘기야. 웨이터한테는 아까운 얘기지, 안 그래? 위컴이 메리 킹과 결혼할 위험은 이제 없어. 어때! 그 애는 리버풀에 있는 삼촌 댁에 내려갔어. 아예 거기서 눌러살 거래. 위컴은 무사해."

"그럼 메리 킹도 무사하구나!" 엘리자베스가 덧붙였다. "재산 면에서 분별없는 결혼으로부터 무사하구나."

"그 애가 그를 좋아했다면, 떠나 버리다니 참 바보 같은 짓이야."

"하지만 어느 쪽에도 깊은 애착은 없기를 바라," 제인이 말했다.

"난 그 사람 쪽에는 전혀 없었다고 확신해. 장담하는데, 그 사람은 그 애한테 털끝만큼도 신경 쓰지 않았어. 그런 얄밉고 주근깨투성이인 애한테 누가 신경 쓰겠어?"

엘리자베스는 놀랐다. 자신은 그런 거친 말투를 결코 쓰지 않지만, 그 거친 감정이 얼마 전까지 자기 가슴속에 품고 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그때는 그것을 관대한 생각이라고 여기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모두 식사를 마치고 언니들이 값을 치르자, 마차가 불려 왔다. 몇 번 자리를 옮겨 보고 궁리한 끝에, 일행 모두가 짐 상자와 수놓는 바구니와 꾸러미들, 그리고 키티와 리디아가 산 물건들이라는 반갑지 않은 짐까지 싣고 마차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가 얼마나 빽빽하게 끼어 앉았는지 좀 봐!" 리디아가 외쳤다. "보닛을 가져오길 잘했어. 그저 모자 상자가 하나 더 생기는 재미 때문이라도 말이야! 자, 이제 우린 아주 편하고 포근하게 있으면서, 집에 가는 내내 얘기하고 웃자. 무엇보다 먼저, 언니들이 떠난 뒤 다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 보자. 괜찮은 남자들은 만났어? 누구랑 시시덕거리기도 했어? 언니들 중 누구라도 돌아오기 전에 남편을 얻었으면 하고 나는 정말 기대했어. 제인 언니는 머지않아 완전히 노처녀가 될 거야, 정말이야. 벌써 스물셋이 다 돼 가잖아! 세상에! 스물셋이 되기 전에 결혼을 못 했다면 난 얼마나 창피할까! 필립스 이모도 언니들이 남편을 얻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몰라. 리지 언니는 콜린스 씨와 결혼하는 편이 나았다고 하셔. 하지만 그랬다면 재미가 전혀 없었을 것 같아. 세상에! 난 언니들 누구보다도 먼저 결혼하고 싶어! 그럼 무도회마다 언니들을 데리고 다닐 텐데. 어머나! 며칠 전 포스터 대령 댁에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키티와 내가 거기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는데, 포스터 부인이 저녁에 작은 춤판을

열어 주기로 약속하셨거든. (그나저나 포스터 부인이랑 나는 정말 친한 사이야!) 그래서 부인이 해링턴 자매 둘을 불렀는데, 해리엇이 아파서 펜 혼자만 올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뭘 했는지 알아? 체임벌린을 여자 옷으로 꾸며서 일부러 숙녀인 척 속였지. 생각해 봐, 얼마나 재밌었겠어! 포스터 대령 부부와 키티와 나만 알았고, 이모는 빼고 아무도 몰랐어. 우린 이모 드레스 중 하나를 빌려야 했거든. 그가 얼마나 근사해 보였는지 상상도 못 할 거야! 데니와 위컴과 프랫, 그리고 남자 두세 명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전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 세상에! 난 얼마나 웃었는지! 포스터 부인도 그랬고. 난 웃다가 죽는 줄 알았어. 그러자 남자들이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고, 곧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지."

리디아가 이런 이야기들과 좋은 농담들을 늘어놓으며, 키티가 거드는 말과 덧붙임에 힘입어 롱본으로 가는 내내 동행들을 즐겁게 해 주려고 애썼다. 엘리자베스는 되도록 듣지 않으려 했지만, 위컴의 이름이 자꾸 나오는 것만은 피할 수가 없었다.

집에서 그들을 맞아 준 모습은 아주 다정했다. 베넷 부인은 제인의 아름다움이 조금도 바래지 않은 것을 보고 기뻐했다. 저녁 식사 중에도 베넷 씨는 몇 번이나 먼저 엘리자베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리지, 돌아와 주어 기쁘구나."

식당에 모인 일행은 많았다. 거의 모든 루카스 가족이 마리아를 맞이하고 소식을 들으러 왔기 때문이다. 화제도 여러 가지였다. 루카스 부인은 식탁 건너편에서 마리아에게 맏딸의 안부와 닭들의 형편을 묻고 있었다. 베넷 부인은 두 가지 일에 동시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한편으로는 조금 아래쪽에 앉은 제인에게서 요즘 유행하는 것들을 듣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어린 루카스 아가씨들에게 모두 전해 주고 있었다. 리디아는 누구보다도 큰 목소리로, 들어 주는 사람이면 아무에게나 그날 아침 있었던 여러 즐거운 일들을 늘어놓고 있었다.

"아, 메리 언니," 리디아가 말했다. "언니도 우리랑 같이 갔으면 좋았을걸.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 가는 길에 키티랑 나랑 블라인드를 전부 내리고는 마차 안에 아무도 없는 척했어. 키티가 멀미만 하지 않았어도 내내 그렇게 했을 거야. 조지 여관에 도착해서는 우리가 정말 근사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운 점심을 다른

세 사람에게 대접했거든. 언니가 같이 갔으면 언니한테도 대접했을 거야. 그리고 떠날 때는 또 얼마나 재밌었다고! 우리가 마차에 다시 탈 수나 있을까 싶더라. 웃다가 죽을 뻔했어. 그러고 나서 집에 오는 내내 얼마나 신났는지! 얼마나 크게 떠들고 웃었는지, 십 마일 밖에서도 들렸을 거야!"

"이런 즐거움을 깎아내릴 생각은 내게 조금도 없단다, 내 사랑하는 동생아." 메리가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런 즐거움은 틀림없이 대부분의 여자들 마음에는 잘 맞겠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게는 아무런 매력이 없어. 난 차라리 책을 읽는 편이 훨씬 좋아."

하지만 리디아는 이 대답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의 말이든 삼십 초 넘게 듣는 일이 드물었고, 메리의 말에는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후에 리디아는 다른 아가씨들에게 메리턴까지 걸어가서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보자고 졸랐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 계획에 끝까지 반대했다. 베넷 집안 아가씨들이 집에 돌아온 지 반나절도 안 되어 장교들을 쫓아다녔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었다. 반대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그녀는 위컴을 다시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되도록 오래 그를 피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연대가 곧 다른 곳으로 옮겨

간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위안이 되었다. 이 주일 뒤면 그들은 떠날 것이고, 일단 떠나고 나면 그의 일로 더는 괴로울 일이 없기를 그녀는 바랐다.

집에 돌아온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엘리자베스는 리디아가 여관에서 살짝 비친 브라이턴 계획이 부모님 사이에서 자주 화제에 오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엘리자베스는 아버지가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렸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동시에 너무 애매하고 모호해서, 어머니는 자주 낙담하면서도 결국 뜻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

제40장



휴 톰슨, 「다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어」(1894년 판 삽화)

엘리자베스는 제인에게 그간 일어난 일을 알려 주고 싶은 마음을 더는 누를 수 없었다. 마침내 제인이 얽힌 부분은 모두 빼기로 하고, 제인에게 놀랄 준비를 시킨 뒤 다음 날 아침 다아시 씨와 자기 사이에 벌어진 일의 요점을 들려주었다.

베넷 양의 놀라움은 곧 누그러들었다. 누가 엘리자베스를 흠모하든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게 만드는, 자매간의 강한 편애가 그 놀라움을 누른 까닭이었다. 그리고 모든 놀라움은 금세 다른 감정에 밀려 사라졌다. 다아시 씨가 자기 마음을 그처럼 호감을 얻기 어려운 방식으로 전한 것이 유감스러웠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동생의 거절이 그에게 안겨 주었을 불행이었다.

“그가 성공을 그토록 확신한 건 잘못이었어.” 제인이 말했다. “분명 그렇게 내비치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그 때문에 그의 실망이 얼마나 커졌을지 생각해 봐.”

“정말 그래.”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그가 진심으로 딱하게 느껴져.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감정들이 있어서, 아마 곧 나에 대한 호감을 거둬들일 거야. 그래도 언니는 내가 그의 청혼을 거절한 걸 탓하지는 않지?”

“너를 탓하다니! 아니, 그럴 리가.”

“그런데 언니는 내가 위컴 얘기를 그렇게 열렬히 했다는 건 탓하지?”

“아니야, 네가 그렇게 말한 게 잘못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면 알게 될 거야.”

그러고 나서 엘리자베스는 편지 얘기를 꺼내, 조지 위컴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되풀이해 들려주었다. 가엾은 제인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제인은 인류 전체에 이렇게 많은 악이 있다고는, 그것도 한 사람에게 이처럼 모여 있다고는 믿지 않은 채 평생을 살고 싶어 했을 것이다. 다아시 씨의 해명은 제인에게 반가운 것이었지만,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충격을 위로해 줄 수는 없었다. 제인은 무언가 오해가 있었을 가능성을 증명하려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고 한 사람의 결백을 밝히려고 간절히 애썼다.

“이렇게는 안 되겠어.”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둘 다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는 절대 없을 거야. 골라. 하지만 하나에만 만족해야 해. 두 사람 사이에 장점이 그만큼밖에 없거든. 좋은

사람 하나를 겨우 만들 정도야. 그런데 요즘 그 장점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어. 나로서는 전부 다아시 씨 쪽에 있다고 믿고 싶은데, 언니는 마음대로 해도 돼."

제인에게서 미소를 끌어내기까지는 한동안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놀란 적은 정말 없었어." 제인이 말했다. "위컴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다니! 거의 믿기지가 않아. 그리고 가엾은 다아시 씨! 리지야, 그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생각해 봐. 그런 실망을 겪고, 게다가 네가 자기를 나쁘게 생각한다는 걸 알면서 말이야! 자기 여동생에 관한 그런 일까지 털어놓아야 했잖아. 정말 너무 괴로운 일이야. 너도 분명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야."

"오, 아니야. 언니가 유감과 연민으로 그렇게 가득한 걸 보니 내 유감도 연민도 다 사라졌어. 언니가 다아시 씨를 그토록 넉넉히 알아줄 테니, 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관심해지고 태연해지고 있어. 언니가 그렇게 펑펑 쏟아 주니, 나는 오히려 아껴 쓰게 돼. 언니가 그를 더 오래 애통해하면, 내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질 거야."

"불쌍한 위컴! 그의 얼굴에는 그렇게 선한 기색이 있어! 그의 태도에는 그렇게 솔직함과 온화함이 있고."

"그 두 청년을 가르친 방식에 분명 무슨 큰 잘못이 있었던 거야. 한 사람은 선함을 전부 가졌고, 다른 사람은 선함처럼 보이는 것만 전부 가졌으니 말이야."

"나는 다아시 씨가 예전에 네가 생각하던 것만큼 그런 기색이 부족하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도 나는 이유도 없이 그를 그렇게 단호하게 싫어한 걸 아주 똑똑한 짓이라고 생각했지. 그런 반감은 재치를 자극하는 박차가 되고, 재치를 펼칠 통로가 되거든. 사람이 어떤 사람을 계속 욕하면서도 옳은 말은 하나도 안 할 수 있지만, 사람을 계속 비웃다 보면 가끔은 재치 있는 말이 얻어걸리게 마련이거든."

"리지, 네가 처음 그 편지를 읽었을 때는 지금처럼 이 일을 가볍게 대할 수 없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

"정말 그럴 수 없었어. 나는 꽤 괴로웠어, 아주 괴로웠지. 불행했다고 해도 될 정도였어. 내가 느끼는 걸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고, 나를 위로해 줄 제인도 없었어. 내가 알고 있던 것만큼 그렇게 약하고, 허영심 많고, 어리석지는 않았다고 말해 줄 사람도 없었잖아. 아, 언니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다아시 씨에게 위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아주 강한 표현을 쓴 건 참 안타까운 일이야. 이제 와 보니 그 말들이 전혀 근거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니까 말이야."

"그럼. 하지만 쓰라린 마음으로 말해 버린 불행은 내가 그동안 키워 온 편견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난 결과야. 한 가지 점에 대해 언니의 조언을 듣고 싶어. 우리 지인들에게 위컴의 사람됨을 알려 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러지 않는 게 좋을지 말해 줬으면 해."

베넷 양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굳이 그를 그렇게 끔찍하게 드러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건 시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아시 씨는 자기가 한 말을 공개해도 된다고 나한테 허락한 적이 없어. 오히려 그의 여동생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은 되도록 나 혼자만 알고 있으라는 뜻이었지. 그러니 그 밖의 그의 행동에 대해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 주려고 한다면 누가 나를 믿겠어? 다아시 씨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이 너무 심해서, 그를 호감 가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하면 메리턴의 착한 사람들 절반은 숨이 넘어갈 거야.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 위컴은 곧 떠날 테니까, 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는 여기 있는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모든 게 드러날

테고, 그때 가서 우리가 그걸 미리 몰랐던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을 수도 있겠지. 지금은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을래."

"네 말이 맞아. 그의 잘못이 세상에 드러나면 그는 영영 망할지도 몰라. 지금쯤 그는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명예를 되찾으려고 애쓰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그를 절망에 빠뜨리면 안 되지."

엘리자베스의 마음속 혼란은 이 대화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지난 보름 동안 짓눌러 왔던 비밀 두 가지를 털어놓았고, 그중 어떤 얘기든 다시 꺼내고 싶을 때 제인이 기꺼이 들어 줄 거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아직 뒤에 숨어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신중함을 생각하면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아시 씨 편지의 나머지 반을 전할 수 없었고, 그의 친구가 언니를 얼마나 진심으로 아꼈는지도 언니에게 설명할 수 없었다. 이것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지식이었고, 당사자들 사이에 완전한 이해가 생기기 전에는 이 마지막 미스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말이야," 그녀가 말했다. "만약 그 아주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 언젠가 일어난다면, 나는 빙리 씨가 훨씬 더

즐겁게 직접 들려줄 얘기를 그저 전해 줄 수 있을 뿐이겠지. 말할 자유는 그 가치가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나한테 없는 거야!"

이제 집에 자리를 잡고 나니, 엘리자베스는 언니의 실제 마음 상태를 살필 여유가 생겼다. 제인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빙리에 대한 아주 다정한 애정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전에 스스로 사랑에 빠졌다고 상상해 본 적조차 없었기에, 그녀의 호감은 첫사랑 특유의 온기를 모두 지니고 있었고, 나이와 성품 덕분에 첫사랑이 흔히 자랑하는 것보다 더 큰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 대한 기억을 그토록 열렬히 소중하게 여겼고, 다른 어떤 남자보다 그를 더 좋아했기에,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평온을 해칠 수밖에 없는 그 아쉬움을 억누르려면 그녀가 가진 모든 분별력과 가족의 감정을 헤아리는 모든 배려가 필요했다.

"그래, 리지야," 어느 날 베넷 부인이 말했다. "제인이 겪은 그 슬픈 일에 대해서 이제 네 생각은 어떠냐? 나로서는 이제 누구에게도 다시는 그 얘기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전에 필립스 이모한테도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제인이 런던에서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봤는지는 알아낼 수가 없더구나. 그래, 그 사람은 정말 몹쓸 청년이야. 이제 와서

제인이 그를 다시 얻을 가능성은 세상에 조금도 없을 거라고 본다. 여름에 그가 네더필드에 다시 온다는 얘기도 없고, 그 일을 알 만한 사람들한테도 내가 다 물어봤다."

"저는 그가 앞으로 네더필드에서 다시 살 거라고는 믿지 않아요."

"아, 글쎄! 그건 그 사람 뜻대로 하라지. 그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내 딸한테 아주 몹쓸 짓을 했다고 나는 두고두고 말할 거다. 내가 제인이었다면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았을 거야.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건, 제인이 상심해서 죽고 말 거라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가 한 짓을 후회하게 되겠지."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런 기대에서는 아무 위로도 얻을 수 없었기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 리지야," 잠시 후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그럼 콜린스 부부는 아주 편하게 산다더구나, 그렇지? 그래, 그래. 그게 오래가면 좋겠다. 그런데 식탁은 어떻게 차리고 산다더냐? 샬럿이 살림을 아주 잘하겠지, 내 생각엔 그래. 제 어미 반만큼만 약아도 돈을 충분히 모을 거야. 살림이 헤프지는 않을 거다, 내 짐작에는."

"네, 헤픈 데는 전혀 없어요."

"물론 살림을 아주 알뜰하게 하겠지. 틀림없어. 그래, 그래. 자기네 수입을 넘겨 쓰는 일은 없을 거다. 돈 때문에 쪼들릴 일은 절대 없겠지. 그래, 그러니 잘들 살아라!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롱본을 물려받을 얘기도 자주 하겠구나. 그때가 되면 그 집을 아주 자기네 집처럼 여기겠지, 내 짐작에는."

"그건 두 사람이 제 앞에서는 입에 올릴 수 없는 얘기였어요."

"그럴 리가 있겠니. 그랬다면 이상한 일이지. 하지만 자기들끼리는 분명 그 얘기를 자주 할 거다. 그래, 정당하게 자기들 것이 아닌 재산을 두고도 마음이 편하다면 그것도 잘된 일이지. 나 같으면 그저 한정상속으로 넘어왔을 뿐인 재산을 가졌다는 게 부끄러웠을 거다."

제41장



[*Copyright* 1894 *by George Allen.*]

휴 톰슨, 「다정하게 추파를 던지며」(1894년 판 삽화)

돌아온 뒤 첫 주가 금세 지나갔다. 둘째 주가 시작되었다. 연대가 메리턴에 머무는 마지막 주였고, 이웃의 아가씨들은 모두 빠르게 시들어 가고 있었다. 낙담은 거의 모두에게 퍼져 있었다. 베넷 집안의 두 큰언니만이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수 있었으며, 평소대로 자기 일을 해 나갔다. 키티와

리디아는 자신들의 비참함이 극에 달해 있었기에 이런 무심함을 자주 나무랐고, 가족 중 누구라도 그렇게 모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들은 비통한 슬픔에 잠겨 자주 소리쳤다. "리지 언니,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가 있어?"

그들의 자애로운 어머니도 그들의 모든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그녀는 이십오 년 전 비슷한 일을 겪으며 자신이 견뎌야 했던 일을 떠올렸다.

"정말이지," 그녀가 말했다. "밀러 대령의 연대가 떠났을 때 난 이틀 내내 울었단다.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지 뭐니."

"제 가슴은 틀림없이 찢어지고 말 거예요," 리디아가 말했다.

"브라이턴에라도 갈 수 있다면!" 베넷 부인이 말했다.

"아, 그래요! 브라이턴에라도 갈 수 있다면!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 너무하세요."

"바닷물에 몸을 좀 담그기만 해도 난 씻은 듯이 기운이 날 텐데."

"필립스 이모도 그러면 저한테 틀림없이 아주 좋을 거라고 하셨어요," 키티가 덧붙였다.

이런 한탄이 롱본 저택 안에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소리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애썼지만, 기쁨은 모두 부끄러움에 가려 사라지고 말았다. 그녀는 다아시 씨가 반대했던 이유가 옳았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 친구의 일에 그가 간섭한 것을 이제껏 이토록 기꺼이 용서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리디아의 암울한 전망은 곧 걷혔다. 연대장 부인인 포스터 부인이 브라이턴에 함께 가자고 초대했기 때문이다. 이 소중한 친구는 아주 젊은 여자였고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명랑한 성격과 쾌활한 기질이 닮아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고, 사귄 지 석 달 동안 그중 두 달은 아주 가깝게 지냈다.

리디아가 이번 일에 보인 환희, 포스터 부인을 향한 숭배, 베넷 부인의 기쁨, 그리고 키티의 굴욕감은 거의 말로 다 옮기기 어렵다. 제 언니의 감정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은 채, 리디아는 들뜬 황홀경에 휩싸여 집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모두에게 축하를 받으려 했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요란하게 웃고 떠들었다. 그동안 운 나쁜 키티는 거실에 남아 자기 처지를 한탄했는데, 말투가 뾰로통한 만큼이나 하는 말도 억지스러웠다.

"포스터 부인이 왜 리디아만 부르고 나는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 키티가 말했다. "내가 그분이랑 특별히 친한 건 아니지만. 나도 리디아만큼 초대받을 권리가 있어. 아니, 더 있지. 내가 두 살 더 많잖아."

엘리자베스는 키티를 타일러 분별을 찾게 하려 했고 제인은 체념시키려 했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엘리자베스 자신으로서는 이번 초대가 어머니와 리디아가 느낀 것과 같은 기분을 전혀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것을 리디아가 조금이라도 분별을 갖출 가능성에 내려진 사형선고로 여겼다. 그런 일이 알려지면 자신이 얼마나 싫은 대접을 받을지 알면서도, 그녀는 아버지에게 리디아를 보내지 말라고 몰래 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리디아의 평소 행실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포스터 부인 같은 여자와 사귀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적은지, 그리고 그런 동행과 함께 집보다 유혹이 더 많을 브라이턴에 가면 리디아가 더욱 경솔해질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하나 늘어놓았다. 베넷 씨는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나서 말했다.

"리디아는 어디서든 사람들 앞에서 한번 망신을 당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게다. 그런데 지금처럼 집안에 돈도 별로 들지 않고 불편도 적게 끼치면서 그 일을 치를 기회는 다시 없을 게다."

"아버지께서 알고 계셨다면,"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리디아의 경솔하고 조심성 없는 행실이 사람들 눈에 드러나서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불리함이 생길지, 아니, 이미 그 때문에 생겼다는 걸 아셨다면, 아버지도 이 일을 다르게 판단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이미 생겼다고!" 베넷 씨가 되풀이했다. "뭐라고! 그 애 때문에 네 구혼자 몇이 겁을 먹고 달아났단 말이냐? 가엾은 우리 리지! 하지만 기죽지 말거라. 조금 우스꽝스러운 일에 엮이기도 싫어하는 그렇게 까다로운 젊은이들은 아쉬워할 가치도 없다. 자, 리디아의 어리석음 때문에 멀찍이 물러난 그 한심한 작자들의 명단을 한번 보자꾸나."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잘못 아신 거예요. 제가 원망할 만한 그런 상처는 없어요. 제가 지금 한탄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닥친 특별한 해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닥칠 일반적인 해악이에요. 리디아의 성격을 드러내는 그 거친 경솔함과, 모든 억제를 우습게 여기는 뻔뻔함과 오만함 때문에 우리의 위신과 세상에서의 체면이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실례를 무릅쓰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 넘치는 기운을 억누르고, 지금 그 애가 쫓는 것들이 평생의 일이 될 수는 없다는 걸 가르치는 수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그 애는 곧 고쳐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거예요. 성격이 굳어질 테고, 열여섯 살에 벌써 자신과 가족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데 누구보다 열성적인 바람둥이가 되고 말 거예요. 그것도 바람기 중에서도 가장 천박하고 비열한 종류의 바람둥이요. 젊음과 그럭저럭 봐줄 만한 외모 말고는 아무 매력도 없으면서, 마음이 무지하고 텅 비어 있어서, 남에게 찬탄받고 싶은 그 광적인 욕심 때문에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온 세상의 멸시를 조금이라도 막아낼 능력이 전혀 없을 거예요. 이 위험에는 키티도 함께 휩쓸릴 거예요. 리디아가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갈 테니까요. 허영심 많고, 무식하고, 게으르고,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아, 아버지, 두 아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경멸하지 않으리라고, 그래서 그 애들의 자매들까지 종종 그 수치에 휘말리지 않으리라고 정말로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베넷 씨는 딸의 마음이 온통 이 문제에 쏠려 있음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다정하게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얘야,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너와 제인은 알려진 곳이면 어디서든 존중받고 귀하게 여겨질 게다. 아주 어리석은 동생이 둘—아니, 셋이라고 해야겠구나—있다고 해서 너희가 덜 돋보이지는 않을 게다. 리디아가 브라이턴에 가지 않는다면 롱본에는 평화가 없을 게다. 그러니 보내자꾸나. 포스터 대령은 분별 있는 사람이라 그 애가 정말로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켜줄 게다. 게다가 다행히 그 애는 너무 가난해서 누구의 먹잇감도 될 리가 없지. 브라이턴에서는 그 애가 여기서보다 평범한 바람둥이로서도 덜 주목받을 게다. 장교들은 더 가치 있는 여자들에게 눈길을 주겠지. 그러니 거기 가서 그 애가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랄 수밖에. 어쨌든 그 애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는 없다. 그랬다간 평생 가둬 둘 명분을 우리에게 주는 셈이니까."

이 대답에 엘리자베스는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생각은 여전히 같았고, 그녀는 실망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곱씹어 괴로움을 키우는 것은 그녀의 성품이 아니었다. 자신은 할 도리를 다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피할 수 없는 불행 때문에 애태우거나 근심으로 그것을 더 키우는 일은 그녀의 기질과 맞지 않았다.

엘리자베스가 아버지와 나눈 이야기의 내용을 리디아와 어머니가 알았더라면, 그들의 분노는 두 사람이 함께 쏟아내는 수다로는 거의 다 표현되지 못했을 것이다. 리디아의 상상 속에서 브라이턴 방문은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행복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공상의 눈으로, 장교들로 뒤덮인 그 화려한 해수욕장의 거리를 보았다. 지금은 알지 못하는 수십 명의 장교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쏟는 모습도 보였다. 그녀는 야영지의 온갖 영광을 보았다. 아름답게 가지런히 줄지어 펼쳐진 천막들, 젊고 명랑한 사람들로 가득하고 진홍빛 군복으로 눈부신 야영지였다. 그리고 그 광경을 완성하듯, 그녀 자신이 천막 아래 앉아 적어도 여섯 명의 장교를 한꺼번에 다정하게 희롱하고 있었다.

그녀의 언니가 자신을 이런 전망과 이런 현실에서 떼어 놓으려 한다는 걸 리디아가 알았다면, 그 기분이 어땠을까? 그 심정은 거의 같은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르는 베넷 부인만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남편이 그곳에 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확신하며 우울해하던 베넷 부인에게는, 리디아가 브라이턴에 가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간 오간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리디아가 집을 떠나는 날까지 그들의 들뜬 기쁨은 거의 쉬지 않고 이어졌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위컴 씨를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었다. 돌아온 뒤로 그와 자주 자리를 함께해 온 터라 동요는 이미 꽤 가라앉아 있었다. 예전의 호감에서 비롯된 동요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 자신을 기쁘게 했던 바로 그 온화함 속에서 꾸밈과 단조로움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것은 이제 역겹고 지겹게 느껴졌다. 게다가 그가 지금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또 다른 불쾌감의 원인이었다. 그가 곧 드러낸 것은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되었을 무렵의 그 관심을 되살리려는 마음이었는데, 지난 일을 생각하면 그런 태도는 그녀를 화나게 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토록 시답잖고 경박한 구애의 대상으로 골라졌다는 것을 깨닫자 그에 대한 모든 관심이 사라졌다. 그녀는 그의 그런 구애를 꿋꿋이 물리쳤지만, 그가 얼마나 오래, 어떤 이유로 관심을 거두었든 그 관심을 다시 보이기만 하면 그녀의 허영심이 채워지고 그녀의 호감도 언제든 되찾을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는 사실에는 질책이 담겨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연대가 메리턴에 머무는 마지막 날, 그는 다른 장교들과 함께 롱본에서 저녁을 먹었다. 엘리자베스는 그와 기분 좋게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그래서 그가 헌스퍼드에서 그녀가 어떻게 지냈는지 묻자, 그녀는

피츠윌리엄 대령과 다아시 씨가 둘 다 로징스에서 삼 주씩 머물렀다고 말하고는, 그에게 피츠윌리엄 대령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놀라고, 불쾌하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다시 미소를 지으며, 전에 그를 자주 봤다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대령이 아주 신사다운 사람이라고 말한 뒤, 그녀에게 그가 마음에 들었는지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대령에게 아주 호의적이었다. 그는 짐짓 무관심한 체하며 곧 덧붙였다. "그가 로징스에 얼마나 있었다고 하셨죠?"

"약 삼 주요."

"그럼 그를 자주 보셨나요?"

"네, 거의 매일이었어요."

"그의 태도는 사촌과 아주 다르더군요."

"네, 아주 달라요. 하지만 다아시 씨는 알면 알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요!" 위컴이 외쳤다. 그때 그가 지은 표정을 엘리자베스가 놓치지 않았다. "그럼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나 그는 말을 멈추고 한결 밝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예의 면에서 좋아진 건가요? 황송하게도 평소 태도에

공손함을 조금이라도 보태 주셨답니까? 감히 바랄 수도 없으니까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더 진지하게 이어 갔다. "본바탕이 나아졌으리라고는요."

"아니에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본질적인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 예전과 거의 다를 게 없어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위컴은 그 말을 기뻐해야 할지 그 뜻을 의심해야 할지 가늠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는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가 알면 알수록 좋아진다고 제가 말한 건, 그의 마음이나 태도가 나아졌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를 더 잘 알게 되면서 그의 성격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뜻이었어요."

위컴의 당혹감은 이제 붉어진 얼굴과 동요하는 표정으로 드러났다. 몇 분 동안 그는 말이 없었다. 그러다 당혹감을 털어 낸 듯 다시 그녀를 향해 돌아서더니, 더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아시 씨에 대한 제 감정을 잘 아시니, 그가 옳은 일의 겉모습이라도 취할 만큼 현명해졌다니 제가 얼마나 진심으로 기뻐할지 쉽게 짐작하시겠지요. 그의 자존심이 그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그 자신에게는 아니더라도 다른 많은

이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겪은 것 같은 추악한 잘못을 그가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 줄 테니까요. 다만 제가 짐작하기에 당신이 말씀하신 그 신중함이란 것은, 그가 이모님을 찾아갈 때나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게 걱정이에요. 그는 이모님의 호의와 판단을 몹시 어려워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둘이 함께 있을 때면 늘 그 두려움이 작용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드 버그 양과의 혼사를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작용했을 거예요. 그 혼사는 그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엘리자베스는 이 말에 미소를 참을 수 없었지만, 고개를 살짝 숙이는 것으로만 대답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오랜 이야기로 그녀를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에게 맞춰 줄 기분이 아니었다. 저녁의 나머지 시간은 그의 쪽에서는 평소처럼 명랑한 모습으로 흘러갔지만, 그는 더 이상 엘리자베스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려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결국 서로 예의를 차려 헤어졌고, 아마도 다시는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서로 같았을 것이다.

파티가 끝나자 리디아는 포스터 부인과 함께 메리턴으로 돌아갔고,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날 예정이었다. 리디아와 가족의 작별은 애처롭다기보다 소란스러웠다.

눈물을 흘린 것은 키티뿐이었는데, 그것도 분하고 부러워서 흘린 눈물이었다. 베넷 부인은 딸의 행복을 빌어 주는 말을 길게 늘어놓았고, 리디아에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 즐기라고 힘주어 당부했다. 리디아가 그 충고를 따르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리디아 본인은 떠나는 인사를 시끌벅적한 기쁨으로 쏟아 냈고, 언니들의 다정한 작별 인사는 그 소리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다.

제42장



휴 톰슨, 제42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엘리자베스의 생각이 오로지 자기 가족에게서만 나온 것이었다면, 그녀는 부부 간의 행복이나 가정의 평안에 대해 그리 유쾌한 그림을 그릴 수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젊음과 아름다움, 그리고 젊음과 아름다움이 대개 주는 명랑해 보이는 외양에 홀려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의 얕은 이해력과 편협한 마음가짐은 결혼 생활 초기에 이미 그녀를 향한 모든 참된 애정을 끝장냈다. 존경과 존중, 신뢰는 영원히 사라졌고, 가정의 행복에 대한 그의 모든 기대도 무너졌다. 그러나 베넷 씨는 자신의 경솔함이 가져온 실망을, 불행한 사람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악덕을 달래려 흔히 기대는 쾌락들 가운데 어느 것으로든 위로받으려 할 기질이 아니었다. 그는 시골과 책을 좋아했고, 그의 주된 즐거움은 이 취향에서 생겨났다. 아내에게 그가 빚진 것은, 그녀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그의 오락거리가 되어 준 정도 말고는 거의 없었다. 이런 행복은 남자가 보통 아내에게서 얻고 싶어 할 종류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즐거움의 원천이 없을 때, 참된 철학자는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거기서 이득을 끌어낼 것이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아버지가 남편으로서 보인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결코 모르지 않았다. 늘 그것을 고통스럽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재능을 존중했고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해 준 데 감사했기에, 눈감아 줄 수 없는

것은 잊으려 애썼으며, 아내를 자기 자식들의 경멸 앞에
드러내 놓은 그 끊임없는 부부의 도리와 예의 위반을
생각에서 떨쳐 버리려 했다. 그것은 매우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어울리지 않는 결혼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겪어야 할 불리함을 지금처럼 강하게 느낀 적은
없었고, 이토록 잘못 쓰인 재능이 낳는 해악을 이토록 분명히
깨달은 적도 없었다. 올바르게 쓰였다면 그 재능은, 아내의
정신을 넓혀 주지는 못했을지언정, 적어도 딸들의
품위만큼은 지켜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위컴이 떠난 것을 기뻐했지만, 연대가 떠난
일에서 다른 만족은 거의 찾지 못했다. 바깥에서 가는 모임은
전보다 단조로워졌고, 집에서는 어머니와 동생이 주위의
따분함을 끊임없이 한탄해 가정의 분위기를 실제로 침울하게
만들었다. 키티는 그녀의 머리를 어지럽히던 자들이
사라졌으니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분별을 되찾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더 큰 해악을 우려해야 할 다른 동생은
온천장과 병영이라는 이중의 위험에 놓여, 어리석음과
뻔뻔함이 더 굳어질 가능성이 컸다. 그래서 결국
엘리자베스는, 조바심 나게 기다리던 일이 막상 일어나도
기대했던 만족을 다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전에도 사람들이 이따금 깨달아 온 일이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이 시작될 다른 시기를 정해야 했고, 소원과 희망을

걸 다른 목표를 가져야 했다. 그래야 다시 기대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지금의 자신을 위로하고 또 다른 실망에 대비할 수 있었다. 이제 그녀의 가장 행복한 생각은 호수 지방 여행으로 향해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와 키티의 불만 때문에 피할 수 없었던 불편한 시간들에 대한 가장 큰 위안이었다. 제인까지 계획에 넣을 수 있었다면, 그 여행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을 것이다.

"그래도 다행이야,"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바랄 것이 하나는 남아 있으니까. 계획이 모두 완벽하게 갖춰졌다면 실망은 틀림없었을 거야. 하지만 여기서 언니가 없다는 끊임없는 아쉬움을 가지고 떠나면, 기대했던 즐거움을 모두 이룰 수 있으리라고 합리적으로 바랄 수 있어. 모든 부분이 기쁨을 약속하는 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 전반적인 실망은 작은 특별한 근심거리 하나를 방패 삼아 막아 낼 때에만 피할 수 있는 거야."

리디아는 떠나면서 어머니와 키티에게 아주 자주, 아주 자세하게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녀의 편지는 늘 오래 기다려야 했고, 언제나 몹시 짧았다. 어머니에게 온 편지에는 대개 이런 얘기뿐이었다. 방금 도서관에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아무개 장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 그곳에서 자기를 완전히 홀릴 만큼 아름다운 장신구들을

보았다는 것. 새 드레스나 새 양산이 생겼다는 것. 더 자세히 쓰고 싶지만 포스터 부인이 자기를 부르고 다들 병영으로 가야 해서 몹시 서두르며 글을 끝내야 한다는 것. 언니와 주고받은 편지에서는 알 수 있는 것이 더 적었다. 키티에게 보낸 편지는 조금 더 길었지만, 공개할 수 없을 만큼 단어 밑에 줄이 너무 많이 그어져 있었다.

리디아가 떠나고 두 주 혹은 세 주가 지나자, 롱본에는 다시 건강과 명랑함과 쾌활함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한결 밝은 모습을 띠었다. 겨울 동안 도시에 가 있던 가족들이 돌아왔고, 여름옷과 여름의 약속들이 생겨났다. 베넷 부인은 늘 그랬던 것처럼 투덜거리면서도 평온함을 되찾았다. 6월 중순쯤 키티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메리턴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이 일은 엘리자베스로 하여금, 다음 크리스마스쯤에는 키티가 하루에 장교 얘기를 한 번 넘게 꺼내지 않을 만큼은 제정신을 차리게 되리라고 희망하게 할 만큼 행복한 조짐이었다. 다만 육군성의 어떤 잔인하고 악의적인 배치로 다른 연대가 메리턴에 주둔하게 되는 일만 없다면 말이다.

북쪽 여행을 떠나기로 정해 둔 날이 이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 두 주밖에 남지 않았을 때 가드너 부인에게서 편지가 왔다. 그 편지는 여행의 시작을 늦추면서 동시에 그 범위도

줄여 버렸다. 가드너 씨는 업무 때문에 예정보다 두 주 늦은 7월에야 떠날 수 있었고, 한 달 안에 런던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계획했던 만큼 멀리 가서 그만큼 많이 보기에는, 혹은 적어도 그들이 기대했던 여유와 편안함을 누리며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래서 그들은 호수 지방을 포기하고 더 좁은 범위의 여행으로 바꿔야 했으며, 현재의 계획에 따르면 북쪽으로는 더비셔까지만 가기로 했다. 그 지방에는 세 주 일정의 대부분을 채울 만큼 볼거리가 많았다. 가드너 부인에게 그곳은 특히 강하게 끌리는 곳이었다. 그녀가 예전에 몇 해를 보냈고 이제 며칠을 머물 그 마을은, 아마 매틀록이나 채츠워스, 도브데일, 피크의 모든 유명한 아름다움만큼이나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상이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몹시 실망했다. 호수 지방을 보는 데 마음을 쏟고 있었고, 지금도 시간이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만족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고, 행복해하는 것이 그녀의 기질이었으므로, 곧 모든 것이 다시 괜찮아졌다.

더비셔라는 말이 나오자 그와 연결된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 그 이름을 보면 펨벌리와 그 주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설마,"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그의 고장에 들어가서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광물 결정 몇 조각쯤 훔쳐 온다고 해서 무슨 벌을 받겠어?"

기대의 시간은 이제 두 배로 늘어났다. 외삼촌과 외숙모가 도착하기까지 네 주가 지나야 했다. 그러나 그 시간도 결국 지나갔고, 가드너 씨 부부는 네 자녀와 함께 마침내 롱본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들은 여섯 살과 여덟 살인 두 딸과 그보다 어린 두 아들이었는데, 모두 사촌 제인에게 특별히 맡겨졌다. 제인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차분한 분별력과 온화한 성품 덕분에 아이들을 돌보기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 공부를 가르치고, 함께 놀아 주고,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일 모두에 그녀는 안성맞춤이었다.

가드너 부부는 롱본에서 하룻밤만 묵고, 다음 날 아침 엘리자베스와 함께 새로운 것과 즐길 거리를 찾아 길을 떠났다. 한 가지 즐거움만은 확실했다. 서로 잘 맞는 동행이라는 점이었다. 그 어울림에는 불편을 견딜 건강과 기질, 모든 즐거움을 더 돋우어 줄 쾌활함, 그리고 바깥에서 실망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자기들끼리 그 즐거움을 채울 수 있는 애정과 지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이 책의 목적은 더비셔를 묘사하는 데 있지 않으며, 그곳으로 가는 길에 지나간 주목할 만한 곳들, 곧 옥스퍼드, 블레넘, 워릭, 케닐워스, 버밍엄 등을 설명하는 데도 있지 않다. 그런 곳들은 충분히 알려져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더비셔의 작은 일부뿐이다. 그들은 그 지방의 주요 명소들을 모두 둘러본 뒤, 가드너 부인이 전에 살았던 곳이자 최근 그곳에 아직 아는 사람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작은 마을 램턴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램턴에서 5마일도 안 되는 곳에 펨벌리가 있다는 것을 엘리자베스는 외숙모에게서 알게 되었다. 그곳은 그들이 가는 길에 바로 있지는 않았지만, 길에서 한두 마일 넘게 벗어나 있지도 않았다. 전날 저녁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가드너 부인은 그곳을 다시 보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가드너 씨도 흔쾌히 동의했고, 두 사람은 엘리자베스에게도 찬성하는지 물었다.

"얘야, 그렇게 많이 들은 곳이니 한번 가 보고 싶지 않니?" 외숙모가 말했다. "네가 아는 사람들과도 많이 얽혀 있는 곳이잖니. 위컴이 젊은 시절을 전부 거기서 보냈지, 알다시피."

엘리자베스는 마음이 불편했다. 펨벌리에 갈 이유가 자기에게는 없다고 느꼈고, 그곳을 보고 싶지 않은 척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큰 저택이라면 이제 지겨워졌다고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많은 집을 둘러보고 나니, 고급 양탄자나 공단 커튼을 보아도 정말 아무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가드너 부인은 엘리자베스가 어리석다고 나무랐다. "그저 값비싼 가구로 꾸민 훌륭한 저택이라면 나도 관심이 없었을 거다," 외숙모가 말했다. "하지만 정원이 정말 아름다워. 이 지방에서 제일 좋은 숲이 있단다."

엘리자베스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다. 저택을 둘러보는 동안 다아시 씨와 마주칠 가능성이 곧바로 떠올랐다. 그건 끔찍한 일이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붉어졌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외숙모에게 솔직히 털어놓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기에도 반대할 이유가 있었다. 결국 그녀는, 가족이 집을 비웠는지 몰래 알아본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만 그것을 마지막 수단으로 삼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므로 밤에 방으로 물러갔을 때 그녀는 객실 하녀에게 펨벌리가 아주 훌륭한 곳이 아니냐고 물었고, 그곳 주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으며, 적잖이 불안한 마음으로 가족이 여름을 나려고 내려와 있느냐고 물었다. 마지막 질문에는 더없이 반가운 부정의 대답이 돌아왔다. 이제 불안이 가시자 그녀는 그 집을 직접 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한껏 느낄 여유가 생겼다. 다음 날 아침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그녀에게 다시 의견을 묻자, 그녀는 그 계획에 실은 아무런 거부감도 없다고, 짐짓 무심한 태도로 쉽게 대답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펨벌리로 가기로 했다.

제3권

제43장



휴 톰슨, 제43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마차가 달리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펨벌리 숲이 처음 보이기를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마침내 문지기 집이 있는 정문으로 꺾어 들어서자 그녀의 가슴은 몹시 두근거렸다.

그 공원은 무척 넓었고 지형도 다양했다. 그들은 가장 낮은 지점에서 안으로 들어가 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숲을 한동안 달렸다.

엘리자베스는 머릿속이 너무 가득 차서 대화를 나눌 수 없었지만, 눈에 띄는 장소와 경치를 하나하나 보며 감탄했다. 그들은 반 마일가량 서서히 올라가다가 제법 높은 언덕 꼭대기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숲이 끝나자, 길이 다소 가파르게 굽이 돌아 내려가는 골짜기 맞은편에 펨벌리 저택이 눈에 번쩍 들어왔다. 그것은 높은 지대에 자리 잡고 높은 숲 능선을 등진, 크고 아름다운 석조 건물이었다. 앞에는 본래도 제법 큰 시냇물을 더 넓혀 놓았는데, 인공적인 티는 조금도 나지 않았다. 강둑은 격식을 차리지도, 억지로 꾸미지도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기뻤다. 자연이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베푼 곳도, 어설픈 취향이 자연미를 이토록 덜 해친 곳도 그녀는 본 적이 없었다. 일행은 모두 아낌없이 감탄했고,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펨벌리의 안주인이 된다는 것이 어쩌면 대단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들은 언덕을 내려가 다리를 건너 현관 앞까지 마차를 몰았다. 집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는 동안, 주인을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엘리자베스의 불안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하녀가 잘못 알았던 것은 아닐까 두려웠다. 집을 구경하고 싶다고 청하자 일행은 홀로 안내되었다. 가정부를 기다리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신기하게 여길 여유가 생겼다.

그 가정부가 들어왔다. 엘리자베스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덜 화려하고 훨씬 공손해 보이는, 점잖아 보이는 나이 든 여자였다. 그들은 그녀를 따라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크고 비례가 잘 맞는 방으로, 가구가 멋지게 갖춰져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방을 잠깐 둘러본 뒤 경치를 즐기려고 창가로 갔다. 그들이 내려온 언덕은 숲으로 정상이 덮여 있었는데, 멀리서 보니 더 가파르게 보였고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었다. 땅의 생김새는 어느 곳이나 좋았다. 그녀는 강, 강둑에 흩어져 선 나무들, 그리고 눈이 닿는 데까지 이어지는 골짜기의 굽이 등 전체 풍경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이 다른 방으로 옮겨 갈수록 이 경치는 자리를 바꾸어 보였지만, 어느 창문에서 보든 아름다움이 있었다. 방들은 높고 멋졌으며, 가구는 주인의 재산에 어울렸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 취향에 감탄하며, 이곳 가구가 요란하지도

않고 쓸데없이 사치스럽지도 않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로징스의 가구보다 화려함은 덜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우아했다.

"이곳의 안주인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이 방들을 이제쯤 익숙하게 알고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낯선 손님으로 바라보는 대신, 내 것으로 즐기며 외삼촌과 외숙모를 방문객으로 맞이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아니야."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고쳤다. "그건 결코 될 수 없었어. 외삼촌과 외숙모는 나에게서 멀어졌을 테고, 나는 그들을 초대하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했을 거야."

이것은 다행스러운 생각이었다. 덕분에 그녀는 후회 비슷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가정부에게 주인이 정말 집에 없는지 묻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다 마침내 외삼촌이 그 질문을 했고, 엘리자베스는 놀라서 몸을 돌렸다. 레이놀즈 부인은 주인이 집에 없다고 대답하면서 덧붙였다. "하지만 내일 친구분들 여럿과 함께 오실 예정입니다." 자신들의 여행이 어떤 사정으로든 하루도 늦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엘리자베스는 얼마나 기뻤던가!

외숙모가 이제 그녀를 불러 그림을 보라고 했다.
엘리자베스가 다가가 보니, 여러 작은 초상화들 사이에 위컴 씨의 초상화가 벽난로 위에 걸려 있었다. 외숙모가 웃으며 그녀에게 마음에 드냐고 물었다. 가정부가 앞으로 나와, 그것은 돌아가신 주인의 집사 아들인 젊은 신사의 초상화라고 말해 주었다. 주인이 자기 비용으로 키웠다고 했다. "그분은 지금 군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녀가 덧붙였다. "하지만 아무래도 몹시 막되게 자란 것 같아요."

가드너 부인은 조카를 보며 미소 지었지만, 엘리자베스는 그 미소에 답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저것이," 레이놀즈 부인이 다른 작은 초상화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주인님입니다. 아주 많이 닮으셨지요. 다른 그림과 같은 때에 그려졌는데, 약 팔 년 전입니다."

"주인님의 훌륭한 용모에 관해서는 많이 들었어요." 가드너 부인이 그림을 보며 말했다. "잘생긴 얼굴이네요. 그런데 리지, 이 그림이 닮았는지 아닌지는 네가 말해 줄 수 있겠지."

레이놀즈 부인은 엘리자베스가 주인을 안다는 이 암시를 듣자 그녀를 향한 존경심이 더 커진 듯했다.

"그 아가씨가 다아시 씨를 아시나요?"

엘리자베스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조금요.”

“아가씨께서는 그분이 아주 잘생긴 신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아주 잘생기셨죠.”

“그분만큼 잘생긴 분은 저는 정말 한 분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층 화랑에 가시면 이보다 더 훌륭하고 큰 그분의 초상화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방은 돌아가신 제 옛 주인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방이고, 이 작은 초상화들도 그때 그대로예요. 주인님께서는 이것들을 무척 아끼셨답니다.”

이것으로 엘리자베스는 위컴 씨가 그 초상화들 사이에 들어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레이놀즈 부인은 그다음으로 다아시 양의 초상화를 가리켰다. 여덟 살 때 그린 그림이었다.

“다아시 양도 오빠만큼 아름다운가요?” 가드너 씨가 물었다.

“오, 그럼요. 지금까지 보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예요. 게다가 재주도 많으시고요! 하루 종일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르세요. 옆방에는 아가씨를 위해 막 들여온 새 악기가 있어요. 주인님께서 선물하신 거예요. 내일 주인님과 함께 이리 오실 거랍니다.”

가드너 씨는 태도가 소탈하고 유쾌했기에, 질문과 말로 그녀가 신이 나서 말하도록 북돋웠다. 레이놀즈 부인은 자존심 때문인지 애정 때문인지 자기 주인과 그의 누이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분명히 몹시 즐거워했다.

"주인님께서는 일 년 중에 펨벌리에 자주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바라는 만큼은 아니에요, 손님. 하지만 아마 일 년의 절반은 여기서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다아시 양은 늘 여름철이면 내려오셔요."

"램즈게이트에 갈 때는 빼고 말이지."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님이 결혼하신다면, 그분을 더 자주 뵐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손님.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저도 모릅니다. 주인님께 어울릴 만큼 훌륭한 분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가드너 부부는 미소를 지었다. 엘리자베스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그분께는 정말 큰 칭찬이겠네요."

"저는 사실을 말씀드릴 뿐이에요. 그분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말할 거예요." 상대가 대답했다. 엘리자베스는 그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가정부가 덧붙이는 말을

들으며 그녀의 놀라움은 점점 커졌다. “저는 그분께 평생 거친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네 살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도요.”

이것은 온갖 칭찬 가운데서도 가장 놀랍고, 그녀의 생각과는 가장 거리가 먼 칭찬이었다. 그가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그녀의 가장 확고한 생각이었다. 그녀는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녀는 더 듣고 싶었고, 그렇게 말을 꺼내 준 외삼촌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은 정말 드물지요. 이런 주인을 모신다니 운이 좋으세요.”

“네, 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을 다 돌아다녀도 이보다 나은 분은 만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늘 보아 왔어요. 어릴 때 성격이 좋은 아이는 자라서도 성격이 좋다는 것을요. 그분은 세상에서 기질이 가장 온순하고 마음이 가장 너그러운 소년이었어요.”

엘리자베스는 그녀를 빤히 쳐다볼 뻔했다. “이게 다아시 씨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의 아버님도 훌륭한 분이셨지요.” 가드너 부인이 말했다.

"네, 부인, 정말 그러셨지요. 아드님도 꼭 그분을 닮았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친절하세요."

엘리자베스는 귀를 기울이며 놀라고, 의아해하고, 의심하면서 더 듣고 싶어 안달이 났다. 레이놀즈 부인은 그녀의 흥미를 다른 어떤 것으로도 끌지 못했다. 그림의 주제며 방의 크기며 가구 값을 이야기해 보았지만 헛일이었다. 가드너 씨는 그녀가 주인을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을 한 집안 사람다운 편애 탓으로 돌리며 몹시 재미있어 했고, 곧 다시 그 이야기로 되돌렸다. 일행이 함께 커다란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레이놀즈 부인은 다아시의 여러 장점을 열심히 늘어놓았다.

"그분은 세상에 있었던 가장 훌륭한 지주이자 가장 훌륭한 주인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요즘 젊은 남자들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막무가내 청년이 아니에요. 그분의 소작인이나 하인 중에 그분을 좋게 말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거만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분이 다른 젊은 남자들처럼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이 말을 들으니 그가 얼마나 호감 가는 사람으로 보이는지!"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이렇게 훌륭한 평판이라니,” 걸으면서 외숙모가 속삭였다. “우리 불쌍한 친구에게 한 행동과는 썩 맞지 않는구나.”

“어쩌면 우리가 속았는지도 몰라요.”

“그럴 리는 없을 거다. 우리가 들은 데가 워낙 믿을 만했잖니.”

위층의 널찍한 로비에 이르자 그들은 아주 아름다운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그 방은 아래층 방들보다 더 우아하고 가볍게 최근에 꾸며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방이 다아시 양을 기쁘게 하려고 막 꾸며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다아시 양이 지난번 펨벌리에 왔을 때 이 방을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것이다.

“분명 좋은 오빠예요.” 엘리자베스가 창가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레이놀즈 부인은 다아시 양이 방에 들어설 때 기뻐할 모습을 미리 떠올렸다. “그분은 늘 이런 식이에요.” 그녀가 덧붙였다. “여동생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순식간에 이루어지지요. 그분이 동생을 위해 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화랑과 주요 침실 두세 곳만 남아 있었다. 화랑에는 좋은 그림이 많았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아래층에서도 그런 그림들은 제쳐 두고 다아시 양이 파스텔로 그린 그림들 쪽으로 기꺼이 눈을 돌렸던 터였다. 그 그림들은 대개 소재가 더 흥미롭고 이해하기도 더 쉬웠다.

화랑에는 가족 초상화가 많이 걸려 있었지만, 낯선 방문객의 눈길을 붙잡을 만한 것은 별로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얼굴 생김새를 알아볼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초상을 찾아 계속 걸었다. 마침내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다아시 씨와 놀랄 만큼 닮은 얼굴이었고, 그 얼굴에는 그녀를 바라볼 때 가끔 보았던 것과 같은 미소가 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림 앞에 몇 분 동안 진지하게 서 있었고, 화랑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 번 그림을 보러 돌아왔다. 레이놀즈 부인이 그 그림은 다아시 씨의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그려진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그 순간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서로 가장 가깝게 알고 지내던 때보다 그 사람에 대해 더 부드러운 감정이 일었다. 레이놀즈 부인이 그에게 보낸 칭찬은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었다. 영리한 하인의 칭찬보다 더 값진 칭찬이 있을까? 그가 여동생의 오빠로서, 영지의 주인으로서, 고용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손에 쥐고 있는지

그녀는 생각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기쁨이나 고통을 안겨 줄 수 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있는지! 가정부가 꺼낸 이야기는 하나같이 그의 인품에 유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초상화 앞에 서서 그림 속 눈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끼자, 엘리자베스는 그의 호의를 이전에 느꼈던 어떤 감정보다 더 깊은 고마움으로 떠올렸다. 그 호의의 따뜻함을 기억했고, 그 표현이 지나쳤던 점은 너그럽게 용서했다.

일반에게 공개된 집안의 모든 곳을 둘러본 뒤 그들은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가정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자,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원사에게 넘겨졌다.

그들이 잔디밭을 가로질러 강 쪽으로 걸어갈 때,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 번 보려고 뒤돌아섰다. 외삼촌과 외숙모도 걸음을 멈췄다. 외삼촌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짐작해 보고 있을 때, 바로 그 집주인이 집 뒤편으로 마구간까지 이어지는 길에서 불쑥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스무 야드도 되지 않았는데, 그의 등장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의 눈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 두 사람의 눈이 즉시 마주쳤고, 두 사람 모두의 뺨에 짙은 홍조가 번졌다. 그는 실제로 흠칫 놀랐고, 잠깐 동안 놀람 때문에 꼼짝도 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러나 곧 정신을 가다듬고 일행

쪽으로 다가와, 완벽하게 침착한 태도는 아니었을지라도 적어도 완벽하게 예의 바른 태도로 엘리자베스에게 말을 건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그가 다가오자 걸음을 멈추고, 도저히 떨쳐 낼 수 없는 당혹감 속에서 그의 인사를 받았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이나 방금 보고 나온 초상화와 닮은 모습만으로는 다른 두 사람이 지금 다아시 씨를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부족했다 하더라도, 주인을 보고 놀라는 정원사의 표정이 곧바로 그것을 알려 주었을 것이다. 그가 조카딸과 이야기하는 동안 외삼촌과 외숙모는 조금 떨어져 서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고, 가족의 안부를 묻는 그의 정중한 질문에 무슨 대답을 했는지도 알지 못했다. 지난번 헤어진 뒤로 그의 태도가 달라진 것에 놀란 그녀는, 그가 한 마디 한 마디를 할 때마다 당혹감이 더해 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그곳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에, 둘이 함께 서 있던 몇 분은 그녀의 생애에서 가장 불편한 순간 가운데 하나였다. 그도 그다지 편해 보이지 않았다. 말을 할 때 그의 어조에는 평소의 차분함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롱본을 떠난 날짜와 더비셔에 머무는 기간을 몇 번이고 되물었는데, 그 질문들이 너무 잦고 너무 서둘러 나와서 그의 생각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분명히 드러났다.

마침내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생각이 흩어져 버린 듯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 뒤 다른 사람들이 그녀와 합류해 그의 풍채를 칭찬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그녀는 자기 감정에만 완전히 빠진 채 말없이 그들을 따라갔다. 수치심과 짜증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곳에 온 것은 세상에서 가장 불운하고 가장 분별없는 일이었다! 그에게는 얼마나 이상하게 보일까! 그토록 자만심 강한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비칠까! 마치 그녀가 일부러 또다시 그의 앞에 나타난 것처럼 보일지도 몰랐다! 아, 왜 그녀는 왔을까? 아니면 그는 왜 예정보다 하루 먼저 이렇게 나타난 것일까? 만약 그들이 십 분만 일찍 왔더라면 그의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바로 그 순간 도착해 말에서 내렸거나 마차에서 내린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 기막힌 우연에 그녀는 몇 번이고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그의 태도가 그토록 뚜렷하게 달라진 것은 무슨 뜻일까? 그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부터가 놀라웠다! 그것도 그토록 예의 바르게,

그녀의 가족 안부까지 물으면서! 그녀는 평생 그가 그토록 위엄을 덜 부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그가 이 뜻밖의 만남에서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말한 적도 없었다. 로징스 파크에서 그가 편지를 그녀의 손에 쥐여 주던 마지막 순간과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녀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그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이제 물가를 따라 난 아름다운 산책로로 들어섰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더 웅장한 비탈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들이 다가가는 숲은 점점 더 아름다운 경치를 펼쳐 보였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한동안 그런 것들을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외삼촌과 외숙모가 거듭 말을 걸었고 그녀는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그들이 가리키는 곳으로 눈을 돌리는 척했지만 풍경의 어느 부분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다. 그녀의 생각은 온통 펨벌리 저택의 어느 한 지점, 즉 지금 다아시 씨가 있을 그곳에 가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오가고 있을지 알고 싶었다. 그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일이 있었는데도 그녀가 여전히 그에게 소중한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 어쩌면 그가 예의를 차린 것은 그저 마음이 편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편안함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를 보고 그가 고통을 더 느꼈는지 기쁨을 더 느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가 그녀를 침착한 마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마침내 동행들이 그녀가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것을 지적하자, 엘리자베스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조금 더 평소의 자신답게 보여야 한다는 필요를 느꼈다.

그들은 숲으로 들어섰고, 잠시 강과 작별하여 조금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나무들이 트인 곳에서는 눈길이 멀리 뻗어 나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계곡과 맞은편 언덕의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졌다. 언덕들은 긴 숲 줄기로 덮여 있었고, 간간이 개울의 일부도 보였다. 가드너 씨는 공원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보고 싶다고 했지만, 그렇게 걷기에는 너무 멀지 않을까 걱정했다. 정원사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한 바퀴가 십 마일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들은 늘 다니는 순회로를 따라갔다. 한참 뒤 그 길은 늘어진 숲이 우거진 내리막을 지나, 강폭이 가장 좁은 곳 가운데 하나인 물가로 그들을 데려갔다. 그들은 주변 풍경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소박한 다리를 건넜다. 그곳은 지금까지 들른 어느 곳보다 덜 꾸며진 곳이었다. 여기서 계곡은 좁은 골짜기로 줄어들어, 개울과 그 가장자리를 두른 거친 덤불 숲 사이의 좁은 길을 겨우 내줄 뿐이었다.

엘리자베스는 그 굽이굽이를 탐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다리를 건넌 뒤 집과의 거리를 알아차린 가드너 부인은 많이 걷는 편이 아니었기에 더 걸어갈 수 없었고, 되도록 빨리 마차로 돌아갈 생각밖에 하지 못했다. 그래서 조카딸도 어쩔 수 없이 그 뜻을 따라야 했고, 그들은 강 건너편의 집을 향해 가장 가까운 길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나아가는 속도는 느렸다. 가드너 씨는 그 취미를 즐길 기회가 드물었지만 낚시를 무척 좋아해서, 물속에 간간이 나타나는 송어를 지켜보고 그것에 대해 정원사와 이야기하느라 거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느릿느릿 걷고 있을 때, 그들은 또다시 놀랄 일을 겪었다. 이번에도 엘리자베스의 놀라움은 처음만큼이나 컸다. 다아시 씨가 멀지 않은 곳에서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쪽 길은 건너편보다 가려진 곳이 적어서, 그들이 만나기 전에 그를 먼저 볼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놀라기는 했지만, 이전보다는 대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가 정말로 그들을 만나려 한다면 침착한 모습으로 말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잠시 동안은 그가 아마 다른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느끼기도 했다. 그 생각은 길이 굽어져 그가 시야에서 사라져 있는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굽이를 지나자 그는 곧바로 그들 앞에 있었다. 그녀는 한눈에 그가 최근의 예의를 조금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의 공손함을 흉내 내어, 그녀는

마주치자마자 그곳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훌륭하다", "매혹적이다"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공교로운 기억들이 불쑥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펨벌리를 칭찬하는 말이 짓궂게 해석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얼굴빛이 변했고,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가드너 부인은 조금 뒤에 서 있었는데, 엘리자베스가 말을 멈추자 그는 자신을 그녀의 일행에게 소개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는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의였고, 그녀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가 자신에게 청혼하면서 그토록 자존심 상해하며 꺼렸던 바로 그 사람들과 이제 와서 교제를 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면 그가 얼마나 놀랄까," 그녀는 생각했다. "지금은 그들을 상류 사회 사람들로 여기고 있겠지."

그러나 소개는 곧바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그들과 자신의 관계를 밝히면서 그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려고 슬쩍 곁눈질을 했다. 그런 불명예스러운 동행들에게서 그가 최대한 빨리 달아나 버리리라 기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가 이 관계에 놀랐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는 꿋꿋이 견뎌 냈고, 달아나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되돌아와 가드너 씨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는 기쁘지 않을 수

없었고, 승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도 얼굴을 붉힐 필요가 없는 친척들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모든 말에 가장 열심히 귀를 기울였고, 외삼촌의 총명함이나 안목, 훌륭한 예절을 드러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대화는 이내 낚시 이야기로 넘어갔고,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씨가 지극히 예의 바른 태도로, 그 근처에 머무는 동안 원하는 만큼 언제든 이곳에서 낚시를 하라고 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낚싯대를 빌려주겠다고 하며, 개울에서 보통 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 곳들을 가리켰다. 엘리자베스와 팔짱을 끼고 걷던 가드너 부인은 놀란 기색이 역력한 눈길을 그녀에게 보냈다. 엘리자베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몹시 흐뭇했다. 그 칭찬은 전부 자신을 향한 것임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놀라움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계속 속으로 되뇌었다.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나 때문일 리가 없어. 그의 태도가 이렇게 누그러진 것이 나 때문일 리는 없어. 헌스퍼드에서 내가 했던 책망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 리가 없어. 그가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해.”

그렇게 한동안 걷다가, 앞쪽의 두 여자와 뒤쪽의 두 남자가 제자리로 돌아갈 때 우연히 작은 변화가 생겼다. 특이한 물풀을 더 자세히 보려고 강가까지 내려갔다가 돌아온 참이었다. 이 변화는 가드너 부인에게서 비롯되었다. 아침나절 걸은 탓에 피곤해진 그녀는 엘리자베스의 팔로는 몸을 지탱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남편의 팔을 택했다. 다아시 씨가 조카딸 곁의 자리를 맡았고,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먼저 입을 연 쪽은 엘리자베스였다. 그녀는 이곳에 오기 전에 그가 집에 없다는 확언을 들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 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가 뜻밖에 나타났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꺼냈다. “댁의 가정부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분명 내일이 되어서야 여기 오실 거라고 했거든요. 사실 베이크웰을 떠나기 전에도 우리는 당신이 곧 이 지방에 오실 예정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는 그 모든 말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집사와 볼일이 있어서 함께 여행하던 일행보다 몇 시간 앞서 왔다고 말했다. “그들은 내일 아침 일찍 나와 합류할 겁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중에는 당신과 구면이라 인사를 청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빙리 씨와 그의 누이들이지요.”

엘리자베스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으로만 대답했다. 그녀의 생각은 곧바로 두 사람 사이에서 빙리 씨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거론되었던 때로 되돌아갔다. 그의 안색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그의 마음도 그리 다른 생각에 잠겨 있지는 않은 듯했다.

"그리고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 말했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당신과 알고 지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램턴에 머무시는 동안 제 누이동생을 당신께 소개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과한 부탁인가요?"

그런 부탁을 받으니 놀라움이 실로 컸다. 너무 커서 그녀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녀는 곧바로, 다아시 양이 자신과 알고 지내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오빠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 틀림없다고 느꼈고,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그 사실에 흡족했다. 그의 분노가 자신을 정말로 나쁘게 여기게 만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기뻤다.

그들은 이제 말없이 걸었고, 두 사람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편하지 않았다. 편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우쭐하고 기뻤다. 그가 누이를 그녀에게

소개하려는 것은 최고의 찬사였다. 두 사람은 곧 다른 이들을 앞질렀고, 마차에 이르렀을 때 가드너 씨 부부는 팔분의 일 마일쯤 뒤처져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에게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청했다. 그러나 그녀는 피곤하지 않다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잔디밭에 함께 서 있었다. 이런 때라면 할 말이 많았을 테고, 침묵은 몹시 어색했다. 그녀는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어떤 화제도 입 밖에 내기가 꺼려지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여행을 다녔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두 사람은 매틀록과 도브데일 이야기를 꽤 끈질기게 이어 갔다. 그래도 시간도 외숙모도 더디게 움직였고, 그녀의 인내심과 할 말은 이 단둘의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거의 바닥나 버렸다.

가드너 씨 부부가 다가오자, 그는 일행 모두에게 집 안에 들어가 다과를 들라고 간곡히 권했다. 그러나 그들은 사양했고, 양쪽 모두 최대한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나눴다. 다아시 씨가 두 숙녀를 마차에 태웠고, 마차가 떠날 때 엘리자베스는 그가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가드너 씨 부부의 감상이 이제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하나같이 그가 자신들이 기대했던 어떤 것보다도 한없이 뛰어나다고 평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예의 바르고, 공손하며,
겸손하더구나." 외삼촌이 말했다.

"물론 그에게는 어딘가 위엄 있는 데가 조금 있더구나."
외숙모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그의 풍채에만 드러나는
것이고,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 이제 나도 가정부와
같은 말을 할 수 있겠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를 오만하다고
할지 몰라도, 나는 그런 모습은 본 적이 없어."

"그가 우리에게 보여 준 태도만큼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없었어. 그건 예의 바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세심했어.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었는데 말이야. 그와
엘리자베스의 교분은 아주 하찮았잖아."

"하긴, 리지." 외숙모가 말했다. "그는 위컴만큼 잘생기진
않았어. 아니, 위컴 같은 인상은 아니라고 해야겠구나. 그의
이목구비는 흠잡을 데 없이 반듯하거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불쾌한 사람이라고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했던 거니?"

엘리자베스는 할 수 있는 한 변명했다. 켄트에서 만났을 때는
전보다 그를 더 좋게 여겼고, 오늘 아침처럼 그가 유쾌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예의를 차리는 데 조금 변덕스러울지도 모르지." 외삼촌이 대답했다. "지체 높은 양반들은 흔히 그렇거든. 그러니 낚시 얘기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겠다.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 땅에 들어오지 말라고 나를 막을지도 모르니까."

엘리자베스는 그들이 그의 성격을 완전히 잘못 짐작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으로 판단하면," 가드너 부인이 이어 말했다. "그가 불쌍한 위컴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누군가를 대했으리라고는 정말 생각할 수 없었을 거야. 그는 심술궂어 보이지 않아. 오히려 말할 때 입가에 호감 가는 데가 있어. 얼굴에도 위엄이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씨가 나쁘리라는 인상은 주지 않아. 그렇지만 집을 구경시켜 준 그 착한 부인이 그에 대해 아주 열띤 칭찬을 했던 건 사실이야! 가끔은 소리 내어 웃음이 터질 뻔했어. 하지만 그가 너그러운 주인인 건 분명하겠지. 하인의 눈에는 그게 온갖 미덕을 다 아우르는 거니까."

엘리자베스는 여기서 위컴에 대한 다아시의 행동을 변호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켄트에서 다아시의 친척들에게서 들은 바로는 그의 행동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그의 성격이 하트퍼드셔에서 여겨진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위컴의 성격이 그렇게 좋지도 않다는 것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알렸다. 그 증거로 그녀는 두 사람이 얽혔던 금전 거래의 모든 세부 사항을 이야기했다. 출처를 실제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들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드너 부인은 놀랐고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녀가 예전에 즐겁게 지냈던 곳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모든 생각은 추억의 매력에 밀려났다. 그녀는 남편에게 주변의 흥미로운 곳들을 하나하나 가리켜 보이느라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아침 산책으로 지쳐 있었지만, 식사를 마치자마자 그녀는 옛 지인들을 찾아 다시 길을 나섰고, 저녁은 여러 해 끊겼던 교분이 되살아난 기쁨 속에서 흘러갔다.

그날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흥미로워서 엘리자베스는 이 새로운 친구들에게 신경 쓸 틈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다아시 씨의 친절함을, 무엇보다도 그가 그녀를 자기 누이와 알고 지내게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놀랄 뿐이었다.

제44장



휴 톰슨, 「모두에게 상냥하게 대하려고」(1894년 판 삽화)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씨가 여동생이 펨벌리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그녀를 데리고 자기를 찾아오리라고 정해 두었고, 따라서 그날 오전 내내 여관 근처를 떠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 짐작은 빗나갔다. 그들 일행이 램턴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그 손님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새로 사귄 사람들과 함께 마을을 거닐다가 그 사람들 집에서 저녁을 먹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고 막 여관으로 돌아온 참이었다. 그때 마차 소리가 들려 창가로 다가가 보니, 신사 한 명과 숙녀 한 명이 두 필 말이 끄는 가벼운 마차를 타고 거리를 올라오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마부의 제복을 보고 곧바로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고, 자신이 기대한 그 영광스러운 방문을 가족들에게 알리자 그들은 적지 않게 놀랐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어안이 벙벙했다. 엘리자베스가 말할 때 드러난 당혹스러운 태도, 그 상황 자체, 그리고 전날 있었던 여러 정황이 합쳐져 그들에게 이 일에 관한 새로운 생각을 떠오르게 했다.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든 적이 없었지만, 이제 그들은 그토록 높은 곳에서 그런 배려를 받는 이유가 그가 조카딸에게 호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느꼈다. 이런 새로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오가는 동안에도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점점 더 동요했다. 그녀는 스스로도 자신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에 놀랐지만, 다른 여러 걱정거리 가운데서도 특히 다아시 씨가 자기에 대해 지나치게 좋게 말했을까 봐 두려웠다.

게다가 유난히 기쁘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 있었기에, 자신이 상대를 기쁘게 할 모든 능력을 잃어버릴 것만 같다고 자연스럽게 의심했다.

그녀는 들킬까 두려워 창가에서 물러섰다.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방 안을 서성이는 동안, 외삼촌과 외숙모의 얼굴에 떠오른 의아한 놀람을 보자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다아시 양과 그녀의 오빠가 모습을 드러냈고, 이 두려운 소개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엘리자베스는 새로 만난 상대가 적어도 자기만큼이나 당황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램턴에 온 뒤로 그녀는 다아시 양이 몹시 자존심이 세다고 들어 왔지만, 불과 몇 분 지켜보니 그녀는 그저 몹시 수줍음이 많을 뿐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양에게서 짤막한 단답 이상의 말을 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아시 양은 키가 크고 엘리자베스보다 체격이 컸다. 열여섯 살을 조금 넘었을 뿐이었지만 몸매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모습은 어른스럽고 우아했다. 얼굴 생김새는 오빠만큼 빼어나지 않았으나 얼굴에는 총명함과 상냥함이 깃들어 있었고, 태도는 더없이 꾸밈없고 온화했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씨만큼이나 날카롭고 거리낌 없는 관찰자를 만나리라 예상했었는데, 상대의 마음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고는 크게 안도했다.

함께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아시가 빙리도 그녀를 찾아올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엘리자베스가 기쁨을 표현하고 그런 손님을 맞을 채비를 하기도 전에 계단에서 빙리의 빠른 발소리가 들렸고, 곧 그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엘리자베스가 그에게 품었던 분노는 오래전에 이미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설령 그런 감정이 아직 남아 있었더라도, 그녀를 다시 만난 빙리가 꾸밈없이 따뜻하게 건네는 인사 앞에서는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가족에 대해 두루뭉술하지만 다정하게 안부를 물었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선량하고 편안한 표정과 말투를 보였다.

가드너 씨 부부에게도 그는 엘리자베스 자신에게 못지않게 흥미로운 인물이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그를 한번 보고 싶어 했었다. 실제로 그들 앞에 있는 일행 전체가 생생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다아시 씨와 조카딸 사이에 대한 의심이 막 생겨났기에, 그들은 신중하면서도 진지한 눈길로 두 사람을 한 명씩 살폈다. 그리고 그런 살핌을 통해 그들은 곧 둘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확신에 이르렀다. 여자 쪽의 속마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남자 쪽이 감탄으로 넘쳐흐르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분명했다.

엘리자베스도 할 일이 많았다. 방문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내야 했고, 자기 마음부터 가라앉히면서 모두에게 호감을 주어야 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실패할까 봐 두려워한 바로 그 일에서 오히려 성공을 가장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가 기쁘게 해 주려고 애쓴 사람들이 이미 그녀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빙리는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조지애나는 기뻐하고 싶어 안달이 났으며, 다아시는 기뻐하기로 마음먹었다.

엘리자베스는 빙리를 보자 자연스럽게 언니 제인을 떠올렸고, 아, 그가 자기처럼 제인을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히 알고 싶었는지 모른다. 때로는 그가 예전보다 말수가 적은 것 같기도 했고, 한두 번은 그가 자신을 바라보며 닮은 데를 찾으려 애쓰는 중이라고 상상해 보며 기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이 상상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제인의 경쟁자로 내세워졌던 다아시 양을 대하는 그의 태도만큼은 잘못 볼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호감을 드러내는 눈빛이 조금도 오가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일어난 일 가운데 그의 누이가 품었던 희망을 정당화할 만한 것은 없었다. 이 점은 곧

확인되었다. 헤어지기 전에 두세 가지 작은 일이 더 있었는데, 엘리자베스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해석하기에, 그것은 제인에 대한 기억이 다정함을 머금고 있다는 뜻이었고, 용기만 있었다면 제인을 화제로 삼았을 법한 말을 더 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는 정말로 아쉬워하는 기색이 섞인 어조로 그녀에게 "뵌 지가 정말 오래되었군요"라고 말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덧붙였다. "여덟 달이 넘었어요. 우리 모두 네더필드에서 함께 춤을 추던 11월 26일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요."

엘리자베스는 그가 그토록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뻤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틈을 타 그녀에게 자매들이 모두 롱본에 있는지 물었다. 그 질문에도, 앞서 한 말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눈빛과 태도가 그 말에 뜻을 실어 주었다.

좀처럼 그녀는 다아시 씨 본인을 바라볼 수 없었다. 그러나 가끔 힐끗 볼 때마다 그에게서 누구에게나 공손한 표정을 보았고, 그가 하는 말마다 동석한 사람들을 얕보거나 업신여기는 기색과는 거리가 먼 어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어제 목격한 예절의 변화가 아무리 잠깐 가는 것일지라도 적어도 하루는 지속되었다고 확신했다. 불과 몇

달 전이라면 어떤 교제도 수치가 되었을 사람들과 친분을 맺으려 하고 그들의 호감을 얻으려 애쓰는 그를 보자니,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뿐 아니라 얼마 전 공공연히 멸시했던 친척들에게까지 정중하게 구는 모습을 보자니, 헌스퍼드 목사관에서 있었던 지난번 격렬한 장면이 떠올랐다. 그 차이와 변화는 너무도 커서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쳤고, 그녀는 놀라움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을 거의 참을 수 없었다. 네더필드의 그의 소중한 친구들 곁에서도, 로징스의 위엄 있는 친척들 곁에서도, 그녀는 그가 지금처럼 남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고, 거드름이나 굽힐 줄 모르는 냉담함을 이토록 벗어던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노력이 성공한다 해도 아무 이득이 없고, 그가 정중히 대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네더필드와 로징스 두 집안의 숙녀들에게서 비웃음과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한 지금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방문객들은 그들과 함께 반 시간이 넘게 머물렀다. 그들이 떠나려고 일어섰을 때, 다아시 씨는 누이를 불러 가드너 씨 부부와 베넷 양을 펨벌리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는 뜻을 함께 전하자고 했다. 가드너 씨 일행이 이 지방을 떠나기 전에 그러고 싶다는 것이었다. 다아시 양은 초대를 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는 머뭇거림을 보이면서도 선뜻 오빠의 말을 따랐다. 가드너 부인은 그 초대와 가장 관련이 깊은 조카딸이 수락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알고 싶어

엘리자베스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돌려 버렸다. 하지만 그처럼 일부러 피하는 모습은 이 제안이 싫어서라기보다 순간적인 당혹감을 드러낸다고 가드너 부인은 짐작했다. 사교를 좋아하는 남편도 기꺼이 받아들일 뜻이 분명했으므로, 가드너 부인은 조카딸의 참석까지 대신 약속했고, 모레로 날짜가 정해졌다.

빙리는 엘리자베스를 다시 만난다는 확실함에 크게 기뻐했다. 아직 그녀에게 할 말이 많았고, 하트퍼드셔의 친구들 안부도 여러 가지 더 묻고 싶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이 모든 것을 그가 그녀의 입으로 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해석했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그 점과 또 다른 몇 가지 이유로, 방문객들이 떠났을 때 그녀는 방금 지나간 반 시간을 어느 정도 흡족하게 돌아볼 수 있었다. 그 시간이 흘러갈 때는 즐거움이 거의 없었지만 말이다. 그녀는 혼자 있고 싶었고, 외삼촌과 외숙모의 질문이나 눈치 주는 말이 두려워서, 빙리에 대한 그들의 좋은 평가를 들을 만큼만 머물다가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

그러나 가드너 씨 부부의 호기심을 두려워할 까닭은 없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억지로 털어놓게 할 생각이 없었다. 조카딸이 다아시 씨를 그들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고, 그가 그녀를 몹시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했다. 그들의 눈에는 흥미를 끄는 것이 많이 보였지만, 캐묻기를 정당화할 만한 것은 없었다.

이제 그들은 다아시 씨를 좋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리고 그들이 아는 범위 안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들도 그의 예의 바름에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그들이 다른 누구의 이야기도 참고하지 않고 자기들의 느낌과 하인의 보고만으로 그의 사람됨을 그려 보았다면, 그를 알고 있던 하트퍼드셔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려진 인물을 다아시 씨라고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부의 말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그들은 곧 네 살 때부터 그를 알아 왔고 몸가짐에서도 점잖음이 드러나는 하인의 말이라면 함부로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램턴의 친구들이 전해 준 소식에도 그 무게를 크게 줄일 만한 것은 없었다. 그에게 탓할 것이라고는 오만뿐이었다. 그는 아마 오만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집안이 교제하지 않는 작은 소도시 주민들은 틀림없이 그가 오만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씀씀이가 후한 사람이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많은 선행을 한다는 것은 인정되었다.

위컴에 대해서는 여행자들이 곧 그곳에서 그가 그다지 높이 평가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후원자의 아들과 얽힌 일의 대부분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더비셔를 떠날 때 많은 빚을 남겼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고, 그 빚은 나중에 다아시 씨가 갚아 주었다.

엘리자베스로 말하자면, 이날 저녁 그녀의 생각은 전날 저녁보다 더 펨벌리에 가 있었다. 저녁 시간은 흘러가는 동안에는 길게 느껴졌지만, 그 저택에 사는 한 사람을 향한 자기 감정을 정하기에는 충분히 길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두 시간 내내 잠들지 못하고 그 감정을 알아내려 애썼다. 그녀가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분명했다. 아니, 미움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녀는 그만큼 오래전부터, 미움이라 부를 만한 반감을 한때 그에게 품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해 왔다. 그의 값진 자질에 대한 확신에서 생긴 존경심은 처음에는 마지못해 인정되었지만, 얼마 전부터는 그녀의 마음에 거슬리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어제 그에게 아주 유리하게, 그의 성품을 그토록 사랑스러운 빛에서 보여 주는 증언이 나온 덕분에, 그 존경심은 이제 얼마간 더 친밀한 종류의 감정으로 높아져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존경과 존중보다 더 위에, 무시할 수 없는 호의의 동기가 그녀 안에 있었다. 그것은 감사였다. 한때 그녀를 사랑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그를 거절하면서 보인 모든 짜증과

신랄함, 그리고 거절에 따랐던 모든 부당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를 충분히 사랑하여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자신을 가장 큰 적처럼 피할 것이라고 그녀가 확신했던 그가, 이 우연한 만남에서는 오히려 교제를 이어 가려고 가장 열심이었다. 두 사람만 관련된 자리에서도 무례하게 애정을 드러내거나 유별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그는 그녀 친척들의 좋은 평가를 얻으려 했고, 그녀를 자기 누이에게 소개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토록 자존심 센 사람에게서 나타난 그런 변화는 놀라움을 넘어 감사를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사랑, 뜨거운 사랑 때문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인상은 그녀에게 격려할 만한 종류의 것이었고, 정확히 규정할 수는 없어도 결코 불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존중하고 존경했으며, 그에게 감사했고, 그의 행복에 진정한 관심을 느꼈다. 다만 그녀가 알고 싶었던 것은, 그 행복이 자기에게 얼마나 달려 있기를 바라는지, 그리고 그녀의 상상이 아직 자신이 지니고 있다고 말해 주는 힘, 곧 그의 청혼을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쓰는 것이 두 사람 모두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좋은 일인지였다.

저녁에 외숙모와 조카는 이렇게 정했다. 다아시 양이 펨벌리에 도착한 바로 그날, 그것도 늦은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춰 도착했는데도 곧장 찾아와 준 그 눈에 띄는 예의는,

똑같이 해 줄 수는 없어도 이쪽도 얼마간 예의를 차려 흉내 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다음 날 아침 펨벌리로 그녀를 찾아가 인사하는 것이 무척 바람직하다는 결론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가기로 했다. 엘리자베스는 기뻤다. 하지만 왜 기쁜지 스스로 물었을 때는 대답할 말이 거의 없었다.

가드너 씨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과 헤어졌다. 낚시 계획은 전날 다시 이야기되었고, 그는 정오까지 펨벌리의 신사 몇 명을 만나기로 확실히 약속해 두었다.

제45장



휴 톰슨, 제45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엘리자베스는 이제 빙리 양이 자신을 싫어하게 된 것이 질투에서 비롯되었다고 확신했으므로, 자신이 펨벌리에 나타나는 것이 빙리 양에게 얼마나 달갑지 않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아가씨 쪽에서 얼마나 예의 바르게 교제를 다시 이어 갈지 궁금했다.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현관홀을 지나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북쪽을 향한 이 방은 여름에 쾌적했다. 땅까지 닿는 창문으로는 집 뒤편의 나무가 우거진 높은 언덕과, 그 사이 잔디밭에 흩어져 있는 아름다운 참나무와 서양밤나무가 한껏 상쾌하게 내다보였다.

이 방에서 그들을 맞이한 사람은 다아시 양이었다. 그녀는 허스트 부인, 빙리 양, 그리고 런던에서 함께 지내는 부인과 함께 그곳에 앉아 있었다. 조지애나는 그들을 아주 예의 바르게 맞이했지만, 그 태도에는 어색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것은 수줍음과 잘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으나, 스스로 열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그녀가 거만하고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믿게 하기 쉬웠다. 그러나 가드너 부인과 그 조카는 그녀를 공정하게 평가했고, 그녀를 가엾게 여겼다.

허스트 부인과 빙리 양은 그들에게 그저 예의상 눈길만 줄 뿐이었다. 자리에 앉자 어색할 수밖에 없는 침묵이 잠시 이어졌다. 그 침묵을 처음 깬 사람은 앤슬리 부인이었다. 품위 있고 호감 가는 인상의 그녀는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 가려 애썼고, 그 노력으로 허스트 부인이나 빙리 양보다 참으로 더 교양 있는 사람임을 보여 주었다. 그녀와 가드너 부인이 대화를 이어 갔고, 가끔 엘리자베스도 거들었다. 다아시 양은 대화에 끼어들 용기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듯 보였고, 남들이 들을 위험이 가장 적을 때에는 짧은 말을 한두 마디 감히 건네기도 했다.

엘리자베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빙리 양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한마디만 해도, 특히 다아시 양에게 말을 걸면 빙리 양의 주의를 끌게 될 것이라는 점도 깨달았다. 이 사실 때문에 다아시 양에게 말을 걸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두 사람이 불편할 만큼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그러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그리 아쉽지는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언제든 신사들 가운데 누군가가 방으로 들어오리라 예상했다. 집주인이 그 가운데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한편, 그럴까 봐 두렵기도 했다. 그가 오기를 더 바라는지 두려워하는지조차 그녀는 분명히 가릴 수 없었다. 빙리 양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채 십오 분쯤

그렇게 앉아 있다가, 엘리자베스는 빙리 양이 던진 차가운 질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빙리 양은 그녀의 가족 안부를 물었다. 엘리자베스도 똑같이 무심하고 짧게 대답했고, 빙리 양은 더 말을 하지 않았다.

방문 중에 생긴 다음 변화는 하인들이 찬 고기, 케이크, 제철의 가장 좋은 과일 여러 가지를 들여오면서 일어났다. 하지만 이것은 앤슬리 부인이 다아시 양에게 안주인으로서 할 일을 일깨우려고 의미심장한 눈길과 미소를 여러 번 보낸 뒤에야 이루어졌다. 이제 일행 모두에게 할 일이 생겼다. 모두가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모두 먹을 수는 있었기 때문이다. 포도, 천도복숭아, 복숭아를 아름답게 쌓아 올린 피라미드가 곧 그들을 식탁 둘레로 모이게 했다.

그렇게 음식을 먹는 동안, 다아시 씨가 방에 들어섰을 때 엘리자베스는 어떤 감정이 앞서는지 살펴보고 자신이 그의 등장을 더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더 바라는지 가릴 좋은 기회를 얻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고 믿었는데, 그가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얼마 동안 가드너 씨와 함께 있었는데, 가드너 씨는 그 집에 머무는 다른 신사 두세 명과 함께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는 가드너 씨 댁 숙녀들이 그날 아침 조지애나를

방문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서야 가드너 씨 곁을 떠났다. 그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엘리자베스는 현명하게도 완전히 편안하고 거리낌 없이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결심이 더욱 필요했지만, 그렇다고 그 결심을 지키기가 더 쉬운 것은 아니었다. 모두가 두 사람을 의심하는 눈치였고, 그가 처음 방에 들어올 때 그의 행동을 지켜보지 않는 눈길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빙리 양만큼 주의 깊은 호기심이 얼굴에 뚜렷이 드러난 사람은 없었다. 그 호기심의 대상인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말을 걸 때든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는데도 그랬다. 질투 때문에 아직 자포자기하지는 않았고, 다아시 씨의 환심을 사려는 노력도 결코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아시 양은 오빠가 들어오자 훨씬 더 열심히 말을 하려고 애썼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여동생과 자신이 서로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양쪽에서 대화를 이어 보려는 시도를 가능한 한 모두 도왔다. 빙리 양도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분노에서 나온 경솔함으로 첫 기회가 오자마자 비꼬는 듯한 공손함을 섞어 이렇게 말했다.

—

"그런데 일라이자 양, ——셔 민병대가 메리턴에서 옮겨 가지 않았나요? 댁의 집안에는 큰 손실이겠어요."

다아시 앞에서 그녀는 감히 위컴의 이름을 꺼내지 못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빙리 양의 머릿속이 위컴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고, 그와 얽힌 여러 기억 때문에 잠시 괴로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심술궂은 공격을 물리치려고 힘껏 애쓰며, 곧 꽤 덤덤한 어조로 질문에 대답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무심코 던진 눈길에, 얼굴이 붉어진 다아시가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모습과, 그의 여동생이 당황해서 눈을 들지 못하는 모습이 들어왔다. 빙리 양이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고 있는지 알았더라면, 분명 그런 암시는 삼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엘리자베스가 마음을 두고 있다고 자기가 믿는 남자의 이야기를 꺼내서 그녀를 당황하게 하고, 다아시의 눈에 그녀를 나쁘게 보이게 할 만한 감정을 드러내게 하려 했을 뿐이었다. 아마 다아시에게 엘리자베스 집안 사람 몇몇이 그 연대와 얽힌 온갖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일들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다아시 양이 계획했던 도피 행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빙리 양의 귀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비밀을 지킬 수 있었던 경우에는 엘리자베스 말고는 누구에게도 그 일이 알려지지 않았다. 다아시는 빙리 집안 사람들 누구에게도 그 일을 알리지 않으려고 특히 애썼는데, 그것은 엘리자베스가 오래전에 그에게 돌렸던 바로 그 바람, 곧 빙리 집안 사람들이 훗날

누이동생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는 분명 그런 계획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빙리를 베넷 양에게서 떼어 놓으려는 노력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더라도, 아마 친구의 행복을 걱정하는 그의 열의에 무언가를 더했을 것이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침착한 태도에 그의 감정은 곧 가라앉았다. 빙리 양은 짜증과 실망에 사로잡혀 위컴 이야기를 더 꺼낼 엄두를 내지 못했으므로, 조지애나도 이윽고 기운을 되찾았지만 더는 말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었다. 그녀가 눈을 마주치기를 두려워하던 오빠는 이 일에 그녀가 얽혀 있다는 사실을 거의 떠올리지 못했다. 엘리자베스에게서 그의 생각을 돌리려고 꾸민 바로 그 상황이, 오히려 그의 생각을 그녀에게 더욱더 기쁘게 붙들어 맨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방문은 앞서 말한 질문과 대답이 오간 뒤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다아시 씨가 그들을 마차까지 배웅하는 동안, 빙리 양은 엘리자베스의 외모, 태도, 옷차림을 흉보며 속엣말을 쏟아냈다. 그러나 조지애나는 그 말에 가담하지 않았다. 오빠가 추천한 것만으로도 그녀의 호감을 얻기에 충분했다. 오빠의 판단이 잘못될 리 없었고, 그는 엘리자베스를 이야기할 때 조지애나가 그녀를 사랑스럽고

상냥한 사람으로밖에 볼 수 없게 할 만큼 칭찬했던 것이다. 다아시가 응접실로 돌아왔을 때, 빙리 양은 자기가 조지애나에게 했던 말의 일부를 그에게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아시 씨, 오늘 아침 일라이자 베넷이 얼마나 안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외쳤다. "지난겨울 이후로 그 사람만큼 많이 변한 사람은 평생 본 적이 없어요. 얼굴이 그렇게 검게 타고 거칠어졌더라고요! 루이자와 저도 그 사람을 다시 보고는 못 알아봤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다아시 씨는 그런 말투가 달갑지 않았겠지만, 그는 그저 차분하게 대답하는 데 그쳤다. 그가 알아본 변화라고는 그녀가 조금 그을렸다는 것뿐이며, 그것도 여름에 여행을 다녔으니 기적이랄 것도 없는 결과라고 했다.

"저로서는," 그녀가 되받았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사람에게서 아름다움을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얼굴이 너무 야위었고, 안색에는 윤기가 없고, 이목구비도 전혀 예쁘지 않아요. 코는 개성이 없고 선에 두드러진 데가 없어요. 치아는 봐줄 만하지만 특별할 것은 없고, 가끔 그렇게 근사하다고들 하는 눈은 저로서는 조금도 특별하다고 느낄 수 없었어요.

날카롭고 바가지 긁는 듯한 눈빛이라 저는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도 세련되지 못한 자만심이 느껴지는데, 그게 참을 수 없을 만큼 거슬려요."

빙리 양은 다아시가 엘리자베스를 좋아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말투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그러나 화가 난 사람이 늘 현명하지는 않은 법이다. 마침내 그가 조금 성가셔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녀는 기대했던 효과를 모두 거둔 셈이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자 그녀는 그가 말을 하게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이렇게 이어 갔다.

"저는 우리가 하트퍼드셔에서 그 사람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 그 사람이 미인으로 평판이 높다는 걸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기억해요. 특히 한번은 그들이 네더필드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간 뒤 당신이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저 여자가 미인이라고? 그럼 차라리 그 어머니를 재치 있다고 부르겠어.'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당신 눈에 점점 나아 보였는지, 당신도 한때는 그 사람을 꽤 예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다아시가 더는 참지 못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내가 그 사람을 처음 알았을 때뿐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아는 여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축에 든다고 생각해 온 지는 벌써 여러 달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자리를 떴고, 빙리 양은 자기 말고는 누구에게도 아픔을 주지 않은 말을 그에게서 억지로 끌어냈다는 만족감을 실컷 누리게 되었다.

가드너 부인과 엘리자베스는 돌아오는 길에 방문 중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특히 흥미로웠던 대목은 빼놓았다. 만났던 모든 사람의 표정과 행동은 이야기했지만, 두 사람의 주의를 가장 많이 끌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누이, 친구들, 집, 과일 등 그 사람 자신만 빼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런데도 엘리자베스는 가드너 부인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애가 탔고, 가드너 부인은 조카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 주었다면 크게 기뻐했을 것이다.

제46장



휴 톰슨, 「한시도 지체할 수 없어요」(1894년 판 삽화)

엘리자베스는 램턴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인의 편지가 없어서 꽤 실망했고, 그 뒤로 그곳에서 보낸 아침마다 같은 실망이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셋째 날에 이르러 그녀의 투덜거림은 끝났고, 언니를 탓할 일도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제인에게서 편지가 두 통이나 한꺼번에 왔는데, 그중 한 통에는 다른 곳으로 잘못 보내졌다는 표시가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놀라지 않았다. 제인이 겉봉의 주소를 유난히 엉망으로 써 놓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편지가 도착할 무렵 막 산책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엘리자베스가 조용히 편지를 읽도록 두고 둘이서만 먼저 출발했다. 잘못 보내진 편지를 먼저 읽어야 했다. 그것은 닷새 전에 쓰인 편지였다. 첫머리에는 그들이 함께한 자잘한 모임과 약속들, 그리고 시골에서 들을 만한 소식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하루 뒤에 쓰였고 분명히 흥분한 기색으로 적힌 뒷부분에는 더 중요한 소식이 담겨 있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위의 글을 쓴 뒤에, 사랑하는 리지, 가장 뜻밖이고 심각한 일이 생겼어. 그래도 너를 놀라게 할까 걱정이구나. 우리는 모두 무사하다는 것만은 믿어 줘. 내가 할 말은 가엾은 리디아에 관한 거야. 어젯밤 열두 시에 우리가 모두 막 잠자리에 들었을 때 포스터 대령에게서 급사가 왔어.

리디아가 그쪽 장교 한 명과 함께 스코틀랜드로 떠나 버렸다고 알려 왔지. 솔직히 말하면 위컴과 함께야! 우리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봐. 하지만 키티에게는 그렇게 전혀 뜻밖의 일은 아닌 것 같아. 나는 정말, 정말 유감이야. 양쪽 모두에게 그렇게 경솔한 결혼이라니! 그래도 나는 최선을 바라고 싶어. 그의 인품이 오해받았을지도 모른다고. 그가 생각이 없고 분별이 부족하다는 건 쉽게 믿을 수 있어. 하지만 이 일(그리고 이것을 두고 기뻐하자)은 마음속에 나쁜 뜻이 있다는 증거는 아니야. 적어도 그의 선택은 사심이 없는 거야. 아버지가 리디아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건 그도 알고 있을 테니까. 가엾은 어머니는 몹시 상심하셨어. 아버지는 더 잘 견디고 계셔. 부모님께 그를 두고 들은 나쁜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도 그 일은 잊어버려야 해. 짐작하기로는 토요일 밤 열두 시쯤 떠난 것 같은데, 어제 아침 여덟 시가 되어서야 없어진 것을 알았어. 대령은 곧바로 급사를 보냈대. 사랑하는 리지, 그들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불과 십 마일 안쪽을 지나갔을 거야. 포스터 대령이 곧 직접 이곳에 올 것 같아. 리디아는 포스터 부인에게 그들의 계획을 알리는 몇 줄을 남겼어. 나는 이만 줄여야겠어. 가엾은 어머니 곁을 오래 비울 수 없거든. 네가 읽어 내기 힘들 것 같아 걱정이야. 사실 내가 무엇을 썼는지도 잘 모르겠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엘리자베스는 이 편지를 다 읽자마자 곧바로 다른 한 통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극도로 조급한 마음으로 봉투를 뜯고 다음과 같이 읽었다. 그것은 첫 편지가 끝난 날보다 하루 뒤에 쓰인 것이었다.

"지금쯤이면, 사랑하는 동생아, 너는 내가 급히 쓴 편지를 받았을 거야. 이 편지는 더 분명하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시간에 쫓기지는 않지만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조리 있게 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구나. 사랑하는 리지,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너에게 나쁜 소식이 있고, 그것을 미룰 수는 없어. 위컴 씨와 가엾은 리디아의 결혼이 아무리 경솔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그 결혼이 실제로 치러졌는지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어. 그들이 스코틀랜드로 갔다고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거든. 포스터 대령이 어제 왔어. 그 전날, 급사가 떠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브라이턴을 떠났대. 리디아가 포스터 부인에게 짧게 남긴 편지는 그들이 그레트나 그린으로 간다고 알려 주었지만, 데니가 위컴이 처음부터 그곳에 갈 생각도, 리디아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던 것 같다고 흘린 말이 있었어. 그 말이 포스터 대령에게 전해지자 대령은 즉시 불안해져서 브라이턴을 떠나 그들의 행로를 뒤쫓기로 했지. 대령은 클래펌까지는 쉽게 흔적을 찾았지만 그 너머로는 더 이상 찾지 못했어. 그 마을에

들어서자 그들이 삯마차로 갈아타고, 엡섬에서 타고 온 마차를 돌려보냈기 때문이야. 그 뒤로 알려진 것은 그들이 런던 길로 계속 갔다는 것뿐이야.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 포스터 대령은 런던 쪽에서 가능한 모든 탐문을 마친 뒤 하트퍼드셔로 올라왔고, 가는 길목의 유료 도로 관문마다, 그리고 바넷과 해트필드의 여관마다 초조하게 다시 물었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어. 그런 사람들이 지나간 것을 본 사람은 없었던 거야. 그는 가장 친절한 마음으로 롱본에 왔고, 자신의 걱정을 마음에서 우러나온 방식으로 우리에게 털어놓았어. 나는 그와 포스터 부인이 진심으로 딱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탓할 수는 없어. 사랑하는 리지, 우리의 괴로움은 몹시 커. 아버지와 어머니는 최악을 믿고 계시지만, 나는 그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수가 없어. 처음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런던에서 몰래 결혼하는 편이 그들에게 더 나은 사정이 많을 수 있거든. 설령 그가 리디아처럼 집안이 있는 어린 아가씨에게 그런 계획을 품었다 해도,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그 애가 모든 것을 저버릴 만큼 타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그래도 포스터 대령이 그들의 결혼을 믿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것은 슬프게 느껴져. 내가 희망을 말했을 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위컴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걱정했어. 가엾은 어머니는 정말 편찮으셔서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셔. 기운을 차리실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아버지로 말하면, 그렇게 충격받으신 모습은 평생 처음 봐. 가엾은 키티는 그들의 사이를 숨긴 일로 꾸중을 듣고 있지만, 비밀로 들은 이야기였으니 숨긴 것도 무리는 아니야. 사랑하는 리지, 이런 괴로운 일들을 네가 조금이라도 겪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제 첫 충격이 지나갔으니, 네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털어놓아도 될까? 그래도 불편하다면 억지로 재촉하지는 않을게. 그럼 안녕. 방금 하지 않겠다고 말한 일을 하려고 다시 펜을 든다. 하지만 사정이 그러해서 너희 모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이곳으로 와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지 않을 수 없어. 나는 사랑하는 외삼촌과 외숙모를 잘 알아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 다만 외삼촌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이 있어. 아버지는 리디아를 찾기 위해 포스터 대령과 함께 즉시 런던으로 떠나실 거야. 아버지가 무엇을 하려는지 나도 알 수가 없어. 하지만 너무 큰 괴로움 때문에 가장 좋고 안전한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지 못하실 거야. 그리고 포스터 대령은 내일 저녁에 다시 브라이턴에 있어야 해. 이런 위급한 때에 외삼촌의 충고와 도움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해. 외삼촌은 내가 어떤 심정일지 곧바로 헤아려 주실 거야. 나는 외삼촌의 선량함을 믿어.”

"아, 어디, 외삼촌은 어디 계시지?" 엘리자베스가 편지를 다 읽자마자 외치며 자리에서 튀어 일어났다. 이 귀중한 시간을 한 순간도 잃지 않고 외삼촌을 쫓아가려는 조바심에서였다. 그러나 문에 이르자 하인이 문을 열었고, 다아시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격한 몸짓에 그가 흠칫 놀랐다. 그가 말을 꺼낼 만큼 정신을 가다듬기도 전에, 리디아의 처지 말고는 어떤 생각도 머리에 남아 있지 않던 그녀가 다급하게 외쳤다. "실례합니다만, 가 봐야 해요. 지금 당장 가드너 씨를 찾아야 해요. 미룰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어요."

"세상에! 무슨 일입니까?" 그가 예의보다는 감정이 앞선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다 제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붙잡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거나 하인을 보내서 가드너 씨 내외를 찾아 모셔 오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몸이 좋지 않으니 직접 가실 수는 없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망설였다. 그러나 무릎이 후들거렸고, 그들을 쫓아가 봐야 얻을 것이 거의 없다는 것도 느꼈다. 그래서 하인을 다시 불러 세웠다. 숨이 가빠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였지만, 주인 내외를 즉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하인이 방을 나가자 그녀는 몸을 가누지 못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얼굴이 어찌나 비참하게 창백해 보였던지, 다아시는 그녀를 두고 떠날 수도 없었고, 부드럽고 측은한 목소리로 말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하녀를 불러 드릴까요?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포도주 한 잔이라도 가져다 드릴까요?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애써 자신을 추스르며 대답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몸은 멀쩡해요. 방금 롱본에서 온 끔찍한 소식 때문에 괴로울 뿐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몇 분 동안은 한마디도 더 할 수 없었다. 다아시는 비참한 불안 속에서 그저 자신도 걱정된다는 말을 어렴풋이 몇 마디 건네고

측은한 침묵 속에서 그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방금 제인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너무 끔찍한 소식이에요. 누구에게도 숨길 수가 없어요. 막내 동생이 가족과 친지를 모두 버리고 떠났어요. 도망쳤어요. 스스로 위컴 씨의 손아귀에 몸을 맡겼어요. 두 사람은 브라이턴에서 함께 떠났어요. 당신은 그 사람을 너무

잘 알아서 나머지는 의심하지 않겠죠. 리디아에게는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그 사람이 혹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애는 영영 망가졌어요."

다아시는 놀라움에 얼어붙었다.

"제가 그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요!" 그녀가 한층 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알아낸 것 중 일부라도, 우리 가족에게 말했더라면! 그 사람의 인품이 알려졌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 모두 너무 늦었어요."

"정말 유감입니다." 다아시가 외쳤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군요. 충격입니다. 하지만 그게 확실한가요? 틀림없이 확실한 겁니까?"

"아, 그래요! 두 사람은 일요일 밤에 함께 브라이턴을 떠났고, 런던 근처까지는 행방을 쫓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너머로는 종적을 놓쳤어요. 분명히 스코틀랜드로 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동생분을 되찾으려고 무슨 조치를 취하셨나요? 무엇을 시도해 보셨습니까?"

"아버지는 런던으로 떠나셨고, 제인은 외삼촌께 당장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도 삼십 분 안에 떠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애초에 어떻게 찾아낼 수나 있겠어요? 조금도 희망이 없어요. 어느 모로 보나 끔찍해요!"

다아시는 말없이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의 참된 성품을 알게 되었을 때, 아아! 제가 해야 했던 일, 감히 할 수 있었던 일을 알았더라면!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너무 많이 나서는 게 두려웠어요. 비참하고, 비참한 실수였어요!"

다아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말을 거의 듣지 않는 듯했고, 진지한 생각에 잠겨 방 안을 이리저리 걸었다. 그의 이마는 찌푸려졌고 표정은 침울했다. 엘리자베스는 곧 그것을 알아차렸고, 즉시 그 뜻을 이해했다. 그를 사로잡던 그녀의 힘이 사그라들고 있었다. 집안의 나약함이 이토록 분명히 드러나고, 가장 깊은 치욕이 이토록 확실해진 이상, 모든 것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것을 의아하게 여길 수도, 탓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자기 감정을 억눌렀다는 믿음은 그녀의 가슴에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고, 그녀의 괴로움을 조금도 덜어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 믿음은 그녀가 자기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하기에 꼭 맞았다. 모든 사랑이 헛될 수밖에 없는 지금만큼, 그를 사랑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그녀가 솔직하게 느낀 적은 없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이 끼어들려 해도 그녀를 온전히 사로잡을 수는 없었다. 리디아, 그리고 리디아가 온 가족에게 안기고 있는 굴욕과 불행이 곧 모든 사적인 걱정을 삼켜 버렸다. 엘리자베스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고, 곧 다른 모든 것을 잊었다. 몇 분쯤 지나 그녀는 곁에 있던 그의 목소리에 비로소 자기 처지를 떠올렸다. 그 목소리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억제도 담겨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진작부터 제가 자리를 비켜 드리기를 바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머무는 것을 변명할 수 있는 것은 헛된 것일지라도 진심에서 우러난 걱정뿐입니다. 이런 고통을 달랠 수 있는 말이든 행동이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당신의 감사를 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헛된 바람으로 당신을 더 괴롭히지는 않겠습니다. 이 불행한 일 때문에, 제 누이가 오늘 펨벌리에서 당신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 그래요! 다아시 양께는 우리를 대신해 사과의 말을 전해 주세요. 급한 일이 생겨 우리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가능한 한 오래 그 불행한 사실은 감춰 주세요. 오래 감출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는 흔쾌히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그녀가 겪는 괴로움에 다시 한번 안타까움을 표했다. 지금으로서는 희망을 걸 만한 근거가 없지만, 그 일이 더 행복하게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 달라고 한 뒤, 단 한 번 진지한 작별의 눈길을 남기고 떠났다.

그가 방을 나설 때, 엘리자베스는 더비셔에서 그들이 만날 때마다 있었던 그런 다정한 분위기로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일은 거의 없으리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모순과 변화로 가득했던 그들의 지난 교제를 되돌아보며, 이제는 그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도 예전에는 그것이 끝나기를 기뻐했던, 그 뒤틀린 감정에 한숨을 쉬었다.

만약 감사와 존중이 애정의 좋은 바탕이라면, 엘리자베스의 감정 변화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일도, 잘못된 일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즉 그런 바탕에서 생긴 호감이 흔히 대상을 처음 만나 두 마디도 나누기 전에 생긴다고 묘사되는 감정에 비해 비이성적이거나 부자연스럽다면, 그녀를 변호할 말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위컴에 대한

편애에서 그녀가 후자의 방식을 한 번 시험해 본 적이 있고, 그 시험이 성공하지 못했기에 아마도 덜 흥미로운 다른 방식의 애착을 찾을 권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어쨌든 그녀는 그가 떠나는 것을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리디아의 치욕이 불러올 결과를 벌써 이렇게 겪고 보니, 그 비참한 일을 떠올릴 때마다 고통이 더해졌다. 제인의 두 번째 편지를 읽은 뒤로 그녀는 위컴이 리디아와 결혼할 생각이 있으리라는 희망을 한 번도 품은 적이 없었다. 그런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제인뿐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렇게 된 일에 대해 그녀가 느낀 감정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 놀라움이었다.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 있을 때는, 위컴이 돈을 보고 결혼할 리 없는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이 그저 놀랍고 기가 막힐 뿐이었으며, 리디아가 어떻게 그를 붙잡을 수 있었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다. 이런 애착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리디아에게 충분한 매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리디아가 결혼할 의사도 없이 의도적으로 도피 행각을 벌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정숙함도 지성도 그녀가 쉽게 희생되는 것을 막아 주지 못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믿을 수 있었다.

하트퍼드셔에 연대가 주둔해 있을 때도 엘리자베스는 리디아가 위컴에게 특별한 호감을 가졌다는 것을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리디아가 누구에게든 마음을 주려면 격려만 있으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장교들이 주는 관심에 따라 리디아의 눈에 그 사람이 더 돋보일 때면, 때로는 이 장교가, 때로는 저 장교가 그녀의 호감을 얻었다. 리디아의 애정은 끊임없이 흔들렸지만 대상이 없던 적은 없었다. 그런 소녀를 방치하고 잘못 봐준 해악이란, 아아! 엘리자베스는 이제 그것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던가!

그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곳에서 소식을 듣고, 직접 보고, 이제 제인 혼자 고스란히 떠안게 된 걱정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가족이 이토록 엉망이 된 상황에서 아버지는 자리에 없고, 어머니는 무엇을 할 기력도 없어 끊임없이 돌봄을 받아야 했다. 리디아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거의 확신하면서도, 외삼촌이 개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였다. 그가 방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녀의 초조함이 주는 괴로움은 심했다. 가드너 씨 부부는 하인의 말을 듣고, 조카딸이 갑자기 몸이 아픈 줄 알고 놀라서 서둘러 돌아와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그 오해를 풀어 주고, 그들을 부른 까닭을 열심히 전했다. 두 통의 편지를 소리 내어 읽었고, 마지막 편지의 추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힘주어

읽었다. 가드너 씨 부부는 리디아를 특별히 귀여워한 적은 없었지만, 그 일에 깊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일에 얽힌 것은 리디아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였다. 처음의 놀람과 충격이 가라앉은 뒤, 가드너 씨는 힘닿는 모든 도움을 주겠다고 선뜻 약속했다. 엘리자베스는 그 정도의 답을 기대하고 있었으면서도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했다. 세 사람은 같은 마음으로 움직였고, 여행에 관한 모든 일은 곧 정해졌다. 가능한 한 빨리 떠나기로 했다. "그런데 펨벌리는 어떻게 하지?" 가드너 부인이 외쳤다. "존이 그러는데, 네가 우리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을 때 다아시 씨가 여기 와 있었다던데, 그랬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그에게 말했어요. 그건 이미 다 정해졌어요."

"무엇이 다 정해졌단 말이니?" 가드너 부인이 그렇게 되풀이해 물으며, 채비를 하러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 갔다. "그 애가 진짜 사정을 털어놓을 만큼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란 말인가? 아, 그 사정이 어떤지 내가 알 수만 있다면!"

그러나 바람은 헛된 것이었다. 기껏해야 다음 한 시간의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순간에 그녀를 잠시 달래 줄 수 있을 뿐이었다. 엘리자베스에게 한가하게 있을 틈이 있었다면, 자신처럼 비참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하지만 외숙모와 마찬가지로 그녀에게도 할 일이 있었고, 그중에는 램턴의 친구들 모두에게 갑작스러운 출발을 설명하는 거짓 핑계를 적은 편지도 있었다. 그러나 한 시간 만에 모든 일이 끝났다. 그사이 가드너 씨는 여관 계산을 마쳤고, 이제 떠나는 일만 남았다. 아침 내내 비참함을 겪은 뒤, 엘리자베스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마차에 앉아 롱본으로 가는 길 위에 있었다.

제47장



휴 톰슨, 제47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엘리자베스, 내가 그 일을 다시 생각해 봤다." 마을을 떠나 마차가 달리는 동안 외삼촌이 말했다. "정말이지 곰곰이 따져 보니, 네 큰언니가 이 일을 판단하는 방식에 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기운다. 아무 보호자도 없는 처지가 아니고, 더구나

자기 연대장 가족과 함께 묵고 있던 아가씨에게 어떤 젊은이가 그런 계획을 품는다는 건 도무지 있을 법하지 않아 보여서, 나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어졌다. 그 아가씨의 친척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는 걸 그가 모르겠느냐? 포스터 대령에게 그런 모욕을 준 뒤에 연대에서 다시 그를 받아 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가 얻을 이득은 그가 무릅써야 할 위험에 걸맞지 않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엘리자베스가 외쳤고, 잠시 얼굴이 환해졌다.

"맹세컨대," 가드너 부인이 말했다. "나도 네 외삼촌 생각에 점점 동의하게 되네. 그런 짓을 저지르기에는 예의와 명예와 자기 이익을 너무 크게 거스르는 일이야. 위컴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수는 없어. 리지, 너는 정말로 그 사람을 완전히 포기해서 그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 믿니?"

"자기 이익을 돌보지 않는 건 아닐지 몰라도, 다른 일이라면 무엇이든 소홀히 할 사람이라고 믿어요. 정말 그렇기만 하다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기를 바라는 것도 두려워요. 그랬다면 둘이 왜 스코틀랜드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우선," 가드너 씨가 대답했다. "그들이 스코틀랜드로 가지 않았다는 절대적인 증거는 없다."

“아, 하지만 마차에서 삯마차로 갈아탔다는 것만으로도 그건 심증이 너무 강해요! 게다가 바넷 길에서는 두 사람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둘이 런던에 있다고 치자. 몸을 숨기려는 목적이긴 해도, 그보다 더 고약한 목적 때문은 아닐 수 있어. 어느 쪽이든 돈이 넉넉할 리는 없지. 그러니 스코틀랜드에서보다 런던에서 혼례를 올리는 편이 빠르지는 않아도 돈이 덜 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왜 이렇게 숨기는 걸까요? 들킬까 봐 걱정하는 건 또 왜고요? 왜 결혼을 몰래 해야 하죠? 아뇨,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인이 전한 말로 보면,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위컴이 리디아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확신했다잖아요. 위컴은 돈이 조금도 없는 여자와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형편이 못 되니까요. 게다가 리디아가 젊음과 건강과 쾌활함 말고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매력이 있다고, 그가 리디아를 위해 좋은 결혼으로 자기 이익을 얻을 기회를 전부 포기하겠어요? 연대에서 불명예를 당할까 봐 생기는 두려움이 그녀와 몰래 도망치는 비열한 짓을 얼마나 억누를지는 저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외삼촌의 다른 반론은 아마 들어맞지 않을 거예요.

리디아에게는 나서 줄 오빠가 없어요. 그리고 위컴은 아버지의 태도를 보고, 아버지가 게으르고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거의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는 걸 알았을 테니, 이런 일을 두고도 세상 어느 아버지보다 손을 덜 쓰고 마음도 덜 쓰리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리디아가 그에 대한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결혼이 아닌 다른 조건으로 그와 함께 살기로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그래 보이긴 해요. 정말이지 끔찍한 일이에요." 엘리자베스가 눈물이 맺힌 채 대답했다. "제 동생이 그런 일에서 예의와 정숙함을 지킬지 의심스럽다는 게요. 하지만 정말이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가 리디아에게 공정하지 못한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리디아는 아직 너무 어려요. 진지한 문제를 생각하도록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 반년, 아니 일 년 동안은 오로지 즐거움과 허영에만 빠져 지냈어요. 시간을 가장 게으르고 하찮은 방식으로 쓰도록 내버려 뒀고, 눈에 띄는 대로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게 놔뒀어요. ——셔 연대가 메리턴에 처음 주둔한 뒤로 리디아 머릿속에는 사랑과 연애 장난과 장교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문제를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원래도 충분히 발랄한 감정을 더, 뭐라고 해야 할까, 예민하게

만들려고 온 힘을 다해 애를 썼어요. 그리고 위컴이 여자를 홀릴 수 있는 외모와 말솜씨를 모두 갖췄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제인을 보렴," 외숙모가 말했다. "제인은 위컴을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을 만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단다."

"제인은 누구를 나쁘게 생각하는 법이 있어요?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든,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제인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제인도 저만큼 잘 알아요, 위컴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우리 둘 다 알아요. 그가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방탕했다는 걸요. 성실함도 명예도 없고, 말을 교묘하게 붙임성 있게 하는 만큼 거짓되고 속이 음흉하다는 걸요."

"그럼 정말로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니?" 가드너 부인이 소리쳤다. 엘리자베스가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귀가 번쩍 뜨였다.

"물론 알고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요전에 위컴이 다아시 씨에게 한 악랄한 행동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롱본에 오셨을 때 외숙모도 직접 들으셨죠. 자기를 그토록 참아 주고 너그럽게 대해 준 사람을

위컴이 어떻게 말했는지요. 그 밖에도 제가 말할 자유가 없는, 아니, 굳이 이야기할 가치가 없는 사정들이 있어요. 하지만 펨벌리 집안 사람들에 대한 위컴의 거짓말은 끝이 없어요. 위컴이 다아시 양에 대해 한 말을 듣고, 저는 오만하고 속을 드러내지 않으며 불쾌한 소녀를 만날 거라고 단단히 각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컴 자신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아시 양이 우리가 본 그대로 상냥하고 꾸밈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도 틀림없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리디아는 이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 너랑 제인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걸 리디아만 모를 수 있어?"

"아, 그래요! 그게 가장 나쁜 거예요. 켄트에 가서 다아시 씨와 그분의 친척인 피츠윌리엄 대령을 많이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진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셔 연대가 일주일이나 보름쯤 뒤에 메리턴을 떠날 예정이었죠. 그래서 제가 전부 이야기해 준 제인도, 저도, 우리가 아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처 사람들 모두가 위컴에게 가진 좋은 평판이 그때 무너져 봐야 누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리디아가 포스터 부인과 함께 가기로 정해졌을 때도, 리디아에게 그의 본색을 일깨워 줘야겠다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속임수

때문에 리디아가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전혀 없었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건 쉽게 믿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들이 모두 브라이턴으로 옮겨 갔을 때도, 둘이 서로 좋아한다고 믿을 이유는 없었던 거지?"

"그런 기미는 조금도 없었어요. 어느 쪽에서도 애정의 조짐이라고 할 만한 걸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 게 눈에 띄었다면, 우리 집안이 그런 감정을 허투루 흘려보낼 집안이 아니라는 건 외숙모도 아시잖아요. 그가 연대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리디아도 선뜻 그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그랬죠. 메리턴이나 그 근처의 소녀들은 처음 두 달 동안 전부 그 사람에게 홀려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데 위컴은 리디아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적당한 기간 동안 지나치고 들뜬 찬미가 이어지다가, 리디아의 호감도 사그라졌어요. 그러고는 리디아를 더 특별하게 대해 준 연대의 다른 장교들이 다시 리디아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문제를 두고 자꾸 얘기해도 두려움과 희망과 추측에 새로울 것은 거의 없었지만, 여행 내내 그 밖의 어떤 화제도 그들을 오래 붙잡아 둘 수 없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의 생각에서 그 일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가장 날카로운 고통인 자책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마음이 편해지거나 잊을 틈이 잠시도 없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여행했고, 도중에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 날 저녁 식사 시간 무렵 롱본에 도착했다. 제인이 오래 기다리느라 지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엘리자베스에게 위안이 되었다.

가드너 집 어린아이들은 마차가 오는 것을 보고 좋아서, 그들이 목장 울타리 안으로 들어설 때 집 계단 위에 서 있었다. 마차가 현관 앞에 다다르자, 아이들의 얼굴에 환하게 번진 기쁜 놀라움이 온몸으로 드러나며 이런저런 깡충거림과 재롱으로 터져 나왔다. 그것이 그들이 받은 환영의 첫 번째 즐거운 증표였다.

엘리자베스는 마차에서 뛰어내려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급히 입을 맞춘 뒤 현관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어머니의 방에서 계단을 뛰어 내려오던 제인과 곧바로 마주쳤다.

엘리자베스는 제인을 다정하게 끌어안았고,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도 엘리자베스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도망친 두 사람에 대한 소식이 있었는지 물었다.

"아직이야." 제인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사랑하는 외삼촌이 오셨으니,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믿어."

"아버지는 런던에 계셔?"

"응, 화요일에 떠나셨어. 편지에 썼던 대로야."

"그럼 아버지한테서는 자주 소식이 왔어?"

"우리는 한 번만 소식을 들었어. 수요일에 아버지가 나한테 몇 줄 편지를 보내셨는데, 무사히 도착하셨다는 것과 연락 받을 주소를 알려 주셨어. 내가 특히 부탁드렸던 거야. 아버지는 그저 중요한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다시 편지하지 않으시겠다고 덧붙이셨을 뿐이야."

"그럼 어머니는? 어머니는 어떠셔? 다들 어떻게 지내?"

"어머니는 그럭저럭 괜찮으셔, 그렇게 믿어. 다만 마음고생이 많으셔서 기운이 많이 상하셨어. 지금 위층에 계시는데, 다들 오신 걸 보면 무척 기뻐하실 거야. 아직 내실에서 나오지 않으셔. 메리와 키티는, 다행히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언니는? 언니는 어때?"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얼굴이 창백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을까!"

그러나 언니는 자기는 완전히 괜찮다고 엘리자베스를 안심시켰다. 가드너 씨 부부가 아이들을 챙기는 동안 이어지던 두 자매의 이야기는, 일행 전체가 가까이 오면서 그렇게 끝났다. 제인은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달려가 두 분을 맞이하며 고마움을 전했는데, 웃음과 눈물이 번갈아 얼굴에 떠올랐다.

모두 응접실에 자리를 잡자, 엘리자베스가 이미 물었던 질문들을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되풀이했고, 제인에게는 새로 전할 소식이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불러일으키는 낙관적인 희망은 아직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모든 일이 잘 끝날 거라 기대했고, 매일 아침 리디아에게서든 아버지에게서든 편지가 한 통씩 와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려 주고, 어쩌면 결혼 소식도 전해 줄 거라고 믿었다.

베넷 부인은 모두가 잠시 함께 이야기를 나눈 뒤 자신의 방으로 올라오자 그들을 맞이했는데, 그 태도는 예상한 그대로였다. 눈물과 애통한 탄식, 위컴의 악랄한 행실에 대한 격한 비난, 그리고 자신이 겪은 고통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불평이 쏟아졌다. 그녀는 분별없이 응석을 받아 주어 딸이 잘못을 저지르게 만든 바로 그 사람만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을 탓했다.

"만약 내가 온 가족을 데리고 브라이턴에 가겠다는 내 뜻을 관철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하지만 불쌍하고 사랑스러운 리디아를 돌봐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 포스터 부부는 왜 리디아가 자기들 눈앞에서 벗어나게 내버려 뒀을까? 틀림없이 그쪽에서 무슨 큰 소홀함이 있었던 거야. 제대로 돌봐 줬다면 리디아가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거든. 난 그 부부가 리디아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늘 생각했어. 하지만 나는 늘 그렇듯 또 묵살당했지. 불쌍한 것! 그리고 이제 베넷 씨까지 떠나 버렸고, 나는 그이가 위컴을 어디서 만나든 결투를 벌일 거라는 걸 알아. 그러면 그이는 죽고 말 텐데,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라고! 그이가 무덤에 들어가 식기도 전에 콜린스 부부가 우리를 내쫓을 거야. 오빠, 오빠가 우리한테 잘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들 모두 그런 끔찍한 생각에 저마다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가드너 씨는 그녀와 온 가족을 아낀다는 말로 두루 안심시킨 뒤, 바로 다음 날 런던에 가서 리디아를 찾기 위한 모든 노력을 베넷 씨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쓸데없는 걱정에 휘둘리지 마라," 그가 덧붙였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은 옳지만, 그것을 확정된 일로 볼 까닭은 없다. 그들이 브라이턴을 떠난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다.

며칠만 더 지나면 그들에 대한 소식을 조금은 듣게 될 거다. 결혼하지 않았고 결혼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이 일을 아예 가망 없는 것으로 포기하지 말자. 런던에 도착하면 곧장 매부를 찾아가서, 그레이스처치 스트리트의 우리 집으로 함께 가자고 하겠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의논할 수 있을 거다."

"오, 사랑하는 오빠," 베넷 부인이 대답했다. "바로 그게 내가 가장 바라던 일이야. 그러니 이제 런던에 가면, 그 애들이 어디에 있든 찾아내 줘.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을 시켜 주고. 혼숫감 때문에 결혼을 미루게 하지 말고, 결혼하고 나면 혼숫감 살 돈은 리디아가 원하는 만큼 주겠다고 말해 줘. 그리고 무엇보다, 베넷 씨가 결투하지 못하게 막아 줘. 내가 얼마나 끔찍한 상태인지, 정신이 나갈 만큼 놀랐다고 전해 줘.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옆구리가 쥐가 나듯 아프고 머리도 아파서, 밤이든 낮이든 도무지 쉴 수가 없다고. 그리고 사랑하는 리디아에게도 나를 보기 전까지는 옷에 관한 지시를 하지 말라고 전해 줘. 어느 상점이 제일 좋은지 그 애는 모를 테니까. 아, 오빠, 정말 고마워! 오빠가 다 알아서 해 줄 거라고 믿어."

그러나 가드너 씨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 번 장담하면서도, 희망과 두려움 양쪽 모두 지나치게 키우지 말라고 그녀에게 타이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저녁 식사가 차려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눈 뒤, 일행은 부인을 남겨 두고 방을 나왔다. 딸들이 없는 동안 시중을 들던 가정부에게 부인이 자기 감정을 모두 쏟아 내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오빠 부부는 그녀가 가족과 떨어져 방에 틀어박혀 있을 만한 진짜 이유는 없다고 여겼지만, 굳이 말리지 않았다. 그녀가 식탁 시중을 드는 하인들 앞에서 입을 다물 만큼 분별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집안사람 중 한 명, 그것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만 그녀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알아 두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식당에서는 곧 메리와 키티가 합류했다. 두 사람은 각자 자기 방에서 바쁘게 지내느라 그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다. 한 명은 책 속에서, 다른 한 명은 화장대 앞에서 나왔다. 그러나 두 사람의 얼굴은 제법 차분했고, 달라진 기색이라고는 키티의 말투에 평소보다 짜증이 조금 섞인 것뿐이었다. 가장 아끼던 동생을 잃은 탓이든, 이 일로 자기가 산 노여움 탓이든 그랬다. 메리는 자신을 충분히 다스릴 줄 알았기에, 자리에 앉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지하게 생각에 잠긴 얼굴로 엘리자베스에게 속삭였다.

"이 일은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고, 아마 세간에 많이 오르내리게 될 거야. 하지만 악의의 물결을 막아 내고, 서로의 상처 입은 가슴에 자매의 위로라는 약을 부어 주어야 해."

그러자 엘리자베스가 대답할 뜻이 없어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메리는 말을 이었다. "이 사건이 리디아에게 불행한 일이기는 해도, 우리는 여기서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 여자가 정조를 잃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이 끝없는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 여자의 평판은 아름다운 만큼이나 깨지기 쉽다는 것, 그리고 그럴 가치가 없는 남자들을 대할 때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 말이야."

엘리자베스는 놀라서 눈을 치켜떴지만, 너무 마음이 무거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메리는 눈앞의 불행에서 그런 도덕적 교훈을 뽑아내며 계속 스스로를 위로했다.

오후에 베넷 집안의 두 큰딸은 삼십 분쯤 둘만 있을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제인도 그만큼 대답해 주고 싶어 하던 것들을 물어볼 이 기회를 곧바로 붙잡았다. 두 사람은 이 사건의 끔찍한 결말을 두고 함께 탄식했다. 엘리자베스는 그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여겼고, 베넷 양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었다. 그러고 나서 엘리자베스가 화제를 이어 갔다. "하지만 아직 듣지 못한

것은 전부 말해 줘. 더 자세히 알려 줘. 포스터 대령은 뭐라고 했어? 두 사람이 달아나기 전에 포스터 부부는 아무 낌새도 못 챘대? 둘이 붙어 다니는 걸 줄곧 봤을 텐데."

"포스터 대령도 리디아 쪽에서 특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의심한 적은 여러 번 있었다고 인정했어. 하지만 경계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더라. 그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 그는 더없이 세심하고 친절하게 행동했어. 둘이 스코틀랜드로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아직 하지도 못한 때에, 우리에게 걱정을 전하려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대. 그런 짐작이 퍼지기 시작하자 그는 걸음을 더 서둘렀다고 하더라."

"그럼 데니는 위컴이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대? 두 사람이 달아날 계획이었다는 걸 데니가 알고 있었어? 포스터 대령이 데니를 직접 만났대?"

"그래, 하지만 포스터 대령이 물었을 때 데니는 두 사람의 계획을 전혀 모른다고 잡아뗐고, 자기 속생각도 솔직히 말하려 하지 않았어. 위컴이 결혼하지 않을 거라던 생각도 되풀이하지 않았다더라. 그래서 나는 그전에 데니의 말이 잘못 받아들여졌던 것이라고 믿고 싶어."

"그럼 포스터 대령이 직접 오기 전까지는, 집안의 누구도 두 사람이 정말 결혼했다는 걸 의심하지 않았던 거지?"

"어떻게 그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었겠어? 나는 조금 불안했어. 동생이 그와 결혼해서 행복할지 걱정스러웠지. 그의 행실이 늘 올바르지는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런 사정은 모르셨어. 그저 이 결혼이 얼마나 경솔한 일이 될지만 느끼셨지. 그러자 키티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뽐내며 털어놓았어. 리디아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그런 일을 미리 암시해 두었다는 거야. 키티는 몇 주 전부터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모양이야."

"하지만 브라이턴에 가기 전부터 알았던 건 아니지?"

"응, 그전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럼 포스터 대령 본인은 위컴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 위컴의 진짜 됨됨이를 알고 있대?"

"솔직히 말하면, 포스터 대령은 예전만큼 위컴을 좋게 말하지 않았어. 위컴이 경솔하고 씀씀이가 헤프다고 여겼지. 이 슬픈 일이 있은 뒤로는 그가 메리턴에서 빚을 잔뜩 지고 떠났다는 말도 들려.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있어."

“아, 언니, 우리가 좀 덜 감췄더라면, 그 사람에 대해 우리가 아는 걸 말해 두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는 편이 나았을지도 몰라.” 언니가 대답했다.

“하지만 누군가의 지난 잘못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들춰내는 건 정당하지 않은 일로 여겨졌어.”

“우리는 최선의 의도로 행동했어.”

“리디아가 포스터 부인에게 남긴 편지 내용을 포스터 대령이 자세히 전해 줄 수 있었어?”

“그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 주려고 가져왔어.”

제인은 그러고 나서 수첩에서 편지를 꺼내 엘리자베스에게 건넸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내 사랑 해리엇,

“너는 내가 어디로 떠났는지 알면 웃겠지. 내일 아침 내가 없어진 걸 알고 네가 놀랄 걸 생각하면 나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 나는 그레트나 그린으로 가. 누구와 함께 가는지 짐작하지 못한다면 너를 바보라고 생각할 거야.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단 한 사람뿐이고, 그 사람은 천사

같거든. 그 사람 없이는 행복할 수 없으니, 떠나는 게 나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내키지 않으면 롱본에는 내가 떠났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아도 돼. 그래야 내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리디아 위컴이라고 서명할 때 놀라움이 더 클 테니까. 얼마나 멋진 농담이 될까! 웃느라 편지를 제대로 쓰기도 어려워. 제발 프랫에게 오늘 밤 춤추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걸 대신 사과해 줘. 모든 사정을 알게 되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무도회에서 기꺼이 춤추겠다고 전해 줘. 롱본에 도착하면 옷을 보내 달라고 할 거야. 그런데 짐을 싸기 전에 새리에게 내 수놓은 모슬린 드레스의 크게 찢어진 곳을 꿰매라고 말해 주면 좋겠어. 잘 있어. 포스터 대령에게 내 안부를 전해 줘. 우리의 좋은 여행을 위해 건배해 주기를 바라.

"너를 사랑하는 친구,

"리디아 베넷."

"아, 생각이 얕은 리디아, 생각이 얕은 리디아!"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다 읽고 외쳤다. "이런 순간에 이런 편지를 쓰다니! 그래도 이 편지는 적어도 그 애가 떠난 목적만큼은 진지했다는 걸 보여 주고 있어. 나중에 그가 무슨 말로 설득했든, 그 애 쪽에서는 파렴치한 계획이 아니었던 거야. 불쌍한 아버지!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까!"

"난 그렇게 충격받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십 분 넘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셨어. 어머니는 바로 몸져누우셨고, 집 안 전체가 아주 엉망진창이었지!"

"아, 언니,"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집안 하인 중에 하루가 끝나기 전에 이 일의 전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기나 했을까?"

"나도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있었기를 바라. 하지만 그런 때에 말을 조심하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야. 어머니는 히스테리를 일으키셨고, 나는 힘닿는 대로 어머니를 도우려 했지만, 할 수 있었던 만큼 하지는 못한 것 같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정신이 거의 나가 버렸거든."

"언니가 어머니를 돌보느라 너무 힘들었구나.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아. 아, 내가 곁에 있었더라면! 모든 걱정과 근심을 언니 혼자 떠안았구나."

"메리와 키티가 아주 다정하게 대해 줬고, 모든 수고를 함께 나눠 주었을 거야. 하지만 둘 중 누구에게도 그러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 키티는 몸이 가냘프고 약하며, 메리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쉬는 시간을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떠나신 뒤 화요일에 필립스 이모가 롱본에 오셨고, 목요일까지 나와 함께 머물러 주셨어. 이모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과 위안이 되셨지. 루카스 부인도 아주 친절하셨어.

수요일 아침에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본인이나 딸들이 무엇이든 돕겠다고 말씀하셨어."

"차라리 집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선의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불행 앞에서는 이웃을 덜 만날수록 좋아. 도움은 어차피 불가능하고, 위로는 참을 수 없지. 멀리서 우리를 고소해하며 그걸로 만족하라고 해."

그러고 나서 그녀는 아버지가 런던에서 딸을 되찾기 위해 취하려고 했던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물었다.

"아버지는," 제인이 대답했다. "엡섬으로 가 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 거기가 그들이 마지막으로 말을 갈아탄 곳이라서, 마부들을 만나 보고 무슨 단서라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셨어. 가장 큰 목적은 클래펌에서 그들을 태운 삯마차의 번호를 알아내는 거였을 거야. 그 마차는 런던에서 손님을 태우고 온 차였거든. 신사와 숙녀가 한 마차에서 다른 마차로 옮겨 탄 일은 사람들 눈에 띄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셔서, 클래펌에서 그걸 알아보려고 하셨어. 만약 마부가 그 전에 손님을 내려 준 집이 어딘지 알아낼 수 있다면, 거기서도 물어볼 생각이셨고, 마차의 승차 장소와 번호를 찾아내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여기셨지.

그 밖에 다른 계획이 있었는지는 나도 몰라. 아버지는 얼른 떠나려고 너무 서두르셨고 마음도 몹시 어지러워서, 이 정도만 알아내는 것도 나에게는 힘들었어."

제48장



[Copyright 1894 by George Allen.]

휴 톰슨, 「이 일을 이야기해 준 사람」(1894년 판 삽화)

온 가족이 이튿날 아침 베넷 씨에게서 편지가 오기를 바랐지만, 우편물은 그의 편지 한 줄도 없이 도착했다. 가족들은 그가 대개의 경우 아주 게으르고 편지를 미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런 때에는 그가 조금이라도 애를 써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들은 그가 반가운 소식을 보낼 게 없어서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조차 확실히 알았다면 그들은 기뻤을 것이다. 가드너 씨는 편지들을 기다렸다가 그제야 길을 떠났다.

그가 떠나자, 적어도 벌어지는 일에 대한 소식은 끊임없이 듣게 되리라는 확신이 생겼다. 외삼촌은 떠나면서, 베넷 씨를 가능한 한 빨리 롱본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남편이 결투로 죽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보장이라고 여긴 외삼촌의 누이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가드너 부인과 아이들은 며칠 더 하트퍼드셔에 머물기로 했는데, 가드너 부인은 자신이 있는 것이 조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베넷 부인을 돌보는 일에 조카들과 함께 나섰고, 조카들이 자유롭게 쉬는 시간에는 큰 위안이 되어 주었다. 이모도 자주 찾아왔는데, 그녀는 말하기를 언제나 조카들을 격려하고 기운 나게 해 주려는 뜻에서 온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올 때마다 위컴의 낭비나 방탕에 관한 새로운 사례를 전하고 갔기 때문에, 그녀가 떠날 때 조카들은 그녀가 오기 전보다 대개 더 낙담해 있었다.

메리턴 전체가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거의 빛의 천사 같던 그 남자를 깎아내리려 애쓰는 듯했다. 그는 이 고장의 모든 상인에게 빚을 졌다고 공표되었고, 그의 온갖 연애 사건들은 모두 유혹이라는 이름을 달고 상인들의 집안 곳곳에까지 퍼져 있었다. 누구나 그가 세상에서 가장 못된 젊은이라고 입을 모았고, 누구나 그의 선량해 보이던 겉모습을 원래 믿지 않았다고 깨닫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는 떠도는 말의 절반을 채 믿지 않았으나, 여동생이 파멸했으리라는 전부터의 확신을 한층 더 굳힐 만큼은 믿었다. 그보다도 덜 믿던 제인마저 거의 희망을 잃었다. 특히 이제 시간이 이만큼 흘렀으니, 그들이 스코틀랜드로 갔다면 — 제인이 한 번도 완전히 단념하지 않았던 바로 그 경우였다 — 그들에 대한 어떤 소식이든 틀림없이 이미 들려왔을 때였기 때문이다.

가드너 씨는 일요일에 롱본을 떠났다. 화요일에 그의 아내는 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그가 도착하자마자 매부를 찾아내어 그레이스처치 스트리트로 오도록 설득했다고 적혀 있었다. 베넷 씨는 가드너 씨가 도착하기 전에 엡섬과 클래펌에 다녀왔으나 만족스러운 정보는 얻지 못했다고 했다. 이제 그는 런던의 주요 호텔들을 모두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는데, 베넷 씨는 그들이 처음 런던에 왔을 때 숙소를 구하기 전에 그중 한 곳에 묵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드너 씨 자신은 이 방법으로

성공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매부가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하도록 도와줄 생각이었다. 그는 베넷 씨가 지금으로서는 런던을 떠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덧붙이고, 곧 다시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추신도 있었다.

"나는 포스터 대령에게 편지를 써서, 가능하다면 연대에 있는 그 젊은이의 친한 동료들에게서 위컴에게 이 도시의 어느 곳에 숨어 있는지 짐작할 만한 친척이나 연고자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실마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포스터 대령도 이 점에 대해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힘닿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 나는 믿는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지금 그에게 살아 있는 친척이 누구인지는 리지가 다른 누구보다 더 잘 알려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엘리자베스는 외삼촌이 어째서 이토록 자신의 말을 믿고 존중하려 하는지 그 까닭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칭찬에 걸맞을 만큼 흡족한 정보를 줄 수 있는 힘은 그녀에게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말고는 친척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두 분 다 여러 해 전에 돌아가셨다. 그렇지만 ——셔 연대에 있는 그의 동료들 가운데 누군가는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그런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부탁은 기다려 볼 만한 일이었다.

롱본에서의 하루하루는 이제 모두 불안한 날이었지만, 그중 가장 조마조마한 시간은 우편물을 기다리는 때였다. 매일 아침 무엇보다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은 편지였다. 편지를 통해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전해질 것이었고, 날이 밝을 때마다 오늘은 중요한 소식이 오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가드너 씨에게서 다시 소식을 듣기 전에, 다른 곳에서 아버지 앞으로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콜린스 씨가 보낸 편지였다. 아버지가 집을 비운 동안 그에게 온 것은 모두 뜯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던 제인이 그 편지를 뜯어 읽었다. 엘리자베스는 콜린스 씨의 편지가 늘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알고 있었으므로 옆에서 함께 들여다보며 읽었다. 편지는 다음과 같았다.

“나의 친애하는 선생님,

“저는 우리 친척 관계와 제 지위상, 지금 선생님께서 겪고 계신 중대한 불행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의무를 느낍니다. 어제 하트퍼드셔에서 온 편지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의 친애하는 선생님, 믿어 주십시오. 콜린스

부인과 저는 지금의 고통 속에 계신 선생님과 선생님의
존경스러운 온 가족에게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이 고통은
어떤 세월로도 지워지지 않을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가장 쓰라린 종류일 것입니다. 저로서는 이토록 혹독한
불행을 덜어 줄 수 있는 논리나, 부모의 마음에 다른 무엇보다
가장 큰 상처가 될 이 사태 속에서 선생님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에 비하면 차라리
따님이 돌아가시는 편이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샬럿이 제게 전해 준 바에 따르면, 선생님 따님의
이런 방종한 행실이

지나치게 너그러운 방임에서 비롯되었다고 짐작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 더욱 애석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선생님과 베넷 부인께 위안이 되도록 말씀드리자면, 저는
따님의 성품이 본디 악했던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토록 어린 나이에 이처럼
엄청난 죄를 저지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되었든
선생님께서는 참으로 가엾은 처지에 계십니다. 이 생각에는
콜린스 부인뿐 아니라, 제가 이 일을 말씀드린 캐서린
영부인과 그 따님께서도 뜻을 같이하십니다. 두 분께서도 한
따님의 이 그릇된 발걸음이 다른 모든 따님들의 앞날에 해가
되리라는 제 우려에 동의하셨습니다. 캐서린 영부인께서
황송하게도 친히 말씀하셨듯이, 누가 그런 집안과 인연을

맺으려 하겠습니까? 또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는 지난 11월의 어떤 일을 한층 더 큰 만족감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일이 달리 되었더라면 저 역시 선생님의 그 모든 슬픔과 치욕에 휘말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친애하는 선생님, 부디 최대한 마음을 달래시고, 그 몹쓸 자식을 선생님의 애정에서 영원히 떨쳐 내시어, 스스로 저지른 극악한 죄의 열매를 그 아이가 거두도록 내버려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저는 선생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등등, 등등.

가드너 씨는 포스터 대령에게서 답장을 받을 때까지 다시 편지를 쓰지 않았고, 그러고 나서도 보낼 만한 기분 좋은 소식이 없었다. 위컴에게 교류를 이어 가는 친척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가 없었고, 가까운 친척이 살아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했다. 예전에 알던 사람은 많았지만, 민병대에 들어간 뒤로는 그중 누구와도 특별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지 않았다. 그러니 그의 소식을 전해 줄 만하다고 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그의 재정 상태가 비참했으므로, 리디아의 가족에게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말고도 비밀을 지켜야 할 매우 강력한 동기가 있었다. 그가 상당한 액수의 도박 빚을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이 막 드러났기 때문이다. 포스터 대령은

브라이턴에서 그가 쓴 비용을 청산하려면 천 파운드 넘게 필요하리라 짐작했다. 그는 그 도시에서 빚을 많이 졌지만, 노름으로 진 빚은 그보다 더 무시무시했다. 가드너 씨는 이런 세부 사항을 롱본 가족에게 숨기려 하지 않았다. 제인은 그 말을 듣고 공포에 질렸다. "도박꾼이라니!" 그녀가 외쳤다.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가드너 씨는 편지에 덧붙여, 아버지가 다음 날인 토요일에 집에 돌아오실 것이라고 알려 왔다.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끝나 기운이 빠진 그는, 처남의 간청을 받아들여 가족에게 돌아가기로 했다. 이후 추적을 이어 가기 위해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일은 모두 가드너 씨에게 맡긴다는 것이었다. 베넷 부인은 이 소식을 듣고도 남편의 목숨을 두고 그토록 걱정하던 것을 생각하면, 아이들이 기대했던 만큼 기뻐하지는 않았다.

"뭐라고! 너희 아버지가 가엾은 리디아도 없이 집으로 돌아온다고?" 그녀가 외쳤다. "설마 그 애들을 찾기도 전에 런던을 떠나지는 않겠지. 그이가 돌아와 버리면 누가 위컴과 싸워서 그가 리디아와 결혼하게 만든단 말이니?"

가드너 부인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 시작하자, 그녀와 아이들은 베넷 씨가 런던에서 돌아오는 것과 같은 때에 런던으로 가기로 정해졌다. 그래서 마차는 그들을 여정의 첫 구간까지 데려다준 뒤, 주인을 롱본으로 다시 데려왔다.

가드너 부인은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더비셔 친구에 대한 의문을 가득 품은 채 떠났다. 그 의문은 더비셔에서부터 내내 그녀를 따라다닌 것이었다. 조카 엘리자베스는 스스로 그 이름을 그들 앞에서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가드너 부인이 품었던, 그가 편지를 보내 올지도 모른다는 반쯤의 기대는 아무 결과도 없이 끝나 버렸다. 엘리자베스는 돌아온 뒤로 펨벌리에서 온 것일 수 있는 편지를 한 통도 받지 못했다.

현재 가족의 비참한 처지는 그녀의 낙담한 기분에 다른 어떤 변명도 필요 없게 만들었다. 그러니 그녀의 우울한 기색만 보고 무언가를 짐작할 근거는 없었다. 다만 이 무렵 자신의 감정을 꽤 잘 알게 된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더라면 리디아의 불명예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은 더 견딜 수 있었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랬다면 두 밤 중 하룻밤은 잠 못 이루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베넷 씨가 도착했을 때, 그는 평소의 철학자 같은 침착함을 그대로 지닌 듯 보였다. 그는 늘 그랬듯 말수가 적었고, 자기가 집을 비우게 된 그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딸들이 그 일을 입에 올릴 용기를 내기까지는 한참이 걸렸다.

오후가 되어 그가 차를 마시러 그들과 합류했을 때에야 엘리자베스는 용기를 내어 그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가 그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짧게 안타까움을 표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얘긴 하지 마라. 나 말고 누가 괴로워해야 마땅하겠니? 이건 전부 내가 자초한 일이니, 나는 그 대가를 느껴야 마땅하다."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시면 안 돼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그런 악에 대해 나를 경계시키는 것도 당연하겠지. 인간의 본성이 그쪽으로 기울기 쉬우니까! 아니다, 리지야. 내 평생 한 번만이라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느끼게 해다오. 그 느낌에 압도당할까 봐 겁내지는 않는다. 그런 느낌은 금세 지나가 버릴 테니까."

"두 사람이 런던에 있다고 보세요?"

"그래. 달리 어디서 그렇게 감쪽같이 숨을 수 있겠니?"

"그리고 리디아는 늘 런던에 가고 싶어 했어요." 키티가 덧붙였다.

"그렇다면 그 애는 행복하겠구나," 아버지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러면 그 애가 거기 머무는 기간도 아마 꽤 길겠지."

잠시 말이 없다가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리지야, 지난 5월에 네가 내게 해 준 충고가 옳았다는 게 드러났다고 해서 너에게 나쁜 마음을 품지는 않는다. 일이 이렇게 된 걸 생각하면, 이건 내가 제법 도량이 넓다는 걸 보여 주는 셈이지."

그들의 대화는 베넷 양이 어머니의 차를 가지러 오면서 끊겼다.

"이런 겉치레는 사람에게 득이 되는구나." 그가 외쳤다. "불행에 이렇게 우아함을 더해 주니 말이다! 다른 날에도 똑같이 해 보겠다. 서재에 앉아 잠옷 모자를 쓰고 분 바를 때 입는 가운 차림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귀찮게 굴어 주마. 아니면 키티가 도망칠 때까지 미뤄 둘 수도 있겠지."

"저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키티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제가 언젠가 브라이턴에 가게 된다 해도, 리디아보다는 잘 처신할 거예요."

“브라이턴에 간다고! 오십 파운드를 준대도 그 근처 이스트본에조차 너를 믿고 보낼 수는 없다! 아니, 키티, 나도 적어도 조심하는 법은 배웠으니 그 효과를 너도 느끼게 될 거다. 앞으로 장교는 누구도 우리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고, 마을을 지나가는 것조차 안 된다. 무도회는 절대 금지다. 네가 언니들 중 한 명과 짝을 이루어 춤추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리고 매일 십 분씩 이성적인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다는 걸 증명하기 전까지는 문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마라.”

키티는 이 위협을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여 울기 시작했다.

“자, 자.” 그가 말했다.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라. 앞으로 십 년 동안 착한 아이로 지내면, 십 년이 끝나는 날 열병식에 데려가 주마.”

제49장



휴 톰슨, 「직접 읽어 보고 싶을지도 모르겠구나」(1894년 판 삽화)

베넷 씨가 돌아온 지 이틀 뒤,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집 뒤편 관목 숲길을 함께 걷고 있었다. 가정부가 그들을 향해 오는 것이 보였다. 어머니가 찾는다고 부르러 온 것이라고 생각한 두 사람은 그녀를 맞으러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예상했던 부름이 아니었다. 두 사람 곁에 다가서자 가정부가 베넷 양에게 말했다. "아가씨, 말씀 중에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혹시 런던에서 좋은 소식이라도 들으셨을까 해서 여쭤보러 왔습니다."

"무슨 말이야, 힐? 우리는 런던에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어."

"아가씨, 세상에," 힐 부인이 몹시 놀라 소리쳤다. "가드너 씨가 보낸 급사가 주인어른께 왔다는 걸 모르셨어요? 벌써 반 시간 전에 도착해서 주인어른이 편지를 받으셨어요."

자매는 말할 겨를도 없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서둘러 달려갔다. 현관홀을 지나 아침 식사실로 뛰어 들어갔고, 거기서 서재로 갔다. 아버지는 어느 곳에도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있나 싶어 위층으로 찾으러 가려던 참에, 집사를 만났다. 집사가 말했다.

"주인어른을 찾으시는 거라면, 아가씨, 작은 숲 쪽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은 곧장 다시 홀을 가로질러, 방목장 한쪽의 작은 숲을 향해 느긋하게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를 쫓아 잔디밭을 뛰어 건넜다.

제인은 엘리자베스만큼 몸이 가볍지도 않고 달리기에 익숙하지도 않아서, 곧 뒤처졌다. 그사이 엘리자베스는 숨을 헐떡이며 아버지를 따라잡았고, 다급하게 외쳤다.

"아, 아버지, 무슨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이에요? 외삼촌한테서 연락 왔어요?"

"그래, 급사 편으로 그 사람한테서 편지를 받았다."

"그래서, 무슨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기대할 만한 좋은 소식이 뭐가 있겠니?"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며 말했다. "그래도 네가 읽어 보고 싶을지도 모르겠구나."

엘리자베스가 참지 못하고 그의 손에서 편지를 낚아챘다. 그때 제인이 따라왔다.

"소리 내어 읽어 보거라," 아버지가 말했다. "나도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구나."

"그레이스처치 스트리트, 월요일, 8월 2일.

"친애하는 매부,

"마침내 조카 소식을 몇 가지 전할 수 있게 되었네.
전체적으로 보면 자네도 만족할 만한 내용일 거라 믿네.
토요일에 자네와 헤어진 뒤 다행히 그들이 런던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네.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겠네.
지금은 두 사람을 찾았다는 것만 알면 충분하네. 내가 두
사람을 다 만났거든——"

"그럼 내가 늘 바라던 대로구나," 제인이 외쳤다. "두 사람이
결혼했구나!"

엘리자베스는 계속 읽었다. "두 사람을 다 만났네. 둘은
결혼하지 않았고, 결혼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네.
하지만 내가 자네 쪽을 대신해 과감히 약속한 내용을 자네가
지켜 준다면, 두 사람이 결혼하는 날도 머지않을 걸세.
자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네와 내 누이가 세상을 떠난 뒤
자녀들에게 돌아갈 오천 파운드 중 자네 딸의 몫을 같은
액수로 증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네. 게다가 자네가 살아 있는
동안 딸에게 해마다 백 파운드씩 주겠다는 약속도 해야 하네.
이 조건들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내게 허락된 범위 안에서
자네를 대신해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네. 자네 답장을 받는 데

한시도 지체되지 않도록 이 편지는 급사 편으로 보내겠네. 이 내용을 보면 위컴 씨의 형편이 세간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걸세. 세상 사람들이 그 점에서 속은 셈이지. 기쁘게도 그의 빚을 모두 갚고도 약간의 돈이 남아, 조카 자신의 몫에 더해 조카 앞으로 떼어 줄 수 있을 걸세. 내 짐작대로 자네가 이 일 전반을 자네 이름으로 처리할 전권을 나에게 맡겨 준다면, 곧바로 해거스턴에게 적절한 증서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겠네. 자네가 다시 런던에 올 필요는 전혀 없을 걸세. 그러니 롱본에 조용히 머물며 내 부지런함과 세심함을 믿어 주게. 답장은 가능한 한 빨리 보내고, 분명하게 써 주게나. 우리는 조카가 이 집에서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판단했네. 자네도 찬성해 주었으면 좋겠군. 조카는 오늘 우리 집으로 온다네. 더 결정되는 일이 있으면 곧 다시 편지하겠네. 그럼 이만.

"에드워드 가드너."

"정말 가능한 일일까?" 엘리자베스가 다 읽고 외쳤다. "정말 그 사람이 리디아와 결혼한다는 거야?"

"그러면 위컴 씨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었네요," 언니가 말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그럼 편지에 답장은 하셨어요?" 엘리자베스가 물었다.

“아니다. 하지만 곧 해야지.”

그러자 엘리자베스는 더 지체하지 말고 어서 편지를 쓰시라고 아버지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오, 아버지,” 그녀가 외쳤다. “돌아가셔서 당장 편지를 쓰세요. 이런 경우에는 한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신 써 드릴게요,” 제인이 말했다. “아버지가 번거로우시면요.”

“난 그게 몹시 싫다,”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해야만 하지.”

그렇게 말하고 그는 그들과 함께 되돌아서서 집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여쭤봐도 될까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하지만 조건은, 아마 따라야만 하겠죠?”

“따르다니! 그가 그렇게 적게 요구한 게 오히려 부끄러울 뿐이다.”

“그래서 둘이 결혼해야 한다니!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 그래, 둘은 결혼해야 해. 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하지만 몹시 알고 싶은 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네 외삼촌이 이 일을 성사시키려고 돈을 얼마나 내놓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그 돈을 대체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가다."

"돈이라니! 외삼촌이요!" 제인이 외쳤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내 말은, 내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일 년에 백 파운드, 내가 죽은 뒤로는 오십 파운드, 그 정도 하찮은 미끼에 넘어가 리디아와 결혼할 제정신인 사내는 없다는 뜻이다."

"그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전에는 그 생각을 못 했지만요. 빚도 갚아야 하고, 그 밖에도 무언가 남아야 한다니! 아, 이건 틀림없이 외삼촌이 하신 일이겠죠! 너그럽고 좋으신 분, 혹시 무리를 하셨을까 걱정이에요. 적은 돈으로는 이 모든 걸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지," 아버지가 말했다. "위컴이 만 파운드에 한 푼이라도 모자라게 그 애를 데려간다면 그놈은 바보야. 우리가 이제 막 장인과 사위 사이가 되는 마당에 그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구나."

"만 파운드라니! 세상에 그럴 수가! 그 절반이라도 어떻게 갚는단 말이에요?"

베넷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각자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집에 닿을 때까지 말이 없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편지를 쓰러 서재로 갔고, 딸들은 아침 식사실로 들어갔다.

"정말로 결혼하게 된대!" 둘만 남게 되자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정말 이상하기도 하지! 그런데도 우리는 이 일을 고맙게 여겨야 해. 행복할 가능성이 그토록 희박하고 그 사람 됨됨이가 그토록 형편없는데도, 둘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기뻐해야만 하다니! 아, 리디아!"

"난 그가 리디아를 진정으로 아끼지 않았다면 결코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어," 제인이 대답했다. "우리의 너그러운 외삼촌이 그의 빚을 정리하는 데 얼마간 보탬을 주셨지만, 만 파운드나 그에 준하는 돈이 건네졌다고는 믿기 어려워. 외삼촌에게도 자식들이 있고 앞으로 더 생길지도 모르잖아. 만 파운드의 절반인들 어떻게 떼어 낼 수 있겠어?"

"위컴의 빚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우리 동생에게 얼마나 재산을 떼어 주기로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면,"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위컴은 제 돈이 한 푼도 없으니, 외삼촌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지 정확히 알게 될 거야. 외삼촌과 외숙모의 친절은 결코 갚을 수 없어. 리디아를 집으로 데려가 몸소 보호하고 감싸 주시는 건, 그

애에게 베푸는 희생이 너무 커서 몇 해를 두고 감사해도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야. 지금쯤 리디아는 실제로 외삼촌 댁에 가 있겠지! 그런 선의를 받고도 리디아가 지금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그 애는 결코 행복할 자격이 없어! 리디아가 외숙모를 처음 뵐 때 얼마나 민망하겠어!"

"우리는 양쪽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잊으려고 애써야 해," 제인이 말했다. "난 그래도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믿어. 그가 리디아와 결혼하는 데 동의한 건, 내가 믿고 싶은 대로라면, 그가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됐다는 증거야. 서로에 대한 애정이 두 사람을 든든하게 붙잡아 줄 거야. 그리고 난 둘이 조용히 자리 잡고 이성적으로 살아서, 시간이 지나면 지난날의 경솔함이 잊히리라고 스스로 기대하고 있어."

"그들이 한 행동은,"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언니도, 나도, 그 누구도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야. 그 얘기를 해 봤자 소용없어."

그러자 두 딸은 어머니가 아마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서재로 가서 아버지에게, 어머니께 알려 드리는 게 좋겠느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글을 쓰고 있었는데, 고개도 들지 않고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좋을 대로 하렴."

"외삼촌의 편지를 가져가서 어머니께 읽어 드려도 될까요?"

"가져가고 싶은 건 뭐든 가져가고, 이제 나가 보거라."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의 글 쓰는 탁자에서 편지를 집어 들었고, 두 사람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갔다. 메리와 키티도 베넷 부인과 함께 있었으니, 한 번 알리면 모두에게 전할 수 있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살짝 운을 뗀 뒤 편지를 소리 내어 읽었다. 베넷 부인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 리디아가 곧 결혼하리라는 가드너 씨의 희망이 담긴 대목을 제인이 읽자마자 기쁨이 터져 나왔고, 이어지는 문장마다 그 흥분은 더 커졌다. 부인은 이제 예전에 걱정과 짜증에 안절부절못하던 만큼이나 격렬하게 기쁨으로 들떠 있었다. 딸이 결혼하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딸의 행복이 걱정되지도 않았고, 딸이 저지른 잘못을 떠올리며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아이고, 우리 귀여운 리디아!" 그녀가 소리쳤다.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그 애가 결혼을 하게 되다니! 다시 그 애를 보게 되겠구나! 열여섯 살에 결혼을 하다니! 착하고 고마운 오라버니! 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오라버니가 모든 걸 잘 처리해 주실 줄 알았다니까. 그 애를 얼마나 보고 싶은지!

사랑하는 위컴도 보고 싶고! 그런데 옷, 결혼식 옷은 어떡하지! 당장 가드너 올케에게 편지를 써서 그 얘기를 해야겠어. 리지야, 얘, 아래층에 내려가서 아버지께 리디아에게 돈을 얼마나 주실 건지 여쭤보렴. 아니, 잠깐만, 내가 직접 가야겠다. 키티, 힐을 부르게 종을 울려. 금방 채비할게. 우리 귀여운 리디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즐겁겠니!"

맏딸은 가드너 씨 덕분에 모두가 크게 신세를 졌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떠올리게 하여, 이 격렬한 환희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려 애썼다.

"이 행복한 결말은," 그녀가 덧붙였다. "상당 부분 외삼촌의 친절 덕분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우리는 외삼촌께서 위컴 씨를 돕기 위해 돈을 대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 다 마땅한 일이지," 어머니가 외쳤다. "당연히 외삼촌이 나서셔야지. 외삼촌에게 자식이 없었다면 외삼촌 재산은 모두 나와 너희 차지가 되었을 거다, 알겠니? 그리고 외삼촌에게서 몇 가지 선물을 받은 것 말고는 이런 일은 처음이야. 아이고, 난 정말 행복하구나. 머지않아 딸을 시집보내게 될 테니까. 위컴 부인! 얼마나 근사하게 들리니! 게다가 그 애가 지난 유월에야 열여섯 살이 되었는데. 우리

귀여운 제인, 난 너무 들떠서 도저히 글을 쓸 수가 없구나. 그러니 내가 불러 줄 테니 네가 대신 써라. 돈 문제는 나중에 네 아버지와 의논하기로 하고, 옷은 당장 주문해야겠다."

그러고는 캘리코, 모슬린, 캠브릭 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제인이 어렵사리 설득하지 않았다면 곧 아주 많은 주문을 불러 줄 참이었다. 제인은 아버지가 한가해져서 상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다. 하루쯤 늦어진다고 큰일이 나지는 않는다고 했고, 베넷 부인도 너무 행복한 나머지 평소처럼 고집을 부리지는 않았다. 그사이 다른 계획들도 머릿속에 떠올랐다.

"메리턴에 가야겠다," 그녀가 말했다. "옷을 갈아입자마자 필립스 동생에게 이 좋은, 정말 좋은 소식을 알려 줘야지. 돌아오는 길에는 루카스 부인과 롱 부인에게도 들러야겠어. 키티, 얘, 아래층에 내려가서 마차를 대기시키렴. 바람을 쐬면 내 몸에 참 좋을 거야, 분명히. 얘들아, 메리턴에서 너희에게 뭐 사다 줄 건 없니? 아, 마침 힐이 오는구나. 힐, 우리 힐, 좋은 소식 들었어? 리디아 아가씨가 결혼하게 됐단다. 그러니 결혼식 날엔 너희 모두에게 펀치 한 사발을 내줄 테니 실컷 즐기려무나."

힐 부인은 즉시 기쁨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축하를 받았지만, 이런 어리석은 소동에 질려 자기 방으로 피해 들어갔다. 마음 놓고 생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가엾은 리디아의 처지는 아무리 좋게 보아도 나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다.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느꼈다. 앞날을 내다보면 동생에게 이성적인 행복이나 세속적인 번영을 제대로 기대할 수 없었지만, 불과 두 시간 전에 그들이 두려워하던 일을 돌아보면 지금의 결과가 얼마나 다행인지 절실히 느꼈다.

제50장



휴 톰슨, 제50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베넷 씨는 이 시기 이전에도 여러 번 바랐었다. 자신의 수입을 모두 쓰지 않고 해마다 얼마씩 떼어 두었더라면, 자식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죽은 뒤 아내가 살아

있다면 아내도 더 잘 돌볼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이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그렇게 바랐다. 그 점에서 자기 의무를 다했더라면, 리디아가 지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명예나 체면을 위해 외삼촌에게 빚질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영국에서 가장 쓸모없는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을 설득해 그녀의 남편으로 삼았다는 만족감도, 마땅히 그 자신의 몫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이 일이 아무에게도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인데 처남 한 사람의 비용만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진심으로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처남이 얼마나 도와주었는지 알아내고, 되도록 빨리 그 빚을 갚겠다고 마음먹었다.

베넷 씨가 처음 결혼했을 때는 절약이란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당연히 아들이 태어날 터였기 때문이다. 이 아들은 성년이 되면 상속 제한을 풀어 버리는 데 힘을 보탤 것이고, 그렇게 해서 미망인과 어린 자식들이 살아갈 길이 마련될 터였다. 딸 다섯이 차례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래도 아들은 올 예정이었다. 베넷 부인은 리디아가 태어난 뒤로도 여러 해 동안 그 아들이 태어나리라 굳게 믿었다. 그 일은 결국 단념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아끼기에는 너무 늦은

뒤였다. 베넷 부인은 절약에는 소질이 없었고, 남편이 독립적으로 살려는 마음이 강했기에 가까스로 수입을 넘지 않을 수 있었을 뿐이다.

오천 파운드가 혼인 계약서에 따라 베넷 부인과 자식들 몫으로 묶였다. 그러나 그 돈을 자식들 사이에 어떤 비율로 나눌지는 부모의 뜻에 달려 있었다. 적어도 리디아에 관해서는 이제 그 문제를 정해야 했고, 베넷 씨는 눈앞에 놓인 제안에 동의하는 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처남의 친절에 감사하는 뜻을 아주 간결하게 글로 적어 보내며, 이루어진 모든 일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자기를 대신해 맺어진 약속을 기꺼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위컴이 자기 딸과 결혼해 준다면 그 일이 지금의 방식처럼 자기에게 적은 부담으로 이루어지리라고는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들에게 해마다 백 파운드를 지급하더라도 그가 실제로 손해 보는 돈은 한 해 십 파운드도 되지 않을 것이었다. 리디아의 숙식비와 용돈,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거쳐 그녀에게 끊임없이 건네진 금품을 모두 합쳐 봐도, 리디아에게 들던 돈이 이미 그 액수에서 크게 모자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쪽에서는 이렇게 적은 노력만 들이고도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또 하나의 반가운 놀라움이었다. 지금 그의 가장 큰 바람은 이 일에 최대한 수고를 들이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리디아를 찾으려고 그를 움직이게 했던 분노의 첫 격정이 가라앉자, 그는 자연스럽게 예전의 무기력으로 돌아갔다. 편지는 곧 발송되었다. 그는 일을 시작하는 데는 느렸지만 처리하는 데는 빨랐기 때문이다. 그는 처남에게 진 빚이 어떤 것인지 더 자세히 알려 달라고 청했지만, 리디아에게는 화가 너무 나서 아무 말도 전하지 않았다.

좋은 소식은 곧 집 안에 퍼졌고, 그만큼 빠르게 동네에도 퍼졌다. 동네 사람들은 그 소식을 제법 의연하게 견뎌 냈다. 물론 리디아 베넷 양이 거리의 여자로 전락하거나, 가장 좋은 대안으로 어느 먼 농가에 숨겨져 세상과 떨어져 지냈다면 이야깃거리로는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결혼하는 일에도 이야기할 거리는 많았다. 메리턴의 심술궂은 노부인들이 앞서 그녀가 잘되기를 바란다며 늘어놓던 선의 어린 축원도, 이런 형편의 변화 속에서도 그 기세를 거의 잃지 않았다. 그런 남편을 맞았으니 그녀의 불행은 틀림없다고 다들 여겼기 때문이다.

두 주 동안 베넷 부인은 아래층에 내려오지 못했지만, 이 기쁜 날에는 다시 식탁 상석에 앉았다. 그 기분은 숨이 막힐 만큼 들떠 있었다. 수치심 같은 감정은 조금도 그녀의 승리에 찬물을 끼얹지 못했다. 제인이 열여섯 살이던 때부터 그녀가 가장 바라 온 일, 곧 딸을 시집보내는 일이 이제 막 이루어지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생각과 말은 온통 화려한 혼례에 따라붙는 것들, 곱고 얇은 모슬린, 새 마차, 하인들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딸에게 알맞은 살림자리를 찾느라 이웃 곳곳을 뒤지고 다녔고, 두 사람의 수입이 얼마나 될지는 알지도 따져 보지도 않은 채 규모와 격이 모자란다며 많은 곳을 퇴짜 놓았다.

"하이 파크라면 괜찮겠네요." 그녀가 말했다. "굴딩 가족이 나간다면요. 아니면 스토크의 큰 저택도 응접실만 더 넓으면 좋을 텐데. 애슈워스는 너무 멀어요. 그 애가 나한테서 십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건 견딜 수 없어요. 퍼비스 로지는 다락방이 끔찍하고요."

하인들이 자리에 남아 있는 동안 남편은 아내가 말을 끊지 않고 이어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하인들이 물러가자,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베넷 부인, 당신의 사위와 딸을 위해 이 집들 가운데 하나라도, 아니 전부라도 얻기 전에, 우리

서로 분명히 해 둡시다. 이 근처에 그 애들이 절대 발을 들일 수 없는 집이 하나 있소. 나는 롱본에 받아들여서 둘 중 누구의 경솔함도 부추기지 않겠소."

이 선언 뒤에 긴 다툼이 이어졌지만, 베넷 씨는 단호했다. 다툼은 곧 또 다른 다툼으로 번졌고, 베넷 부인은 놀라움과 공포 속에서 남편이 딸의 옷을 살 돈으로 한 기니도 내놓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번 일에 대해 딸에게 어떤 애정의 표시도 주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베넷 부인은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분노가 그토록 헤아릴 수 없는 원한의 지경에 이르러, 그것 없이는 결혼이 제대로 성립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을 특권을 딸에게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그녀가 믿을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일이었다. 그녀는 딸이 도망쳐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위컴과 두 주나 함께 살았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보다, 새 옷이 없어서 딸의 혼례에 드리워질 망신에 훨씬 더 민감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그 순간의 괴로움에 휩쓸려 다아시 씨에게 동생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은 것을 진심으로 후회했다. 곧 결혼이 이루어져 이 도피 사건에 걸맞은 결말이 날 테니, 그 불리한 시작은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 모두에게서 감출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일이 그의 입을 통해 더 멀리 퍼질 것이라는 걱정은 없었다. 그녀가 그보다 더 굳게 비밀을 지켜 주리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러나 동시에 여동생의 허물을 다른 누가 알았어도 그가 아는 것만큼 그녀를 부끄럽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일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리라는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다. 어쨌든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이 이미 놓여 있는 듯했기 때문이다. 리디아의 결혼이 가장 명예로운 조건으로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다아시 씨가 자신이 그토록 정당하게 경멸하는 남자와 가장 가까운 인척 관계를 맺게 되리라고는 여겨지지 않았다. 다른 모든 반대 이유에 더해 그런 관계까지 생기는 가문과 그가 인연을 맺을 리는 없었다.

그런 인연을 맺는다는 것에 그가 움찔하는 것을 그녀가 이상하게 여길 수는 없었다. 더비셔에서 그가 품고 있다고 그녀가 확신했던, 그녀의 호감을 얻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타격을 받고서도 남아 있을 리 없었다. 그녀는 자존심이 꺾였고, 마음이 아팠다. 무엇을 후회하는지도 잘 알지 못했지만 후회했다. 그의 존중에서 이익을 얻을 희망이 더는 없게 되자, 그녀는 그 존중을 잃을까 애태우게 되었다. 소식을 얻을 가능성이 가장 희박해 보일 때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일이 더는 없을 듯해지자,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승리일까, 그녀는 자주 생각했다. 불과 넉 달 전에 도도하게 물리쳤던 그의 청혼을 이제는 자신이 기꺼이,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리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다면. 그는 남자들 가운데 누구보다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도 사람인 이상, 승리의 기쁨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야 그가 성품과 재능에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을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지성과 기질은 그녀의 것과 달랐지만, 그녀가 바랐던 모든 것에 들어맞았을 것이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이로웠을 결합이었다. 그녀의 편안함과 명랑함으로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그의 태도는 나아졌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의 판단력과 식견, 세상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그녀는 더 중요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행복한 결혼이 감탄하는 뭇사람들에게 부부의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는 없었다. 그와는 방향이 다르고 다른 가능성을 아예 막아 버리는 결합이 곧 그들의 가문 안에서 이루어질 참이었다.

위컴과 리디아가 그럭저럭 독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뒷받침될지는 그녀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덕성보다 욕정이 강했기에 맺어진 한 쌍에게 영속적인 행복이 얼마나 돌아갈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가드너 씨는 곧 매부에게 다시 편지를 썼다. 베넷 씨의 감사 인사에 그는 짧게 답했다. 가족 중 누구의 행복이든 기꺼이 돕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이 일을 다시는 자신에게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편지를 맺었다.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은 위컴 씨가 민병대를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알리는 데 있었다.

"그가 결혼이 확정되자마자 그렇게 해 주기를 나는 무척 바랐소." 그는 덧붙였다. "그 연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나 우리 조카를 위해서나 크게 바람직하다는 데 당신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오. 위컴 씨는 정규군에 들어갈 생각이오. 그리고 그의 옛 친구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그가 군에서 자리 잡도록 도울 능력과 뜻이 있는 사람이 있소. 그는 지금 북쪽에 주둔해 있는 ——장군 연대의 소위 자리를 약속받았소. 연대가 이 지방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도 이점이오. 그는 성실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소.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저마다 지켜야 할 평판이 생기면 두 사람 모두 더 신중해지기를 바라오. 나는 포스터 대령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가 지금 정한 방안을 알리고, 브라이턴 안팎에 있는 위컴 씨의 여러 채권자들에게 내가 보증한 대로 곧 갚겠다는 약속을 전해 달라고 부탁했소. 그리고 당신도 수고스럽겠지만 메리턴에 있는 그의 채권자들에게도 같은 약속을 전해 주겠소? 그가 알려준 대로 내가 명단을 덧붙이겠소. 그는 빚을 모두 신고했소. 적어도 우리를 속이지는 않았기를 바라오. 해거스턴에게 우리 지시를 전해 두었으니 일주일이면 모두 끝날 것이오. 그다음에는 먼저 롱본에 초대받지 않는 한 그들은 연대에 합류할 것이오. 가드너 부인의 말로는 우리 조카가 남쪽을 떠나기 전에 당신들 모두를 꼭 보고 싶어 한다 하오. 그 애는 잘 지내고 있으며, 당신과 그 애 어머니께 공손히 안부 전해 달라고 부탁했소. —이만 줄이오.

"에드워드 가드너."

베넷 씨와 그의 딸들은 가드너 씨만큼이나 분명하게, 위컴이 ——셔 민병대를 떠나는 데서 생기는 모든 이점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베넷 부인은 그 일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리디아가 북쪽에 자리 잡게 된 것은, 딸이 곁에 있어 가장 큰 기쁨과 자랑을 누리리라 기대하던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었다. 베넷 부인은 리디아 부부가 하트퍼드셔에 살리라는 계획을 결코 버리지 않았기에, 이는 심각한

실망이었다. 게다가 리디아가 모든 사람을 알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던 연대에서 떠나게 되다니, 그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 애가 포스터 부인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녀가 말했다. "그 애를 떠나보내다니 정말 끔찍할 거예요! 게다가 그 애가 아주 좋아하는 젊은 남자들도 여럿 있잖아요. ——장군 연대의 장교들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베넷 씨의 딸이 북쪽으로 떠나기 전에 다시 가족의 품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한 청은, 청이라고 여길 수 있다면 말이지만,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당했다. 그러나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동생의 감정과 체면을 생각해 결혼한 뒤에는 부모가 딸을 인정해 주기를 바랐고, 그래서 리디아와 그 남편이 결혼하는 대로 곧 두 사람을 롱본에 맞아들이도록 아버지를 아주 간절하면서도 이치에 맞게, 그리고 부드럽게 설득했다. 결국 그는 두 딸의 생각에 따르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리고 베넷 부인은 결혼한 딸을 북쪽으로 쫓겨 가기 전에 이웃들에게 보여 줄 수 있으리라는 데서 만족을 얻었다. 그리하여 베넷 씨는 처남에게 다시 편지를 쓰며 그들이 와도 좋다는 허락을 보냈고, 결혼식이 끝나는 대로 롱본으로 오기로 정해졌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위컴이 그런 계획에 동의한 것이 놀라웠다. 그녀 자신의 마음만 따랐다면, 그와 다시 마주치는 일은 그녀가 가장 바라지 않는 일이었을 것이다.

제51장



휴 톰슨, 제51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동생의 결혼식 날이 왔다.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아마 리디아 본인보다 더 그 일을 가슴 아파했을 것이다. 마차가 '——'까지 마중을 나가기로 했고, 그들은 그 마차를 타고 저녁 식사 시간까지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다. 베넷 집안의 두 언니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두려웠다. 특히 제인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였더라면 느꼈을 감정을 리디아에게 대신 느끼며, 동생이 견뎌야 할 일을 생각하고 괴로워했다.

그들이 왔다. 가족들은 그들을 맞이하려고 아침 식사실에 모여 있었다. 마차가 현관 앞으로 들어서자 베넷 부인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그녀의 남편은 속을 알 수 없을 만큼 근엄한 표정이었고, 딸들은 놀라고 불안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리디아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다. 문이 활짝 열리고 그녀가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베넷 부인이 앞으로 나서서 그녀를 끌어안고 황홀해하며 맞이했다. 그리고 뒤따라 들어온 위컴에게는 다정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 모두에게 행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 태도가 너무도 명랑해서, 그들이 행복하리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듯했다.

그들이 다음으로 향한 베넷 씨의 반응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오히려 더 엄격해졌고, 그는 입을 거의 열지 않았다. 사실 젊은 부부의 태연한 자신감만으로도 그를 화나게 하기에 충분했다.

엘리자베스는 역겨웠고, 베넷 양조차 충격을 받았다. 리디아는 여전히 리디아였다. 길들여지지 않았고, 거리낌이 없었으며, 거칠고, 시끄럽고, 두려움을 몰랐다. 그녀는 한 언니에게서 다른 언니에게로 몸을 돌리며 축하를 요구했다. 그러다 마침내 모두가 자리에 앉자, 그녀는 방 안을 열심히 둘러보고, 거기 생긴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웃으며 그곳에 와 본 지 꽤 오래되었다고 말했다.

위컴도 리디아와 마찬가지로 조금도 거북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언제나 사람을 끌어당기는 데가 있어서, 그의 성품과 결혼이 마땅히 그래야 할 대로였다면, 친척이 되었음을 내세우며 짓는 그의 미소와 태연한 말투는 그들 모두를 기쁘게 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그토록 뻔뻔한 자신감을 지닐 만큼 대담하다고는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앞으로는 뻔뻔한 사람의 뻔뻔함에 어떤 한계도 두지 않으리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녀는 얼굴을 붉혔고, 제인도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그들을 당황하게 만든 두 사람의 뺨은 빛깔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가 끊어지는 일은 없었다. 신부와 그녀의 어머니는 둘 다 말을 쉴 새 없이 쏟아냈고, 마침 엘리자베스 곁에 앉게 된 위컴은 그 근방에 있는 지인들의 안부를 묻기 시작했다. 그 태도는 유쾌할 만큼 여유로웠고,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대답하면서 그만큼 여유롭게 굴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각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과거의 어떤 일도 괴로운 기억으로 떠올리지 않았고, 리디아는 자진해서 언니들이라면 결코 입에 올리지 않았을 화제들을 꺼냈다.

"벌써 석 달이나 됐다니 생각해 봐요," 그녀가 외쳤다. "내가 떠난 게 말이에요. 내 장담하는데 겨우 이 주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일어난 일이 정말 많아요. 세상에! 내가 떠날 때만 해도, 돌아오기 전에 결혼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하긴 결혼하면 아주 재미있겠다고는 생각했지만요."

그녀의 아버지는 눈을 들었고, 제인은 괴로워했으며, 엘리자베스는 리디아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모른 척하기로 한 것은 듣지도 보지도 않는 리디아는 명랑하게 계속 말했다.

"아, 어머니, 이 근처 사람들이 제가 오늘 결혼한 걸 알고 있을까요? 혹시 모를까 봐 걱정했는데, 마침 윌리엄 굴딩이 경마차를 타고 가는 걸 따라잡았지 뭐예요. 그래서 꼭 알게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 사람 쪽 옆 창문을 내리고 장갑을 벗은 다음 손을 창틀에 살짝 올려놓았어요. 반지가 보이도록요. 그러고 나서 정말 신나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웃어 주었지요."

엘리자베스는 더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들이 홀을 지나 식당으로 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제야 그녀는 그들과 합류했다. 때마침 리디아가 한껏 으스대며 어머니의 오른편 자리로 걸어가 맏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아, 제인 언니, 이제 내가 언니 자리를 차지할 거야. 언니는 한 자리 아래로 내려가야 해, 난 이제 결혼한 여자니까."

처음부터 리디아에게는 조금도 없던 부끄러움이 시간이 지난다고 생길 리는 없었다. 그녀의 태연함과 쾌활함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필립스 부인과 루카스 집안, 그 밖의 이웃들을 모두 보고 싶어 했고, 그들 각자에게 '위컴 부인'이라고

불리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다. 그동안 그녀는 저녁 식사 뒤에 반지를 보여 주러 나갔고, 힐 부인과 하녀 둘에게 자기가 결혼했다고 자랑했다.

"자, 어머니," 모두 아침 식사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가 말했다. "내 남편은 어떤 것 같아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지 않아요? 언니들이 전부 나를 부러워하겠지요. 언니들도 내 운의 절반만이라도 따랐으면 좋겠어요. 언니들도 다 브라이턴에 가야 해요. 남편감을 구하려면 거기로 가야 하거든요. 어머니, 우리가 다 같이 가지 못한 게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정말 그렇구나. 내 뜻대로 됐다면 우리 모두 갔을 거야. 하지만 리디아야, 네가 그렇게 먼 곳으로 가는 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꼭 그래야 하니?"

"아이고, 그럼요!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건 오히려 아주 좋을 거예요. 어머니랑 아버지, 언니들도 꼭 내려와서 우리를 보러 와야 해요. 우리는 겨우내 뉴캐슬에 있을 거고, 무도회도 분명 열릴 테니까 언니들 모두에게 좋은 춤 상대를 구해 줄게요."

"그럼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떠나실 때 언니들 한두 명은 거기 남겨 두고 가셔도 돼요. 겨울이 끝나기 전에 내가 그 언니들 남편감도 구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해요."

"내 몫까지 마음 써 줘서 고맙구나,"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하지만 네 식으로 남편감 구하는 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들의 손님들은 그들과 함께 열흘 넘게 머물지 않기로 했다. 위컴 씨는 런던을 떠나기 전에 임관장을 받았고, 이 주일이 지나면 연대에 합류하기로 되어 있었다.

아무도 그들이 이렇게 짧게 머문다는 사실을 아쉬워하지 않았지만, 베넷 부인만은 예외였다. 그녀는 딸과 함께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고 집에서도 파티를 아주 자주 열며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했다. 이런 모임은 누구에게나 반가웠다. 가족끼리만 마주 앉는 자리를 피하는 것은, 생각 없는 사람들보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일이었다.

위컴이 리디아에게 품은 애정은 엘리자베스가 짐작했던 그대로였다. 리디아가 그에게 품은 애정만큼은 아니었다. 엘리자베스는 지금 목격한 것이 없어도, 이 도주가 그의 사랑보다 리디아의 사랑이 더 강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사리로 따져 보아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그의 도피가 궁핍한 처지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확신하지 않았더라면, 엘리자베스는 그가 리디아를 열렬히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굳이 함께 달아났는지 의아해했을 것이다. 그런 사정이라면, 그는 동행을 얻을 기회를 마다할 청년이 아니었다.

리디아는 그를 몹시 좋아했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사랑하는 위컴이었고, 그 누구도 그와 견줄 수 없었다. 그는 세상의 무엇이든 가장 잘했고, 리디아는 구월 첫날에 그가 이 근방 누구보다도 더 많은 새를 잡을 거라고 확신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이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리디아는 두 언니와 함께 앉아 있다가 엘리자베스에게 말했다.

"리지 언니, 내 결혼식 이야기를 언니한테 제대로 해 준 적이 없지? 어머니랑 다른 언니들에게 다 이야기했을 때 언니는 옆에 없었잖아. 어떻게 치러졌는지 듣고 싶지 않아?"

"아니, 정말이지 됐어,"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그 얘기는 적게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

"세상에, 언니도 참 이상하다! 하지만 어떻게 치러졌는지는 꼭 말해 줘야겠어. 알잖아, 우리는 세인트 클레먼트에서 결혼식을 올렸어. 위컴의 하숙집이 그 교구에 있었거든. 그래서 열한 시까지 모두 거기 가 있기로 정해져 있었어. 나는 외삼촌, 외숙모와 함께 가기로 했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기로 했지.

"글쎄, 월요일 아침이 왔는데 나는 정말 법석을 떨었어! 알잖아, 무슨 일이 생겨서 날짜가 미뤄질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랬으면 나는 정말 미쳐 버렸을 거야. 그리고 내가 옷을 입는 내내 외숙모는 설교를 읊듯이 쉬지 않고 떠들고 계셨어. 하지만 나는 열 마디에 한 마디나 들었을까 말까 했어. 짐작하겠지만 내 사랑하는 위컴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 그가 파란 코트를 입고 결혼할지 너무 궁금했어.

"그래서 우리는 여느 때처럼 열 시에 아침을 먹었어. 그 아침 식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더라. 참, 그 전에 알아 둬야 할 게 있어. 외삼촌과 외숙모는 내가 그분들과 함께 지내는 내내 정말 불쾌한 사람들이었어.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기 이 주나 있었는데도 한 번도 밖에 발을 내디디지 못했어. 파티도, 계획도,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물론 런던은 사람이 좀 빠져 있었지만, 그래도 리틀 극장은 열려 있었어.

"그래, 그래서 마차가 문 앞에 닿자마자 외삼촌이 그 끔찍한 스톤 씨와 볼일이 있다며 불려 나가셨어. 그리고 알잖아, 그 사람들은 한 번 만나면 끝이 없거든. 나는 어쩔 줄 몰라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몰라. 외삼촌이 나를 신랑에게 넘겨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간을 넘기면 하루 종일 결혼식을 올릴 수 없었을 거야. 다행히 외삼촌은 십 분 뒤에 돌아오셨고, 그제야 우리 모두 출발했어.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외삼촌이 가실 수 없었더라도 결혼식을 미룰 필요는 없었겠더라고. 다아시 씨가 대신 해도 됐을 테니까."

"다아시 씨!" 엘리자베스가 깜짝 놀라 되뇌었다.

"오, 맞아! 다아시 씨도 위컴과 함께 거기 오기로 되어 있었어. 그런데 세상에, 깜빡했네! 그 얘기를 하면 안 됐는데. 그 사람들과 그렇게 굳게 약속했는데! 위컴이 뭐라고 할까? 정말 비밀이었는데!"

"비밀이라면," 제인이 말했다. "그 얘기는 더 하지 마. 난 더 묻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

"오, 물론이지," 엘리자베스가 호기심에 몸이 달았으면서도 말했다. "우리도 더는 묻지 않을게."

"고마워," 리디아가 말했다. "물어보면 나는 분명 다 말해 버릴 테고, 그러면 위컴이 얼마나 화를 내겠어."

그렇게 물어보라고 부추기는 말까지 듣자, 엘리자베스는 아예 물어볼 수 없도록 자리를 피해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일을 모른 채 지낸다는 건 불가능했다. 적어도 사정을 알아보려 애쓰지 않을 수는 없었다. 다아시 씨가 동생의 결혼식에 와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그가 거기 있을 이유가 가장 없고, 그곳에 갈 유혹도 가장 적을 법한 자리, 그런 사람들 틈에서였다. 그 일의 뜻을 두고 빠르고 거친 추측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어느 것도 마음에 차지 않았다. 그중 그의 행동을 가장 고귀하게 보여 주어 가장 마음에 드는 추측들이 오히려 가장 그럴듯하지 않아 보였다. 엘리자베스는 이런 불확실함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급히 종이 한 장을 집어 들고, 리디아가 흘린 말이 비밀을 지키려던 약속과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외숙모에게 짧은 편지를 썼다.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고, 우리 집안과도 상대적으로 낯선 사람이 왜 그런 때 외숙모 곁에 있었는지, 제가 얼마나 궁금한지는 쉽게 짐작하실 거예요," 그녀가 덧붙였다. "제발 지금 당장 답장을 주셔서 알려 주세요. 다만 리디아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비밀을 지켜야 할 아주 중대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그대로 두고, 저는 모르는 채로 만족하도록 애써야겠지요."

"물론 모르는 채로 만족할 생각은 없지만," 그녀는 속으로 덧붙이고 편지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외숙모, 외숙모가 떳떳하게 말해 주지 않으면 저는 결국 알아내려고 꾀와 계략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인은 섬세한 명예심 때문에 리디아가 흘린 말을 엘리자베스와 단둘이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그것을 오히려 반겼다. 자신의 물음에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 확실해질 때까지는, 털어놓을 상대가 없는 편이 낫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제52장



휴 톰슨, 제52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엘리자베스는 바랄 수 있는 가장 빠른 때에 답장을 받는 만족을 누렸다. 편지를 손에 넣자마자 그녀는 서둘러 작은 숲으로 들어갔다. 그곳이라면 방해받을 일이 가장 적을 것이었다. 벤치 하나에 앉은 그녀는 행복해질 준비를 했다. 편지가 길다는 사실만으로도 거절의 내용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레이스처치 스트리트, 9월 6일.

"사랑하는 조카에게,

"편지를 받자마자 나는 오늘 오전을 모두 이 답장에 쓰기로 했다. 할 말을 조금 적는 것으로는 다 담기지 않을 듯하기 때문이다. 네 부탁을 보고 놀랐다고 고백해야겠구나. 너에게서 그런 부탁이 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내가 말하려는 것은 네 쪽에서 그런 문의가 필요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뿐이다. 내 말을 이해하고 싶지 않다면 내 무례를 용서해라. 네 외삼촌도 나만큼이나 놀랐다. 네가 이 일과 관련이 있다고 믿지 않았다면 그이도 지금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정말 아무 죄도 없고 모르는 일이라면 내가 좀 더 분명히 말해야겠구나. 내가 롱본에서 돌아온 바로 그날, 네 외삼촌에게 아주 뜻밖의 손님이 왔다. 다아시 씨가 찾아와 몇 시간이나 외삼촌과 단둘이 틀어박혀 있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으니, 네 호기심이 그랬던 것만큼 내 호기심이 그렇게 끔찍하게 고문당하지는 않았다. 그는 가드너 씨에게 네 동생과 위컴 씨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다고, 두 사람을 모두 만나 이야기했다고 전하러 온 것이었다. 위컴은 여러 번, 리디아는 한 번 만났다고 했다. 내가 들은 바로는, 다아시 씨는 우리가 떠난 다음 날 더비셔를 떠나 두 사람을 찾을 결심으로 런던에 왔다. 그가 내세운 동기는 위컴의 형편없는 본모습이 널리 알려졌더라면 품행 바른 젊은 아가씨가 그를 사랑하거나 믿는 일은 있을 수 없었을 텐데, 그렇게 알려지지 못한 것이 자기 탓이라는 믿음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된 자존심 때문이라고 너그럽게 말하면서, 그전에는 자기 사사로운 행동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인품이 스스로를 말해 주리라 여겼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때문에 생긴 악을 바로잡으려 나서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다른 동기가 있었다 해도 나는 결코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는 그들을 찾기까지 며칠이나 런던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없던 단서를 쥐고 있었고, 그것을 의식한 것도 우리를 따라오기로 한 또 하나의 이유였다. 영 부인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녀는 얼마 전까지 다아시 양의 가정교사였다가 — 그가 무엇 때문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 비난받을 일로 해고당했다고 한다. 그 뒤 영 부인은 에드워드 스트리트에 큰 집을 얻어 방을 세놓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이 영 부인이 위컴과 가깝게 지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소식을 알아보러 그녀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 내기까지 이삼 일이 걸렸다. 그녀는 아마 뇌물과 매수가 없으면 자기를 믿는 사람을 배신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그녀는 친구가 어디 있는지 정말 알고 있었다. 실제로 위컴은 두 사람이 처음 런던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찾아갔었고, 그녀가 자기 집에 들일 수 있었다면 두 사람은 그 집에 묵었을 것이다. 결국 우리의 그 친절한 친구는 바라던 주소를 알아냈다. 그들은 —— 스트리트에 있었다. 그는 위컴을 만났고, 그다음에는 리디아를 만나겠다고 고집했다. 그가 리디아를 만난 첫째 목적은 그녀가 지금의 수치스러운 처지를 벗어나, 식구들이 받아 줄 마음이 생기면 곧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설득하는 것이었다고 그는 인정했다. 자기가 해 줄 수 있는 도움은 어디까지든 주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는 리디아가 그곳에 머물기로 완전히 결심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가족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았고, 그의 도움도 필요 없었으며, 위컴을 떠나는 이야기는 듣지도 않으려 했다. 그녀는 언젠가는 결혼하게 될 테고 그게 언제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 마음이라면 이제

남은 일은 결혼을 확실히 하고 서둘러 치르게 하는 것뿐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런데 위컴과 처음 나눈 대화에서 위컴에게는 애초에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을 그는 쉽게 알아챘다. 위컴은 매우 급한 노름빚 때문에 연대를 떠나야 한다고 고백했고, 리디아가 달아난 데 따른 모든 나쁜 결과를 그녀 자신의 어리석음 탓으로 돌리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그는 즉시 장교직을 내놓을 생각이었지만 앞으로의 처지에 대해서는 별로 짐작하지 못했다. 어딘가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살아갈 수단도 없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다아시 씨는 왜 바로 너희 동생과 결혼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베넷 씨가 그리 부자라고 여겨지지는 않았지만 그를 위해 뭔가는 해 줄 수 있었을 것이고, 결혼은 위컴의 처지를 나아지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는 위컴이 다른 지방에서 결혼으로 한밑천을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런 사정이라면 당장 눈앞의 도움이라는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두 사람은 의논할 것이 많아 여러 번 만났다. 위컴은 물론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랐지만, 결국 분수를 알고 고분고분해질 수밖에 없었다. 둘 사이의 모든 것이 정리되자, 다아시 씨가 다음으로 할 일은 그것을 네 외삼촌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집에 돌아오기 전날 저녁 처음

그레이스처치 스트리트를 찾아갔다. 하지만 가드너 씨를 만날 수 없었고, 다시 알아보니 너희 아버지가 아직 외삼촌과 함께 있지만 다음 날 아침 런던을 떠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너희 아버지가 외삼촌만큼 의논하기에 적절한 상대라고 판단하지 않았기에, 기꺼이 아버지가 떠난 뒤로 만남을 미루었다. 그는 이름을 남기지 않아서, 다음 날까지도 어떤 신사가 용무가 있어 찾아왔다는 것만 알려졌다.
토요일에 그는 다시 왔다. 너희 아버지는 떠났고 네 외삼촌은 집에 있었으며, 앞서 말했듯이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요일에 그들은 다시 만났고, 그때 나도 그를 보았다. 월요일이 되어서야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정리되자마자 롱본으로 급사를 보냈다. 그런데 우리 손님은 아주 고집이 셌다. 리지, 결국 그의 진짜 결점은 그 고집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는 그동안 여러 가지 잘못을 지적받았지만 이것이 진짜 잘못이다. 그가 직접 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물론 네 외삼촌이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처리해 주었을 것이다(내가 감사를 바라고 하는 말은 아니니 너도 이 일은 입 밖에 내지 마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실랑이를 벌였는데, 당사자인 그 신사나 숙녀는 그만한 수고를 받을 자격도 없었다. 그러나 결국 네 외삼촌은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조카를 도울 수 있게 되기는커녕, 남들이 짐작으로 그에게 돌릴 공만 떠안는 것으로 참아야 했는데,

이는 그의 마음에 몹시 거슬렸다. 그런데 나는 오늘 아침 네 편지가 외삼촌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편지가 설명을 요구했고, 그 설명은 그가 빌린 깃털을 벗겨 내고 칭찬을 마땅히 받을 사람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지, 이 이야기는 너만 알고 있거나 기껏해야 제인에게만 해야 한다. 젊은 두 사람을 위해 무엇이 행해졌는지는 너도 대충 알고 있겠지. 그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천 파운드를 훨씬 넘는다. 리디아에게는 원래 그 애 몫 외에 천 파운드를 더 정해 주고, 그에게 장교 자리도 사 주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그 혼자 해야 한다는 이유는 내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위컴의 인품이 그토록 잘못 이해되었고, 그 결과 그가 지금처럼 받아들여지고 관심을 받게 된 것은 다아시 씨 탓이었다. 그의 과묵함과 적절한 배려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이 말에 얼마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의 과묵함, 혹은 누구의 과묵함이든 이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을지 나는 의문이다. 그러나 이토록 훌륭한 말들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리지, 다아시 씨에게 이 일에 다른 속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네 외삼촌은 결코 양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너는 확신해도 좋다. 이 모든 것이 결정되자 그는 여전히 펨벌리에 머물고 있던 친구들에게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결혼식이 치러질 때 그가 다시 런던에 와 있기로 했고,

모든 금전 문제는 그때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나는 이제 네게 모든 것을 말한 듯하다. 네 말로는 이 이야기가 네게 큰 놀라움을 줄 것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불쾌감은 주지 않기를 바란다. 리디아는 우리에게 왔고, 위컴은 집에 늘 드나들었다. 그는 내가 하트퍼드셔에서 알던 때와 똑같았다. 하지만 리디아가 우리 집에 머무는 동안 그 애의 행동에 내가 얼마나 만족하지 못했는지는 말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제인의 편지를 보고, 집에 돌아온 뒤 그 애의 행동이 바로 그와 똑같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네게 새로운 고통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그 애에게 여러 번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그 애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나쁜지, 가족에게 얼마나 큰 불행을 안겼는지 일러 주었다. 내 말이 그 애 귀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순전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겠지. 그 애는 분명 귀 기울여 듣지 않았으니까. 나는 때로 몹시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엘리자베스와 제인을 떠올리며 그 애에게 참을성을 가졌다. 다아시 씨는 약속대로 돌아왔고, 리디아가 네게 알린 것처럼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는 다음 날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었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다시 런던을 떠날 예정이었다. 리지, 이 기회에 내가 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한다면 너는 내게 몹시 화를 낼 것 같니? 이 말은 전에는 감히 하지 못했다. 우리에게 보여 준 그의 행동은 모든 면에서 더비셔에 있을

때만큼이나 기분 좋았다. 그의 지성과 의견은 모두 내 마음에 들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라곤 약간의 명랑함뿐인데, 신중하게 결혼한다면 아내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가 아주 음흉하다고 생각했다. 네 이름은 거의 입에 올리지 않았거든. 하지만 음흉함이 요즘 유행인 듯하구나. 내가 너무 주제넘었다면 용서해 다오. 아니면 적어도 나를 벌해서 펨벌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는 말아 다오. 나는 그곳 정원을 한 바퀴 다 돌아보기 전에는 결코 완전히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아주 예쁜 조랑말 한 쌍이 끄는 낮은 무개 마차면 딱 맞겠구나. 하지만 이제 더 쓸 수가 없구나. 아이들이 반 시간 전부터 나를 찾고 있어서.

"진심을 담아,

"엠. 가드너."

이 편지의 내용이 엘리자베스를 들뜨게 만들었고, 그 들뜬 마음속에서 기쁨과 고통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가리기는 어려웠다. 불확실함 속에서 생긴 막연하고 불안정한 짐작, 즉 다아시 씨가 동생의 혼사를 성사시키려고 무엇을 했을지에 대한 추측, 있을 법하지 않을 만큼 큰 선의라 감히 품지 못하면서도 은혜를 입는 괴로움 때문에 사실일까 봐 두려워했던 그 추측은 짐작한 최대치를 넘어 사실로 드러났다! 그는 일부러 런던까지 그들을 쫓아왔고, 그런

조사에 따르는 모든 수고와 굴욕을 스스로 짊어졌다. 그는 경멸하고 혐오해 마지않는 여자에게 간청해야 했고, 가장 피하고 싶었던 남자,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그에게는 벌과 같은 남자를 거듭 만나고, 설득하고, 끝내는 돈으로 매수해야 했다. 그는 호감도 존중도 가질 수 없는 여자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다.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그가 자기를 위해 그 일을 했다고 속삭였다. 그러나 그 희망은 곧 다른 생각들에 가로막혔다. 그녀는 자기 허영심으로도, 이미 청혼을 거절한 여자에 대한 그의 애정에 기대어 위컴과의 인척 관계에 대한 그토록 자연스러운 혐오감을 그가 극복했으리라고 믿기에는 부족하다고 금방 느꼈다. 위컴과 동서지간이라니! 어떤 종류의 자존심이든 그런 인연에는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는 많은 일을 했다.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니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개입한 이유를 내놓았고, 그것은 특별히 억지를 부려야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었다. 그가 자기 잘못을 느꼈으리라는 것은 합당했다. 그에게는 관대함이 있었고, 그것을 베풀 수단도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그의 주된 동기라고 여길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마음의 평화가 크게 걸린 일에서 그에게 아직 남아 있는 자신에 대한 호감이 그의 노력을 도왔을지도 모른다고는 믿을 수 있었다. 보답할 길이 없는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것은 괴롭고, 몹시 괴로웠다. 리디아를 되찾은 것도, 그 애의 명예도, 모든 것이

그에게 빚진 것이었다. 아, 그녀는 지난날 자기가 품었던 모든 무례한 감정과 그에게 했던 모든 건방진 말을 얼마나 깊이 후회했던가! 그녀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지만, 그가 자랑스러웠다. 연민과 명예가 걸린 일에서 그가 자기 자신을 이겨 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외숙모가 그를 칭찬한 대목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기뻤다. 외숙모와 외삼촌이 모두 다아시 씨와 자신 사이에 애정과 신뢰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약간의 기쁨을 느꼈다. 아쉬움이 섞여 있기는 했지만.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생각에서 깨어났다. 다른 길로 피하기도 전에 위컴이 그녀를 따라잡았다.

"혼자 산책하시는데 제가 방해한 것 같군요, 처형?" 그가 그녀 곁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그건 분명 그렇네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반갑지 않은 방해라는 법은 없지요."

"반갑지 않으셨다면 정말 섭섭했을 거예요. 우리는 늘 좋은 친구였는데, 이제는 더 좋은 친구가 되었지요."

"그렇네요. 다른 사람들도 나오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베넷 부인과 리디아는 마차를 타고 메리턴에 가요. 그나저나 처형, 외삼촌과 외숙모께 들으니 당신이 정말 펨벌리를 보았다지요."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거의 부럽네요, 그 즐거움이. 그런데 제게는 너무 벅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않다면 뉴캐슬 가는 길에 들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 늙은 가정부는 만났겠군요? 가엾은 레이놀즈, 그 사람은 늘 저를 무척 아꼈지요. 물론 당신에게 제 이름은 말하지 않았겠지만요."

"아뇨, 말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군대에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그리 좋은 사람이 되지는 못한 것 같다고 걱정하더라는 것. 그렇게 먼 곳에서는, 아시다시피 일이 이상하게 잘못 전해지곤 하니까요."

"물론이지요." 그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엘리자베스는 그를 입 다물게 했기를 바랐지만, 그는 곧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런던에서 다아시를 보고 놀랐어요. 우리는 여러 번 스쳐 지나갔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드 버그 양과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이 시기에 그 사람을 거기로 데려갈 만한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물론이죠. 램턴에 있을 때 그를 만났나요? 가드너 부부에게서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그가 우리를 동생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 아가씨는 마음에 들던가요?"

"아주 좋았어요."

"듣자 하니 그 아가씨가 한두 해 사이에 놀랄 만큼 나아졌다고 하더군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가망이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 아가씨를 좋아했다니 참 기쁩니다. 그 사람이 잘 자라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제일 힘든 나이는 지났으니까요."

"킴프턴 마을을 지나갔어요?"

"우리가 지나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를 꺼낸 건 그곳이 원래 제가 받았어야 할 교구였기 때문이에요. 정말 멋진 곳이지요! 목사관도 훌륭하고요! 모든 면에서 저한테 딱 맞았을 거예요."

"설교문을 쓰는 일은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아했을 거예요. 그 일을 제 의무의 일부로 여겼을 테고, 그 수고도 곧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을 거예요. 불평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어요! 그런 삶의 고요함과 은거는 제가 생각하던 행복을 모두 채워 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요. 켄트에 있을 때 다아시가 그 사정을 언급하는 걸 들은 적 있으세요?"

"저는 그 못지않게 믿을 만한 데서 들었는데, 그 교구는 당신에게 조건부로만, 그리고 현재 후원자의 뜻에 따라서만 물려졌다고 하더군요."

"들으셨군요! 맞아요, 그 얘기에도 일리는 있었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들었는데, 당신이 지금 보이는 것만큼 설교문 쓰는 일을 즐기지는 않던 때가 있었다더군요. 실제로 성직에 나서지 않겠다고 결심을 밝혔고, 그래서 그 문제는 타협으로 정리되었다고 하던데요."

"들으셨군요! 그것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처음 그 일을 얘기했을 때 제가 그 점에 대해 드린 말씀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은 이제 집 문 앞에 거의 다다라 있었다. 그가 떨어지도록 엘리자베스가 걸음을 재촉했기 때문이다. 동생을 생각해서 그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다만 웃는 얼굴로 가볍게 대답했을 뿐이다.

"자, 위컴 씨, 우리는 이제 남매나 다름없잖아요. 지난 일로 다투지 말아요. 앞으로는 늘 같은 마음이기를 바라요."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그는 다정하고 정중하게 그 손에 입을 맞추었지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다. 그렇게 둘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제53장



휴 톰슨, 제53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위컴 씨는 이 대화에 아주 흡족해하여, 그 뒤로는 다시는 그 화제를 꺼내어 스스로를 괴롭히거나 사랑하는 누이 엘리자베스를 자극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입을 막을 만큼 충분히 말해 두었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

위컴과 리디아가 떠날 날이 곧 왔고, 베넷 부인은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모두가 뉴캐슬로 가자는 그녀의 계획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으니, 그 이별은 적어도 일 년은 이어질 듯했다.

"아, 사랑하는 리디아," 그녀가 외쳤다. "우리는 언제 다시 만나게 될까?"

"아, 세상에! 모르겠어요. 아마 두세 해는 못 볼 거예요."

"얘야, 자주 편지해 주렴."

"할 수 있는 만큼 자주 할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결혼한 여자는 편지 쓸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언니들이 나에게 편지를 쓰면 되겠네요. 언니들은 달리 할 일도 없을 테니까요."

위컴 씨의 작별 인사는 아내의 것보다 훨씬 다정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잘생긴 얼굴을 한 채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했다.

"그 사람은 내가 본 중에 가장 훌륭한 청년이오." 두 사람이 집에서 나가자마자 베넷 씨가 말했다. "히죽거리고 싱글거리며 우리 모두에게 추파를 던지는구려. 나는 그 사람이 자랑스럽기 짝이 없소. 윌리엄 루카스 경이 직접 나와도 이보다 더 값진 사위를 내놓을 수는 없을 거요."

딸을 떠나보낸 일로 베넷 부인은 며칠 동안 몹시 울적했다.

"나는 종종 생각한단다," 그녀가 말했다. "친한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다고 말이야. 그들이 없으면 사람은 더없이 외로워지는 것 같구나."

"보세요, 어머니, 이게 바로 딸을 시집보낸 결과예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러니 나머지 네 딸이 아직 미혼이라는 사실에 어머니는 더 만족하실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다. 리디아는 결혼했기 때문에 나를 떠나는 게 아니야. 남편의 연대가 우연히 그렇게 먼 곳에 있기 때문이지. 그곳이 더 가까웠다면 그 애는 그렇게 빨리 떠나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이 일로 인해 그녀가 빠져든 맥 빠진 상태는 곧 풀렸고, 당시 퍼지기 시작한 한 가지 소식 덕분에 그녀의 마음은 다시 희망의 설렘에 열렸다. 네더필드의 가정부가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주인은

하루 이틀 안에 내려와서 몇 주 동안 그곳에서 사냥을 할 예정이었다. 베넷 부인은 몹시 안절부절못했다. 그녀는 제인을 바라보며 웃다가, 다시 고개를 저었다가 하기를 번갈아 되풀이했다.

"아이고, 그래그래, 그러니까 빙리 씨가 내려온다는 거지, 언니." (필립스 부인이 먼저 그 소식을 그녀에게 가져왔던 것이다.) "그래, 그거 잘됐네. 그렇다고 내가 그 일에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 나는 그 사람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그래도 좋을 대로 네더필드에 오겠다면 얼마든지 환영이지. 그리고 누가 알겠어, 무슨 일이 생길지. 하지만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야. 언니도 알다시피, 우리는 오래전에 그 일은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온다는 건 틀림없는 거지?"

"틀림없어," 필립스 부인이 대답했다. "어젯밤에 니컬스 부인이 메리턴에 왔거든. 그 부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내가 일부러 나갔더니, 틀림없는 얘기라고 하더라. 빙리 씨는 늦어도 목요일에는 내려오고, 수요일에 올 가능성이 아주 커. 니컬스 부인이 수요일에 쓸 고기를 주문하려고 정육점에 가는 길이었는데, 막 잡을 만한 오리가 세 쌍이나 있다고 하더라."

베넷 양은 그가 온다는 말을 듣고 얼굴빛이 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엘리자베스 앞에서 입에 올린 지도 여러 달이 지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둘만 남게 되자마자 그녀가 말했다.

"오늘 이모님이 이번 소식을 말씀하셨을 때 네가 나를 보는 걸 봤어, 리지. 나도 내가 당황한 걸 알아. 하지만 무슨 바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마. 나는 그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것 같아서 잠깐 당황했던 것뿐이야. 이 소식이 나에게 기쁨이나 괴로움을 주지는 않는다고 정말로 말할 수 있어. 한 가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가 혼자 온다니까, 우리가 그를 덜 보게 될 테니까. 내가 나 자신을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두려울 뿐이야."

엘리자베스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더비셔에서 그를 보지 않았다면, 그가 겉으로 밝힌 목적 말고는 다른 뜻 없이 그곳에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그가 제인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다고 생각했고, 친구의 허락을 받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허락 없이 올 만큼 대담한 것인지 그 가능성을 두고 마음이 흔들렸다.

"그렇긴 해도 참 딱하지," 그녀는 때때로 생각했다. "이 불쌍한 남자는 법적으로 빌린 집에조차 이런 온갖 추측을 불러일으키지 않고는 올 수 없다니! 나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겠어."

제인이 그렇게 말하고 또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그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그 일이 제인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엘리자베스는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의 기분은 그동안 엘리자베스가 자주 보아 온 것보다 더 흔들리고 더 들쭉날쭉했다.

일 년쯤 전에 부모님 사이에서 그토록 뜨겁게 논의되었던 그 문제가 이제 다시 화제로 떠올랐다.

"빙리 씨가 오시자마자 말이에요, 여보," 베넷 부인이 말했다. "당연히 찾아가 인사를 드려야지요."

"아니, 아니오. 작년에 당신이 나를 강제로 그 사람을 찾아가게 했잖소. 내가 찾아가 보면 그가 우리 딸 하나와 결혼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고는, 결국 아무 일도 없었소. 나는 다시는 쓸데없는 심부름을 나가지 않을 거요."

그의 부인은 빙리 씨가 네더필드로 돌아오면 이웃 신사들이 모두 그런 예의를 차리는 것이 얼마나 꼭 필요한지를 그에게 일깨웠다.

"그건 내가 경멸하는 예의요," 그가 말했다. "그가 우리와 어울리고 싶으면 찾아오라지. 우리가 어디 사는지 알잖소. 이웃들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마다 쫓아다니며 시간을 보낼 생각은 없소."

"그래요, 내가 아는 건 당신이 그 사람을 찾아가 인사하지 않으면 정말 지독하게 무례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여기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난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롱 부인과 굴딩 집안도 곧 불러야겠어요. 우리까지 합치면 열세 명이 되니, 식탁에 그 사람 자리도 딱 맞겠지요."

이 결심에 위안을 얻은 그녀는 남편의 무례함을 한결 잘 견딜 수 있었다. 그 때문에 이웃들이 자기보다 먼저 빙리 씨를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몹시 굴욕적이었지만. 그가 도착할 날이 가까워지자,—

"이젠 그가 아예 안 왔으면 싶어지기 시작했어," 제인이 동생에게 말했다. "그것만이라면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그를 아무 감정 없이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그 얘기만 듣고 있으려니 견디기가 힘들어. 어머니는 좋은 뜻으로 그러시지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는 아무도 모르고, 알 수도 없을 거야. 빙리 씨가 네더필드에 머무는 기간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언니를 위로할 말이 있으면 좋을 텐데,"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내 힘으로는 전혀 안 돼. 언니는 괴로울 수밖에 없을 테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인내를 권하는 보통의 즐거움도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아. 언니는 늘 인내심이 넘치니까."

빙리 씨가 도착했다. 베넷 부인은 하인들의 도움을 받아 그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들으려고 애썼고, 덕분에 그녀가 불안하고 조바심 내는 기간은 최대한 길어질 수 있었다. 그녀는 초대장을 보내기 전까지 흘러야 할 날들을 세었다. 그 전에는 그를 볼 가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하트퍼드셔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아침, 그녀는 옷방 창가에서 그가 목초지로 들어와 집 쪽으로 말을 몰아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딸들은 기쁨을 함께 나누라고 서둘러 불려 왔다. 제인은 꿋꿋이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만, 엘리자베스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 주려고 창가로 갔다. 그녀는 바라보았고, 빙리와 함께 있는 다아시 씨를 보았다. 그리고 다시 언니 곁에 앉았다.

"저 사람과 같이 온 신사가 있어요, 어머니," 키티가 말했다. "누굴까요?"

"아는 사람이겠지, 얘야. 나도 모르겠구나."

"아이고!" 키티가 대답했다. "저건 전에 그 사람과 같이 다니던 남자 같아요. 그, 무슨 씨더라—키 크고 거만해 보이던 남자요."

"세상에! 다아시 씨라고! 정말 그렇구나. 그래, 빙리 씨의 친구라면 물론 언제든 환영이야. 하지만 그 외에는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해야겠구나."

제인은 놀란 얼굴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엘리자베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비셔에서 있었던 일을 거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보낸 해명 편지를 받은 뒤 거의 처음으로 그를 보게 된 동생이 겪을 어색함을 헤아렸다. 두 자매 모두 몹시 불편했다. 각자 상대를 걱정했고, 물론 자기 자신도 걱정했다. 그러는 동안 베넷 부인은 다아시 씨를 싫어한다는 얘기와, 빙리 씨의 친구로서만 예의 바르게 대하겠다는 결심을 계속 늘어놓았지만, 두 딸 중 누구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에게는 제인이 아직 알 수 없는 걱정거리가 있었다. 그녀는 아직 가드너 부인의 편지를 제인에게 보여 줄 용기가 없었고, 다아시 씨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실도 말하지 못했다. 제인에게 다아시 씨는 엘리자베스가 청혼을 거절했고 그 장점을 낮추어 보았던 남자일 뿐이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가 알고

있는 더 많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다아시 씨는 온 가족이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엘리자베스가 그에게 품은 감정은 제인이 빙리에게 느끼는 것만큼 다정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 못지않게 이치에 맞고 정당한 관심이었다. 그가 네더필드에, 롱본에까지 찾아오고, 자진해서 다시 그녀를 찾아온 일에 대한 그녀의 놀라움은, 더비셔에서 그의 달라진 태도를 처음 목격했을 때 느꼈던 놀라움과 거의 같은 정도였다.

얼굴에서 가셨던 핏기가 잠깐 사이 더 짙은 빛으로 되돌아왔고, 엘리자베스가 그 짧은 순간 그의 애정과 바람이 여전히 변함없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자 기쁜 미소가 눈에 광채를 더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을 놓지 않으려 했다.

"먼저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야겠어," 그녀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기대해도 늦지 않을 거야."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쓰며 일에 열중해 앉아 있었고, 하인이 문 쪽으로 다가올 때까지 감히 눈을 들지 못했다. 그러다 불안한 호기심에 못 이겨 결국 언니의 얼굴로 눈길을 옮겼다. 제인은 평소보다 조금 창백해 보였지만, 엘리자베스가 짐작했던 것보다 차분했다. 신사들이 들어서자

그녀의 얼굴빛이 더 붉어졌다. 그래도 제인은 제법 태연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원망하는 기색도, 쓸데없이 상냥하게 굴려는 기색도 없는, 적절한 태도였다.

엘리자베스는 예의상 필요한 만큼만 두 사람에게 말을 건넸고, 평소보다 열심히 다시 일감 앞에 앉았다. 다아시를 힐끗 한 번 본 것이 전부였다. 그는 여느 때처럼 진지해 보였고, 펨벌리에서 보았던 모습보다는 하트퍼드셔에서 익숙하게 보던 모습에 더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엘리자베스의 어머니 앞에서는 외삼촌 내외 앞에서와 같은 사람일 수 없는지도 몰랐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짐작이었지만, 전혀 있을 수 없는 짐작은 아니었다.

빙리도 잠깐 바라보았는데, 그 짧은 순간 그가 기뻐하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보였다. 베넷 부인은 그를 지나칠 만큼 공손하게 맞이했고, 그 모습에 두 딸은 부끄러워졌다. 특히 그의 친구에게는 차갑고 격식만 차린 인사와 말을 건네는 것과 대조되니 더욱 그랬다.

특히 엘리자베스는, 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딸이 돌이킬 수 없는 불명예를 면한 것이 다아시 씨 덕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처럼 엉뚱하게 갈린 대접에 몹시 마음이 상하고 괴로웠다.

다아시는 그녀에게 가드너 씨 내외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는데, 엘리자베스가 당황하지 않고서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 곁에 앉지도 않았다. 아마 그것이 그가 말이 없는 이유였을 것이다. 하지만 더비셔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곳에서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지 못할 때면 그녀의 외삼촌 내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분이 지나도록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가끔 눈을 들어 그의 얼굴을 보면, 그는 그녀를 볼 때만큼이나 자주 제인을 보고 있었고, 종종 아무것도 보지 않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이 지난번에 만났을 때보다 생각이 많아 보였고, 남의 마음에 들려는 조바심은 덜해 보였다. 엘리자베스는 실망했고, 그렇게 실망하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닐까?"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그는 왜 온 걸까?"

그녀는 그 사람 말고는 누구와도 대화할 기분이 아니었고, 그에게는 말을 걸 용기조차 거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여동생의 안부를 물었지만, 그 이상은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빙리 씨, 떠나신 지 참 오래되었지요." 베넷 부인이 말했다.

그는 선선히 그렇다고 했다.

"요즘 저는 당신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 봐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당신이 미카엘 축일에 이곳을 완전히 떠날 생각이라고요. 하지만 설마 사실은 아니겠지요. 당신이 떠난 뒤로 이 근처에는 많은 일이 있었어요. 루카스 양은 결혼해서 자리를 잡았지요. 그리고 우리 딸 가운데 하나도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 신문에서 보셨겠지요. 『타임스』와 『쿠리어』에 났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나야 할 대로 나지 않았더군요. 그저 '최근 조지 위컴 씨가 리디아 베넷 양과 혼인하다'라고만 쓰고, 아버지 이야기도, 그 애가 살던 곳 이야기도 한마디도 없었어요. 게다가 그 기사는 제 동생 가드너가 쓴 것인데, 어쩌다 그렇게 어설프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보셨어요?"

빙리는 봤다고 대답하고 축하의 말을 건넸다. 엘리자베스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니 다아시 씨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야 딸을 좋은 데 시집보내는 건 기쁜 일이지요." 베넷 부인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빙리 씨, 그 애를 제 곁에서 떠나보내는 건 참 힘들어요. 두 사람은 뉴캐슬로 갔어요. 아주

북쪽에 있는 곳이라더군요. 거기서 얼마나 머무를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위컴의 연대가 거기 있거든요. 그가 ——셔 연대를 떠나서 정규군에 들어갔다는 말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그에게는 친구가 있어요. 그가 받아 마땅한 만큼 많지는 않겠지만요."

엘리자베스는 이 말이 다아시 씨를 겨냥한 것임을 알아차리고 수치심에 휩싸여 자리에 겨우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때까지 다른 무엇으로도 열리지 않던 그녀의 입을 이 말이 기어이 열게 했다. 그녀는 빙리에게 지금 시골에 얼마나 머무를 생각인지 물었다. 그는 몇 주쯤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빙리 씨, 당신 땅의 새를 다 잡고 나시면,"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베넷 씨의 장원으로 와서 원하는 만큼 마음껏 쏘세요. 그이도 아주 기꺼이 응해 줄 거예요. 가장 좋은 새 떼는 모두 당신 몫으로 남겨 둘 거고요."

엘리자베스의 고통은 그런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참견하는 배려 때문에 더 커졌다! 일 년 전에 그들을 들뜨게 했던 것과 같은 밝은 전망이 지금 다시 떠오른다 해도, 모든 것이 같은 성가신 결말을 향해 서둘러 갈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몇 년의 행복으로도 그런 고통스러운 당혹의 순간들을 제인과 자신이 보상받을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내 마음의 가장 큰 바람은,"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다시는 두 사람 중 누구와도 한자리에 있지 않는 거야. 이런 비참함을 보상해 줄 만한 기쁨은 그들과 어울려서는 결코 얻을 수 없어! 다시는 둘 중 누구도 보지 않게 해 주기를!"

그러나 몇 년의 행복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그 고통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누그러졌다. 언니의 아름다움이 옛 연인의 찬탄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녀에게 말을 거의 걸지 않았지만, 오 분마다 그의 관심이 그녀에게 더 많이 쏠리는 듯했다. 그는 제인이 작년만큼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조금 덜 수다스러울 뿐, 여전히 마음이 착하고 꾸밈이 없었다. 제인은 자신에게 어떤 변화도 눈에 띄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고, 정말로 자신이 여느 때처럼 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너무도 바쁘게 다른 데 쏠려 있어서, 자신이 말없이 있을 때도 그것을 늘 알아차리지는 못했다.

신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려고 하자, 베넷 부인은 미리 생각해 둔 예의를 떠올리고, 며칠 뒤 롱본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자고 청해 약속을 받아 냈다.

"당신은 제게 방문을 한 번 빚지셨어요, 빙리 씨." 그녀가 덧붙였다. "지난겨울 런던에 가셨을 때, 돌아오시면 곧 우리와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보세요, 저는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이 돌아오시지 않아 약속을 못 지키셨으니 정말이지 무척 실망했답니다."

빙리는 이 말에 조금 멋쩍어하며, 사정상 일이 생겨 오지 못했다는 말로 미안함을 표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자리를 떠났다.

베넷 부인은 그날 그들을 붙잡아 함께 저녁을 먹자고 청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그녀는 늘 음식을 넉넉하게 차렸지만, 그토록 간절히 노리는 남자에게 대접하기에도, 일 년에 만 파운드를 버는 사람의 식욕과 자존심을 만족시키기에도 두 가지 코스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제54장



휴 톰슨, 「롱 부인과 조카딸들」(1894년 판 삽화)

그들이 떠나자마자 엘리자베스는 기운을 되찾으려고 밖으로 나갔다. 다시 말해, 기운을 더 꺾어 놓을 그 생각들에 방해받지 않고 잠기려고 나간 것이었다. 다아시 씨의 태도는 그녀를 놀라게 했고 또 속상하게 했다.

"그럼 침묵하고 근엄하고 무관심하기만 할 생각이었다면," 그녀가 말했다, "왜 온 거지?"

그녀는 그 일을 기분 좋게 정리할 방법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런던에 있을 때는 여전히 상냥할 수 있었고, 여전히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호감을 줄 수 있었어. 그런데 어째서 나에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야? 나를 두려워하는 거라면 왜 여기 왔을까? 나에게 더 이상 마음이 없다면 왜 입을 다물고 있을까? 사람을 애태우는 남자! 그의 일은 더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다짐은 잠시 저도 모르게 지켜졌다. 언니가 다가와 그녀와 합류했는데, 얼굴에 밝은 기색이 떠 있어서 방문객들에 대해 엘리자베스보다 더 흡족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그녀가 말했다, "이 첫 만남이 끝났으니 나는 완전히 편해.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고, 그가 또 와도 다시는 당황하지 않을 거야. 화요일에 여기서 저녁을 먹는다니 잘됐어. 그러면 그도 나도 서로를 그저 평범하고 무관심한 지인으로 만난다는 게 사람들 눈에 분명히 드러나겠지."

"그래,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사이지," 엘리자베스가 웃으며 말했다. "아, 언니! 조심해."

"리지, 내가 이제 와서 위험할 만큼 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

"내가 보기엔 언니야말로 그가 예전만큼 다시 언니를 사랑하게 만들 위험이 아주 커."

그들은 화요일이 되어서야 신사들을 다시 만났다. 그사이 베넷 부인은, 빙리가 삼십 분 남짓 방문하며 보여 준 상냥함과 평범한 예의로 되살아난 행복한 계획들에 모두 빠져 있었다.

화요일에 롱본에는 많은 손님이 모였다. 가장 간절히 기다리던 두 신사는 사냥꾼으로서의 시간 엄수를 보여 주듯 아주 일찍 도착했다. 그들이 식당으로 들어가자, 엘리자베스는 지난번 모임들에서 언제나 빙리의 자리였던 언니 곁자리에 그가 앉을지 유심히 지켜보았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신중한 어머니는 그에게 자기 옆에 앉으라고

권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방에 들어선 빙리는 망설이는 듯했다. 그런데 마침 제인이 고개를 돌렸고, 마침 미소를 지었다. 그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는 그녀의 곁에 자리를 잡았다.

엘리자베스는 의기양양한 기분으로 그의 친구를 바라보았다. 다아시는 고상한 무관심으로 그 시선을 견뎌 냈다. 엘리자베스는 빙리가 그에게서 행복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여겼을 것이다. 빙리 역시 반쯤 웃음 섞인 불안한 표정으로 다아시 씨 쪽을 바라보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말이다.

빙리가 식사 시간 내내 언니에게 보인 태도는 제인에 대한 찬탄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 찬탄은 예전보다 조심스러웠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를 온전히 제 뜻대로 하게 내버려 두기만 하면 제인의 행복도, 그 자신의 행복도 머지않아 확실해지리라고 믿었다. 그 결과를 마음 놓고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그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그녀가 낼 수 있는 활기는 그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명랑한 기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아시 씨는 식탁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있는 한 거의 최대한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 한쪽 곁에 앉아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자리가 둘 중

누구에게도 즐거움을 주지 못하며, 어느 쪽도 좋아 보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만큼 가깝지 않았지만, 둘이 얼마나 드물게 서로에게 말을 거는지, 말을 할 때면 태도가 얼마나 격식 차리고 냉담한지는 볼 수 있었다. 어머니의 무례함 때문에 가족이 그에게 빚진 것을 생각하는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더 괴로웠다. 그래서 그녀는 때때로, 가족 모두가 그의 친절을 모르거나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그에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내놓고 싶었다.

그녀는 저녁 자리에서 두 사람이 말을 나눌 기회가 생기기를 바랐다. 그가 들어설 때 주고받는 의례적인 인사에 그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긴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랐다. 신사들이 오기 전 응접실에서 흐르던 시간은 불안하고 초조했으며, 지루하고 따분해서 그녀가 무례해질 지경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들어서기만을 기다렸다. 그것이 그날 저녁 그녀가 기쁨을 얻을 가능성이 모두 달린 순간이었다.

“그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그녀가 말했다. “그때는 영영 그를 포기할 거야.”

신사들이 들어왔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그녀의 바람에 응해 줄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 안타깝게도 숙녀들이 베넷 양이 차를 따르고 엘리자베스가 커피를 따르고 있는 탁자 주위로 너무 바짝 몰려 있어서, 그녀 곁에는 의자를 들여놓을 만한 빈자리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신사들이 가까이 오자, 한 소녀가 그녀에게 전보다 더 바싹 다가와 속삭였다.—

"그 남자들이 와서 우리를 떼어 놓게 두지 않을 거야, 난 결심했어. 우리에겐 그 사람들이 필요 없잖아, 그렇지?"

다아시는 방의 다른 쪽으로 걸어가 있었다. 그녀는 눈으로 그를 쫓았고, 그가 말을 거는 사람마다 부러워했으며, 누군가에게 커피를 건네 줄 인내심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다 이토록 어리석게 구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한 번 거절당한 남자라니! 그의 사랑이 되살아나기를 내가 어떻게 그토록 어리석게 기대할 수 있었을까? 같은 여자에게 두 번째로 청혼하는 그런 나약함에 항의하지 않을 남자가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 남자들이 그보다 더 질색하는 굴욕은 없어."

그녀는 그러나 그가 직접 커피잔을 돌려주러 와 준 덕분에 조금 기운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 기회를 붙잡아 말했다.—

"펨벌리에 아직 여동생이 계신가요?"

"네, 크리스마스까지 그곳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혼자 계신가요? 친구분들은 모두 떠나셨나요?"

"앤슬리 부인이 함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삼 주 전에 스카버러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더 할 말을 떠올릴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그녀 곁에 서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그 젊은 아가씨가 엘리자베스에게 다시 귓속말을 하자 그는 자리를 떠났다.

차 도구가 치워지고 카드 테이블이 놓이자 숙녀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곧 자기 곁으로 오리라 바라고 있었는데, 그녀의 모든 계산은 어긋나고 말았다. 어머니의 휘스트 놀이 상대를 향한 탐욕에 그가 희생되는 것을 본 것이다. 잠시 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카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즐거움에 대한 기대를 모두 잃었다. 두 사람은 저녁 내내 서로 다른 테이블에

갈라져 앉게 되었고,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라곤 그의 시선이 방의 자기 쪽으로 너무 자주 향해서 그도 그녀만큼이나 놀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뿐이었다.

베넷 부인은 네더필드의 두 신사를 밤참 자리까지 붙잡아 두려고 계획해 두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그들의 마차가 다른 누구의 마차보다 먼저 불려 왔고, 그녀에게는 두 사람을 붙잡아 둘 기회가 없었다.

"그래, 얘들아," 하고 그녀가 식구들끼리만 남게 되자마자 말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장담하건대 모든 일이 정말 훌륭하게 지나갔단다. 저녁 식사는 내가 본 어떤 식사만큼이나 잘 차려졌어. 사슴 고기는 알맞게 구워졌고, 다들 그렇게 살진 허벅지 고기는 본 적이 없다고 했지. 수프는 지난주 루카스 집안에서 먹은 것보다 오십 배는 나았단다. 다아시 씨조차 자고새 요리를 아주 잘 만들었다고 인정했어. 아마 그 집에는 프랑스 요리사가 적어도 두세 명은 있을 거야. 그리고 제인, 얘야, 네가 오늘보다 더 아름다워 보인 적은 없었단다. 롱 부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우리 제인이 정말 예뻐 보이지 않느냐고 물어봤거든. 그러고는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 '아, 베넷 부인, 드디어 그 아이가 네더필드에 오게 되겠군요!'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롱 부인은 세상에 여태껏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착한 분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조카딸들도 아주 예의 바른 아이들이고, 게다가 전혀 예쁘지 않아. 나는 그 아이들이 무척 마음에 들더구나."

요컨대 베넷 부인은 아주 신이 나 있었다. 빙리가 제인에게 하는 행동을, 결국 그를 붙잡게 되리라 확신할 만큼 충분히 지켜보았던 것이다. 기분이 좋을 때면 그녀가 가족에게 돌아올 이득에 대해 품는 기대는 이성의 선을 훌쩍 넘어섰기에, 다음 날 빙리가 청혼하러 다시 오지 않은 것을 보고 그녀는 몹시 실망했다.

"오늘은 아주 즐거운 하루였어," 하고 베넷 양이 엘리자베스에게 말했다. "모임이 정말 잘 짜인 것 같아. 다들 서로 잘 어울렸잖아. 앞으로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

엘리자베스는 미소 지었다.

"리지, 그러면 안 돼. 나를 의심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속상해. 정말이야, 나는 이제 그의 대화를 즐길 줄 알게 되었어. 그를 그저 유쾌하고 분별 있는 젊은 남자로 여기면서 말이야. 그 이상은 바라는 게 없어. 지금 그의 태도를 보니 확실히 알겠어. 그가 내 호감을 얻으려고 어떤 계획을 세운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게 분명해. 다만 그는 다른 어떤 남자보다 말을 건네는 솜씨가 다정하고, 대체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더 강한 것뿐이야."

"언니는 정말 잔인해," 하고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내가 웃지도 못하게 하고, 매 순간 나를 웃게 만들고 있잖아."

"어떤 경우에는 남이 내 말을 믿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어떤 경우에는 얼마나 불가능한지! 그런데 왜 나더러 내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믿게 하고 싶은 거니?"

"그건 나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우리는 모두 가르치기를 좋아하지, 비록 알 가치가 없는 것밖에 가르칠 수 없을지라도. 용서해 줘. 그리고 언니가 계속 무관심하다고 우길 거라면, 나를 언니 속마음을 털어놓는 상대로 삼지는 마."

제55장



휴 톰슨, 제55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이 방문이 있고 며칠 뒤 빙리 씨가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혼자였다. 그의 친구는 그날 아침 런던으로 떠났고, 열흘 뒤에 돌아올 예정이었다. 그는 베넷 가족과 한 시간 넘게 앉아 있었는데, 매우 기분이 좋아 보였다. 베넷 부인은 그에게 저녁을 함께 먹자고 청했다. 그러나 그는 몹시 아쉬워하는 말을 여러 번 하면서, 다른 데 약속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다음번에 오시면,"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더 운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언제든 특별히 기쁠 것이라며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았고, 그녀가 허락해 준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꼭 찾아뵙겠다고 했다.

"내일 오실 수 있어요?"

그렇다, 내일은 아무 약속도 없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초대를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가 왔는데, 너무 일찍 와서 아가씨들은 아무도 옷을 다 차려입지 못한 상태였다. 베넷 부인이 가운을 걸치고 머리도 반쯤만 손질한 채로 딸들의 방으로 뛰어 들어와 소리쳤다.

"제인아, 어서 서둘러 내려오너라. 그가 왔다. 빙리 씨가 왔어. 정말이야. 서둘러, 서둘러. 여기 새라, 지금 당장 베넷 양에게 가서 옷 입는 걸 도와줘라. 리지 양 머리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우리도 최대한 빨리 내려갈게요," 제인이 말했다. "하지만 키티가 우리 둘보다 준비가 더 됐을 거예요. 삼십 분 전에 위층으로 올라갔거든요."

"아이고! 키티는 됐어! 키티가 무슨 상관이야? 어서, 빨리 빨리! 얘야, 허리띠는 어디 있니?"

그러나 어머니가 나가자, 제인은 동생들 중 한 명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저녁에도 두 사람을 따로 있게 하려는 같은 조바심이 다시 드러났다. 차를 마신 뒤 베넷 씨는 늘 그랬듯 서재로 물러갔고, 메리는 위층으로 올라가 악기 앞에 앉았다. 다섯 걸림돌 가운데 둘이 이렇게 치워지자, 베넷 부인은 한동안 엘리자베스와 캐서린을 바라보며 눈짓을 보냈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아예 모른 척했고, 마침내 눈치를 챈 키티가 아주 순진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왜 자꾸 저한테 눈짓을 하세요? 제가 뭘 해야 하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야, 얘야, 아무것도. 난 눈짓 같은 거 안 했다.” 그러고는 오 분쯤 더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토록 귀한 기회를 허투루 흘려보낼 수 없었던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키티에게 말했다.

“얘야, 이리 와 봐라. 할 말이 있다.” 그렇게 말하며 베넷 부인은 키티를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제인은 그런 속셈이 뻔히 보이는 것이 괴롭다는 듯, 그리고 엘리자베스에게 그 속셈에 넘어가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듯 곧바로 엘리자베스를 쳐다보았다. 몇 분 뒤 베넷 부인이 문을 반쯤 열고 불렀다.

“리지, 얘야, 너와 할 얘기가 있다.”

엘리자베스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했다.

“우리는 두 사람을 그냥 둬도 되지 않겠니?” 엘리자베스가 복도로 나오자마자 어머니가 말했다. “키티와 나는 위층에 올라가 내 옷방에 가 있을 거야.”

엘리자베스는 어머니를 설득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어머니와 키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복도에 서 있다가 그제야 응접실로 돌아왔다.

베넷 부인의 이날 계획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 빙리는 매력적인 모든 면을 갖추고 있었지만, 딸의 공공연한 연인은 아니었다. 그의 편안하고 쾌활한 태도는 저녁 모임에 더없이 즐거운 분위기를 더했다. 그는 어머니의 어설픈 참견을 견뎌 냈고, 그녀의 어리석은 말을 모두 참을성 있게, 표정 하나 흩트리지 않고 들어 주었는데, 그것이 특히 딸에게는 고마운 일이었다.

그는 저녁 식사에 머물러 달라는 청을 굳이 들을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그가 떠나기 전에 약속이 하나 잡혔는데, 주로 그 자신과 베넷 부인의 주선 덕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와서 베넷 씨와 함께 사냥을 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날 이후로 제인은 더 이상 무관심한 척하지 않았다. 자매 사이에서 빙리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씨가 정해진 기한 안에 돌아오지 않는 한 일이 곧 결말을 맺게 되리라는 즐거운 믿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진지하게 말하자면, 그녀는 이 모든 일이 그 신사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으리라고 꽤 확신하고 있었다.

빙리는 약속 시간에 맞춰 왔고, 두 사람은 정해진 대로 아침나절을 함께 보냈다. 베넷 씨는 빙리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쾌한 사람이었다. 빙리에게는 비웃음을 살 만한

자만이나 어리석음이 없었고, 상대를 입 다물게 할 만큼 역겨운 구석도 없었다. 베넷 씨도 빙리가 그때껏 본 어느 때보다 말이 많았고 덜 별났다. 빙리는 물론 저녁 식사에도 베넷 씨와 함께 돌아왔다. 저녁이 되자 베넷 부인은 다시 머리를 굴려 모두를 그와 자기 딸에게서 떼어 놓으려 했다. 편지를 써야 했던 엘리자베스는 차를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을 하러 아침 식사실로 들어갔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카드놀이를 하려고 자리에 앉을 참이었으니, 어머니의 계략을 막는 데 굳이 그녀가 남아 있을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다 쓰고 응접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자기보다 한 수 위였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 만한 광경을 보고 무척 놀랐다. 문을 열자 언니와 빙리가 난롯가에 나란히 서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설령 그것만으로는 아무 의심이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황급히 돌아서며 서로에게서 떨어질 때의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을 것이다. 두 사람의 처지는 충분히 어색했지만, 엘리자베스가 보기에는 자기 처지가 더 나빴다. 둘 중 누구도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고, 엘리자베스가 다시 나가려던 찰나, 언니와 마찬가지로 자리에 앉아 있던 빙리가 갑자기 일어나 언니에게 몇 마디를 속삭이고는 방에서 뛰쳐나갔다.

털어놓는 일이 기쁨을 줄 때라면, 제인은 엘리자베스에게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곧바로 동생을 끌어안고 더없이 생생한 감격에 젖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다.

"너무 과분해!" 그녀가 덧붙였다. "정말 너무 과분해.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아, 왜 모두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걸까?"

엘리자베스의 축하는 말로는 다 전하기 어려울 만큼 진심과 따뜻함과 기쁨이 담겨 있었다. 친절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인에게는 새로운 행복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제인은 당장은 동생 곁에 머물지도 않고, 아직 남은 이야기의 절반도 꺼내지 않으려 했다.

"지금 당장 어머니께 가야겠어." 그녀가 외쳤다. "어머니의 다정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여길 수는 없고,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서 이 소식을 듣게 할 수도 없어. 빙리 씨는 벌써 아버지께 가셨어. 아, 리지, 내가 전할 이야기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이토록 큰 기쁨을 준다는 걸 생각하니! 이렇게 큰 행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 그녀는 어머니에게 서둘러 갔다. 베넷 부인은 일부러 카드놀이 자리를 파하고 위층에서 키티와 함께 앉아 있었다.

남겨진 엘리자베스는 이제, 지난 여러 달 동안 그들을 불안하게 하고 애태우게 했던 일이 마침내 이토록 빠르고 쉽게 해결된 것에 미소 지었다.

"그럼 이게," 그녀가 말했다. "그 친구분의 그 모든 근심 어린 신중함, 빙리 씨 누이동생의 그 모든 거짓말과 꾸밈의 끝이란 말이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합리적인 결말이야!"

몇 분 뒤 빙리가 돌아왔는데, 베넷 씨와 나눈 대화는 짧고 요점만 담겨 있었다.

"언니는 어디 있어요?" 그가 문을 열며 다급하게 물었다.

"위층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어요. 곧 내려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고 나서 그는 문을 닫고 다가와 처제 될 사람의 축복과 다정함을 청했다. 엘리자베스는 앞으로 그와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 진심으로 기쁘다고 솔직하고 따뜻하게 말했다. 둘은 아주 다정하게 악수를 나눴고, 그다음에 엘리자베스는

언니가 내려올 때까지 빙리가 자신의 행복과 제인의 훌륭한 점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야 했다. 그가 사랑에 빠진 사람이긴 했지만, 엘리자베스는 그의 모든 기대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정말로 믿었다. 그 기대의 바탕이 제인의 뛰어난 지성과 남다른 성품, 그리고 제인과 그 사이에 흐르는 감정과 취향의 전반적인 닮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은 그들 모두에게 보기 드문 기쁨의 시간이었다. 베넷 양의 마음이 흡족해지자 그녀의 얼굴에는 달콤하게 생기가 도는 빛이 번졌고, 그 덕분에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다. 키티는 배시시 웃으며 자기 차례도 곧 오기를 바란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베넷 부인은 삼십 분 동안 빙리에게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감정을 만족시킬 만큼 따뜻한 말로 허락하거나 찬성을 표할 수 없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 베넷 씨가 합류했을 때, 그의 목소리와 태도에서 그가 정말로 얼마나 행복한지가 분명히 드러났다.

하지만 손님이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갈 때까지 그의 입에서는 그 일을 암시하는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손님이 떠나자마자 그는 딸을 돌아보며 말했다.

"제인, 축하한다. 너는 아주 행복한 여자가 되겠구나."

제인은 즉시 그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그의 호의에 감사를 전했다.

"너는 착한 아이구나." 그가 대답했다. "네가 그렇게 좋은 곳에 자리 잡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나도 무척 기쁘구나. 둘이 잘 지낼 거라는 데 조금도 의심이 없다. 너희 성격도 결코 서로 다르지 않지. 둘 다 너무 순종적이라 무엇 하나 결정이 나지 않을 게고, 둘 다 너무 무던해서 하인들이 모두 너희를 속일 게고, 둘 다 너무 너그러워서 늘 수입보다 더 많이 쓰게 될 거다."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요. 돈 문제에서 경솔하거나 생각 없이 행동한다면 그건 저로서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에요."

"수입보다 더 쓴다고요! 여보, 무슨 말씀이에요?" 아내가 소리쳤다. "그 사람은 일 년에 사, 오천 파운드나 되는 수입이 있고, 어쩌면 그보다도 더 많을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딸을 향해 말했다. "아이고, 우리 제인, 내 사랑하는 제인! 난 너무 행복해! 오늘 밤은 한숨도 못 잘 것 같구나. 이럴 줄 알았지. 결국 이렇게 될 거라고 늘 말했잖아. 네가 괜히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고 확신했어! 작년에 그 사람이 처음 하트퍼드셔에 왔을 때, 그를 보자마자 너희 둘이 맺어질 게 얼마나 당연한지 생각했던 게 기억나. 아이고, 그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젊은 남자 중 제일 잘생긴 사람이야!"

위컴도, 리디아도 모두 잊혔다. 제인은 이제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이 베넷 부인이 가장 아끼는 자식이었다. 그 순간 베넷 부인은 다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동생들은 머지않아 언니가 앞으로 나눠 줄 수 있는 행복의 몫을 얻으려고 제인에게 줄을 대기 시작했다.

메리는 네더필드의 서재를 써도 되겠느냐고 청했고, 키티는 겨울마다 그곳에서 무도회를 몇 번만이라도 열어 달라고 아주 간절히 졸랐다.

빙리는 이때부터 당연히 롱본에 매일 찾아오는 손님이 되었다. 아침 식사 전에도 자주 왔고, 저녁을 먹고 나서까지 늘 머물렀다. 다만 아무리 미워해도 모자랄 어떤 야만스러운 이웃이 저녁 초대를 해 와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가 여긴 날은 예외였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언니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거의 없었다. 빙리가 곁에 있는 동안 제인은 다른 누구에게도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이 생기면,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두 사람 모두에게 꽤 쓸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인이 없을 때면 빙리는 제인 이야기를 하는 즐거움을 위해 늘

엘리자베스 곁에 붙어 있었다. 그리고 빙리가 떠나고 나면 제인도 같은 방법으로 마음을 달래려고 끊임없이 엘리자베스를 찾았다.

"그가 지난봄 내가 런던에 와 있었던 걸 전혀 몰랐다고 말해 줘서 나는 정말 행복해졌어!" 어느 저녁 제인이 말했다. "그런 일이 가능할 줄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거든."

"그렇겠다고 짐작했어."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설명했대?"

"그건 분명 그의 누이들이 한 짓일 거야. 그들은 분명 그와 내가 가까워지는 걸 좋아하지 않았을 테고, 그럴 만도 하지. 여러 면에서 그는 훨씬 더 좋은 상대를 고를 수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내가 믿는 대로 그들이 자기 오빠가 나와 함께 행복해하는 걸 보게 된다면, 결국 받아들이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도 다시 사이가 좋아지겠지. 다만 우리가 서로에게 예전 같은 사이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건 지금껏 언니가 한 말 중에 가장 너그럽지 못한 말이구나."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잘했어! 빙리 양이 꾸며 낸 호의에 또다시 언니가 속아 넘어가는 걸 본다면, 나도 정말 속이 상하겠지."

"믿을 수 있겠니, 리지? 그가 지난해 11월에 런던에 갔을 때 실은 나를 사랑하고 있었어. 내가 자기에게 무관심하다고 믿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다시 내려왔을 거래."

"그가 조금 착각을 했던 건 분명해. 하지만 그건 그의 겸손함을 보여 주는 거야."

제인은 이 말을 이어, 그의 수줍음과 그가 자기의 좋은 점들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지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았다.

엘리자베스는 빙리가 친구의 간섭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뻤다. 제인은 세상에서 가장 너그럽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지녔지만, 그 일을 알면 제인도 다아시에게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엘리자베스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보다도 운이 좋은 사람이야!" 제인이 외쳤다. "아, 리지, 나는 왜 가족들 가운데서 이렇게 특별히 골라져서 그들 모두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걸까? 네가 나만큼 행복한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너에게도 그런 사람이 하나 더 있다면 좋겠어!"

“그런 남자를 마흔 명 준다 해도, 나는 언니만큼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언니의 성품과 착한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언니의 행복도 가질 수 없어. 아니, 아니, 나는 내 힘으로 알아서 할래. 그리고 아주 운이 좋다면, 언젠가 또 다른 콜린스 씨를 만날지도 모르지.”

롱본 집안의 사정은 오래 비밀로 남아 있을 수 없었다. 베넷 부인은 그 얘기를 필립스 부인에게 속삭일 특권을 누렸고, 필립스 부인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감히 메리턴의 이웃들 모두에게 똑같이 속삭였다.

베넷 집안은 곧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집안이라는 평을 들었다. 불과 몇 주 전, 리디아가 처음 달아났을 때만 해도 이 집안은 모두에게 불운을 타고난 집안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제56장



휴 톰슨, 「잠시 둘러보더니」(1894년 판 삽화)

어느 날 아침, 빙리가 제인과 약혼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다. 그와 베넷 가의 여자들이 식당에 함께 앉아 있는데, 마차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갑자기 창으로 쏠렸다. 네 마리 말이 끄는 역마차 한 대가 잔디밭을 가로질러 다가오고 있었다. 방문객이 올 시간치고는 너무 이른 아침이었다. 게다가 그 마차는 이웃 누구의 마차와도 달랐다. 말은 역참에서 빌린 말이었고, 마차도, 그 앞에서 말을 달려 온 하인의 제복도 그들에게 낯설었다. 그러나 누군가 오는 것은 분명했으므로, 빙리는 곧바로 베넷 양을 설득해 그런 방문의 불편을 피하게 했고, 둘은 함께 관목 숲으로 걸어 나갔다. 남은 세 사람은 별로 흡족하지 않은 채 이런저런 추측을 이어 갔다. 그러다 문이 활짝 열리고 방문객이 들어섰다.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이었다.

물론 그들은 모두 놀랄 각오는 하고 있었으나, 그 놀라움은 예상을 넘어섰다. 베넷 부인과 키티는 영부인을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도 그랬지만, 그 놀라움도 엘리자베스가 느낀 것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무뚝뚝한 태도로 방에 들어섰다.
엘리자베스의 인사에도 고개를 살짝 숙였을 뿐 다른 대답은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영부인이 들어설 때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에게 그녀의 이름을 알려 주었다.
소개를 청한 사람은 없었지만 말이다.

베넷 부인은 몹시 놀랐지만, 이처럼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게 된 것에 우쭐하여 극진히 예를 갖추어 그녀를 맞았다. 잠시 말없이 앉아 있던 영부인은 몹시 뻣뻣한 말투로 엘리자베스에게 말했다.

"별고 없었겠지, 베넷 양. 저 부인이 자네 어머님이겠지?"

엘리자베스는 아주 간결하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럼 저 사람은 자네 동생 중 하나겠지?"

"그렇습니다, 영부인님." 베넷 부인이 캐서린 영부인 같은 귀부인과 말을 나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말했다. "막내 바로 위 딸이랍니다. 막내는 얼마 전에 결혼했고, 큰딸은 정원 어디쯤에서 젊은 남자와 함께 걷고 있어요. 그 사람도 곧 우리 가족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정원이 아주 작구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캐서린 영부인이 말했다.

"로징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영부인님.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윌리엄 루카스 경의 정원보다는 훨씬 넓답니다."

"여름 저녁에는 이 응접실이 아주 불편하겠구려. 창문이 전부 서쪽으로 나 있으니 말이오."

베넷 부인은 식사 후에는 절대 그곳에 앉지 않는다고 장담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영부인님께 한 가지 여쭤봐도 될는지요? 콜린스 씨 내외분은 별고 없으셨는지요?"

"그렇소, 아주 잘 지내고 있었소. 그저께 밤에 봤다오."

엘리자베스는 이제 영부인이 샬럿이 자기에게 보낸 편지를 꺼내 주리라 기대했다. 그것 말고는 영부인이 찾아온 이유로 보이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지는 나오지 않았고, 엘리자베스는 완전히 어리둥절했다.

베넷 부인은 매우 공손하게 영부인에게 다과를 드시라고 청했다. 그러나 캐서린 영부인은 단호하게, 그리 공손하지 않은 태도로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자베스에게 말했다.

“베넷 양, 정원 한쪽에 제법 봐줄 만한 작은 숲이 있는 것 같더군. 자네가 같이 가 준다면 그곳을 한 바퀴 거닐고 싶은데.”

“얘야, 어서 다녀오렴.” 베넷 부인이 외쳤다. “영부인님을 이런저런 산책로로 모시고 가거라. 영부인님께서는 은자의 집을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구나.”

엘리자베스는 그 말에 따라 자기 방으로 뛰어 올라가 양산을 챙겨 들고, 고귀한 손님을 모시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홀을 지나는데 캐서린 영부인이 식사실과 응접실 문을 차례로 열어 보더니, 잠깐 둘러본 뒤에 그만하면 봐줄 만한 방들이라고 평하고는 그대로 지나쳐 걸어갔다.

그녀의 마차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고, 엘리자베스는 시중드는 하녀가 그 안에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숲으로 이어지는 자갈길을 따라 말없이 걸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평소보다 한층 거만하고 불쾌하게 구는 여자와 대화하려고 애쓰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이 조카와 닮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엘리자베스는 영부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숲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캐서린 영부인이 이렇게 입을 열었다.

"베넷 양, 내가 여기까지 온 까닭은 자네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거야. 자네 마음과 양심이 내가 왜 왔는지 말해 줄 테니까."

엘리자베스는 꾸밈없이 놀란 표정으로 영부인을 바라보았다.

"정말이지 잘못 짚으셨습니다, 영부인. 제가 이렇게 영부인을 뵙는 영광을 얻게 된 까닭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베넷 양." 영부인이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만만히 농락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자네도 알아야지. 자네가 아무리 진실하지 않게 굴기로 작정했더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늘 진실하고 솔직하기로 이름난 사람이야. 이처럼 중대한 일에서 그 성품을 저버릴 생각은 전혀 없어. 이틀 전 아주 놀라운 소문이 내 귀에 들어왔어. 자네 언니가 아주 좋은 자리로 시집갈 참이라는 것뿐 아니라, 자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베넷 양이 조만간 내 조카와, 나의 친조카인 다아시 씨와 맺어질 것 같다고 하더군. 그것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일 것이라는 건 알고 있어. 조카를 그렇게

모욕할 수는 없으니, 그 말이 사실일 가능성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 그래도 나는 곧장 이곳으로 떠나 와서, 자네에게 내 뜻을 직접 전하기로 마음먹었어."

"진실일 수 없다고 믿으셨다면," 엘리자베스가 놀라움과 경멸로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렇게 먼 길을 수고롭게 오셨다니 이상하네요. 영부인께서는 그렇게 해서 무엇을 바라셨던 건가요?"

"그 소문을 어디서든 부인하도록 당장 요구하려는 것이지."

"롱본에 있는 저와 제 가족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엘리자베스가 차갑게 말했다. "그런 소문이 실제로 돌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확인해 주는 셈이겠네요."

"'만약'이라니! 그렇다면 자네는 그런 소문이 돈다는 걸 모르는 척하겠다는 거야? 그 소문은 자네들이 직접 부지런히 퍼뜨린 것 아니야?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른단 말이야?"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그 소문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도 단언할 수 있어?"

"저는 영부인처럼 솔직하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영부인께서 물으셔도 제가 대답하지 않을 질문도 있을 겁니다."

"이건 참을 수가 없군. 베넷 양, 반드시 확답을 들어야겠어. 그 애가, 내 조카가 자네에게 청혼을 했어?"

"영부인께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야 마땅해. 그 애가 정신이 온전한 동안에는 반드시 그래야 하지. 그런데 자네의 술수와 교태 때문에, 한순간 눈이 멀어 자기 자신과 온 가문에 대한 의무를 잊었을지도 모르지. 자네가 그 애를 꾀어 들였을지도 모르니까."

"설령 그랬다 해도, 제가 그걸 털어놓을 리는 없겠지요."

"베넷 양, 자네는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나는 이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어. 나는 세상에서 그 애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다름없고, 그 애의 가장 소중한 일들을 알 자격이 있어."

"하지만 제 일까지 아실 자격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신다고 해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마음이 생기지도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똑똑히 알아들어. 자네가 감히 바라는 이 혼인은 결코 성사될 수 없어. 절대로, 결코 안 돼. 다아시 씨는 내 딸과 약혼한 사이야. 자, 이제 무슨 할 말이 있지?"

"이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영부인께서는 그분이 저에게 청혼하리라고 생각하실 까닭이 없겠지요."

캐서린 영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둘 사이의 약혼은 특별한 종류야.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서로의 짝으로 정해진 사이였어. 그 애 어머니가 가장 바라던 일이었고, 내 딸의 어미인 나도 마찬가지였지. 아이들이 요람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이 혼인을 계획했어. 그런데 이제 두 자매의 바람이 이루어질 바로 그 순간에, 신분도 낮고 세상에서 아무런 지위도 없으며 이 가문과 전혀 연고가 없는 젊은 처녀 때문에 혼인이 막히려 한단 말이야? 그 애 친척들의 바람을 자네는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 거야? 드 버그 양과 맺은 암묵적인 약속도? 자네에게는 예의와 염치라는 감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그 애가 태어난 첫 순간부터 사촌과 맺어지도록 정해져 있었다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어?"

"네, 그 말씀은 전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인가요? 제가 영부인의 조카분과 혼인하는 데 다른 반대 이유가 없다면, 그분의 어머님과 이모님께서 그분이 드 버그 양과 혼인하기를 바랐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그 혼인을 단념할 까닭은 없습니다. 두 분은 혼인을 계획하는 데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어요. 그 혼인이 성사되느냐는 다른 사람들에게 달린 일이었고요. 다아시 씨가 명예로 보나 마음으로 보나 사촌에게 매여 있지 않다면, 왜 다른 선택을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저라면, 왜 제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안 되나요?"

"명예와 체면, 분별, 아니 이해관계조차도 그것을 금하고 있어. 그래, 베넷 양, 이해관계 말이야. 모든 사람의 뜻을 일부러 거스르는 짓을 한다면, 그 애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자네를 상대해 주리라고는 기대하지 마. 그 애와 연줄이 닿는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경멸당할 거야. 자네와 맺는 인연은 수치가 될 테고, 우리 중 누구도 자네 이름은 입에 올리지도 않을 거야."

"이건 참으로 큰 불행이군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다아시 씨의 아내가 되면 그 자리에 따라오는 아주 특별한 행복의 원천이 반드시 있을 테니, 전체적으로 보면 한탄할 까닭은 없을 거예요."

"고집 세고 제멋대로인 아가씨! 자네가 부끄럽군! 지난봄에 내가 그렇게 챙겨 준 데 대한 보답이 이거란 말이야?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마땅히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좀 앉자. 베넷 양, 나는 내 목적을 관철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고 여기 왔다는 걸 알아 둬. 그러니 나를 말려도 소용없어. 나는 누구의 변덕에도 굴복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뜻이 꺾이는 것을 참아 본 적도 없어."

"그렇다면 영부인의 처지가 지금 더 가련해지겠군요.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내 말을 끊지 마! 잠자코 내 말을 들어. 내 딸과 내 조카는 서로를 위해 태어난 사이야. 두 사람은 어머니 쪽으로 같은 고귀한 혈통에서 났고, 아버지 쪽으로는 작위는 없지만 존경받고 명예롭고 유서 깊은 가문에서 났어. 양쪽 모두 재산도 막대해. 두 집안의 모든 식구가 입을 모아 두 사람이 서로 맺어지기로 정해져 있다고 해. 그런데 무엇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단 말이야? 집안도, 연줄도, 재산도 없는 젊은 처녀의 분수에 넘치는 요구라니! 이걸 참고 넘어갈 수 있겠어? 그렇게 둘 수는 없어,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겠어! 자네가 스스로에게 무엇이 좋은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자라온 자기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영부인의 조카와 혼인한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를 떠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은 신사이고, 저는 신사의 딸이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동등해요."

"맞아. 자네는 신사의 딸이지. 하지만 자네 어머니는 어떤 집안 출신이야? 자네 외삼촌과 이모들은 누구야? 그들의 신분을 내가 모르는 줄 알지 마."

"제 친척들이 어떻든 간에,"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영부인의 조카가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영부인께는 아무 상관도 없을 거예요."

"이번에 딱 잘라 말해 봐. 자네는 그 애와 약혼했어?"

엘리자베스는 캐서린 영부인을 기쁘게 하려는 것만을 위해서라면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겠지만, 잠시 생각한 끝에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약혼하지 않았습니다."

캐서린 영부인은 흡족한 듯했다.

"그럼 앞으로 절대 그런 약혼을 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약속하겠어?"

"그런 약속은 하지 않겠어요."

“베넷 양, 나는 놀랍고 어이가 없군. 좀 더 분별 있는 아가씨일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물러설 거라고 착각하지 마. 내가 원하는 확답을 받기 전에는 가지 않겠어.”

“물론 저는 절대로 그런 약속을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일을 강요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영부인께서는 다아시 씨가 따님과 결혼하기를 바라시지만, 제가 원하시는 약속을 해 드린다고 해서 두 사람이 결혼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겠어요? 다아시 씨가 저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고 가정해 보지요. 제가 그분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분이 사촌 누이에게 청혼하고 싶어지기라도 할까요? 캐서린 영부인,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영부인께서 이 이례적인 요구를 뒷받침하신 근거들은 요구 자체가 분별없었던 만큼이나 하찮았어요. 영부인께서 그런 설득으로 제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제 사람됨을 크게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조카님이 영부인께서 자기 일에 간섭하시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실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영부인께서 제 일에 참견하실 권리는 분명히 없어요. 그러니 이 문제로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서두르지 마. 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미 말한 반대 이유들에 한 가지를 더 보태야겠어. 자네 막내 동생이 저지른 그 수치스러운 야반도주의 자세한 내막을 나는 잘 알고 있어. 그 젊은이가 동생과 결혼한 것은 자네 아버지와 외삼촌이 돈을 치르고 얼버무린 일이었다는 것도 알아. 그런 여자가 내 조카의 누이가 되어야 한단 말이야? 그 여자의 남편은 내 조카의 돌아가신 아버지 밑에 있던 집사의 아들인데, 그런 자가 내 조카의 형제가 되어야 한단 말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펨벌리의 선령들이 이렇게 더럽혀져도 된다는 말이야?"

"이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겠지요." 엘리자베스는 분개하며 대답했다. "영부인께서는 온갖 방법으로 저를 모욕하셨어요. 이만 집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캐서린 영부인도 일어났고, 두 사람은 발길을 돌렸다. 영부인은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그러니까 자네는 내 조카의 명예와 체면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로군! 인정머리 없고 이기적인 아가씨! 자네와 인연을 맺으면 누구의 눈에나 그 애가 망신을 당할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캐서린 영부인,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 생각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요.”

“그럼 자네는 기어이 그 애를 차지하겠다는 거야?”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다만 영부인이든, 저와 아무 상관도 없는 다른 누구든 개의치 않고, 제 생각에 제 행복이 될 만한 방식대로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에요.”

“그래, 좋아. 그러니까 자네는 내 청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로군. 의무와 명예와 은혜가 요구하는 바를 따르지 않겠다는 거지. 자네는 그 애가 친구들 모두에게 신망을 잃고 세상의 멸시를 받게 만들기로 작정했군.”

“의무도, 명예도, 은혜도,”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저에게 아무런 요구를 할 수 없어요. 다아시 씨와 결혼한다고 해서 그중 어떤 원칙도 어기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 집안의 노여움이나 세상의 분개로 말하자면, 그분이 저와 결혼한다고 집안이 노여워한다 해도 저는 한순간도 개의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비웃음에 가담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네 진심이란 말이로군! 이것이 자네 최종 결심이라니! 좋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군. 베넷 양, 자네 야망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꿈도 꾸지 마. 나는 자네를

시험해 보려고 온 거야. 자네가 분별 있게 굴 거라고 기대했지. 하지만 분명히 말해 두지. 나는 내 뜻을 관철하고야 말 거야."

이렇게 캐서린 영부인은 마차 문에 이를 때까지 계속 말했다. 그러다 갑자기 몸을 홱 돌리며 덧붙였다.

"나는 자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겠어, 베넷 양. 자네 어머니에게도 안부를 전하지 않겠어. 자네는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몹시 불쾌해."

엘리자베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캐서린 영부인에게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쉬시라고 권하지도 않고, 조용히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마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어머니가 드레싱룸 문 앞에서 조바심을 내며 그녀를 맞고는, 캐서린 영부인이 왜 다시 들어와 좀 쉬지 않았는지 물었다.

"들어오기 싫다고 하셨어요," 딸이 말했다. "기어이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아주 인물이 좋으시더구나! 게다가 여기 들러 주신 것도 굉장히 예의 바른 일이었지! 아마 콜린스 부부가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전하러 오셨을 거야. 어디론가 가시는

길에 메리턴을 지나면서, 너희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셨을 테지. 너한테 따로 하실 말씀은 없으셨겠지, 리지?"

엘리자베스는 여기서 작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내용을 털어놓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제57장



휴 톰슨, 제57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이 기이한 방문으로 엘리자베스의 마음이 흐트러진 것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고, 몇 시간 동안이나 그 일을 쉴 새 없이 곱씹지 않을 수 없었다. 캐서린 영부인이 로징스에서 이 먼 길을 실제로 온 것은, 엘리자베스와 다아시 씨의 이른바 약혼을 깨뜨리려는 단 하나의 목적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으로 합리적인 계획도 다 있었다! 그러나 그 약혼 소문이 어디서 생겨났는지는 엘리자베스로서도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러다 다아시 씨가 빙리와 가까운 친구이고 그녀가 제인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결혼식 하나를 앞두고 모두가 또 다른 결혼식까지 고대하던 때에, 그런 생각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기억해 냈다. 그녀 자신도 언니의 결혼이 두 사람을 더 자주 마주치게 하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 루카스 저택의 이웃들은(콜린스 부부와 왕래하면서 그 소문이 캐서린 영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을 것이라고 그녀는 짐작했다), 그녀가 언젠가 가능하리라 기대하던 일을 거의 확실하고 임박한 일로 여겼을 뿐이었다.

그러나 캐서린 영부인의 말을 되짚어 보면서, 엘리자베스는 영부인이 이 간섭을 계속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얼마간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결혼을 막겠다는 결심에 대해 캐서린 영부인이 한 말로 미루어 보건대, 영부인은 조카에게 호소할 생각을 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녀 자신과 인연을 맺는 데 따르는 해악을 늘어놓는 비슷한 주장을 그 조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엘리자베스로서도 감히 단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아시 씨가 이모에게 품은 애정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또 이모의 판단에 얼마나 기대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영부인을 그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이 평가하리라고 짐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게다가 자기 집안과 지나치게 차이 나는 집안 사람과 결혼했을 때 따르는 불행을 늘어놓을 때, 이모는 분명

그의 가장 약한 쪽을 파고들 것이었다. 그의 품위에 대한 관념으로 볼 때, 엘리자베스에게는 약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였던 그 주장들이 그에게는 상당한 분별과 탄탄한 논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느껴질 공산이 컸다.

만약 그가 무엇을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면 — 그것은 자주 그럴 법해 보였는데 — 이토록 가까운 친척의 충고와 간청이 모든 의혹을 가라앉히고, 흠잡을 데 없는 품위가 허락하는 만큼 행복해지기로 단번에 결심하게 만들지도 몰랐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캐서린 영부인은 런던을 지나가는 길에 그를 만날 수도 있었고, 다시 네더필드에 오겠다는 빙리와의 약속도 깨지고 말 것이었다.

"그러니 며칠 안에 그의 친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을 핑계가 전해진다면," 그녀가 덧붙였다. "그때는 그 뜻을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의 변치 않는 마음에 대한 모든 기대와 모든 바람을 버리겠어요. 그가 내 애정과 손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나를 그리워하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나도 곧 그를 그리워하는 일을 그만두겠어요."

다른 가족들은 방문객이 누구였는지 듣고 매우 놀랐지만, 베넷 부인의 호기심을 가라앉혔던 것과 같은 종류의 짐작으로 기꺼이 그 궁금증을 풀었다. 덕분에 엘리자베스는 이 일을 두고 놀림을 많이 받지 않아도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을 때, 아버지와 마주쳤다. 아버지는 손에 편지 한 통을 들고 서재에서 나오던 참이었다.

“리지,” 아버지가 말했다. “너를 찾으러 가던 참이었다. 내 방으로 들어오너라.”

그녀는 아버지를 따라 들어갔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고 싶은 마음은 아버지가 손에 든 편지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을 거라는 짐작 때문에 더 커졌다. 그 편지가 캐서린 영부인에게서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녀는 그에 뒤따를 모든 설명을 두려운 마음으로 미리 떠올렸다.

그녀는 아버지를 따라 벽난로 앞으로 갔고, 두 사람은 함께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

“오늘 아침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그 내용에 아주 크게 놀랐다. 주로 너에 관한 것이니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구나. 내게 결혼 문턱에 선 딸이 둘이나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 아주 중대한 승리를 거둔 것을 축하한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은 그것이 이모가 아니라 조카에게서 온 편지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들면서 달아올랐다. 그가 어쨌든 자기 뜻을 밝혔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편지가

차라리 자신에게 직접 쓰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 기분이 상해야 할지 그녀는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때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얼굴이 붉어진 걸 보니 짐작 가는 게 있는 모양이구나. 젊은 아가씨들은 이런 일에 눈치가 빠르지. 하지만 네 구혼자의 이름을 맞히기는 아무리 눈치 빠른 너라도 쉽지 않을 게다. 이 편지는 콜린스 씨가 보낸 것이다."

"콜린스 씨에게서 온 편지라고요! 그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러죠?"

"물론 아주 요점에 맞는 내용이지. 편지는 우리 큰딸의 임박한 혼인을 축하하는 말로 시작하더구나. 그 소식은 아무래도 선량하고 수다스러운 루카스 집안 사람들에게서 들은 모양이다. 그가 그 점에 대해 무슨 말을 했는지 읽어 주며 네 조바심을 가지고 놀지는 않으마. 너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다. '이처럼 이 기쁜 일에 대해 콜린스 부인과 저의 진심 어린 축하를 드렸으니, 이제 같은 출처에서 들은 또 다른 일에 대해서도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큰언니가 그 이름을 내려놓은 뒤에는 따님 엘리자베스도 베넷이라는 이름을 오래 지니지는 않으리라 짐작됩니다. 그 운명의 짝으로 선택된 신사는 이 나라에서 가장 명망 높은 인물 가운데 하나로 우러러볼 만합니다.' 리지,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짐작이

가느냐? ‘이 젊은 신사는 사람의 마음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즉 훌륭한 재산과 고귀한 친척과 폭넓은 후원을 특별한 방식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사촌 엘리자베스와 귀하께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 신사의 청혼을 성급하게 받아들였을 때 어떤 해악을 입게 될지 말입니다. 물론 두 분께서는 그 청혼을 곧바로 이용하고 싶어지실 것입니다.’ 리지, 이 신사가 누군지 짐작이 가느냐? 자, 이제 밝혀진다. ‘제가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이모인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이 이 혼사를 우호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다고 짐작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시피 다아시 씨가 바로 그 사람이다! 자, 리지, 내가 너를 놀라게 한 셈이구나. 콜린스 씨든 루카스 집안 사람들이든,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들 말이 거짓임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이름을 고를 수 있었겠느냐? 다아시 씨는 여자를 볼 때 흠을 찾는 것 말고는 눈길도 주지 않는 사람이고, 아마 평생 너를 제대로 쳐다본 적도 없을 거다! 참으로 훌륭하지 않으냐!”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의 농담에 맞장구치려고 애썼지만, 몹시 마지못한 미소를 겨우 짜낼 수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의 재치가 그녀에게 이토록 달갑지 않은 방향으로 향한 적은 없었다.

"재미있지 않니?"

"아, 그럼요. 어서 계속 읽어 주세요."

"'지난밤 영부인께 이 혼사의 가능성을 말씀드렸더니, 영부인께서는 늘 그러시듯 너그러운 겸양으로 그 일에 대한 당신의 심정을 곧장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사촌의 집안에 대한 몇 가지 반대 이유 때문에 영부인께서 그토록 수치스럽다고 하신 혼사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사촌과 그 고귀한 구혼자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정식으로 허락받지 못한 혼인에 성급히 뛰어들지 않도록 이 소식을 사촌에게 가장 빨리 알리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콜린스 씨는 또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사촌 리디아의 슬픈 사건이 그토록 잘 무마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다만 혼인 전에 두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널리 알려진 것만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직분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고, 귀하께서 젊은 부부를 혼인하자마자 댁에 들이셨다는 말을 듣고 놀란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악행을 부추기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롱본의 목사였다면 그것에 아주 강력히 반대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분명 용서하셔야 하지만, 결코 눈앞에 들이시거나 귀하께서 들으시는 데서 그들의 이름이

거론되도록 허락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용서라니! 편지의 나머지는 사랑하는 샬럿의 처지와 어린 올리브 가지를 얻으리라는 기대에 관한 것뿐이다. 그런데 리지, 너는 이 편지가 별로 즐겁지 않은 얼굴이구나. 설마 새침하게 굴면서 하찮은 소문에 기분이 상한 척하지는 않겠지? 우리가 사는 까닭이 이웃에게 웃음거리를 제공하고, 차례가 오면 그들을 비웃는 것 말고 무엇이겠느냐?"

"오, 아주 재미있어요." 엘리자베스가 소리쳤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네요!"

"그래, 바로 그게 우스운 대목이지. 만약 다른 남자 이름이 나왔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다아시 씨는 너한테 전혀 관심이 없고 너는 그를 대놓고 싫어하니, 이렇게 기막히게 터무니없는 거다! 나는 편지 쓰는 일을 몹시 싫어하지만, 콜린스 씨와 편지를 주고받는 일만큼은 무엇을 준다 해도 포기하지 않겠다. 아니, 그의 편지를 읽을 때면 사위의 뻔뻔함과 위선을 내가 아무리 높이 산다 해도 위컴보다 콜린스 씨를 더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리지, 캐서린 영부인이 이 소문에 대해 뭐라고 하셨다더냐? 찾아와서 동의를 거절하셨느냐?"

이 질문에 엘리자베스는 웃음으로만 대답했다. 그 질문이 조금도 의심 없이 던져진 것이었기에 그녀는 아버지가 또 물어도 괴롭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자기 감정을 실제와 다르게 보이게 해야 하는 일이 이토록 난처했던 적이 없었다. 울고 싶은데도 웃어야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다아시 씨의 무관심에 대해 한 말로 그녀에게 더없이 잔인한 상처를 주었다. 그녀로서는 아버지의 그런 통찰력 부족에 놀라거나, 어쩌면 아버지가 너무 적게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너무 많이 상상했던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제58장



휴 톰슨, 제58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엘리자베스는 빙리 씨가 친구에게서 오지 못하겠다는 핑계 편지라도 받지 않을까 반쯤 예상했지만, 빙리 씨는 그런 편지를 받기는커녕 캐서린 영부인이 찾아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 다아시 씨를 데리고 롱본에 나타날 수 있었다. 두 신사는 일찍 도착했다. 베넷 부인이 다아시에게 그의 이모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꺼낼 틈도 없었는데, 엘리자베스는 그 이야기가 나올까 봐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던 참이었다. 그때 제인과 단둘이 있고 싶었던 빙리가 다 같이 산책을 나가자고 제안했다. 모두 찬성했다. 베넷 부인은 산책하는 습관이 없었고, 메리는 틈을 낼 수 없었지만, 나머지 다섯 사람은 함께 길을 나섰다. 그러나 빙리와 제인은 곧 다른 이들이 앞서가도록 두었다. 두 사람은 뒤에 처졌고, 엘리자베스와 키티와 다아시가 서로를 상대하기로 했다. 셋 다 거의 말이 없었다. 키티는 그가 너무 무서워서 말을 걸지 못했고,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절박한 결심을 다지고 있었다. 어쩌면 그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그들은 루카스 집안 쪽으로 걸어갔다. 키티가 마리아를 방문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모두 함께 그 집에 들를 이유가 없다고 여겼으므로, 키티가 자리를 떠나자 이제는 다아시와 단둘이 과감하게 걸어 나갔다. 지금이 바로 결심을 실행할 순간이었다. 그래서 용기가 한창 솟아오르는 동안 그녀는 곧바로 말했다.

"다아시 씨, 저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자고,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할지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있으니까요. 저는 불쌍한 제 동생에게 베풀어 주신 전례 없는 친절에 대해 더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안 뒤로 줄곧, 제가 얼마나 고맙게 여기는지 당신께 꼭 전하고 싶었어요. 만약 다른 가족들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제 감사만 전하는 데 그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정말이지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다아시가 놀란 듯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못 받아들이시면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지도 모를 일을 당신이 들으셨다니 말입니다. 가드너 부인이 그렇게 믿을 만하지 못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 외숙모를 탓하시면 안 돼요. 리디아가 생각 없이 굴어서 당신이 이 일에 관여했다는 걸 제가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 저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를 대신해서, 두 사람을 찾아내려고 그토록 애쓰시고 그토록 많은 굴욕을 참아 내시게 한 그 너그러운 연민에 거듭거듭 감사드려요."

"꼭 제게 감사하시겠다면," 그가 대답했다. "그건 오직 당신 한 사람 몫으로만 해 주십시오. 당신을 행복하게 해 주고 싶다는 바람이 저를 움직인 다른 이유들에 힘을 더했다는 것은 굳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 가족은 제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습니다. 그분들을 무척 존중하지만, 저는 오직 당신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너무 당황스러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의 동반자가 덧붙였다. "당신은 너그러운 분이니 저를 놀리지는 않으시겠지요. 당신의 마음이 아직도 지난 사월과 같다면, 당장 그렇다고 말해 주십시오. 제 애정과 바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한마디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영원히 입을 다물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처지가 보통 이상으로 어색하고 불안하다는 것을 느끼며, 이제 억지로라도 입을 열었다. 그리고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곧바로, 그가 말한 그 시기 이후로 자신의 감정이 그가 지금 하는 확언을 고맙고 기쁘게 받아들일 만큼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그에게 알아듣게 했다. 이 대답이 가져온 행복은 그가 아마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 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을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깊이 사랑에 빠진 남자가 할 법한 만큼 분별 있고 뜨겁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엘리자베스가 그의 눈을 마주볼 수

있었다면, 진심 어린 기쁨의 표정이 그의 얼굴에 얼마나 잘 어울리게 번지는지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바라볼 수는 없었지만 들을 수는 있었고, 그는 자신에게 그녀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감정들을 그녀에게 말했으며, 그 감정들 때문에 그의 애정은 매 순간 더 값진 것이 되어 갔다.

그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른 채 계속 걸었다. 생각하고, 느끼고, 말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다른 무엇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곧 두 사람이 지금의 좋은 이해에 이르게 된 것이 그의 이모인 캐서린 영부인의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부인은 런던을 거쳐 돌아가는 길에 그를 찾아가서, 롱본에 다녀온 일과 그 이유, 엘리자베스와 나눈 대화의 내용을 이야기했다. 영부인은 엘리자베스가 한 말 하나하나를 힘주어 되풀이했는데, 그것이 영부인이 보기에는 그녀의 고집스러움과 뻔뻔함을 특히 드러내는 말이었다. 영부인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엘리자베스가 거절했던 그 약속을 조카에게서 받아 내려는 노력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부인에게는 안타깝게도,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 이야기 덕분에 저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동안 저 자신에게 좀처럼 허락하지 않았던 희망을 말입니다. 저는 당신의 성품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확신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거절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당신은 캐서린 영부인께 그것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을 거라고."

엘리자베스는 얼굴을 붉히며 웃고 대답했다. "네, 제가 얼마나 솔직한 사람인지 당신도 충분히 아시니까, 제가 그럴 수 있었다고 믿으시겠죠. 당신 면전에서 그렇게 지독하게 헐뜯었는데, 당신 친척들 모두에게 헐뜯는 일이라고 해서 제가 망설일 이유가 있었겠어요?"

"당신이 저에 대해 한 말 중에 제가 듣지 않아도 될 말이 어디 있었습니까? 당신의 비난이 근거 없고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었다 해도, 그때 제가 당신에게 한 행동은 가장 엄한 질책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혐오감이 듭니다."

"그날 저녁 일에 누구 책임이 더 큰지를 두고 다투지는 말아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엄격하게 따져 보면 우리 둘 중 누구의 행동도 흠잡을 데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뒤로 우리 둘 다 예의가 좀 나아졌기를 바라요."

"저는 그렇게 쉽게 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제가 한 말, 그 자리에서 보인 제 행동과 태도와 표현들을 떠올리면, 지난 여러 달 동안 그랬듯 지금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괴롭습니다. 당신이 그때 했던 질책, 그렇게 정확했던 그 말은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좀 더 신사다운 태도로 행동했더라면.' 그것이 당신이 한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말이 저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거의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물론 솔직히 말하자면,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이성을 되찾기까지는 한동안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강한 인상을 남기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말이 그런 식으로 느껴지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은 쉽게 믿어져요. 그때 당신은 제가 마땅한 감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청혼했어도 당신이 저를 받아들이게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말씀하실 때의 당신 얼굴 표정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아, 그때 제가 한 말을 되풀이하지 마세요. 그런 기억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도 오래전부터 그 일을 진심으로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고 장담할게요."

다아시는 자신의 편지를 언급했다. "그 편지가," 그가 말했다. "그 편지가 곧 당신이 저를 좀 더 좋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까?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믿으셨습니까?"

그녀는 그 편지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녀가 가졌던 이전의 모든 편견이 얼마나 차츰차츰 걷혀 갔는지를 설명했다.

"제가 쓴 내용이 당신에게 고통을 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없애 버리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앞부분은, 당신이 그걸 다시 읽으실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두렵습니다. 당신이 저를 미워하셔도 당연할 표현들이 기억납니다."

"만약 제 호감을 지키는 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편지는 틀림없이 태워 버리겠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절대 바뀌지 않는 건 아니라고 여길 이유가 우리 둘 다에게 있긴 해도, 그 말씀처럼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기를 바라요."

"그 편지를 쓸 때," 다아시가 대답했다. "저는 제가 완전히 차분하고 냉정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저는 그 편지가 몹시 쓰라린 심정으로 쓰였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편지는 어쩌면 씁쓸함에서 시작됐을지 몰라도,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어요. 끝인사는 너그러움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이제 편지 얘기는 그만해요. 편지를 쓴 사람과 받은 사람의 감정은 이제 그때와 너무 달라졌으니, 편지에 얽힌 불쾌한 일들은 모두 잊어야 해요. 당신도 제 철학을 조금 배우셔야 해요. 과거는 떠올릴 때 즐거움을 주는 것만 생각하세요."

"당신에게 그런 종류의 철학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어요. 당신의 회상에는 비난이 전혀 없어서 거기서 생기는 만족감은 철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나은 것, 곧 무지에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괴로운 기억들이 불쑥불쑥 찾아오는데, 그것은 물리칠 수도 없고 물리쳐서도 안 돼요. 저는 원칙에서는 아니어도 실제로는 평생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저는 무엇이 옳은지는 배웠지만, 성질을 고치는 법은 배우지 못했어요. 좋은 원칙들을 받았지만 자존심과 자만 속에서 그것을 따르도록 방치되었지요. 불행하게도 저는 외아들이었고(오랫동안

외동이었어요), 부모님께 응석받이로 자랐어요. 부모님은 그분들 자신은 선량했지요(특히 아버지는 자애롭고 상냥한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기적이고 오만해지도록 내버려 두시고, 부추기셨고, 거의 가르치다시피 하셨어요. 가족의 테두리 밖의 누구에게도 마음 쓰지 않게 하고,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을 얕보게 하셨고, 적어도 그들의 분별력과 가치를 제 것과 비교해 낮게 생각하고 싶어 하게 만드셨지요. 저는 여덟 살부터 스물여덟 살까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가장 사랑스러운 엘리자베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당신에게 빚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은 제게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더없이 유익한 교훈이었지요. 당신 덕분에 저는 제대로 겸손해졌어요. 저는 제가 받아들여질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당신에게 왔어요. 당신은 기쁨을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여인을 기쁘게 하기에 제 모든 자랑거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제게 보여 주었어요."

"그럼 당신은 제가 당신을 받아들이리라고 스스로 믿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제 허영심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당신이 제 구애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어요."

“제 태도에 잘못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을 속이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다만 제 기분이 종종 저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이후로 당신은 저를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미워하다니요! 처음에는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화는 곧 제대로 된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펨벌리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묻기가 겁이 날 정도예요. 제가 거기 간 것을 탓하셨어요?”

“아니요, 정말로 저는 놀라움밖에 느끼지 않았어요.”

“당신이 저를 아는 체해 주셨을 때 제가 놀란 것만큼 당신이 놀라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양심은 제가 특별한 정중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해 주었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마땅히 받을 만한 것 이상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 목적은,” 다아시가 대답했다. “제가 과거를 원망할 만큼 옹졸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예의를 다해 당신에게 보여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꾸짖음을 제가 새겨들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당신의 용서를 얻고,

당신이 제게 품은 나쁜 생각을 누그러뜨리고 싶었어요. 다른 바람이 얼마나 빨리 끼어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당신을 본 뒤 한 삼십 분쯤 지나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는 조지애나가 그녀와 알게 된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그 교제가 갑자기 끊어져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그녀에게 말해 주었다. 그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교제가 끊어진 원인으로 이어졌고, 그녀는 곧 그가 여관을 떠나기 전에 이미 그녀의 동생을 찾으려고 더비셔에서 그녀를 뒤따라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보였던 근엄함과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 그런 목적이 필연적으로 품게 되는 갈등 말고 다른 어떤 갈등에서도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다시 고마움을 표했지만,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주제여서 더 오래 붙들고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느긋하게 몇 마일을 걸었는데, 너무 바빠서 그렇게 멀리 걸은 줄도 몰랐다. 마침내 시계를 살펴보니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빙리 씨와 제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그들의 일을 화제로 끌어들였다. 다아시는 두 사람의 약혼을 반가워했다. 그의 친구가 그 소식을 가장 먼저 그에게 알려 주었던 것이다.

“당신은 놀라셨는지 꼭 물어봐야겠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저는 떠날 때 이 일이 곧 일어나리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허락을 해 주었다는 거군요. 짐작했어요.” 그는 그 표현에 항의하듯 소리쳤지만, 그녀는 그것이 거의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가 런던으로 떠나기 전날 저녁,” 그가 말했다. “저는 그에게 고백을 하나 했어요. 진작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고백이었지요. 전에 제가 그의 일에 끼어들었던 것을 어리석고 주제넘은 짓으로 만든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는 크게 놀랐어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게다가 저는 그에게, 당신 언니가 그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제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가 그녀에게 품은

애정이 조금도 식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할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엘리자베스는 그가 친구를 자기 뜻대로 이끄는 손쉬운 방식에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이 그에게 제 언니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그녀가 말했다. "그건 당신 스스로 관찰한 것이었어요, 아니면 그저 지난봄 제가 알려 드린 것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그건 전자였어요. 최근에 여기서 그녀를 두 번 방문했을 때 저는 그녀를 면밀히 관찰했고, 그녀의 애정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다고 보증해 주었으니, 그도 곧바로 확신했겠군요."

"그랬어요. 빙리는 아주 꾸밈없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감이 없어서 그처럼 애타는 문제에서 자기 판단에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판단을 믿어 주니 모든 일이 쉬워졌어요. 한 가지는 고백해야 했어요. 그 일 때문에 그는 한동안 화가 났고, 그럴 만도 했어요. 저는 당신 언니가 지난겨울 석 달 동안 런던에 있었다는 사실을 차마 숨길 수

없었어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일부러 그에게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화를 냈어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기로, 그 화는 그가 당신 언니의 마음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고 있는 동안에만 지속되었을 뿐이에요. 이제 그는 저를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엘리자베스는 빙리 씨가 참으로 즐거운 친구였다고, 너무도 쉽게 이끌려서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스스로를 억눌렀다. 다아시가 아직 놀림받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떠올렸고, 그것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이른 때였다. 다아시는 물론 자신의 행복에만은 못 미칠 빙리의 행복을 내다보며 집에 도착할 때까지 대화를 이어 갔다. 현관에서 두 사람은 헤어졌다.

제59장



휴 톰슨, 제59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리지, 어디를 그렇게 걸어갔던 거니?” 엘리자베스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제인이 물었고, 모두가 식탁에 앉았을 때에는 다른 식구들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엘리자베스는 그저 길을 헤매다 보니 어디쯤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멀리 가 버렸다고 대답하면 그만이었다. 말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다. 그러나 그 기색이든 다른 무엇이든 진실을 짐작하게 하는 것은 없었다.

저녁은 별다른 일 없이 조용히 흘러갔다. 이미 공인된 연인들은 이야기하며 웃었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연인들은 말이 없었다. 다아시는 행복하면 웃음이 넘쳐흐르는 성격이 아니었다. 엘리자베스는 마음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워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기보다는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당장 닥친 난처함 말고도 앞에 놓인 걱정거리가 더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처지가 알려지면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녀는 미리 짐작하고 있었다. 제인을 빼면 아무도 다아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게다가 다른 식구들이 품고 있는 반감은 다아시의 재산과 지위로도 풀리지 않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있었다.

밤에 엘리자베스는 제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제인은 의심하는 성격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농담하는 거지, 리지. 그럴 리가 없어! 다아시 씨와 약혼이라니! 안 돼, 날 속일 생각 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아."

"시작부터 정말 좋지 않구나! 나는 오직 언니만 믿었어. 언니가 믿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도 나를 믿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정말이야, 진심이야. 한마디도 거짓이 없어. 그 사람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우리는 약혼했어."

제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 리지! 그럴 리 없어. 네가 그 사람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내가 알아."

"언니는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그건 다 잊어버려야 해. 어쩌면 내가 지금만큼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기억이 좋은 것이 오히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 나도 그 일을 떠올리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베넷 양은 여전히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엘리자베스는 이번에는 더 진지하게, 그것이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맙소사! 정말 그런 거야? 하지만 이제 너를 믿어야겠구나." 제인이 외쳤다.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리지, 축하해, 정말 축하해. 그런데 묻는 걸 용서해 줘. 정말로 그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자신이 있는 거니?"

"물론 그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어. 그런데 언니, 언니는 기뻐? 그런 제부가 생기는 게 좋아?"

"아주, 아주 기뻐. 빙리 씨나 나에게나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런데 너는 정말로 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니? 오, 리지! 사랑 없이 결혼하느니 차라리 무엇이든 다른 걸 해. 너는 정말로 네가 느껴야 할 만큼 느끼고 있는 게 확실하니?"

"오, 그래! 내가 전부 말하고 나면 언니는 내가 느껴야 할 것보다 더 많이 느낀다고 생각할 거야."

"무슨 뜻이야?"

"글쎄, 솔직히 말하면 나는 빙리 씨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어. 언니가 화낼까 봐 걱정이야."

"사랑하는 내 동생아, 이제 진지해져 줘, 진지하게. 나는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지체하지 말고 알려 줘. 언제부터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 말해 줄래?"

"그건 너무 천천히 자라서, 언제 시작됐는지 나도 거의 모르겠어. 하지만 펨벌리에 있는 그의 아름다운 정원을 처음 봤던 때부터라고 봐야 할 것 같아."

그래도 진지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하자, 바라던 효과가 나타났다. 엘리자베스가 엄숙하게 애정을 확언하자 제인은 곧 안심했다. 그 일에 대해 확신하고 나자 베넷 양은 더 바랄 것이 없었다.

"이제 나는 아주 행복해." 제인이 말했다. "너도 나만큼 행복해질 테니까. 나는 늘 그 사람을 높이 평가했어. 다른 이유 없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그 사람을 늘 존경했을 거야. 하지만 이제 빙리 씨의 친구이자 네 남편이 될 사람이니, 나에게 그 사람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빙리 씨와 너뿐이야. 그런데 리지, 너는 나한테 참 능청스럽게 굴었어, 아주 속을 드러내지 않았지. 펨벌리와 램턴에서 있었던 일을 나한테 얼마나 적게 말해 줬는지 몰라! 내가 그 일에 대해 아는 것은 전부 너 아닌 다른 사람 덕분이야."

엘리자베스는 제인에게 자신이 입을 다물었던 이유를 말했다. 빙리 이야기는 꺼내기가 싫었고, 자신의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탓에 그의 친구 이야기도 피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다아시가 리디아의 결혼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더는 숨기지 않겠다고 했다. 엘리자베스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두 자매는 밤의 절반을 이야기로 보냈다.

"세상에!" 다음 날 아침 창가에 서 있던 베넷 부인이 외쳤다. "그 얄미운 다아시 씨가 우리 귀한 빙리 씨와 함께 또 여기 오고 있네! 왜 그렇게 귀찮게 자꾸 여기로 오는 거지? 나는 그가 사냥이나 뭐 그런 걸 하러 가고, 여기 와서 우리를 성가시게 하지는 않을 줄 알았다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지? 리지, 빙리 씨한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네가 또 그와 함께 산책을 해야겠다."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편리한 제안에 웃음을 참기 어려웠다.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그를 늘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 정말로 못마땅했다.

그들이 들어서자 빙리는 그녀를 아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고, 아주 따뜻하게 악수를 청했다. 그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곧이어 큰 소리로 말했다. "베넷 부인, 이 근처에 리지가 오늘 또 길을 잃을 만한 골목길은 더 없습니까?"

"저는 다아시 씨와 리지, 그리고 키티가 오늘 아침 오크햄 언덕까지 걸어가라고 권하고 싶어요." 베넷 부인이 말했다. "제법 멀어서 걷기 좋은 길이에요. 다아시 씨는 아직 그 경치를 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요." 빙리 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키티한테는 너무 힘들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키티?"

키티는 집에 있는 편이 낫겠다고 털어놓았다. 다아시는 오크햄 언덕에서 보는 경치가 몹시 궁금하다고 했고,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동의했다. 그녀가 채비를 하러 위층으로 올라가자 베넷 부인이 따라오며 말했다.

"나는 네가 그 얄미운 남자를 혼자 맡아야 한다니 정말 미안하구나, 리지. 하지만 너무 괘념치 않았으면 좋겠다. 다 제인을 위해서잖니. 그리고 가끔씩 말을 붙이는 것 말고는 그와 이야기할 필요도 없으니, 너무 불편해하지는 말거라."

산책하는 동안 저녁 무렵에 베넷 씨에게 결혼 승낙을 청하기로 정해졌다.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하는 일은 엘리자베스가 맡기로 했다. 어머니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었다. 다아시의 막대한 재산과 높은 지위가 어머니의 혐오를 누그러뜨릴 만큼 충분할지

엘리자베스는 때때로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 혼사를 격렬하게 반대하든 격렬하게 기뻐하든, 어느 쪽이든 어머니가 분별 있어 보이지 못하리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가 처음 터뜨릴 격렬한 반대는 물론이고, 처음 터뜨릴 기쁨의 탄성도 다아시가 듣게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저녁이 되어 베넷 씨가 서재로 물러난 직후,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씨도 일어나 그를 따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자 그녀의 동요는 극심해졌다. 아버지의 반대는 두렵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불행해지실 참이었고, 그것도 자신 때문이라는 것이 문제였다.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자식인 자신이 자기 선택으로 아버지를 괴롭히고, 자신을 시집보내는 일로 아버지에게 두려움과 후회를 안겨 드린다는 생각은 비참했다. 그녀는 다아시 씨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괴로움 속에 앉아 있었고, 그를 바라보자 그의 미소에 조금 안도가 되었다. 몇 분 뒤 그는 엘리자베스가 키티와 함께 앉아 있는 탁자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수예품에 감탄하는 척하면서, 속삭이듯 말했다. “아버지께 가 보세요. 서재에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그녀는 곧바로 자리를 떴다.

아버지는 근엄하고 불안한 얼굴로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리지야," 그가 말했다. "너 지금 뭘 하는 거냐? 이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다니 제정신이냐? 너는 늘 그를 미워하지 않았더냐?"

그때 그녀는 예전에 품었던 생각이 좀 더 합리적이었더라면, 말이 좀 더 온건했더라면 하고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모른다. 그랬다면 설명하고 고백하기가 몹시 어색한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필요했고, 그녀는 다소 당황한 채로 아버지에게 다아시 씨를 향한 자신의 애정을 분명히 말씀드렸다.

"다시 말해, 너는 그 남자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로구나. 그가 부자인 건 분명하니, 제인보다 더 좋은 옷과 더 좋은 마차를 가질 수 있겠지.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를 행복하게 해 줄 것 같으냐?"

"그 밖에 반대하실 이유가 있으세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말고요?"

"아무 이유도 없다. 그 남자가 거만하고 불쾌한 사람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지. 하지만 네가 정말 좋아한다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정말로, 정말로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대답했다. "사랑해요. 정말이지 그 사람에게는 부당한 오만 같은 건 없어요. 그는 더없이 상냥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모르세요. 그러니 제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리지,"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승낙을 했다. 사실 그 사람은 황송하게도 무언가를 청해 오면 내가 감히 거절할 엄두도 못 낼 그런 사람이지. 네가 정말 그와 결혼할 작정이라면 이제 너에게도 승낙한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충고하고 싶구나. 나는 네 성품을 안다, 리지. 네가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를 자신보다 높이 우러르지 않는다면, 너는 행복할 수도 없고 존중받으며 살 수도 없을 게다. 네 발랄한 재주 때문에 너는 불평등한 결혼에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할 게다. 너는 불명예와 불행을 피하기 어려울 게다. 내 아이야, 네가 인생의 동반자를 존경할 수 없게 되는 모습을 보는 슬픔을 나에게 겪게 하지 말아라. 너는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구나."

엘리자베스는 더욱 감동한 채, 진지하고 엄숙하게 대답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다아시 씨가 정말로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거듭 확언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점차 바뀌어 온 과정을 설명하고, 그의 사랑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 달 동안의 불확실한 시간을 견뎌 낸 것이라는 확신을 전하며, 그의 모든 좋은 점을 힘주어 열거했다. 그렇게 하여 그녀는 아버지의 불신을 끝내 이겨 냈고, 아버지가 이 결혼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했다.

"그래, 얘야," 딸의 말이 끝나자 그가 말했다. "더는 할 말이 없구나. 사실이 그렇다면 그는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다. 우리 리지, 내가 너를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보낼 수는 없었을 게다."

그 좋은 인상을 완전하게 하려고, 그녀는 이어서 다아시 씨가 리디아를 위해 자발적으로 해 준 일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놀란 얼굴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

"이거 참 놀라운 저녁이로구나! 그러니까 다아시가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지. 혼사를 성사시키고, 돈을 내고, 그 녀석의 빚을 갚고, 임관까지 시켜 줬다니! 잘됐구나. 그러면 나는 골치 아프게 돈을 마련하고 아껴 쓸 일이 줄어들겠다. 만약 너희 외삼촌이 한 일이었다면 나는 반드시 갚아야 했고 또 갚았을 게다. 하지만 이렇게 성급한 젊은 연인들은 모든 걸 제멋대로 해 버리거든. 내일 그 사람에게 돈을 갚겠다고 해야겠다. 그러면 그는 너를 향한 사랑이 어떻다느니 하며 펄펄 뛰고 화를 내겠지. 그러면 이 일도 그걸로 끝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며칠 전 콜린스 씨의 편지를 읽을 때 그녀가 당황했던 모습을 떠올렸다. 한동안 그녀를 놀리다가 마침내 보내 주었다. 그녀가 방을 나서려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혹시 메리나 키티를 찾아오는 젊은 남자가 있거든 들여보내거라. 나는 지금 아주 한가하니까."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이제 아주 무거운 짐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자기 방에서 삼십 분쯤 조용히 생각에 잠긴 뒤에야 다른 사람들과 어느 정도 침착한 얼굴로 어울릴 수 있었다. 모든 일이 너무 막 일어난 터라 즐거워할 기분은 아니었지만, 저녁은 조용히 흘러갔다. 이제 더는 두려워할 실질적인 일이 없었고, 편안함과 익숙함이 주는 위안은 시간이 지나면 찾아올 것이었다.

밤에 어머니가 몸단장하는 방으로 올라가자 엘리자베스는 뒤따라가서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그 효과는 참으로 놀라웠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넷 부인은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고,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자신이 들은 말을 이해하기까지는 한참, 아주 한참이 걸렸다. 평소에는 가족에게 이로운 일이나 딸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구혼자의 모습으로 찾아온 일이라면 선뜻 믿는 편이었는데도

말이다. 마침내 그녀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의자에서 몸을 들썩이고, 일어났다가 다시 앉고, 어안이 벙벙해하다가 연신 하느님을 찾았다.

"세상에! 맙소사! 생각만 해도! 세상에나! 다아시 씨라니!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 정말 사실이야? 아, 내 귀여운 리지야! 얼마나 부자가 되고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될지! 용돈이며, 보석이며, 마차며, 네가 다 갖게 되겠구나! 제인의 것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고말고. 나는 정말 기쁘다. 너무나 행복해. 그렇게 매력적인 남자라니!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키도 크고! 아, 내 사랑하는 리지야! 내가 전에 그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던 걸 제발 용서해 달라고 말해 주렴. 그 사람이 눈감아 주었으면 좋겠구나. 사랑하는 리지야. 시내에 집이라니! 모든 것이 다 근사해! 딸 셋이 시집을 가다니! 일 년에 만 파운드! 아이고, 세상에! 나는 어떻게 될까? 정신이 나갈 것만 같구나."

이것만으로도 어머니의 찬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쏟아지는 말을 자기 혼자만 들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곧 자리를 떴다. 그러나 자기 방에 들어간 지 삼 분도 되지 않아 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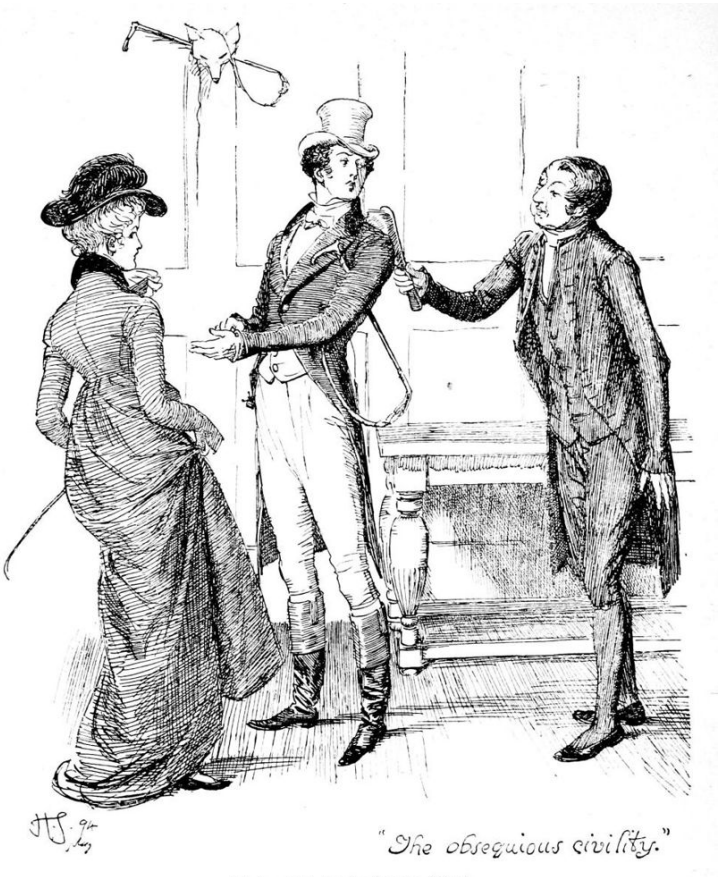
"아이고, 내 사랑하는 딸아," 그녀가 외쳤다. "난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구나. 일 년에 만 파운드,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 그건 귀족과 다름없지! 그리고 특별 혼인 허가증을 받아야겠다. 너는 꼭 특별 혼인 허가증으로 결혼해야 해.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가, 다아시 씨가 특히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말해 다오. 내일 그걸 준비해야겠으니."

이것이 어머니가 그 신사 본인에게 보일 행동의 불길한 전조였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 씨의 가장 따뜻한 애정을 확실히 얻었고 가족의 동의도 확실히 받았지만, 여전히 바라는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다음 날은 그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무사히 지나갔다. 베넷 부인은 다행히도 장차 사위가 될 사람을 몹시 어려워해서, 그에게 무언가 배려를 베풀 수 있거나 그의 의견에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히 말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아버지가 그와 친해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흐뭇했다. 베넷 씨는 머지않아 그에 대한 존중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그녀에게 장담했다.

"나는 사위 셋을 모두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 그가 말했다. "위컴이 아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위일 거다. 하지만 네 남편도 제인의 남편만큼이나 좋아하게 될 것 같구나."

제60장



휴 톰슨, 제60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엘리자베스의 기분은 곧 다시 장난기를 띠며 살아났고, 그녀는 다아시 씨에게 어쩌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다.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일단 시작하고 나서 그렇게 멋지게 이어 가신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무엇이 당신을 움직였나요?"

"언제, 어느 자리에서, 어떤 눈빛이나 어떤 말이 그 토대를 놓았는지는 짚어 낼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요. 내가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한가운데에 와 있었어요."

"내 미모는 처음부터 잘 버텨 내셨죠. 그리고 내 태도로 말하자면, 당신에게 한 내 행동은 적어도 늘 무례한 쪽에 가까웠고, 나는 당신에게 말을 걸 때마다 상처를 주지 않으려 하기보다 오히려 주고 싶어 했어요. 자, 솔직히 말해 봐요. 내 건방진 태도에 반한 거예요?"

"당신의 생기 넘치는 마음에 반한 거예요."

"차라리 건방지다고 하시지요. 거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으니까요. 사실 당신은 공손함과 존중, 지나치게 살갑게 구는 관심에 질려 있었어요. 늘 당신의 호감을 얻으려고 말하고, 쳐다보고, 생각하는 여자들에게 넌더리가 났던 거죠.

나는 그들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흥미를 끌었던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상냥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때문에 나를 미워했겠죠. 하지만 자신을 감추려고 애쓰는 와중에도 당신의 감정은 언제나 고결하고 올발랐고, 속으로는 자기에게 그토록 열심히 구애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경멸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설명하는 수고는 덜어 드렸네요. 사실 모든 걸 따져 보니 완전히 합리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물론 당신은 나에 대해 실제로 좋은 점을 아는 건 하나도 없지만요. 하지만 사람들은 사랑에 빠질 때 그런 건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제인이 네더필드에서 아팠을 때 그녀를 살뜰히 보살핀 행동 속에도 좋은 점은 없었나요?"

"사랑하는 제인! 언니한테 그 정도도 안 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걸 미덕으로 쳐 주시겠다면 얼마든지 그러세요. 내 좋은 점들은 당신이 맡아 주고, 되도록 크게 부풀려 말해야 해요. 그 대신 나는 당신을 가능한 한 자주 놀리고 다툴 구실을 찾아야 하니, 바로 시작하겠어요. 마지막에 왜 그렇게 본론을 꺼내길 망설이셨죠? 처음 찾아왔을 때, 그다음에 여기서 저녁을 드셨을 때 왜 나를 그렇게 어려워했어요? 특히 찾아왔을 때는 왜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죠?"

“당신이 진지한 얼굴로 말이 없었고, 나한테 조금도 희망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당황해서 그랬던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저녁 먹으러 왔을 때 나한테 좀 더 말을 걸어 주셨어야죠.”

“감정을 덜 느낀 사람이라면 그랬을지도 모르지요.”

“운도 없지, 당신이 그럴듯한 대답을 할 수 있고, 나 역시 그걸 인정할 만큼 합리적이라니! 그런데 내버려 두었다면 당신은 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있었을까요? 내가 묻지 않았다면 언제 말을 꺼냈을까요? 리디아에게 베푸신 친절에 감사 인사를 드리려던 내 결심은 확실히 큰 효과가 있었어요. 아마 너무 컸나 봐요. 우리 행복이 약속을 어긴 데서 생겨난 거라면 교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래 나는 그 얘기를 꺼내면 안 됐잖아요. 이건 안 되겠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교훈은 완전히 공정할 거예요. 캐서린 영부인이 우리를 떼어 놓으려고 한 터무니없는 시도가 오히려 내 모든 의심을 걷어 주었거든요. 지금의 행복은 당신이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한 열의에 빚진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말을 꺼내기를 기다릴 기분이 아니었어요. 이모님이 전해 주신 소식에 희망이 생겼고, 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알아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캐서린 영부인이 아주 크게 도움이 되었으니, 그분도 기쁘셔야겠어요. 남을 돕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말해 봐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네더필드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그저 롱본까지 말을 타고 와서 당황하려고 온 거예요? 아니면 더 중대한 결과를 생각하고 온 거예요?"

"내 진짜 목적은 당신을 만나 보는 것이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 보고 싶었어요. 내가 겉으로 내세운 목적, 혹은 내가 스스로에게 인정한 목적은 당신 언니가 아직도 빙리에게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 뒤에 실제로 했던 그 고백을 그에게 하려고 했고요."

"캐서린 영부인께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알릴 용기는 낼 수 있겠어요?"

"나는 용기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하지만 해야 할 일이니까요. 종이를 한 장 주시면 바로 쓰겠어요."

"내가 직접 써야 할 편지만 없다면, 옆에 앉아서 다른 어떤 아가씨가 했던 것처럼 당신 글씨가 얼마나 고른지 감탄하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나한테도 더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외숙모가 계시니까요."

다아시 씨와의 친분이 얼마나 과대평가되었는지 인정하기 싫어서, 엘리자베스는 아직 가드너 부인의 긴 편지에 답장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외숙모가 무척 반가워하리라 알고 있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자, 외삼촌과 외숙모가 이미 사흘이나 행복을 잃고 지냈다는 사실에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외숙모님, 길고 다정하고 흡족할 만큼 자세히 전해 주신 소식에 진작 감사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무 짜증이 나서 편지를 쓸 수가 없었어요. 외숙모님은 실제보다 더 많이 짐작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마음대로 짐작해 보세요. 상상력을 마음껏 풀어놓고, 이 주제가 허락하는 온갖 공상을 즐기세요. 제가 정말로 결혼했다고 믿지만 않는다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곧 다시 편지를 주셔야 해요. 지난번 편지에서보다 그 사람을 훨씬 더 많이 칭찬해 주세요. 호수 지방에 가지 않으셔서 거듭 고마워요. 제가 그걸 바랐다니, 얼마나

어리석었을까요! 조랑말 생각은 정말 좋아요. 매일 정원을 한 바퀴씩 돌기로 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마 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테지만, 이처럼 정당한 이유로 말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제인보다도 더 행복해요. 제인은 미소만 짓지만 저는 웃음을 터뜨리거든요. 다아시 씨가 저한테 주고 남는 사랑을 몽땅 외숙모님께 보낸대요. 크리스마스에는 모두 펨벌리에 오셔야 해요. 그럼, 이만."

다아시 씨가 캐서린 영부인에게 보낸 편지는 또 다른 문체였고, 그 어느 쪽과도 달랐던 것은 베넷 씨가 지난번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콜린스 씨에게 보낸 편지였다.

"친애하는 귀하,

"번거롭겠지만 다시 한 번 축하를 부탁해야겠소. 엘리자베스가 곧 다아시 씨의 아내가 될 것이오. 캐서린 영부인을 할 수 있는 한 위로해 드리시오. 그러나 내가 당신이라면 조카 편에 서겠소. 그에게는 줄 것이 더 많으니 말이오.

"진심을 담아," 등등.

빙리 양이 오빠의 다가오는 결혼을 축하하는 말은 모두 다정해 보였지만 진심이 없었다. 그녀는 이 기회에 제인에게도 편지를 써서 기쁨을 표하고, 예전에 했던 호의의 말을 되풀이했다. 제인은 속지 않았지만 마음이 움직였고, 그녀를 믿지는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훨씬 다정한 답장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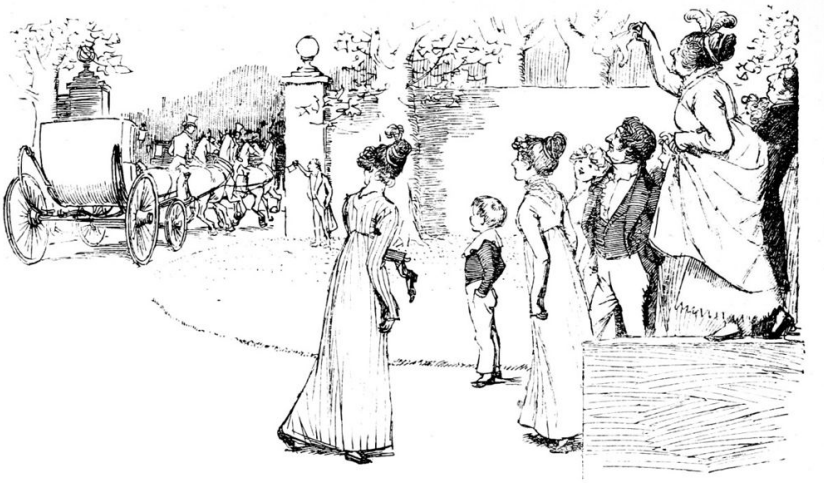
다아시 양이 같은 소식을 듣고 드러낸 기쁨은 그 소식을 전한 오빠의 마음만큼이나 진실했다. 편지지 네 쪽으로도 그녀의 모든 기쁨과, 언니에게 사랑받고 싶은 간절한 바람을 다 담을 수가 없었다.

콜린스 씨에게서 어떤 답장이 도착하기도 전이었고, 그의 아내가 엘리자베스에게 축하 인사를 보내기 전이었는데, 롱본 가족은 콜린스 부부가 직접 루카스 저택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갑자기 거처를 옮긴 이유는 곧 분명해졌다. 조카의 편지 내용 때문에 캐서린 영부인이 몹시 격노했고, 샬럿은 이 혼사를 정말로 기뻐했기에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자리를 피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이런 때에 친구가 온 것은 엘리자베스에게 진심으로 반가운 일이었다. 다만 그녀는 만남이 이어지면서, 콜린스 씨가 다아시 씨에게 요란하고 굽실거리는 예의를 떠벌리는 것을 볼 때면 그 기쁨을 얻느라 비싼 값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아시 씨는 놀라울 만큼 침착하게 그것을 견뎠다. 윌리엄 루카스 경이 이 고장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을 데려가게 되었다며 그를 치하하고,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 모두 자주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할 때도, 그는 제법 점잖은 태도로 들어 넘겼다. 설령 어깨를 으쓱했다 해도, 그건 윌리엄 경이 보이지 않게 된 뒤였다.

필립스 부인의 천박함은 그의 너그러움을 또 한 번, 어쩌면 더 크게 시험하는 것이었다. 필립스 부인은 동생과 마찬가지로 그를 너무 어려워해서, 빙리의 쾌활함이 부추긴 허물없는 말투로는 말하지 못했다. 그래도 입을 열 때면 그녀는 반드시 천박했다. 그를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말수가 줄기는 했어도, 그것이 말투를 더 우아하게 만들 리는 전혀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두 사람의 잦은 눈길로부터 그를 지키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고, 늘 그를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으며, 그가 창피를 당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가족들과만 함께 있게 하려고 애썼다. 이 모든 것에서 비롯된 불편한 감정이 구애의 시기에서 즐거움을 많이 앗아 갔지만, 그것은 장래에 대한 희망을 더해 주기도 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와 다아시 둘 다에게 그다지 즐겁지 못한 이 사람들 틈에서 벗어나, 펨벌리에서 가족끼리 모여 누리게 될 온갖 편안함과 우아함을 기대하며 그날을 기쁘게 바라보았다.

제61장



휴 톰슨, 제61장 첫머리 그림(1894년 판)

어머니로서 베넷 부인의 마음이 더없이 흐뭇했던 날은 그녀가 가장 훌륭한 두 딸을 치워 버린 날이었다. 그 뒤 베넷 부인이 빙리 부인을 찾아가 다아시 부인 이야기를 하며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워했을지는 짐작할 만하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딸 여럿을 결혼시키겠다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진 덕분에 베넷 부인이 여생 내내 분별 있고 상냥하고 교양 있는 여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남편에게는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처럼

색다른 모양의 가정의 행복이라면 그가 달가워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베넷 부인은 여전히 이따금 신경이 예민했고 언제나 어리석었기 때문이다.

베넷 씨는 둘째 딸이 없어진 것을 몹시 아쉬워했다. 그 딸을 아끼는 마음만큼 그를 자주 집 밖으로 끌어낸 것은 달리 없었다. 그는 펨벌리에 가는 것을 즐겼고, 특히 사람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그곳에 가곤 했다.

빙리 씨와 제인은 네더필드에 겨우 일 년 머물렀다. 어머니와 메리턴의 친척들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은 느긋한 성품의 그에게도, 다정한 제인의 마음에도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러자 빙리 누이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는 더비셔와 이웃한 다른 주에 영지를 샀고,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다른 모든 행복의 원천에 더해 서로 삼십 마일 이내에 살게 되었다.

키티는 대부분의 시간을 두 언니와 함께 보냈는데, 이것이 키티에게는 아주 큰 득이 되었다. 그때까지 어울리던 이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 속에서 지내며 키티는 몰라보게 나아졌다. 키티는 리디아만큼 다루기 힘든 성품은 아니었고, 리디아의 본보기 영향에서 벗어나 적절한 관심과 지도를 받자 덜 짜증 내고, 덜 무지하고, 덜 밋밋한 아이가 되었다. 물론 키티가 리디아와 어울려 더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떼어 놓았다. 위컴 부인이 무도회와 젊은 남자들을 약속하며 자주 와서 머물라고 초대했지만, 아버지는 키티가 가는 것을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메리는 집에 남은 유일한 딸이었다. 베넷 부인이 혼자 앉아 있지 못했기 때문에 메리는 필연적으로 교양을 쌓는 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메리는 세상과 더 자주 어울려야 했지만, 아침마다 찾아오는 방문객을 두고 여전히 훈계를 늘어놓을 수 있었다. 언니들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아름다움을 비교하며 더 이상 굴욕을 느끼지 않게 되자, 메리가 이 변화를 그리 싫어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리라고 아버지는 짐작했다.

위컴과 리디아로 말하면, 언니들의 결혼으로 그들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지는 않았다. 엘리자베스가 전에는 몰랐던 그의 배은망덕함과 거짓됨을 이제 모두 알게 되리라는 것을 위컴은 담담히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아시가 설득에 넘어가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 엘리자베스가 결혼했을 때 리디아에게서 받은 축하 편지는, 적어도 그의 아내만큼은, 설령 그 자신은 아니더라도 그런 희망을 품고 있음을 그녀에게 알려 주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나의 사랑스러운 리지,

"축하해. 내가 우리 위컴을 사랑하는 것의 절반만큼만 언니가 다아시 씨를 사랑해도, 언니는 정말 행복할 거야. 언니가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니 큰 위안이 돼. 할 일이 없을 때 우리를 생각해 주면 좋겠어. 위컴은 궁정에서 일자리를 얻고 싶어 할 게 분명해. 그리고 도움 없이는 우리가 먹고살 돈이 넉넉하지 않을 것 같아. 일 년에 삼사백 파운드 정도 되는 자리라면 어떤 자리라도 괜찮아. 하지만 언니가 내키지 않으면 다아시 씨에게는 그 얘기를 하지 마.

"언니의 동생이," 등등.

마침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에게 그런 말을 꺼내는 것이 몹시 내키지 않았으므로, 답장에서 그런 종류의 간청과 기대를 모두 끊으려고 애썼다. 그렇지만 자신의 사적인 씀씀이에서 절약이라고 할 만한 것을 실천해 할 수 있는 만큼의 도움은 자주 보내 주었다. 그들의 수입은 바라는 것이 사치스럽고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 두 사람의 손에서 운용되는 만큼 생활을 꾸려 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늘 분명했다. 그래서 그들이 거처를 옮길 때마다 제인이나 엘리자베스 가운데 하나에게 청구서를 갚는 데 쓸 작은 도움을 부탁해 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었다. 전쟁이 끝나 그들이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생활은 극도로 불안정했다. 값싼 거처를 찾아 늘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고, 늘 형편보다

더 많이 썼다. 리디아에 대한 위컴의 애정은 곧 무관심으로 식었고, 리디아의 애정은 조금 더 오래갔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고 태도가 경솔했음에도 리디아는 결혼으로 얻은 체면을 내세울 자격은 고스란히 지니고 있었다. 다아시는 펨벌리에 위컴을 결코 들이지 않았지만, 엘리자베스를 생각해서 위컴의 직업에 대해서는 계속 도와주었다. 위컴이 런던이나 바스에서 즐기러 떠나 있을 때면 리디아는 가끔 펨벌리에 찾아왔다. 빙리 부부의 집에도 두 사람은 자주 찾아가 머물렀는데, 어찌나 오래 머물렀던지 그 너그러운 빙리 씨마저 참다못해 이제 그만 떠나 달라는 뜻을 넌지시 비치겠다는 말까지 꺼낼 정도였다.

빙리 양은 다아시의 결혼에 몹시 굴욕을 느꼈다. 그러나 펨벌리를 방문할 권리를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기에 원망을 모두 거두었다. 그녀는 조지애나를 전보다 더 아꼈고, 다아시에게도 전과 거의 다름없이 친절했으며, 엘리자베스에게 그동안 밀린 예의를 모두 갚았다.

펨벌리는 이제 조지애나의 집이었다. 새로 자매가 된 두 사람 사이의 애정은 다아시가 바라던 바로 그것이었다. 두 사람은 마음먹었던 만큼 서로를 아낄 수 있었다. 조지애나는 엘리자베스를 세상에서 가장 높이 평가했다. 다만 처음에는 엘리자베스가 오빠에게 생기 넘치고 장난스럽게 말하는 것을

들으며 겁이 날 만큼 깜짝 놀라곤 했다. 언제나 조지애나 자신에게 애정을 거의 압도할 만큼의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던 오빠가 이제는 대놓고 농담의 대상이 되는 것을 그녀는 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그전까지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한 지식을 받아들였다. 엘리자베스의 가르침을 통해 그녀는 아내가 남편에게 허락받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그 자유는 열 살 넘게 어린 여동생에게는 오빠가 늘 허락하지는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캐서린 영부인은 조카의 결혼에 몹시 분개했다. 그녀는 자신의 솔직한 성격을 모두 드러내며 결혼 소식을 알리는 편지에 답했는데, 그 답장에 담은 말이 얼마나 험했던지, 특히 엘리자베스를 욕하는 대목이 심해서 한동안 모든 왕래가 끊어졌다. 그러나 결국 엘리자베스의 설득으로 다아시는 그 모욕을 눈감아 주고 화해를 청하게 되었다. 이모는 조금 더 버티다가, 조카에 대한 애정이나 그의 아내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보고 싶은 호기심에 밀려 원망을 거두었다. 그리하여 펨벌리의 숲이 그런 안주인을 맞아 더럽혀진 데다, 런던 시내에 사는 엘리자베스의 외삼촌과 외숙모가 드나들기까지 했으나, 영부인은 그 오염을 감수하고 몸을 낮추어 그들을 찾아가 주었다.

다아시 부부는 가드너 부부와 언제나 가장 친밀하게 지냈다. 다아시도 엘리자베스만큼이나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두 사람은 엘리자베스를 더비셔로 데려와 자신들을 맺어 준 그 사람들에게 늘 가장 따뜻한 고마움을 느꼈다.

번역과 검수 안내

번역 대상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1813) 영어 원문입니다. 1813년 초판은 세 권으로 나뉘어 장 번호를 권마다 새로 매겼지만, 이 번역은 1894년 판처럼 1장부터 61장까지 이어 매기고 권 구분만 표시했습니다.

초벌 번역은 Claude Haiku 5.5가 문단마다 만들고, Claude Opus 5.5가 전61장 2,060문단을 영어 원문과 모두 대조해 오역·누락·화자·인물 말투·문체를 고쳤습니다(고친 곳 2,219곳). 이어서 장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으며 말투·문장을 한 번 더 다듬었습니다(고친 곳 674곳). 대사의 높임말은 인물 관계에 맞춰 한 가지로 맞췄습니다. AI 검수는 전문가 교열이나 의미 정확성의 보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출처와 이용 조건

Jane Austen, Pride and Prejudice, 1813. 전자 텍스트: Project Gutenberg #1342 (1894년 George Allen 판, 퍼블릭 도메인).

장마다 실은 그림은 같은 1894년 판에 실린 휴 톰슨(1860~1920)의 펜화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그림 속 영어 글씨는 원화에 쓰인 것입니다.

그림 출처

모든 그림: Hugh Thomson, Pride and Prejudice (George Allen, 1894) — Project Gutenberg #1342, 퍼블릭 도메인. 원화 파일: i_031.jpg, i_038.jpg, i_041.jpg, i_047_a.jpg, i_053.jpg, i_060.jpg, i_069.jpg, i_074_a.jpg,

i_082_a.jpg, i_096.jpg, i_098_a.jpg, i_104_a.jpg, i_107_a.jpg, i_116.jpg, i_118_a.jpg, i_126.jpg, i_137_a.jpg, i_147.jpg, i_161_a.jpg, i_172.jpg, i_177.jpg, i_185.jpg, i_195.jpg, i_197_a.jpg, i_206.jpg, i_210_a.jpg, i_218_a.jpg, i_227.jpg, i_229_a.jpg, i_240.jpg, i_244_a.jpg, i_254.jpg, i_257_a.jpg, i_264_a.jpg, i_272_a.jpg, i_285.jpg, i_292.jpg, i_299.jpg, i_301_a.jpg, i_312.jpg, i_319.jpg, i_323_a.jpg, i_330_a.jpg, i_350.jpg, i_356_a.jpg, i_368.jpg, i_374_a.jpg, i_392.jpg, i_399.jpg, i_406_a.jpg, i_414_a.jpg, i_422_a.jpg, i_433_a.jpg, i_449.jpg, i_451_a.jpg, i_463.jpg, i_471_a.jpg, i_477_a.jpg, i_486_a.jpg, i_495_a.jpg, i_501_a.jpg.